國語學叢書 2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鄭承喆 著

國語學會

한 영 교 선생님께

筆者 올림

머리말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제주도 제주시 '오드싱(梧登洞)' 집에서 보냈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마당에 '페와 논 펭상(펴 놓은 평상)' 위에서 '수박이영 촘메영 먹으멍(수박이랑 참외랑 먹으면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가 서로 "ᄀ만이 십서 나도 ᄒ끔 ᄀ게.(가만히 있어요 나도 좀 말하게.)" 하며 경쟁적으로 불러주시는 몇십 개의 사투리와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를 조그만 수첩에 소리나는 대로(?) '촉촉' 받아 적어, 개학 후에 그 수첩을 국어 선생님께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 나의 첫 方言調査였던 셈이다.

方言音韻論을 전공으로 하면서 제주방언은 언제나 筆者의 머리 속에 있었다. "영헌거 썰 수 잇어?(이러한 것을 쓸 수 있어?)" 하며 'ᆢ[jɐ]' 모음을 가진 단어를 제시하던 提報者들. 方言史의 再構에 관심을 가진 筆者의 調査 意圖를 알아챈 후 "옛날엔 그 말도 썻어.(옛날에는 그 말도 썼어.)", "서춘드레 가민 이 말도 쓥주.(서쪽 마을에 가면 이 말도 쓰지요.)" 하며 가능한 모든 方言形을 기억해내려 애쓰던 提報者들. "ᄌ들지 말앙 언제든지 왕 들어 바.(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물어 봐.)" 하며 수천 개의 調査 項目에 일일이 응답해주시던 提報者들(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이제 숙제 하나를 끝낸 느낌이다.

부모님 모두 '지줏사름(제주도 분)'이시지만 지금도 筆者는 제주방

언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서월(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에 제주방언을 쓰지 않는다고 여겼으면서도 碩士論文을 쓰고 나서야 부채를 '부끈다(부친다)'고 하고 아이를 '조골조골(간질간질)' 간지름 태운다고 하는 것이 '지줏말(제주도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方言 接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늘 궁금해 했었다. 接觸 過程에서 어떤 方言 요소들이 살아 남고 어떤 요소들이 살아 남지 못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숙제를 준비해야 할 차례다.

이 論文은 직접·간접적으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대학을 다닐 때 筆者가 속해 있던 語學派 중에 유난히도 많았던 音韻論 전공 선후배(특히 鄭遇澤 兄은 컴퓨터에 미숙한 筆者 대신에 學位論文의 컴퓨터 편집까지도 도맡아 해주셨다). 講師 생활 동안 여러 편의와 조언을 제공해주신 성심여대(現 가톨릭대학교)의 李丞宰·李智凉 선생님. 筆者의 調査 過程을 도와주신 제주대학교의 姜榮峯 선생님. 같은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을 한 식구로 모실 수 있었던 것도 筆者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講義와 論文을 통해 筆者를 지도해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여러 선생님(특히 이 論文은 李基文·金完鎭 두 분 선생님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論文의 草稿를 읽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崔明玉·郭忠求·宋喆儀·李賢熙 선생님. 대학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筆者를 항상 다독거리면서 때론 밀어주시고 때론 끌어주신 李秉根 선생님. 좀더 나은 숙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

정겨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겨운 질문만 하던 손자에게 '걸어 다니는 方言辭典'이 되어주셨던 할머니(筆者의 仁荷대학교 취직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지난 94년 여름에 돌아가셨다). 중학교 때부터 筆者를 쭉 돌보아주신 작은아버지. 지지난 여름, 學位論文 쓰는

기간에 태어난 賢瑞를 키워주신 처할머님을 비롯한 '처가집' 식구들과 아내(然琇).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물어볼 것 없냐" 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모두 고마운 분들이다.

이 책은 1993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했던 博士學位論文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誤字, 용어, 형태소 분석, 문장 등을 약간 수정하고 자료 및 참고문헌을 조금 보완하였다). 이 책을 國語學叢書에 넣어주신 國語學會의 여러 선생님들과 책으로 깔끔하게 엮어주신 太學社 池賢求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1995. 10.

차 례

第1章 序 論 ………………………………………………… 9

第2章 모음의 분포와 변화 ……………………………………17
2.1 單母音의 변화 ……………………………………………17
2.1.1 '·'의 변화 ……………………………………………18
2.1.1.1 語頭音節 ……………………………………………19
2.1.1.2 非語頭音節 …………………………………………41
2.1.2 單母音 'ㅟ', 'ㅚ', 'ㆎ'의 변화 …………………………53
2.2 二重母音의 변화 …………………………………………60
2.2.1 上向 二重母音 ………………………………………61
2.2.1.1 'j'계 二重母音 ……………………………………62
2.2.1.2 'w'계 二重母音 ……………………………………74
2.2.2 下向 二重母音 ………………………………………77
2.2.2.1 'ㅔ', 'ㅐ' ……………………………………………78
2.2.2.2 'ㅟ', 'ㅚ' ……………………………………………82
2.2.2.3 'ㆎ' …………………………………………………86
2.2.2.4 'ㅢ' …………………………………………………92
2.3 圓脣母音化 …………………………………………………96

2.4 모음의 변화와 母音調和 ……………………………………103
2.4.1 형태소 내부 ……………………………………………………103
2.4.2 형태소 경계 ……………………………………………………114
2.4.2.1 副詞形語尾 '-아/어' ………………………………………115
2.4.2.2 派生接尾辭 '-아/어 X' ……………………………………129

第3章 자음의 분포와 변화 ……………………………………133
3.1 'ㅸ'의 변화 …………………………………………………………133
3.2 'ㅿ'의 변화 …………………………………………………………150
3.3 語頭子音群의 변화 …………………………………………………161
3.4 語幹末子音의 변화 …………………………………………………172
3.4.1 單子音 ……………………………………………………………172
3.4.2 子音群 ……………………………………………………………183

第4章 結 論 ………………………………………………………………203

참고문헌 ……………………………………………………………………207

第 1章 序論

한 음운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음운변화의 조건이 일치하는 형태소가 모두 완전히 같은 시기에 그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은 좀더 이른 시기에, 또 어느 것은 좀더 뒤에 그 변화를 입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그 변화의 물결이 잦아들 때까지도 변화를 입지 않아 그 음운변화에 대한 예외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변화를 입는 시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는 음운변화를 조건짓는 음운론적 요소의 소실, 또는 음운론적 규칙성을 모호하게 하는 형태의 類推變化 등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음소의 連鎖라는 表面에 가려 있어서, 음소의 連鎖만을 통해 음운변화를 관찰하고 記述하는 작업에서 表面에 가려진 다양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음운변화의 환경에 대한 정밀한 記述은, 개개의 형태소가 음운변화를 입는 모습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조건들이 음운변화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端緖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운변화는 일반적으로 규칙성을 띠지만 모든 음운변화가 획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나 예외성을 함께 보여준다. 이는 借用에 의한 개인차·방언차·세대차 등이 관여하기도 하고 음운변화에 있어 음운론적인 層位 이외의 다른 層位의 요소가 조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음운변화에 言語外的 요소뿐 아니라 言語의 內的 構造上으로도 음운론적 層位의 요소는 물론 비음운론적 層位의 範疇

나 資質이 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음운변화를 관찰해 보면 비음운론적인 환경 즉 비음운론적 範疇나 資質들이 음운규칙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通時的인 면에서 이 조건에 따른 규칙들의 재조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金完鎭, 1971a, 李秉根, 1975). 따라서 음운변화의 記述에서는 그 변화에 관여한 음운론적 조건들과 함께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비음운론적 조건들의 성격에 대한 記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음운변화에 대한 음운론적 記述에서 統合的(syntagmatic)인 면뿐 아니라 系列的(paradigmatic)인 면도 함께 고려하는 셈이다.

방언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方言史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通時論的 방언연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방언에 나타나는 교체형들을 바탕으로 內的 再構를 행하거나 共時的으로 나타나는 음운 분포상의 제약으로부터 이전 시기에 그러한 제약을 나타내게 한 음운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推定해 본다든지 음운론적 再構造化를 고려하여 앞선 단계의 음운체계를 再構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방언의 通時態를 연구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연구는 그 방언에 나타나는 음운변화의 환경이나 제약을 정밀하게 밝히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리하여 제한적이나마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방언의 通時態를 연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論文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음운변화를 음소의 분포와 관련을 지어 記述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때의 음소의 분포란 형태소 구조 속에서의 분포를 의미하는바 선행하는 또는 후행하는 分節音과의 統合的 분포 등의 음운론적 요소뿐 아니라 형태소의 음운론적 구조 속에서의 위치, 語基와 接尾辭 등 형태소의 종류, 統辭配列上의 차이 등의 비음운론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음운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입는 음소는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그 변화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양상 또는 결과를 같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변화의 속도 또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金完鎭, 1974:119-120). 이 論文에서는 문헌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 방법이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교체 현상을 통하여 이전 시기의 형태를 再構하는 內的 再構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하여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어떠한 음운변화가 존재했었는지를 살펴본다. 다른 방언과의 비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비교적 충분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어 通時態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중앙어에 주로 한정하지만 전적으로 비교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內的 再構의 방법도 함께 고려한다. 제주도 방언의 모든 형태가 중세국어 문헌어에 나타나는 형태의 직접적인 후속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論文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비음운론적 範疇나 下位 範疇의 문제를 관찰한다. 이는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統合的 요소가 前提로 하는 系列的 요소를 고려하여 음운변화를 記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음운변화를 형태소 단위로 관찰해 볼 때 그 변화에 관여하는 비음운론적 조건은 변화를 입는 음소의 분포라 달리 말할 수 있는바[1] 이는 곧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와 그 음소가 위치하고 있는 형태소의 形態論的, 統辭論的 範疇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 방언의 여러 음운변화들을 음소의 분포를 고려하여 記述해 본다. 음소의 분포에 의한 음운변화의 記述은 규칙들 사이의 史的 順位의 문제를 제기한다. 음소의 분포가 음운변화의 조건이 되어 通時的인 면에서 이 조건에 따른 규칙들의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論文에서는 언어변화를 규칙의 변화라고 보는 태도를 따른다. 그리하여 언어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변화를 규칙의 첨가, 규칙의

1) 이러한 의미에서 음소의 분포를 음운변화와 관련지은 것은 金完鎭(1974) 참조.

消失, 규칙 適用順位의 再順位化, 규칙의 單純化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King, 1969, 崔明玉, 1982). 이에 따라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음운변화 규칙으로서 '·'의 변화 규칙 등 單母音의 변화 규칙, 二重母音의 변화 규칙, 圓脣母音化 규칙 등의 모음변화 규칙과 'ㅸ'의 변화 규칙, 'ㅿ'의 변화 규칙, 語頭子音群의 변화 규칙, 語幹末子音의 변화 규칙 등의 자음변화 규칙을 설정한다. 하지만 한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 이 음운변화 규칙에 있어서 이 규칙 적용의 조건이 일치하는 모든 형태소가 다 이 변화 규칙의 적용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金完鎭, 1963:26-27)를 따른다. 왜냐하면 한 음운변화 규칙이 그 변화 규칙의 조건이 일치하는 모든 형태소에 적용되기 전에 다른 음운변화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규칙들의 交叉(overlapping)를 인정하는 셈이다.

共時的이든 通時的이든 음운론적 과정은 統合的 構造뿐 아니라 同一 部類의 成員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系列的 構造를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相異한 部類들 사이의 音素配列的 관계만을 의미하는 統合的 構造만을 강조할 때 문법 記述의 자연스러움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운의 변화 또한 統合的 構造뿐 아니라 음운론적 系列 構造와의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음운변화를 체계와 연관지어 記述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統合的 構造의 변화가 음운론적 系列 構造에 附合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비음운론적인 이유를 가진 現象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방언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어의 일반 원리를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하므로 한 방언의 연구는 언제나 국어로서의 공통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주도 방언의 음운변화를 국어의 모든 다른 방언들을 고려하여 記述한다. 아울러 제주도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 방언의 下位 方言上의 차이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온 제주도의

지역에 따른 방언차를 고려하지 않음은 이 論文의 성격이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語形의 음운론적인 변화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대부분의 언어 모습이 全地域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2)

이 論文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비교 방법이나 內的 再構의 방법을 고려하여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를 再構해 보고 이 再構形으로부터의 변화를 記述하는데 2章에서는 모음의 분포와 관련된 음운변화를 記述하기 위하여 '·'나 單母音 'ㅟ, ㅚ, ㆎ' 등의 單母音의 변화, 二重母音의 변화, 圓脣母音化, 母音調和 등을 살펴보고 3章에서는 자음의 분포와 관련된 음운변화를 記述하기 위하여 'ㅸ'의 변화, 'ㅿ'의 변화, 語頭子音群의 변화, 語幹末子音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들이 음운론적, 또는 비음운론적인 조건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도 살펴본다.

調査日時, 調査地點, 提報者는 다음과 같다.

1次 調査; 1992. 4. 24.
　　정봉인(79, 女)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次 調査; 1992. 12. 21. - 12. 25.
　　정원호(76, 男) 제주시 도남동 922-31
　　홍연옥(68, 女) 제주시 오등동 1417
3次 調査; 1993. 9. 28.
　　정원호(77, 男) 제주시 도남동 922-31
　　홍연옥(69, 女) 제주시 오등동 1417

2) 전통적으로 제주도 방언은 한라산을 경계로 山南과 山北으로 二分하여 왔다. 하지만 제주도 방언은 南北의 방언차보다는 東西의 방언차가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성낙수, 1992:358-360). 그런데 제주도 방언을 下位 區劃하는 것이 다른 방언을 下位 區劃하는 것, 예를 들면 東南方言을 下位 區劃하는 것(崔明玉, 1992c)이나 심지어 中部方言의 下位 方言인 강원도 방언을 下位 區劃하는 것(李翊燮, 1981)과도 동일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3次에 걸친 資料 調査는 모두 提報者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筆者가 토박이 방언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1次 調査 때에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고맹훈, 이차경)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이 주로 질문을 하고 筆者는 轉寫하면서 보충질문만을 하였다. 2次와 3次 調査 때에는 筆者가 직접 질문을 하였는데 오후(도남동)와 저녁(오등동) 두 차례로 나누어 調査를 진행하였다. 이 論文의 主提報者인 '정원호'는 약간의 漢學 敎育을 받았다고 하며 補助提報者인 '홍연옥'은 3세부터 13세까지 11년 동안 日本에서 자라다가 14세 때에 제주도에 와서, 말을 배우기 위해 1년 동안 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3)]

이 論文에서 '중세국어'라는 用語는 李基文(1972a)의 '後期中世國語'만을 가리키며 국어의 全方言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문헌어'라는 用語는 중부지방에서 刊行된 문헌으로부터 推定한 것으로 限定하며 '중앙어'라는 用語는 현대국어 中部方言과 문헌어를 모두 아우를 때 사용한다. 이 論文의 문헌어는 주로 한글학회(1992)의 것을 引用하지만 引用例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劉昌惇(1964)의 것을 引用한다. 중세국어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근대국어의 형태를 引用하기도 한다. 비교를 위하여 제시된 문헌어의 형태가 제주도 방언의 형태와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참고로 한글학회(1992)에 의존하여 이 論文에 사용된 文獻 略號를 제시한다.

가례(家禮諺解, 1632)	세훈민(世宗御製訓民正音, 1458)
경신(敬信錄諺解, 1796/1880)	소해(小學諺解, 1586)
구간(救急簡易方, 1489)	속삼(續三綱行實圖, 1514)

---

3) 이 提報者들 이외에 筆者의 할머니(김한규, 81세)와 아버지(정윤희, 61세)가 補助提報者가 되어주셨음을 밝혀 둔다.

구방(救急方諺解, 1466/1469)
금삼(金剛經三家解, 1482)
금육(金剛經六祖解諺解,1464/1495)
남명(南明集諺解, 1482)
노번(老乞大/飜譯老乞大, 1547)
능엄(楞嚴經諺解, 1461/1495)
동신(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동해(同文類解, 1748)
두해-중(杜詩諺解重刊本, 1632)
두해-초(杜詩諺解初刊本, 1481)
목우(牧牛子修心訣, 1466)
몽산(蒙山法語諺解, 1472)
물명(物名考, 1773-1837)
물보(物譜, 1722-1837)
박번(朴通事/飜譯朴通事, 1547)
박해(朴通事諺解, 1677)
백련-동경(百聯抄解, 1510-1560)
번소(飜譯小學, 1500/1518)
법어(法語/四法語, 1467/1500/1577)
법화(法華經諺解, 1463/1495)
병학(兵學指南, 1787/1797)
분문(分門瘟疫易解方, 1542)
사해-중(四聲通解重刊本, 1614)
삼강(三綱行實圖, 1481)
서해(書傳諺解, 1588)
석보(釋譜詳節, 1447)
석보-중(釋譜詳節重刊本, 1495)
선가(禪家龜鑑諺解, 1569/1579)
선집(禪宗永嘉集諺解, 1464/1482)
송강-이(松江歌辭, 1690)
시해(詩經諺解, 1588/1613)
신합(新增類合, 1576/1578)
악장-중(樂章歌詞重刊本)
어내훈(御製內訓, 1737)
어해-남(語錄解, 1669)
언두(諺解痘瘡集要, 1608)
언태(諺解胎產集要, 1608)
역보(譯語類解補, 1715-1775)
역해(譯語類解, 1690)
연병(練兵指南, 1612)
왜어(倭語類解)
용가(龍飛御天歌, 1447/1612)
원각(圓覺經諺解, 1465/1575)
월곡(月印千江之曲, 1447)
월석(月印釋譜, 1459)
월석-중(月印釋譜重刊本, 1568)
육조(六祖法寶壇經諺解, 1479/1558)
자휼(字恤典則, 1783)
정속-초(正俗諺解初刊本, 1518)
주여씨(呂氏鄕約諺解, 1518)
집람(集覽/老朴集覽, 1517)
청언-원(靑丘永言, 1728)
칠대(七大萬法, 1569)
탕액-초(湯液編初刊本, 1613)
태평(太平廣記諺解)
한청(漢淸文鑑)
훈몽-초(訓蒙字會初刊本, 1527)
훈민-원(訓民正音, 1446)

第 2章　모음의 분포와 변화

제주도 방언에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小倉進平, 1924)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은 국어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 관심의 對象은 주로 '·'에 한정된 것이어서 아직까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 이외의 모음에 관련된 변화나, 제주도 방언의 모음변화와 모음체계의 상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음운변화를 記述할 때에는 변화를 입는 개별 음소의 內的 構造를 음운체계의 構造와 전반적으로 관련지어 記述해야 한다(Jakobson, 1931, Bynon, 1977:80). 특히 모음의 변화는 체계의 변화와 관련을 가지는 것(崔明玉, 1982:12-13)이므로 이 章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모음변화를 분포를 고려함은 물론 체계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1 單母音의 변화

현대 제주도 방언은 單母音體系로서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 ·'등의 9모음체계를 갖는다. 현대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는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모음변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節에서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單母音의 변화를 바탕으로 제주도 방언에서의 모음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며 문헌어와의 비교

를 통하여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單母音들을 再構해 본다.

2.1.1 '·'의 변화

중세국어 문헌어의 '·'는 16세기 後期에 완성된 非語頭音節에서의 '·>ㅡ'의 변화(1단계 合流)와 18세기 中期에 완성된 語頭音節에서의 '·>ㅏ'의 변화(2단계 合流) 등 두 단계에 걸친 변화로 非音韻化하였다(李崇寧, 1954a:453-514, 李基文, 1972b:117-122). 이 변화는 중앙어뿐 아니라 제주도 방언을 제외한 대개의 방언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4] 현대 제주도 방언은 이 두 단계의 변화 중 非語頭音節에서의 '·>ㅡ' 변화, 즉 1단계 合流만을 겪어 語頭音節에 관한 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李崇寧, 1954a:546-548). 그러나 이러한 記述은 제주도 방언 '·'에 대한 만족할 만한 記述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중세국어 문헌어의 모든 '·'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일관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며[5] '·'의

4) 국어의 각 방언의 '·'의 변화에 관해서는, 東南方言은 崔明玉(1982:31-36)와 白斗鉉(1989:62-86), 西南方言은 崔銓承(1986:109-114)과 이기갑(1986:56-60), 東北方言은 郭忠求(1991:209-212), 西北方言은 崔林植(1984:9-22)와 崔明玉(1987:70-73) 참조. 전주지방에서 간행된 古小說과 판소리계 小說을 대상으로 19세기 西南方言을 살펴본 崔銓承(1986:111)에서는 전라방언에서 語頭音節의 '·'뿐 아니라 非語頭音節의 '·'도 '·>ㅏ'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5) 金完鎭(1957:118)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일본어 借用語를 살펴보면서 "語源的으로 '·'가 아닌 곳"에서 '·'가 발견된다는 "濟州島方言母音論의 第一條를 가장 極端的으로 보여주는 例"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李基文(1977:184)에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語頭 音節에 있어서 中世國語와 濟州島 方言의 'ᄋᆞ'는 규칙적으로 對應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例外가 존재한다. (中略) 이들 例外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中世語의 'ᄋᆞ'에 濟州島 方言의 다른 母音들이 對應

변화에서도 중앙어 또는 다른 방언들과 제주도 방언이 항상 일치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와 제주도 방언 '·'의 對應 樣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節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와 중세국어 문헌어의 '·'의 對應 樣相을 分布 位置에 따라 記述해 보며 그 위치에서의 對應 樣相의 차이가 어떠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음운변화에 있어 변화를 입는 음소는 그 변화의 樣相 또는 結果를 같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변화의 속도 또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金完鎭, 1974:119-120) 제주도 방언 '·'의 分布와,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分布 位置에서의 變化 樣相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방언의 '·'와 중세국어 문헌어의 '·'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2.1.1.1 語頭音節

현대 제주도 방언은 語頭音節에서 대체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다.

(1) ㄱ. ᄀᆞ만(ᄀᆞ마니;석보 6:30, 隱) ᄀᆞᆫ장(ᄀᆞᆫ쟝;훈몽-초, 중:10, "간장")
놀레, ᄂᆞ람지, ᄂᆞ라미(ᄂᆞᆯ애;법화 2:104, "이엉")
ᄂᆞᆯ(ᄂᆞᆶ;월곡 71, 刃) ᄃᆞ리(ᄃᆞ리;훈민-원, 해례:25, 橋)
ᄄᆞᆷ(ᄯᆞᆷ;훈몽-초, 상:15, 汗)
ᄆᆞ지(ᄆᆞᆮ;월석 2:5, 伯) ᄆᆞᆯ(ᄆᆞᆯ;석보 9:15, 馬)

되는 경우와 濟州島 方言의 'ᄋᆞ'에 中世語의 다른 母音들이 對應되는 경우다"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ᄆᆞᆼ생이, ᄆᆞᆼ아지(ᄆᆞ야지;훈몽-초, 상:10, 駒)
ᄇᆞᆯ써(ᄇᆞᆯ쎠;석보 6:35, 已, "벌써")
ᄉᆞᆯ(ᄉᆞᆶ;월곡 62, 肉) ᄉᆞᆷ(蔘, 신ᄉᆞᆷ;구간 1:100)
ᄌᆞᆷ(ᄌᆞᆷ;남명, 상:25, 眠) ᄎᆞᆷ메(ᄎᆞᄆᆡ;구간 1:110, "참외")6)
ᄑᆞᆯ(ᄇᆞᆶ;월곡 192, 肱, "팔")
ᄒᆞ나, ᄒᆞᆫ나(ᄒᆞ낳;월곡 89, 一, "하나")
ᄒᆞᆷ마떼민(ᄒᆞ마면;송강-이 1. 관동별곡, "하마터면",
ᄒᆞ마;용가 6:31.42)

ㄴ. ᄀᆞᆯ-(ᄀᆞᆯ-;남명, 하:40, 磨)
ᄀᆞᆯ라앚-("가라앉다", ᄀᆞᆯ안초-;구간 2:59)
ᄁᆞᆯ-(ᄭᆞᆯ-;석보 6:25, 席, "깔다") ᄂᆞᆯ-(ᄂᆞᆯ-;금삼 2:6, 飛)
ᄃᆞᆯ-(ᄃᆞᆯ-;월석 8:6, 懸, "달다") 뜨르-(ᄠᆞᆯ오-;속삼, 효:19, 從)
ᄆᆞ치-(ᄆᆞᆾ-;능엄 8:22, 終)
ᄆᆞᆫ직-, ᄆᆞᆫ죽-(ᄆᆞᆫ지-;법화 6:31, ᄆᆞ니-;월석 21:133, 撫)
ᄆᆞᆯ-(ᄆᆞᆯ-;능엄 4:110, 捲) ᄆᆞᆯ르-(ᄆᆞᄅᆞ-;두해-초 8:5, 乾)
ᄇᆞᆯ르-(ᄇᆞᄅᆞ-;석보 6:38, 塗)
ᄈᆞᆯ-(ᄲᆞᆯ-;월곡 28, 吸, 월곡 105, 洗)
ᄉᆞᆯ-(ᄉᆞᆯ-;월석 18:45, 燒) ᄉᆞᆱ-(ᄉᆞᆱ-;월석-중 23:80, 烹)
ᄉᆞᆷ지-(ᄉᆞᆷᄭᅵ-;두해-초 8:59, 呑, "삼키다")
ᄌᆞᆽ-(ᄌᆞᆽ-;능엄 7:4, 頻)
ᄎᆞᆯ리-("차리다", ᄎᆞ리-;능엄 1:16, 차리-;석보 13:46, 省)
ᄑᆞᆯ-(ᄑᆞᆯ-;두해-초 20:9, 賣) ᄒᆞ-(ᄒᆞ-;석보 6:46, 爲)

ㄷ. ᄉᆞ춘(ᄉᆞ촌;번소 9:60, 四寸)
ᄌᆞ신(自身, ᄌᆞ연히;구간 1:66, 自然)
ᄌᆞ지(ᄌᆞ디;능엄 5:57, 紫) ᄎᆞ례(ᄎᆞ례;번소 8:31, 次第, "차례")

---

6) 이는 'ᄎᆞᆷ#웨→*ᄎᆞᆷ뭬>ᄎᆞᆷ메'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ᄎᆞᆷ#웨→*ᄎᆞᆷ뭬'는 複合語 경계에서의 複寫現象(拙稿, 1991:363-367)을 겪은 것이고 '*ᄎᆞᆷ뭬>ᄎᆞᆷ메'는 脣音 아래에서 'w'탈락(2.2.1.2.에서 後述)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이를 'ᄎᆞᆷ#외'의 複合語로 인식한 것이 된다.

ᄒᆞᆨ게(學校, ᄒᆞᆨ당;훈몽-초, 상:17, 學堂)

(2) ㄱ. ᄀᆞᆨ쉐기("손톱으로 긁기 잘하는 사람")
ᄀᆞᆯ게비("개구리") ᄀᆞᆯ체("삼태기")
ᄂᆞ단착("오른쪽") ᄂᆞᆫ동낭(ᄂᆞᆫ독#낭, "좀머귀나무")
ᄂᆞᆷ삐("무")
ᄃᆞ로겡이, ᄃᆞᆯ렝이("아주 조그만 밭")
ᄃᆞᆨ다귀, 닥다귀("도마뱀")[7]
ᄃᆞᆯ렝이("아주 조그만 바구니")
ᄆᆞᆯ문주리, ᄆᆞᆯ문주기("말미잘") ᄇᆞ들레기("베도라치")
ᄉᆞ레, ᄉᆞᆯ러레, 살러레(샤릐;역보 23, "사레")
ᄉᆞ투리("사투리") ᄎᆞ낭("떡갈나무")
ᄐᆞᆯ곡지("딸꾹질") ᄐᆞᆯ("섶과 바위가 얼크러진 곳")
ᄏᆞᆨ("박") ᄏᆞ뜽이, ᄏᆞ찡이("가지런히")
ᄑᆞ레("파래") ᄒᆞ꼼, ᄒᆞ끔, ᄒᆞ썰, ᄒᆞ설(少, "조금")[8]

ㄴ. ᄀᆞ끼-("물같은 것을 급히 마시다가 목에 막혀 잘 내려가지 않다")
ᄇᆞ디-(近) ᄇᆞ뜨-("느슨하지 않다")
ᄉᆞ납-("사납다") ᄉᆞᆷ-("지피다")
ᄌᆞ곱-("눈부셔 간지럽다")
ᄌᆞ들-("걱정되는 일이 있어 근심하다")
ᄌᆞᆨ-("무슨 물건의 끝에 액체를 묻혀 내다", ᄃᆞᆨ-;목우 38, 點)
ᄌᆞᆷ질-("물건이 잘고 가늘다")
ᄌᆞᆸ-("손가락 두 개 또는 세 개를 사용하여 물체를 잡다")

ㄷ. ᄀᆞ꼬닥("꼬꼬댁")

---

7) 玄平孝(1962)에는 '독다구리, 장칼래비, 장쿨래비, 장ᄏᆞᆯ래비("도마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독-'계와 '장-'계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독다귀'는 어두운 색을 띠며 크기가 크고 '장칼래비'는 노란색을 띠며 크기가 작다고 한다.

8) 이들은 李基文(1985:82-84)에서 再構한 語基 '*ᄒᆞᆫ, *ᄒᆞᆯ(一)'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ᄒᆞ꼼, ᄒᆞ끔'은 '*ᄒᆞᆫ+*-곰, *ᄒᆞᆫ+*-금'으로, 'ᄒᆞ썰, ᄒᆞ설'은 '*ᄒᆞᆫ+*-설, *ᄒᆞᆯ+*-설'로 再構가 가능하다.

(1)은 중세국어에서 '·'를 가졌던 형태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도 '·'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며 (2)는 중세국어 문헌어에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를 가지고 있는 예들이다. (1ㄱ), (2ㄱ)은 體言語幹, (1ㄴ), (2ㄴ)은 用言語幹, (1ㄷ)은 借用語, (2ㄷ)은 擬聲語의 경우인데 제시되어 있는 대로 제주도 방언의 '·'는 선행하는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과는 관계없이 실현된다. (1), (2)의 예들은 제주도 방언의 '·'가 특별한 分布 制約을 가지지는 않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와 마찬가지로 音節頭音으로는 실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ᄋᆞ지-, ᄋᆞᆽ-(持, "가지다")'는 제주도 방언의 '·'가 語頭音節 頭音으로 실현되는 경우인데 이는 'ᄀᆞ지-(ᄀᆞᆽ-;석보 6:22, 俱)'와 語源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데에 기인(李基文, 1977:184, 註3)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小倉進平(1944)에는 'ᄀᆞ저온다, 아저온다("가져온다")'만이 나타나며 'ᄋᆞ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현대 제주도 방언에 'ᄋᆞ상ᄋᆞ상("힘없이 살짝살짝 걷는 모양") ᄋᆞᆼᄋᆞᆼ("어린애에게 똥을 누일 때에 하는 소리")' 등의 擬聲擬態語와 'ᄋᆞ동(兒童, ᄋᆞ마;한청 14:19, 兒馬)' 등 漢字語에서 語頭音節 頭音으로 '·'를 가지고 있는 예들이 나타나기도 한다.[9)]

(3) ㄱ. ᄀᆞ, 가(ᄀᆞᇫ;석보 13:4, 邊)[10)]
　　ㄴ. 가셍이(邊)

(4) ㄱ. ᄊᆞ-, 싸-(ᄡᆞ-;두해-초 16:67, 包)

---

9) 이는 提報者 정원호(77세)의 경우이고 提報者 홍연옥(69세)은 'ᄋᆞᆼᄋᆞᆼ'을 '엉엉' 또는 '응응'으로 發話한다.

10) 'ᄀᆞᆺ, 갓(邊)'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형과 'ㅏ'형의 共存이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ㅏ' 변화를 입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共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舊形인 '·'형과 新形인 'ㅏ'형이 雙形語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ㅏ'형만이 나타나는 (3ㄴ)의 '가셍이(邊)'가 이를 증명해 준다.

ᄎᆞ-, 차-(ᄡᆞ-;월석 1:23, 鹹, "짜다")[11]

ᄏᆞ-, 카-(ᄐᆞ-;능엄 9:108, 燒)[12] ᄑᆞ-, 파-(ᄑᆞ-;월곡 60, 堀)

ㄴ. 까-(ᄢᆞ-;두해-초 7:32, 剝) 사-(셔-;석보 19:13, 立, "서다")

싸-(ᄽᆞ-;석보 13:22, 低價)

싸-(ᅘᅧ-;훈민-원, 해례:21, 引, "켜다") 쌀물("썰물")

(5) ㄱ. 고프-(*ᄀᆞᆶ-+*-ᄇᆞ-, 골ᄑᆞ-;월석 8:95, 飢, "고프다")

아프-(*ᄋᆞᆶ-+*-ᄇᆞ-, 알ᄑᆞ-;월곡 119, 痛, "아프다")

ㄴ. 바끄-(*ᄇᆞᇀ-+*-ᄀᆞ-, ᄇᆞᇀ-;두해-초 8:31, 唾, "뱉다")

ㄷ. -ᄂᆞ-("-ᄂᆞ-", 잇ᄂᆞ냐;번소 9:8, "있느냐")

(3)과 (4)는 제주도 방언의 單音節 語幹에서, 특히 語幹末音으로 '·'가 실현되는 경우인데 (3)은 體言語幹, (4)는 用言語幹의 경우이다. 이들은 제주도 방언에서, 다른 방언들의 '·'의 변화 방향과 마찬가지로 語頭音節 '·>ㅏ'의 변화를 隨意的으로 보이고 있는 예들인바[13] (3ㄴ)의 '가셍이(邊)', (4ㄴ)의 '까-(剝) 사-(立) 싸-

---

11) 이와 관련된 派生語인 'ᄎᆞᆯ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로 "짠 반찬"만을 가리키는데 派生語가 음운변화에 대하여 보수적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ᄎᆞ-, 차-(鹹)'의 共存을 보이지 않고 '차-'로만 실현시키는 세대에서도 'ᄎᆞᆯ레'는 '·>ㅏ'의 변화를 겪은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데 이로써 보면 이 세대에서는 '차-'와 'ᄎᆞᆯ레'와의 관련을 모르므로 음운변화가 派生語의 派生 關係를 단절시킨 셈이다(宋喆儀, 1977:86-91). 물론 'ᄀᆞ세(ᄀᆞᆽ-+-에, "가위") 베게(베-+-게, 枕) 구둠바데, 구둠빠데(구둠#받-+-에, "쓰레받이")'에서 보듯 派生接尾辭 '-에/애, -게/개'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動詞 語基에 직접 결합된다. 따라서 'ᄎᆞᆯ레'의 語基는 'ᄎᆞ-(鹹)'가 아니라 'ᄎᆞᆯ리-("차리다")'였을 수도 있다.

12) 'ᄐᆞ-'로도 나타남은 물론이다. 제주도 방언은 중앙어와, '가물-(ᄃᆞ믈-;언태 34, ᄀᆞᆷ믈-;분문 17, "다물다") ᄏᆞᆯ(ᄐᆞᆯ;훈몽-초, 중:9, 機, "틀") 송ᄏᆞᆸ(손ᄐᆞᆸ;월곡 90, 爪) 퀴누니(틔눈;역해, 상:61, "티눈") ᄁᆞᆷ(ᄠᆞᆷ;훈민-원, 해례:21, 틈;박번, 상:40, 隙)' 등과 玄平孝(1962)의 '킈-("뛰다")' 등에서처럼 語頭 'ㄷ, ㅌ, ㄸ'와 'ㄱ, ㅋ, ㄲ'의 대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변화의 음운론적 과정은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13) 小倉進平(1944)에는 규칙(1)이 존재했었음을 알려주는 '차다(鹹) 카다

(低價) 싸-(引) 쌀물("썰물")'은 이미 '·>ㅏ'의 변화를 겪은 형태로만 실현되는 예들이다.14) 玄平孝(1962)에 이들이 'ᄁᆞ-(剝) ᄉᆞ-(立) ᄊᆞ-(低價) ᄊᆞ-(引) ᄊᆞᆯ물("썰물")'과 隨意的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ㄴ)의 예들은 세대차에 의한 변화를 겪은 듯하다. 'ᄉᆞ-(立) ᄊᆞ-(引)'는 이들이 기원적으로 二重母音 'ᆢ'를 가진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4ㄱ)의 예에 대해서 '·'형과 'ㅏ'형의 共存을 보이는 것은 정원호(77세) 提報者의 경우이다. 홍연옥(69세) 提報者의 경우는 語頭音節 '·'의 변화(규칙1)에서 선행하는 자음의 音韻部類에 따라 결과를 달리한다. 즉 'ᄒᆞ-(爲)'를 제외하면 '카-(燒) 파-(堀)' 등처럼 [+grave] 資質을 가진 자음이 선행할 때에 '·'는 '·>ㅏ'의 변화만을 보여주지만 '사-(立) 싸-(引)' 등에서처럼 '·>ㅏ'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일부 형태를 제외하면 'ᄊᆞ-, 싸-(包) ᄎᆞ-, 차-(鹹)' 등에서처럼 [-grave] 資質을 가진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ㅏ'의 변화를 隨意的으로 보여준다. 이는 적어도 [+grave] 資質을 가진 자음이 선행할 때가 [-grave] 資質을 가진 자음이 선행할 때보다 '·'의 변화를 먼저 겪은 것이 된다. 60대 초반 이하의 提報者들은 대체로 '·>ㅏ'의 변화를 겪은 'ㅏ'형만을 보인다. 이로써 보면 '·>ㅏ'의 변화는 선행하는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15) (5

(燒)'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ㅏ'형으로만 보고된 것은 隨意的 교체형을 무시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論文에서 小倉進平(1944)에 보고된 자료를 한글 轉寫로 옮겨 제시한다.

14) '좀방이(ᄌᆞᆷ방이;훈몽-초, 중:11, "잠방이") ᄎᆞᆯ리-(ᄎᆞ리-;능엄 1:16, 차리-; 석보 13:46, 省), ᄏᆞᆨ(瓢, 박;훈몽-초, 중:9)' 등은 거꾸로 중앙어에서 '·>ㅏ'의 변화를 보여준다. 前者는 二重母音 'ᆢ'의 변화와, 後者는 'ㅂ>ㄱ'의 변화와 관련될 듯하다.

15) 宋敏(1986:138-139)에서는 문헌어에서 '·'의 非音韻化를 시기별로 관찰하고 있는데 문헌어에 나타나는 語頭音節 '·'의 非音韻化는 선행하는 음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grave]의 자음인 'ㅎ, ㄱ, ㅂ'등의 음소 아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거의 모든 語彙形態素의 語頭音節에 확산

ㄱ)의 '고프-(飢) 아프-(痛)', (5ㄴ)의 '바끄-(唾)'에서 보는 대로 '*-ㅂ-', '*-ㆁ-' 등의 派生接尾辭는 末音으로 '·'가 실현되더라도 (3), (4)와는 달리 非語頭音節 '·'의 변화와 평행하게 '·>ㅡ'의 변화를 보여준다. 물론 (5ㄱ), (5ㄴ)의 예들에서는 派生接尾辭 '*-ㅂ-', '*-ㆁ-'가 '·>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派生語 자체가 非語頭音節의 '·>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5ㄷ)은 先語末語尾 '*-ᄂ-'도 '·>ㅡ'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칙을[16] 세워볼 수 있다.

규칙(1) · > ㅏ / # C ___]$_{stem}$
(語頭音節에서 語幹末 '·'는 'ㅏ'로 변화한다.)

이 규칙을 (4)의 用言語幹으로 한정하면 副詞形語尾 '-아'와의 결합에서 보여주는 'ᄋ' 末音 用言語幹의 語幹末母音 탈락 규칙에 類推된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칙(1)은 用言語幹에서의 類推變化가 體言語幹에까지 적용 영역이 확대된 결과로 여겨진다. 비음운론적 환경이 조건이 된 음운변화 규칙이 적용 영역의 확대를 겪어 通時的으로 규칙의 재조정이 일어난 셈이다.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은 語頭音節에 관한 한 중세국어 문헌어의 '·'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층에서는 '·>ㅏ'를 보여주는 중앙어의 변화 방향과는 달리 모든 환경의 '·'가 'ㅗ'에 合流되는 것으로(玄平孝, 1971:378-379, 拙稿, 1988:13) 언급되어

된 것으로 보았다. '·'의 변화가 인접하고 있는 음소의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면 '·'가 [+grave]의 성질을 가진 모음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異化作用의 결과일 수 있다.

16) 여기서의 규칙은 通時的 規則을 가리키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칙(law)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regulality)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왔지만 (3), (4)의 예들은 일부 환경에서 노인층에서도 '·'의 동요가 있어 '·>ㅏ'의 변화를 겪기도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7] 아울러 위의 예들은 제주도 방언의 語頭音節의 '·'가 分布 位置에 따라 변화 속도와 변화 방향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제주도 방언의 語頭音節 '·'는 語幹末 位置에서[18] 먼저 동요가 일어나 '·>ㅏ'의 변화를 보이던 중[19] 어떤 이유(後述)에 의하여 그 변화 방향이 바뀌어 모든 위치에서 '·>ㅗ'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20] 다시 말하면 모음의 변화에 있어서 語幹末 位置가

---

17) 이들 單語들은 젊은층에서도 '·>ㅗ'의 변화를 모른다. 이는 이 예들이 젊은층에서 이미 '·>ㅏ'의 변화를 겪은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일부 젊은층 화자들에게서는 이 單語들을 '·>ㅗ' 변화를 겪은 형태로 發話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18) 문헌어를 통한 연구에서 '·>ㅏ' 변화가 語幹末 位置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이것이 문헌어와 제주도 방언과의 언어체계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口語와 文語上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 '따루, 타루, ᄐᆞ루(ᄠᆞ로;석보 6:7, "따로") 깜짝, ᄁᆞᆷ짝(ᄀᆞᆷ족;석보 11:16, "깜짝") 잠기-, ᄌᆞᆷ기-(ᄌᆞᆷ기-;두해-초 15:8, 沒)'에서 보듯 '·>ㅏ'의 변화가 語幹末 位置를 제외한 환경에서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小倉進平(1944)에는 '가실, ᄀᆞ실(秋) 옫가심, 옫ᄀᆞ슴("옷감")' 등에서처럼 제주도 방언에서 '·'와 'ㅏ'가 교체되는 예가 보고되어 있다. 언제나 兩形의 共存을 보인다. 玄平孝(1966:230-232)에는 제주도 방언에서 '·'와 'ㅏ'가 교체되는 예를 제시하고 'ㅏ'형의 單語들은 중앙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記述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 '·'의 변화 방향과 문헌어 '·'의 변화 방향을 비교해 볼 때 'ㅏ'형은 제주도 방언의 일반적인 변화 방향(규칙1)에서 逸脫되어 있으므로 중앙어로부터의 借用일 가능성이 있다. 通時的이든 共時的이든 어떤 형태가 音韻論, 形態論, 統辭論, 意味論的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借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借用의 방향에 대해서는 Anttila(1972:154-178), 李基文(1986) 참조.

20) 언어 조사를 통하여 언어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實際 시간(real time)에 따른 언어변화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세대차(apparent time)에 따른 언어변화의 연구이다. 前者는 언어를 實際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을 가리키며 後者는 한 언어사회에서 노인층과 젊은층의 언어를 동시에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위치보다 음운변화의 물결에 더 쉽게 휩쓸리는 위치라는 것이다. (3ㄴ)의 '가셍이(邊)'는 語基와, 그와 관련된 派生語가 각기 독자적으로 음운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이한 예이다. (3ㄱ)의 'ᄀᆞ'(또는 '가')는 "어떤 물체의 바깥 둘레나 언저리"를 가리키지만 (3ㄴ)의 '가셍이'는 "어떤 물체의 가장자리"만을 가리키는바 語基와는 달리 派生語에서는 'ㆍ>ㅏ'의 변화를 겪은 형태로만 실현되므로 語基와 派生語가 각기 독자적인 음운변화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派生語가 語基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음운변화에 참여함을 보여주는바 派生語의 統辭論的 독자성을 의미하는 派生語의 語彙孤島 제약(宋喆儀, 1990:25-27)과 比肩되는 派生語의 음운론적 독자성을 보여주는 現象이다.

위의 예에서 筆者는 제주도 방언의 'ㆍ'가 語幹末 位置에서 'ㆍ>ㅏ'의 변화를 보이다가 'ㆍ>ㅗ'로 그 변화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 방향의 전환은 어떠한 이유에 말미암은 것일까? 이는 제주도 방언의 전반적인 모음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ㄴ 가능하지 않다. 현재 제주도 방언의 노인층에서는 單母音體系로서 9모음체계를 가지는데(金完鎭, 1963, 玄平孝, 1964a, 拙稿, 1988) 다음 <표1>과 같다.

ㅣ	ㅡ	ㅜ
ㅔ	ㅓ	ㅗ
ㅐ	ㅏ	ㆍ

<표1>

ㅣ	ㅡ	ㅜ
ㅔ	ㅓ	ㅗ
	ㅏ	

<표2>

가리킨다. 後者는 前者보다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차례 조사 이후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前者의 방법보다는 後者의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Chambers & Trudgill, 1980:88-89). 이로써 보면 여기서의 방법은 세대차에 따라 언어변화를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젊은층은 <표1>의 9모음체계에서 '·>ㅗ'의 母音 上昇化와 동시에 'ㅐ>ㅔ'의 母音 上昇化를 겪은 <표2>의 7모음 체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ㅗ'의 母音 上昇化는 'ㅐ>ㅔ'의 母音 上昇化와 관련을 가지는바(拙稿, 1988:13)[21] 이는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모음변화인 것이다.[22] '·>ㅗ'가 'ㅐ>ㅔ'와 관련을 가진다는 것은 '·'와 'ㅐ'가 분포 제약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 방언의 노인층에서 '·'는 非語頭音節에서 극히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출현하지 않는데 'ㅐ'도 마찬가지로 非語頭音節에서 'ㅔ'와 대립을 보이지 않아 실현되지 않는다. 제주도 방언의 노인층에서 'ㅔ'와 'ㅐ'의 대립은 '매(매;월석 17:76, 杖) 메(뫼;소해 4:12, 飯), 새(새;남명, 상:72, 茅) 세(혀;훈민-원, 해례:21, 舌), 대신(대신;소해 6:33, 大臣) 데신(더신;역보 60, 代身)' 등의 예에서 보듯 語頭音節에서만 유지된다. 非語頭音節에서는 'ㅔ'와 'ㅐ'의 대립이 소멸되어 'ㅔ'와 'ㅐ'의 間音 '[E]'로 실현되기도 하나 '가제미(가잠이;물명 2:4, 比目魚, "가자미") ᄃᆞ레(ᄃᆞ래;훈몽-초, 상:6, 梗, "다래")'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이를 'ㅔ'로 인식하는 듯하다. 물론 '가생이, 가셍이(邊) 고래, 고레(고래;훈몽-초, 상:10-11, 鯨) 돌뱅이, 돌벵이(돌팡이;훈몽-초, 상:11, 蝸) 술째기, 술쩨기("살짝이")' 등에서처럼 'ㅐ[E]'와 'ㅔ[e]'의 동요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ㅐ'가 'ㅔ'로 실현되기는 하나 그 逆方向은 성립되지 않는다

21) 白斗鉉(1988:272-274)에서는 국어에 존재하는 統合的 모음변화는 체계상 수평적 이동을 보이며 自生的 모음변화는 체계상 수직적 이동을 보인다고 하여 일정한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제주도 방언은 이에 대한 예외가 된다. 제주도 방언 '·'의 自生的 변화의 두 방향 중 '·>ㅏ'는 체계상 수평적 이동을 보인 것이며 '·>ㅗ'는 체계상 수직적 이동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22) 韓榮均(1990b:103-104)에서 제주도 방언이 문헌어와 같은 방향의 '·>ㅏ'의 변화를 모르고 '·>ㅗ'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가 3단 3서열의 9모음체계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는 점에서도 'ㅐ'가 'ㅔ'로 合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종의 母音 上昇化인 셈이다. 李崇寧(1957:1-2)에 "單母音 '애'는 [ɛ]-[e]의 間音인 [E]로 意識되나 年少層에는 오직 [e]로 發音함이 一般이어서 '애, 에' 間의 區別이 分明하지 않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玄平孝(1964b:337)에는 非語頭音節에서 'ㅐ'로 실현되는 예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 論文에(p.346)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거의 複合語에서이다.23)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ㅐ'는 非語頭音節에서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와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젊은층의 현대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語頭音節에서 마저도 'ㅐ'와 'ㅔ'를 구분하지 못하여 '·>ㅗ'의 母音 上昇化뿐 아니라 'ㅐ>ㅔ'의 母音 上昇化도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들이 보여주는 語頭音節의 '·>ㅗ'와 'ㅐ>ㅔ'의 모음변화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마 'ㅐ>ㅔ'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 듯하다.24) 제주도 방언 "연소층"의 'ㅐ>ㅔ'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李崇寧(1957:1-2), 金完鎭(1957:122)이 최초의 것이다. 또한 河野六郎(1945)에는 'kE:(犬) sE(舌) konEŋi(猫)'에서처럼 제주도 방언에 '[E]'가 실현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ㅗ' 변화에 대한 언급은 玄平孝(1966)에 처음 보이는데 '·'와 'ㅗ'가 동요를 보이는 예가 몇 개 있음을 지적하고 나서 "濟州島 方言의 言語社會에서는 固定되어진 것이 아니"(p.233)라고 하면서 현대 제주도 방언의 '·'와 'ㅏ'의 교체를 "共時的 事實로 볼 때"

23) 李基文(1980:459)에서는 가파도 지역에서 語頭音節, 非語頭音節에 관계없이 'ㅔ'와 'ㅐ'의 혼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4) 筆者가 '·:ㅗ', 'ㅐ:ㅔ'의 最小對立雙을 동시에 제시하였을 때 노인층 提報者는 'ㅐ:ㅔ' 對立雙 單語의 두 모음이 유사하여 젊은이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筆者에게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 즉 '·'와 'ㅗ'의 음성적 유사성보다 'ㅐ'와 'ㅔ'의 음성적 유사성이 더 밀접하여 그것이 'ㅐ>ㅔ'의 母音 上昇化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p.250) 이것은 'ㆍ'가 'ㅏ'로 "變化되어 나가는 過程에 있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p.250)이라고 하였다. 제주도 방언 "연소층"의 'ㆍ>ㅗ'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는 玄平孝(1971)이 최초의 것인 듯하다. 이로써 보면 1970년대초 "연소층"에서 'ㆍ'가 'ㅗ'에 합류한 것이므로 현재 40대 초반의 방언화자들은 'ㆍ'의 실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ᄃᆞᆯ(月)'과 '돌(石)'을 同音異意語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陳述은 'ㅐ>ㅔ'의 변화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아직 'ㆍ>ㅗ'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울러 'ㆍ>ㅗ'의 변화보다 최소한 10년 이전에 'ㅐ>ㅔ'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임을 알려준다.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音節의 모든 'ㆍ'가 'ㆍ>ㅏ'의 변화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6) ㄱ. 흑, 혹(ᄒᆞᆰ;훈민-원, 해례:21, 土) 슥, 식(ᄉᆞᆰ;두해-초 8:12, 狸)
  ㄴ. 불(ᄇᆞᆯ;석보 6:21, 件, "벌")
(7) ㄱ. ᄂᆞ지기, ᄂᆞ지겡이, ᄂᆞ지거:니(ᄂᆞᆽ-+*-옥+-이, ᄂᆞᄌᆞ기;두해-초 21:37, 低, "나직이")
  ㄴ. 반뜨커-, 반드터-(*반+*-독+ᄒᆞ-, 반독ᄒᆞ-;월석 2:41, 正, "반듯하다")

(6)은 語頭音節의 'ㆍ'를 가졌던 단어가 예외적으로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 물결에 침식된 것인데 이러한 예외적 변화는 그 원인이 음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시기에 있는 것(金完鎭, 1963:26-27)이라 할 수 있다.[25] 즉 (6)의 예들이 'ㆍ>ㅡ'의 변화를 겪던 시기에는 한창 非語頭音節의 'ㆍ'가 'ㅡ'로 옮아가고 있었고

25) 이는 한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의 조건이 일치하는 모든 형태소가 모두 이 변화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假說이 전제되는데 음운변화가 음성적으로는 급격하게 일어나지만 어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Wang(1969)의 語彙 擴散(Lexical Diffusion) 이론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語頭音節의 'ㆍ'는 동요를 몰랐지만 語頭音節의 'ㆍ'라 하더라도 이때에 침범당한 것은 非語頭音節의 그것과 동일한 변화를 입었다는 것이다.[26] (6ㄱ)의 '식(狸)'은 'ㆍ>ㅡ'의 변화 이후 齒擦音 아래에서 'ㅡ>ㅣ'의 변화(拙稿, 1988:52-54)를 겪은 것이며 (6ㄴ)의 '불(件)'은 語頭音節 'ㆍ>ㅡ' 변화를 겪은 후에 脣音 아래에서 'ㅡ>ㅜ'의 圓脣母音化(2.3.에서 後述)를 겪은 것이다. (7)은 派生接尾辭 '*-ᄋᆞᆨ, *-ᄃᆞᆨ(*-ᄃᆞᆺ)'의 경우인데[27] 모두 'ㆍ>ㅡ'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派生語가 語基나 接尾辭와는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음운변화를 겪기 때문인바 派生語가 하나의 語基로서 독자적으로 변화에 참여할 때 接尾辭 語頭音節의 'ㆍ'도 非語頭音節의 경우와 동일한 변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문헌어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중세국어에서 'ㆍ' 또는 'ㅡ'를 가졌던 많은 형태들은 그에 대립되는 'ㅡ' 또는 'ㆍ'를 가진 형태들과 雙形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8) ᄐᆞᆮ-, 튿-(ᄠᅳᆮ-;두해-초 20:51, 摘, ᄠᅳᆮ앏프-;집람 박통사집람, 중:2-3)
ᄯᆞᆲ-, ᄯᅳᆲ-(ᄯᅳᆲ-;법화 6:154, ᄯᆞᆲ-;두해-중 5:5, 穿)
(9) ㄱ. ᄂᆞ리-(ᄂᆞ리-;석보-중 11:13, 降, "내리다")

---

26) 小倉進平(1944)에도 '흑, ᄒᆞᆨ(土)'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6ㄱ)의 '흑(土) ᄉᆞᆨ(狸)'이 다른 單語들과 달리 非語頭音節 'ㆍ>ㅡ' 변화의 물결에 먼저 침식당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현재의 筆者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단지 (6ㄱ)의 예들이 가지고 있는 形態素 構造만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continuant] __ ㄹㄱ'의 閉音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바 'ㆍ'를 후행하는 자음 'ㄹ'가 'ㆍ'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가 나타나는 환경이 'ㄹ' 앞이라는 점(2.1.1.2.에서 後述)과의 일치가 흥미롭다.

27) 15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派生接尾辭 '*-ᄋᆞᆨ, *-ᄃᆞᆨ(*-ᄃᆞᆺ)'의 설정에 관해서는 李賢熙(1987:136-139) 참조.

ㄴ. ᄂᆞ롯, 느룻("비탈진 곳의 내려가게 된 내리막길")

(10)ㄱ. ᄀᆞ뭇(ᄀᆞ뭊;백련-동경 12, 痕)

ㄴ. 그뭇(그뭊;동신 열 3:80, 痕)

(11)ㄱ. 그늘(ᄀᆞᄂᆞᆶ;월석 18:26, 그늟;백련-동경 10, 陰)

ㄴ. 부수-(ᄇᆞᅀᆞ-;법화 1:223, 碎)

(12)ㄱ. -은("-은", 아ᄌᆞ마니ᄆᆞᆫ;석보 6:1, 거슨;능엄 1:74, "것은")

-는("-는", 나ᄂᆞᆫ;석보 6:5, "나는", 뒤헤는;용가 5:9.30, "뒤에는")

-을("-을", 辛苦호몰;두해-초 7:31, "辛苦함을", 法을;석보 6:6)

-를("-를", 놀애롤;두해-초 7:14, "노래를", 부텨를;능엄 1:23, "부처를")

-을랑("-은", 門으란;두해-초 7:9, "門은", 고ᄌᆞ란;월석 1:9, "꽃은")

ㄴ. -은("-은", 볼ᄀᆞᆫ;목우 5, "밝은", 치본;월석 18:51, "추운")

-는("-는", 쓰는;세훈민 1, 用, "쓰는")[28]

-울("-울", 도볼;월석 1:32, 助, "도울", 주글;월석 7:18, 死, "죽을")

-으난("-으니까", 안ᄌᆞ니;용가 1:11.7, 坐, 열보니;세훈민 15, "엶으니까")

(8)-(10)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ㆍ'를 가진 형태와 'ㅡ'를 가진 형태가 雙形을 이루고 있는 예들이다. (8)은 시대는 달리하지만 문헌어에서도 'ㆍ'형과 'ㅡ'형의 共存을 보이는 예들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도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兩形의 共存을 보인다. 이는 앞의 예

28) 活用語尾 '-ᄂᆞᆫ'은 先語末語尾 '-ᄂᆞ-'와 관련되는바 중세국어 문헌어에 이 '-ᄂᆞ-'에 대한 母音調和의 대립짝인 '-느-'는 존재하지 않는다(金完鎭, 1971a:119).

(6), (7)처럼 語頭音節 'ㆍ'의 동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母音調和의 대립짝이었던 'ㆍ'와 'ㅡ' 사이의 모음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ㆍ'의 동요로 볼 수 없는 것은 'ㆍ'가 동요를 보이지 않던 15세기 문헌어에 '싀-(능엄 10:79) 싀-(능엄 5:37, 酸, "시다")'에서처럼 이미 모음교체(宋敏, 1986:96, 吳廣根, 1993:15)가 이루어져 이들이 雙形語로 共存했기[29] 때문이며 더군다나 둘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의 방향성도 짐작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9ㄴ)의 'ᄂᆞ롯, 느릇("내리막길")'은 모음교체에서 비롯된 雙形語인 듯하지만 이를 '오롯("오르막길")'이나 (9ㄱ)의 'ᄂᆞ리-(降)'와 비교해 보면 'ㆍ>ㅡ'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30] (10)은 모음교체가 의미 분화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도 방언에서 (10ㄱ)의 'ᄀᆞ뭇'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어 놓은 금"만을 의미하며 (10ㄴ)은 "금" 또는 "자국"을 의미한다. 모음교체에 의한 형태 분화가 의미의 분화를 同伴하게 된 것이다.[31] (11)은 (6)의 경우처럼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音節의 'ㆍ>ㅡ' 변화를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ㆍ'를 가졌던 형태들이 'ㅡ'를 가진 형태들과 雙形語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1ㄱ)의 '그늘(陰)'은 문헌어 '그늘ㅎ'의 후속형일 듯하며 (11ㄴ)의 '부수-(碎)'는 문헌어의 'ᄇᆞᅀᆞ-'로부터의 직접적인 변화형이라기보다는 'ᄇᆞᅀᆞᆯ-(구간 6:4) ᄇᆞᆺ어디-(두해-초

29)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8)의 예를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교체에서 비롯된 分化形의 繼承者라고 한다면 수백 년이 지난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들이 의미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도 共存해 올 수 있었을까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다.

30) 'ᄂᆞ롯, 느릇'이 語基 'ᄂᆞ리-(降)'에서 직접 派生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일 'ᄂᆞ리-'에서 직접적으로 派生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 또한 모음교체에서 비롯된 雙形語일 수 있다.

31)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제주도 방언의 'ᄀᆞᆯ겡이("호미")'는 語基 '*ᄀᆞᆰ-'와 관련된 派生語인 듯한데 語基 '*ᄀᆞᆰ-'는 '긁-'의 모음교체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25:7)'로부터 再構가 가능한 語基 '*브스-'에서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12)는 語尾의 경우인데 '-(C)ᄋᆞX'형과 '-(C)으X'형의 共存을 보이던 중세국어 문헌어와는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曲用이든 活用이든 관계없이 '-(C)으X'형으로 단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수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語頭音節 '·'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변화예들이 나타난다.

(13) ㄱ. 버리-(ᄇᆞ리-;석보 6:12, 棄)
ㄴ. 허-, ᄒᆞ-(ᄒᆞ-;석보 6:46, 爲)
ㄷ. 턱, ᄐᆞᆨ(ᄐᆞᆨ;훈민-원, 해례:25, 顎)
ㄹ. 네류-(ᄂᆞ리오-;석보 13:7, 降, "내리게 하다", ᄂᆞ리-;두해-초 10:35)

(13)은 語頭音節에서 '·>ㅓ'의 변화를 보인 單語들이다.[32] (13ㄱ)의 '버리-(棄)'는 語頭音節의 '·'가 非語頭音節의 일반적인 변화인 '·>ㅡ' 변화(後述)에는 동요하지 않았으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

32) 金完鎭(1978:132-134)에 따르면 대체로 이들은 문헌어에서 語頭音節 '·>ㅏ'의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여 오랜동안 '·'를 유지하다가 다음 단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ㅓ'라는 제3의 길을 걷게 된 예들이다. 이 論文에서는 '·>ㅓ' 변화의 예가 '·>ㅏ'의 2단계 合流가 완성된 이후인 18세기 後期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ㅏ' 변화의 末期的 증상으로 '·>ㅓ'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음 'ㅓ'의 後舌化 추세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郭忠求(1980:81-84)에는 18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ㅓ'의 예 'ᄃᆡᄌᆞ더려(恩 44ㄱ) ᄒᆞᆫ걸ᄀᆞ치(字恤 9ㄱ) 두벌(增 2.12ㄱ) 거ᄐᆞ니ᄂᆞᆫ(五 3.62) 버려도(綸S.6ㄱ) 일커로ᄃᆡ(五 3.62) 허물며(敬信 36ㄱ)' 등과 19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ㅓ'의 예 '맛당헌(綸W.1ㄴ)'이 제시되어 있다. 金周弼(1985:25-30)에서는 16세기 문헌에서 'ㅅ, ㅈ' 아래에서 'ㅕ'와 'ㅓ'가 混記되고 있는 예를 지적하고서 이러한 混記는 'ㅓ'가 모음체계상 前舌의 위치에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의 後舌化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후속된 변화인 非語頭音節의 '·>ㅓ' 변화(後述)의 물결에는 먼저 휩쓸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玄平孝(1962)에는 'ᄇᆞ리-'와 '버리-'가 모두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세대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補助用言일 경우에는 '불-'로 실현된다. 이는 '·>ㅡ'의 변화 이후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인데 統辭論的 差異가 음운변화상의 相違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3ㄴ)의 '허-(爲)'는 語幹末位置에서 일어난 語頭音節 '·>ㅏ'의 변화(규칙1)를 거부하고 非語頭音節 '·>ㅓ'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것이다. 語幹末 位置에서 語頭音節의 '·>ㅏ' 변화를 보여주는 玄平孝(1962)에 'ᄒᆞ-'로만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ᄒᆞ-(爲)'가 [+grave]의 자음이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ㅏ' 변화의 물결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변칙을 보이는 用言이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즉 'ᄒᆞ-'는 副詞形語尾 '-아/어'와 결합할 때 語幹末母音의 규칙적인 탈락을 보이지 않고 'ᄒᆞ연(ᄒᆞ-+-연, "하여서")'에서처럼 변칙을 보이는 형태인 것이다. 형태소의 活用 系列上의 異質性이 음운변화의 相違를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는 非語頭音節의 '·>ㅓ' 변화와 語頭音節에서의 '·>ㅏ' 변화가 같은 시기에 共存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13ㄷ)의 '턱'은 'ᄐᆞᆨ'과 共存하는바, 小倉進平(1944)에 'ᄐᆞᆨ, 탁'으로, 玄平孝(1962)에 'ᄐᆞᆨ'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玄平孝(1962)에 'ᄇᆞ리-'와 '버리-'가 모두 나타나는 '버리-(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ㅓ'의 변화를 입은 '턱'은 중앙어의 영향에 의한 세대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13ㄹ)의 '네류-(降)'는 다소 특이한 경우인데 語頭音節 '·>ㅓ' 변화의 예라기보다는 'ㅣ'모음 逆行同化와 관련을 가진 변화이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ㅣ'모음 逆行同化(2.1.2.에서 後述)에 의한 'ᆡ'가 'ㅔ'로 合流하였는바 '네류-'도 'ᆡ>ㅔ'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接尾辭들은 변화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語基의 경우와 相

異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14) ㄱ. -덜(-ᄃᆞᆶ;월곡 23, 等, "-들")[33]
  ㄴ. -꺼지, -ᄁᆞ지, -ᄁᆞ장(-ᄀᆞ장;석보 6:37, 至, "-까지")

(14)는 독립적으로 表面에 나타날 수 없는 接尾辭의 경우인데 언제나 非語頭音節에서만 출현한다. 그렇다고 後述할 非語頭音節의 'ㆍ'의 변화인 규칙(2)를 겪어 'ㆍ>ㅡ'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14)의 '-덜(等) -꺼지(至)'는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를 겪지 않고 'ㆍ>ㅓ'의 변화에는 먼저 휩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소의 統合的 분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시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변화 시기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는 조건은 系列 자체에 있다 하겠다. 즉 음운변화에 있어서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그 음운변화를 입는 속도가 다름을 보여주는바 非語頭音節에서만 나타나는 接尾辭 形態素의 語頭音節 位置가 그렇지 않은 語基 形態素의 語頭音節 位置보다 음운변화를 먼저 입으리라는 것이다.

(15) ㄱ. 놈(ᄂᆞᆷ;석보 6:7, 他)
  ㄴ. 졸-(ᄌᆞ올-;능엄 3:14, 眠)
  혹(ᄒᆞ왁;월석-중 23:78, 臼, "확")
  홀(ᄒᆞ올;두해-초 15:22, 호올;훈몽-초, 하:14, 單)
  홋(ᄒᆞ옷;능엄 3:42, 單, "홀")
(16) 소나이, ᄉᆞ나이(ᄉᆞ나ᄒᆡ;훈몽-초, 상:17, 男兒, "사나이")
(17) ㄱ. ᄀᆞᆮ-, ᄀᆞᆯ-(ᄀᆞᆶ-;월석 석보상절서:4, 曰)[34]

33) 小倉進平(1944)에는 'ᄃᆞᆯ, 들, 덜'로 나타난다.
34) 제주도 방언의 'ᄀᆞᆮ-(曰)'는 문헌어와 달리 'ㄷ'變則動詞이다. 姜榮峯(1983:39-40), 拙稿(1988:24)에서 지적한 대로 제주도 방언의 모든 'ㄷ'變則動詞는 'ㄷ'變則계와 'ㄹ'定則계가 雙形語幹을 이루고 있다.

ㄴ. -고라, -ᄀᆞ라("-보고")

(15ㄱ)의 '놈(他)'은 후행하는 脣音의 영향으로 'ㆍ>ㅗ'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늠, 남'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늠'은 'ㆍ>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고 '남'은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15ㄴ)은 후행하는 圓脣母音 'ㅗ'의 영향으로 'ㆍ>ㅗ'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35] (16)의 '소나이(男兒)'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에게서만 나타나는 'ㆍ>ㅗ' 변화를 노인층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예이다. 이 형태에 대해서 小倉進平(1944)에는 'ᄉᆞ나이, 사나이'로 나타나며 石宙明(1947)에는 'ᄉᆞ나이, ᄉᆞ내'로 나타난다. 하지만 朴用厚(1960)에는 '남소나, 소나, 소나이'등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ㆍ>ㅗ' 변화를 보여주는 형태에 대한 최초의 보고이다. 玄平孝(1966:232-233)에는, 극히 드물지만 "연소층"의 발화에서 들을 수 있는 'ㆍ'와 'ㅗ'의 교체를 보이는 예로 제시되어 있다.[36] 왜 이 單語만 노인층에서도 'ㆍ>ㅗ' 변화를 보여주는지 분명하지 않다. (17ㄴ)의 '-고라'는 (17ㄱ)의 'ᄀᆞᆮ-(曰)'에서 文法化한 것인데(강정희, 1988:80) 文法化된 경우에 'ㆍ>ㅗ'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姜根保(1978:71)에 助詞 '-ᄀᆞ라'는 '가이가 날ᄀᆞ라 ᄀᆞ라라("그 애가 나보고 말하더라")'에서처럼 動詞 'ᄀᆞᆮ-(曰)'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文法化된 형태소가 그 原語基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역시 특이하다. (16), (17)은 이미 이 방언

35) 이들은 'ㆍ'의 탈락을 겪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의 'ᄀᆞᅀᆞᆲ(석보 9:40, 鄕, "고을") 고ᄫᆞᆯ(번소 10:7) 고올(소해 6:128) 고ᄋᆞᆯ(소해 6:55)'을 고려할 때 'ㆍ>ㅗ'의 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15ㄴ)의 예들은 'ㅗ>ㆍ'(또는 'ㅗ>ㅡ')의 異化를 겪은 이후 후행하는 모음 'ㆍ'(또는 'ㅡ')의 탈락을 겪은 것이 된다.

36) 중앙어의 '조르-(ᄌᆞᄅᆞ-;능엄 8:86, 絞)'는 'ㆍ>ㅗ'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지는 예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졸라메-("졸라매다")'로 나타난다.

에서 '·>ㅗ'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6)-(17)은 모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ㅗ' 변화인데 제주도 방언은 이와 반대 방향의 'ㅗ>·'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18) ㄱ. ᄆᆞᆯ-(몰-;두해-초 20:3, 驅)
ᄆᆞᆯ리-(몰이-;원각, 하1-1:31, 駒, "몰리다")
ㄴ. ᄆᆞᆷ("모자반")
(19) ㄱ. ᄈᆞᆸ-(ᄲᅩᆸ-;박번 상:44, 拔)[37]
ㄴ. ᄇᆞᆯ락("볼락")
(20) ㄱ. ᄉᆞᆮ-(ᄉᆞᆮ-;두해-초 16:71, 泄, "쏟다")
ㄴ. ᄉᆞᄁᆞ-(속고-;역해, 하:12, "솎다")

(18), (19)는 地方 刊行 문헌에서 간혹 발견되는 'ㅗ>·' 非圓脣母音化와 유사하다. 白斗鉉(1992:352-353)에는 18세기에 간행된 경북 예천 龍門寺本 <彌陀懺略抄>와 대구 桐華寺本 <念佛普勸文>에 보이는 脣子音 뒤에서 일어난 非圓脣母音化의 예 'ᄆᆞᆺ(池, 미타참략초 18ㄴ) ᄆᆞᆫ져(先, 염불보권문 24ㄴ, 29ㄱ)'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20)의 'ᄉᆞᆮ-("쏟다") ᄉᆞᄁᆞ-("솎다")'를 고려하면 非圓脣母音化에 의한 'ㅗ>·' 변화의 예라기보다는 제주도 방언이 보이는 특이한 모음변화의 예인 듯하다. 이들은 'ㅗ'와 '·'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던 모음체계의 변화와 관련된다. 문헌자료의 결핍으로 이를 통한 제주도 방언의 音韻史를 살펴볼 수 없는 현재로선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와 'ㅗ'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는 後舌中母音이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단지 문헌어를 통하여 再構한 중

37) 李基文(1977:185, 註5)에서는 이를 'ᄲᅡᆸ-(拔)'와 'ᄻᅡᆫ-(選)'의 混淆로 보았으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ᄈᆞᆫ-'는 들을 수 없으며 이는 'ᄈᆞ-("빼다")'로만 실현된다. 하지만 石宙明(1947)에 'ᄉᆡᆫ다("뺀다, 쌥다")'가 나타난다.

앙어의 音韻史에 기대어 이를 현대 제주도 방언과 비교해 봄으로써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단계의 再構된 음운체계는 그 前段階의 再構된 체계에서 변화한 결과로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의 체계로의 변천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金芳漢, 1964:30)는 점을 고려하여 筆者는 'ㆍ'와 'ㅗ'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던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를 金完鎭(1978:131)에 의존한다.

이 으(우)
어 ᄋᆞ(오)
아

<표3>

이 모음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세국어 당시 중앙어에서 'ㆍ'와 'ㅗ', 'ㅡ'와 'ㅜ'가 圓脣的 對立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15세기의 문헌어에서 'ᄃᆞᄫᆡ-(용가 10:1.98)>ᄃᆞ외-(세훈민 12, "되다"), 셔ᄫᅳᆯ(용가 5:40.37)>셔울(두해-초 24:32, "서울")' 등에서처럼 'ㅸ+ㆍ>ㅗ, ㅸ+ㅡ>ㅜ'를 보여준다는 사실과 '나ᄇᆡ(능엄 7:83) 나뵈(두해-초 15:32, "나비"), ᄌᆞᄆᆞ(두해-초 7:6) ᄌᆞ모(능엄 1:22, "자못"), 다ᄫᅩᆯ다ᄫᅩᆯ(법화 6:137) 다폴다폴(법화 7:9, "거듭거듭"), 새ᄅᆞᆸ-(금삼 3:48) 새롭-(남명, 상:32, 新), 외ᄅᆞᆸ-(석보 6:5) 외롭-(두해-초 22:53, 孤), 노ᄅᆞ(훈몽-초, 상:10) 노로(훈민-원, 해례:24, "노루"), 도ᄅᆞ혀(석보 6:5) 도로혀(두해-초 8:28, "도리어"), -ᄃᆞ록(석보 9:10) -도록(월석 7:9), ᄃᆞ외-(세훈민 12) 도외-(구방, 하:38, "되다"), ᄣᆞ로(석보 6:7) ᄣᅩ로(금삼 3:44, 特, "따로"), ᄌᆞ올-(능엄 3:14) 조올-(두해-초 25:39, 眠, "졸다"), 어듭-(두해-초

9:38) 어듭-(능엄 2:28, 暗), 그울-(월석 10:6) 구울-(원각, 상 2-3:20, 轉, "구르다"), 그위(석보 6:24) 구위(두해-초 15:5, "관청")' 등에서처럼 '·'와 'ㅗ', 'ㅡ'와 'ㅜ'가 모음교체를 보여준다는 사실로부터 推定해 볼 수 있다.[38] 前者는 'ㅸ>w'의 변화로 圓脣性을 얻어 '·'가 'ㅗ'로, 'ㅡ'가 'ㅜ'로 변한 것이고, 後者는 인접하고 있는 脣音 또는 圓脣母音 'ㅗ, ㅜ'의 영향으로 '·'가 'ㅗ'로, 'ㅡ'가 'ㅜ'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5세기 당시 문헌어에서 '·'와 'ㅗ'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39]

중세국어 당시 중앙어의 모음체계인 <표3>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앞의 예 (18)-(20)은 <표3>의 모음체계에서 '·'의 後舌低母音化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ㅗ'와 圓脣的 對立을 이루면서 後舌中母音의 위치에 있던 '·'가 'ㅗ'에 밀려 내려가[40] 後舌低母音化하면서 이때까지 이

---

38) 문헌상의 '노ᄅᆞ>노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李基文(1962:144) 참조.

39) 15세기 문헌어에서는 '브르-(석보 9:9) 부르-(월석 9:38, 飽, "부르다"), 블-(구간 2:2) 불-(구간 2:74, 吹)'에서처럼 語頭音節에서도 'ㅡ>ㅜ'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한 예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南廣祐, 1974:33, 吳康根, 1993:28-32). 따라서 중세국어 당시 중앙어에서는 '·'와 'ㅗ', 'ㅡ'와 'ㅜ'가 圓脣的 對立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와 'ㅗ', 'ㅡ'와 'ㅜ'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지적할 수 있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나 'ㅡ'는 선행하는 음소가 脣音일 때 이를 후행하는 자음은 언제나 齒音이나 舌音이라는 분포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 'ㅡ'가 '脣音 ___ 脣音, 牙音'의 환경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우연적인 빈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15세기 그 이전 시기에 '脣音 ___ 脣音, 牙音'의 환경 아래에서 '·>ㅗ, ㅡ>ㅜ'의 圓脣母音化가 있었던 듯하다(2.3.에서 後述). 중앙어의 15세기 이전의 圓脣母音化에 대해서는 李基文(1962:144) 참조.

40) 金完鎭(1978:134)의 "이상은 15세기에 있어서의 음성적 차원에서의 'ᄋᆞ'와 '으'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ᄋᆞ'음소 종말기에 있어서의 음성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였거니와, 일련의 母音推移에 있어서 '오'에 밀려 내려간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거리는 음운론적인 관점

위치를 담당하고 있던 'ㅗ'의 音域을 좀더 위쪽으로 밀어냄으로써 'ㅗ'를 가진 일부 單語들이 '·'를 가진 單語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1) '·'의 後舌低母音化로 'ㅗ'는 圓脣的 대립짝을 잃게 되고 그리하여 새로운 대립짝을 찾는 과정에서 모음체계상의 'ㅓ'의 後舌化(郭忠求, 1980: 81-84, 白斗鉉, 1989:51-55)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1.1.2 非語頭音節

현대 제주도 방언은 15세기 문헌어의 非語頭音節의 '·'에 대하여 'ㅡ'로의 대응을 보이는바 이로부터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는 대체로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ㅡ'로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 ㄱ. 다르-, 달르-(다ᄅᆞ-;두해-초 23:38, 異)
ㄴ. 나그네(나ᄀᆞ내;능엄 6:103, 旅) 하늘(하ᄂᆞᆶ;원각, 서:29, 天)
ㄷ. ᄇᆞ름(ᄇᆞᄅᆞᆷ;월곡 102, 風) 사름(사ᄅᆞᆷ;월곡 143, 人)

(22) ㄱ. 다심머멍(다심#어멍, 다ᄉᆞᆷ어미;삼강, 효:1, "의붓어미")
다시리-(다ᄉᆞ리-;월석 8:90, 治)
모지레-(모ᄌᆞ라-;월석 8:92, 不足)
ㄴ. 짭찌러-, 짭찌롱어-, 참찌롱어-("짭짤하다", ᄧᆞ-;월석 1:23, 鹹)

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언급이 주목을 끈다.

41) 玄平孝(1962)의 '몬저, 몬ᄌᆞ, 몬첨, 먼저(몬져;석보 9:9, 先)'도 역시 'ㅗ>·'를 보여주는 것이다. 筆者는 '몬저, 모녀'밖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형태로 '술칵, 살칵("관솔")'이 있다. 이는 "송진이 많이 박인 소나무의 옹이나 또는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데 만일 이 형태가 '솔(松)'과 관련이 있다면 이 또한 'ㅗ>·' 변화의 예로 추가할 수 있을 듯하다.

(23) ᄀ물-(ᄀᆞᄆᆞᆯ-;월석 10:84, 旱)
다문, 달문(다ᄆᆞᆫ;석보 13:48, 只, "다만")
ᄉᆞ무치-(ᄉᆞᄆᆞᆾ-;석보 13:4, 達, "사무치다")
ᄉᆞ뭇(ᄉᆞᄆᆞᆺ;석보 6:18, "사뭇")

(21)은 非語頭音節의 '·>ㅡ' 변화의 예이며 (22)는 '·>ㅣ', (23)은 '·>ㅜ'의 변화예이다. (21ㄱ), (21ㄴ)에서 보는 대로 형태소 경계가 인접하여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ㅡ'의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21ㄷ)에서처럼 중앙어에서 '·>ㅏ'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도 제주도 방언에서는 규칙적으로 '·>ㅡ'의 변화를 보여준다. (22)는 單一語이든 合成語이든 관계없이 非語頭音節 '·>ㅡ' 변화 이후 齒擦音 아래 'ㅡ>ㅣ'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23)은 '·>ㅡ' 변화 이후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2.3.에서 後述)를 겪은 것이다.

(21)-(23)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가 'ㅡ'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2) · > ㅡ / # (C) V (C (C)) ___
(非語頭音節의 '·'는 'ㅡ'로 변화한다.)

제주도 방언에 非語頭音節 '·>ㅡ' 변화와 관련하여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24) ㄱ. ᄒᆞ르, ᄒᆞ를(ᄒᆞᄅᆞ;석보 6:23, 一日, "하루")
ᄀᆞ르, ᄀᆞ를(ᄀᆞᄅᆞ;법화 1:223, 粉, "가루")
ㄴ. 바르(바ᄅᆞ;두해-초 15:52, 바ᄅᆞᆯ;석보 19:13, 海, "바다")[42]

42) 제주도 방언에서 "海"를 의미하는 형태는 '바당'이다. '바르'와 '바당'은 의미차를 지닌다. '바당'은 일반적 의미의 "바다"를 가리키며 '바르'

(25) ㄱ. 찰리(자ᄅᆞᆨ;훈몽-초, 중:7, 袋, "자루")[43]
노리(노ᄅᆞᆨ;훈몽-초, 상:10, 獐, "노루")
ㄴ. 시리(시르;훈몽-초, 중:6, 甑, 실의;두해-초 21:35, "시루에")
(26) ㄱ. ᄆᆞ를("길게 등성이가 진 지붕이나 산, 물의 꼭대기",
집ᄆᆞᄅᆞ;신합, 상:23)
ㄴ. 마리(ᄆᆞᄅᆞ;훈몽-초, 중:4, 棟, "마루")
(27) ᄌᆞ록(ᄌᆞᄅᆞ;금삼 2:12, 柄, 줄이니;두해-초, 25:26, "자루이니")[44]
(28) ᄀᆞ로(ᄀᆞᄅᆞ;두해-초 16:62, 横) 바로(바ᄅᆞ;석보 6:20, 直)

(24)-(27)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이른바 特殊語幹 交替를 보였던 單語들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ㄹ'와 관련된 特殊語幹에는 'ᄒᆞᄅᆞ, ᄒᆞᆯㄹ(一日)'처럼 교체되는 'ㄹㄹ'계와 '노ᄅᆞ, 놀ㅇ(獐)'처럼 교체되는 'ㄹㅇ'계로 나뉜다(李基文, 1962).[45] (24ㄱ)은 'ㄹㄹ'계, (25)는 'ㄹㅇ'계였던 형태인데 제주도 방언은 'ㄹㄹ'계에 한하여 (24ㄱ)의

는 '바르차브레감쩌(*바ᄅᆞᆯ+잡-+-으레+가-+-암ㅅ-+-저, "해산물 잡으러 간다")'에서 보듯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잡는 해산물"만을 가리킨다.

43) 語頭 激音化는 여기서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玄平孝(1962)에 '잘리'가 보인다. 'ㄹØ>ㄹㄹ'의 변화(3.1.에서 後述)를 겪은 것이다.

44) 玄平孝(1962)에 'ᄌᆞ록, 줄리'가 보인다. '비차락("빗자루")'은 非語頭音節 '·>ㅏ'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非語頭音節 '·'의 일반적인 변화에서 逸脫된 변화를 보여주는 특이한 경우이다.

45) 중세국어 시기의 特殊語幹에는 이 두 類型 이외에도 두 개의 類型이 더 있는바 '나모, 낡(木)'처럼 교체되는 類型과 '아ᅀᆞ, 앗ㅇ(弟)'처럼 교체되는 類型이 그것이다. 위의 예들은 體言語幹의 경우인데 用言語幹도 역시 體言語幹에 평행하게 네 개의 類型이 있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用言語幹의 경우도 體言語幹의 경우와 동일한 교체 방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세국어 문헌어의 特殊語幹에는 體言과 用言이 평행하게 존재하는데 위에 제시한 제주도 방언의 예들은 體言語幹으로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用言語幹의 경우에는 '오르-, 올ㅇ-(오ᄅᆞ게;석보 13:9, 올아;석보 6:3, 登) 모르-, 몰ㄹ-(모ᄅᆞᄂᆞ다;석보 6:8, 몰라;석보 6:20, 不知)' 등에서 보듯 體言語幹처럼 非語頭音節 '·'의 변화와 관련하여 'ㄹㄹ'계와 'ㄹㅇ'계가 相違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ᄒᆞ를(一日) ᄀᆞ를(粉)'에서처럼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 (25)에서 보듯 문헌어의 'ㄹㅇ'계는 語幹末子音이 약화, 탈락한 형태에 語幹末 '-이' 첨가를 겪은 형태로 나타난다. (24), (25)는 문헌어의 'ㄹㄹ'계와 'ㄹㅇ'계가 제주도 방언에서 相異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ㅇ'계에 속하는 體言語幹인 'ᄂᆞᄅᆞ(津)'는 제주도 방언의 複合語 'ᄂᆞ리선, 나룯베'에서 그 語幹을 확인할 수 있는데 玄平孝(1962)에 'ᄂᆞ릿-베'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방언에서도 다른 'ㄹㅇ'계 형태와 동일한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나룯베'는 중앙어의 영향을 받은 형태인 듯하다. 한편 玄平孝(1962)에 보이는 '걸리, 걸귀(거르션;한청 12:20, 渡船, "거룻배")'로부터 문헌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르'도 중세국어 시기에 特殊語幹 交替를 보이는 'ㄹㅇ'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미 차이를 보이지만 'ㄹㅇ'계 用言語幹이었을 '거르-, 걸르-(거르다;한청 6:51, 걸어;구방, 하:37, 隔)'와의 複合語인 듯하다. 문헌어의 'ᄀᆞᄅᆞ(粉)'는 'ᄀᆞᆯᄋᆞ로(석보 6:38, "가루로") ᄀᆞᆯ이(구방, 하:71, "가루가")'에서 보듯 15세기 문헌어에서 特殊 交替를 보이는 'ㄹㅇ'계 語幹이었지만 'ᄀᆞᆯ리(월석 1:29, "가루가")'에서처럼 'ㄹㄹ'계 語幹에 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 'ᄀᆞ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ㄹㅇ'계가 'ㄹㄹ'계로 바뀌기 시작하였음을 覆刻本이었던 月印釋譜 卷1이 반영한 것(李基文, 1962:124-125)으로 여겨진다. 다른 'ㄹㅇ'계 형태와 마찬가지로 非語頭音節 '·>ㅡ' 변화와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 이후 語幹末 '-이' 첨가를 보여주지 않는 제주도 방언의 (24ㄱ)의 'ᄀᆞ르'가 이를 지지해 준다. 문헌어의 'ㄹㄹ'계와 'ㄹㅇ'계는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각각 '*-ᄅᆞᆯ'型과 '*-ᄅᆞᆨ'(또는 '*-ᄅᆞᆨ')型으로 再構되는바 후행하는 語尾의 성격에 따라 語幹末子音의 탈락과 語幹末母音의 탈락을 排他的으로 보이게 되어 15세기 문헌어에서는 非自

動的 交替가 결과되었던 것이다(李基文, 1962). 그런데 제주도 방언은 (24ㄱ)의 'ᄒᆞ를(一日) ᄀᆞ를(粉)'과 (27)의 'ᄌᆞ록(柄)'에서처럼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再構形을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 (24ㄱ)은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며 (27)은 非語頭音節 '·>ㅗ'를 겪은 것이다.[46] (24ㄱ)의 'ᄒᆞ르(一日) ᄀᆞ르(粉)'는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을 겪은 것이다. (24ㄴ)의 '바르(海)'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特殊語幹 交替를 보이는 單語는 아니었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24ㄱ)에 제시되어 있는 예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므로 여기에 제시하였다. 非語頭音節의 '·>ㅡ'변화와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을 겪은 것이다. (25)는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 이후 語幹末 '-이' 첨가를 겪은 것이다.[47] (24)와 (25)는 제주도 방언에 있었던 일련의 通時的 變化들의 상대적 順位에 대하여 示唆하는 점이 있다. 이들과 관련된 변화는 非語頭音節 '·>ㅡ',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 語幹末 '-이' 첨가 등인바[48] (24)에는 非語頭音節 '·>ㅡ'와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이 관련되며 (25)에는 非語頭音節 '·>ㅡ'와 語幹末 '-이' 첨가가 관련된다. 하지만 語幹末子音 'ㄹ'의 탈락은 語幹末 '-이' 첨가보다 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

46) 非語頭音節 '·>ㅗ'는 (28)에 제시되어 있는 예를 포함하여 몇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들이 보이는 語頭音節 '·>ㅗ'의 변화가 非語頭音節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47) 경북 월성지역어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준다(崔明玉, 1982:62-64). 그런데 이 변화가 'ㄹ' 아래에서 'ㅡ>ㅣ'의 직접적인 변화를 겪은 것인지, 語幹末 '-이'의 첨가를 겪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푸리-(綠) 노리-(黃)' 등의 色彩形容詞를 제외하면 월성지역어의 '따리-(逐, "따르다")' 등과 같이 用言語幹末에서 '르>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한 예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ㄹ' 아래에서 'ㅡ>ㅣ'의 직접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 듯하다. 제주도 방언에서 '치메("치마") 지레("지라")' 등과 같이 體言語幹에 한하여 語幹末 '-이'의 첨가(2.2.2.1.에서 後述)는 아주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48) 'ㄹㅇ'계의 경우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있은 語幹末子音의 弱化를 경험하였음은 물론이다.

지 않다면 (24)의 예들도 (25)와 마찬가지로 語幹末 '-이' 첨가를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르;훈몽-초, 상:1, 龍)'는 문헌어에서 特殊語幹 交替를 보이던 형태는 아니었지만 語幹末 '-이' 첨가를 겪은 것이다. (24ㄱ)의 'ᄒᆞ르(一日)'와 비교해 볼 때 이도 역시 語幹末 'ㄹ'의 탈락이 語幹末 '-이' 첨가보다 후행했음을 알려준다. 다른 방언의 경우 'ㄹㄹ'계나 'ㄹㅇ'계나 모두 語幹末 '-이' 첨가를 겪은 형태로 실현(崔明玉, 1982:62-64, 白斗鉉, 1989:177-179)되기도 하는데 이는 語幹末 'ㄹ'의 탈락이 語幹末 '-이' 첨가보다 먼저 일어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변화가 그 適用 順位를 逆順位로 하는 변화의 再順位化로 결과된 방언 분화로 여겨진다. 일종의 규칙 再順位化에 의한 방언 분화(李秉根, 1976a)인 셈이다. (26ㄱ)의 'ᄆᆞᆯ를'은 'ㄹㄹ'계와, (26ㄴ)의 '마리'는 'ㄹㅇ'계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26)은 문헌어의 'ᄆᆞᄅᆞ(棟)'가 'ᄀᆞᄅᆞ(粉)'와 마찬가지로 'ㄹㄹ'계와 'ㄹㅇ'계, 兩形의 共存을 보이는 형태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8)의 'ᄀᆞ로(橫) 바로(直)'는 형태론적인 이유를 가지는바 '억지로, 억질로("억지로")' 등에서 보이는 제주도 방언의 副詞派生 接尾辭 '-로'에 이끌려 이들이 'ㆍ>ㅗ'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李崇寧, 1954a:493-494, 郭忠求, 1980:100).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는 거의 모두 'ㅡ'로 合流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ㆍ'를 유지하고 있는 예가 나타난다.

(29) ㄱ. ᄂᆞ몰, ᄂᆞ멀, ᄂᆞ물(ᄂᆞᄆᆞᆯ;능엄 6:99, 蔬, "나물")
오ᄂᆞᆯ, 오널, 오늘(오ᄂᆞᆯ;석보 6:28, 今日)
베술, 베설(비ᄉᆞᆶ;월석-중 26:43, 腸, "창자")
아ᄃᆞᆯ, 아덜(아ᄃᆞᆯ;석보 6:9, 子)[49]

애돌-, 애덜-(애돌-;석보-중 11:29, 慨, "애달프다")

ㄴ. 다몰, 다멀("밤에 그 위치에 따라 시각을 짐작하게 하는 별자리")

따몰-, 따멀-, 따물-("남에게 무엇을 해내라고 재촉하다")

ㄷ. 모몰, 모멀(모밀;훈몽-초, 상:6, 蕎, "메밀")

(30) ㄱ. 벤ᄀ멩이, 벤가랑이("아지랑이")

벡ᄇ름(벡#ᄇ름, ᄇ롬;석보 9:24, 壁, "바람벽")[50]

쉔ᄇ름("휘파람")

바농쏨지(바농#쏨지, "바늘쌈지", 쏨;구간 1:90, 帖)

문찌방톡(문#지방#톡, "문턱")

ㄴ. 곱ᄀ퍼-(곱곱ᄒ-;언두, 상:57, "갑갑하다")

(31) 모ᄌ(帽子, ᄌ;訓蒙字會 上:32, 子)

코ᄉ(告祀, ᄉ;訓蒙字會 下:10, 祀)

농ᄉ(農事, 평ᄉ;소해 6:128, 評事) 이ᄉ(移徙)

(29), (30)은 固有語의 경우이며 (31)은 漢字語의 경우이다. (30)은 제주도 방언에서 複合語의 경우 非語頭音節에서도 'ㆍ'가 유지될

49) 玄平孝(1962)에 '아돌, 아들'이 나타난다. 金完鎭(1963:26-27)에 "現代 濟州島方言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오늘날 第二音節의 'ㆍ'가 거의 모두 'ㅡ'로 交替되어 버렸으면서도, '아돌'(子)의 'ㆍ'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장차 어느 時期에 가서 第一音節의 'ㆍ'들이 第二音節의 一般的 變化와 다른 變化를 입게 될 때, '아돌'의 'ㆍ'가 그 물결에 휩쓸려 들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일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50) 제주도 방언에 '壁'을 의미하는 형태로 '축ᄇ름'과 '벡ᄇ름'이 있다. 그런데 '축ᄇ름'은 '벡ᄇ름'과 의미차를 갖는다. '축ᄇ름'은 "집과 바깥 사이의 벽"을 가리키며 '벡ᄇ름'은 "방과 방, 또는 마루와 방 사이의 벽"을 가리킨다. '벡ᄇ름'은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語順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불란디, 불한디("반딧불") 시접, 젭시("접시")' 등에서처럼 이 이외에도 제주도 방언이 다른 방언과 語順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ᄇ름, 심ᄇ름, 신바람, 부룹시("심부름")'는 형태론적으로 특이한 형태이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31)은 漢字 하나하나가 독립된 語彙形態素의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金完鎭, 1963:19, 1971a:131-132) 複合語의 경우인 (30)과 평행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0), (31)의 複合語의 경우를 제외하면 (29)만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가 유지되고 있는 예라 하겠다. (29)에서 보듯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가 유지되는 환경이 모두 'ㄹ' 앞인 점이 특이하다. 朴用厚(1960:424, 1988a:74)에는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가 유지되고 있는 예로서 '오놀("오늘") 하놀("하늘") 아돌("아들") 애돌-("애닯다") ᄂᆞ물("나물") 도뭄-("우승하다") 모믈("메밀") 보뭄("바다 우렁이") ᄂᆞ술-("날카롭다") ᄌᆞ술("소음순") 글올("글월") ᄒᆞᆫ쏠(少, "조금") 나돋-("달아나다") 다돋-("다닫다") 일콛-("일컫다") 치돋-("치닫다") 글ᄌᆞ("글자") 지ᄏᆞ-("지키다") ᄆᆞᆺ습-("무섭다") 다ᄉᆞᆺ("다섯") ᄋᆞᄉᆞᆺ("여섯")'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위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非語頭音節에서 'ㆍ'가 유지되는 예들이 대개 'ㄹ' 앞에서라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29)처럼 非語頭音節의 'ㆍ'가 유지되어 있는 예들은 모두 'ㅓ'형과 공존하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는 'ㅓ'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29ㄱ)의 'ᄂᆞ물(蔬)'이나 (29ㄴ)의 '따물-(逐)'에서처럼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 이후 脣音 아래 圓脣母音化를 겪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보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 변화 규칙 (2)는 構造變化를 달리하는 규칙(3)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규칙(3) ㆍ > ㅓ / # (C) V (C (C)) ___

(非語頭音節의 'ㆍ'는 'ㅓ'로 변화한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는 앞에서 記述했던 대로 규칙(2)의 적용을 입어 대부분 '·>ㅡ'의 변화를 겪었지만 소수의 형태들은 그 변화의 潮流에서 처지게 되어 후에 일어난 다른 방향의 변화, 즉 규칙(3)의 적용을 입어 '·>ㅓ'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非語頭音節의 '·>ㅓ'의 변화는 'ㅓ'의 後舌化와 관련된다(金完鎭, 1978:132-135). 물론 제주도 노인층 방언화자들이 이들 非語頭音節의 '·'를 보이는 예들을 언제나 실제 音聲形으로 發話하는 것은 아니다. (29ㄱ)의 'ᄂᆞ물(蔬) 오늘(今日)'과 (29ㄴ)의 '따물-(逐)'처럼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를 겪어 이들 형태에서 '·'가 때로는 'ㅡ'(脣音 아래에서는 'ㅜ')로, 또는 'ㅓ'로 실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提報者 홍연옥(69세)의 경우에는 이들 형태를 대체로 'ㅡ' 또는 'ㅓ'를 가진 형태로 發話하지만 주의깊은 發話를 요구 받았을 때 '·'를 유지하고 있는 語形으로 發話한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의 다른 모음으로의 合流가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51)]

(32) ㄱ. 눈ᄌᆞ설(눈ᄍᆞᅀᆞ;능엄 2:15, 睛)
ㄴ. 께덜-(ᄭᆡᄃᆞᆮ-;석보 9:21, 覺) 일컬-(일ᄏᆞᆮ-;석보 9:25, 稱)
도멀-("우승하다")
ㄷ. -은덜("-은들", 거우ᅀᆞᄫᆞᆫᄃᆞᆯ;월곡 62, "건드린들")

51) 이들은 언어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한 가지 示唆를 해주는 듯하다. 즉 언어화자는 언어습득 기간 동안 배운 어휘를 基底形으로 語彙部에 간직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음성 실현상의 逸脫이 일어나 語彙部에 등록된 基底形과 다른 실현형으로 發話하기도 하는데 이들로부터 언어를 배운 언어화자는 이 基底形으로부터 逸脫된 실현형을 새로이 基底形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앞세대와는 基底形뿐 아니라 음성 실현형에서도 달라지게 되어 언어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변화는 음성 실현상의 逸脫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32)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非語頭音節의 '·'를 가졌던 형태인데 語彙形態素이든 文法形態素이든 관계없이 제주도 방언에서는 모두 'ㅓ'를 가진 형태로 대응된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방언에서 규칙(3)의 '·>ㅓ' 변화를 겪은 것이다.[52] (29)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ㄹ' 앞인 점이 흥미롭다. (32ㄱ)은 '눈짜살(睛)'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ㅏ'의 영향인 듯하다. 玄平孝(1962)에 '눈ᄍᆞᆯ'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세국어 문헌어의 '눈ᄌᆞᅀᆞ'와 제주도 방언의 '눈ᄍᆞ설'이 의미차를 보인다. 前者는 "눈자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後者는 "눈 속의 옆에 붙은 붉은 살점 부분"을 가리킨다. (32ㄴ)의 '께덜-(覺)'는 '께달-'로 실현되기도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ㄷ'變則用言은 'ㄹ'계 正則用言과 雙形語를 이루므로 '께덛-, 께닫-'로도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다. 玄平孝(1962)에 '께ᄃᆞᆮ-'가 나타난다. (32ㄴ)의 '일컬-(稱)'도 '일컫-'로 실현됨은 물론이다. 玄平孝(1962)에 '일ᄏᆞᆮ-'로 나타난다. 이는 '*잃-(名)'와 'ᄀᆞᆮ-(曰)'의 複合語로 여겨진다(李基文, 1971b:69-71). (32ㄷ)은 '-은들'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규칙(2)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한편 제주도 방언의 文法形態素 '-을수록'은 '-을ᄉᆞ록, -을쓰록'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규칙(2)의 적용을 입었음이 특이하다. '-은들'이나 '-을쓰록'은 규칙(2)의 적용을 입은 것인바 변화의 시기가 관련된 듯하다.

규칙(2)와 규칙(3)은 構造記述을 같이하는 通時的 규칙이지만 前者가 이미 적용이 중지된 규칙인 데 반하여 後者는 현재 진행 중인 규칙이므로 두 규칙은 동일 시기에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史的 順位를 달리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들은 일부 예에 한하여 語頭音節

52) '모꺼지(몯ᄀᆞ지;번소 10:17, "모꼬지") ᄋᆞ섯("여섯")' 등은 'ㄹ' 앞이 아닌데도 '·>ㅓ'의 변화를 겪었다. 또 '지키-(딕희-;석보 9:12, 守)'는 '지커-'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非語頭音節 '·>ㅓ'의 변화를 겪은 것인 듯하다. 이렇게 보면 '지커-'는 '*직ᄒᆞ-'로 再構되는 셈이다.

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語頭音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는 非語頭音節 '·'의 변화를 보여주는 규칙(3)과 평행하게 語頭音節 '·'의 변화를 보여주는 규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규칙(1)이다.

그런데 규칙(1)과 규칙(2), (3)의 史的 順位가 문제가 된다.

(33) 드르쓰-(드리혀-;능엄 3:15, 吸, "들이키다")
　　 뒈쓰-(드위혀-;능엄 1:16, 反, "뒤집다")
(34) 모저(帽子, ᄌᆞ;訓蒙字會 上:32, 子)
　　 농서(農事, 평ᄉᆞ;소해 6:128, 評事)

(33)은 複合語인데 이들이 '드르싼(드르쓰-+-안, "들이켜서") 뒈싼(뒈쓰-+-안, "뒤집어서")'에서처럼 副詞形語尾로 '-아'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드르ᄊᆞ-(吸) *뒈ᄊᆞ-(反)'로 再構된다. 이 형태가 語幹末에서의 '·>ㅣ' 변화 규칙인 규칙(1)의 적용을 입지 않고 규칙(2)의 적용을 입은 것은 규칙(1)과 규칙(2)의 史的 順位에서 後者가 前者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준다. (34)는 漢字語의 경우인데 규칙(1)과 構造記述이 일치하지만 규칙(3)의 변화를 겪었다. 이 또한 규칙(1)보다 규칙(3)이 史的 順位가 앞선 것임을 알려준다. 이처럼 史的 順位에서 차이를 보이는 조건은 [+foreign] 資質에 있다 할 것이다. (34)는 非語頭音節의 '·>ㅓ' 변화를 보인 것인데 漢字語도 言衆의 의식 속에서 單一形態素인양 여겨질 때에는 漢字語 與否에 관계없이 固有語와 동일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金完鎭, 1971a:132).[53]

규칙(1)-(3)은 음운변화에서 변화를 입는 음소가 語頭音節에 위

53) 이렇게 본다면 '역서(歷史) 장서(葬事) 과저(菓子)' 등도 非語頭音節 '·>ㅓ'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봉서("소경") 창저, 창지("창자") 진쩌("진짜")' 등도 마찬가지로 '·>ㅓ' 변화를 보여준다.

치하는가 非語頭音節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相異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고 있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가 음운변화의 조건이 된 경우이다. (14)의 '-덜(等) -꺼지(至)', (32ㄷ)의 '-은덜("-은들")'을 비교해 보면 '·'의 변화에 한해서 活用이냐 曲用이냐 하는 系列上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요컨대 '·'의 변화에 있어서는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와 語基인가 接尾辭인가 다시 말하면 自立形式인가 依存形式인가 하는 형태소의 종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형태소 내부의 音素配列上의 위치와 형태소가 가지는 統辭配列上의 위치가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셈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제주도 방언에서의 '·'의 변화를 모음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요약하면,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표3)에서 'ㅗ'의 非圓脣的 대립짝이면서 後舌中母音이었던 '·'가 後舌低母音化함에 따라(표4) 모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ㅓ'가 後舌化되면서 圓脣的 대립 관계가 '·:ㅗ'에서 'ㅓ:ㅗ'로 바뀌게 된다(표5). 이 단계에서 'ㅣ'를 제외한 모든 모음이 後舌母音이라는 체계상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ㅔ, ㅐ'의 單母音化가 일어나 9모음체계로 정립되는데(표6)[54] 이때 後舌低母音인 '·'는 규칙(1)에 따라 같은 後舌低母音인 'ㅏ'로 변화하게 된다. '·>ㅏ'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ㅔ'와 'ㅐ'의 음성적 유사성에서 비롯되어 'ㅐ>ㅔ'의 母音 上昇化가 일어나게 되고(표7) 이어 젊은

54) 제주도 방언이 <표5>의 7모음체계에서 <표6>의 9모음체계로 정립되는 과정에 'ㅣ'모음 逆行同化가 관련된다. 'ㅣ'모음 逆行同化는 前舌母音 계열의 單母音을 前提로 하므로 이로부터 앞선 단계의 모음체계를 再構할 수 있게 한다.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는 'ㅡ>ㅣ, ㅓ>ㅔ, ㅏ>ㅐ, ㅜ>ㅟ, ㅗ>ㅚ, ·>ᆡ'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이로부터 12모음체계를 再構할 수 있다(2.1.2.에서 後述).

층에서는 모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ㅗ'의 母音 上昇化가 일어나 현대 제주도 방언의 7모음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표8).[55]

ㅣ		ㅡ(ㅜ)
	ㅓ	·(ㅗ)
	ㅏ	

<표3>

ㅣ	ㅡ	ㅜ
	ㅓ	ㅗ
	ㅏ	·

<표4>

ㅣ	ㅡ	ㅜ
	ㅓ	ㅗ
	ㅏ	·

<표5>

ㅣ	ㅡ	ㅜ
ㅔ	ㅓ	ㅗ
ㅐ	ㅏ	·

<표6=표1>

ㅣ	ㅡ	ㅜ
ㅔ	ㅓ	ㅗ
	ㅏ	·

<표7>

ㅣ	ㅡ	ㅜ
ㅔ	ㅓ	ㅗ
	ㅏ	

<표8=표2>

2.1.2 單母音 'ㅟ', 'ㅚ', '·ㅣ'의 변화

이 節에서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었던 單母音을 再構하고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현대 제주도 방언의 여러 음운현상들 가운데에서 앞선 단계의 모음체계를 再構할 수 있는 음운현상을 고려한다. 이는 현대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가 앞

55)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노인층의 9모음체계와 젊은층의 7모음체계가 共存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 사이의 대화체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선 단계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보는 假定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은 제주도 방언의 이전 시기의 모음체계를 再構할 수 있게 해 준다.

(1) ㄱ. 귀경(구경;월석 2:35, "구경")
ㄴ. 깍뒤기, 깍두기, 깍디기("깍두기")
쌍뒹이, 쌍둥이("쌍둥이")[56]

(2) ㄱ. 궤기(고기;훈몽-초, 하:2, 魚, "고기")
뒝이-(동이-;월석-중 23:73, "동이다")
쉥펜("송편") 웨미즈(오미즈;물보, 약초, "오미자")
줴피, 조피("후추") 쮀끼, 쮀께, 줴께, 쪼께("조끼")
퉤끼, 퉤께, 토끼, 토께(톳기;월석 2:19, "토끼")[57]
ㄴ. 밤쉥이("밤송이")
ㄷ. 쉐기-(소기-;능엄 8:77, 欺, "속이다")
웽기-(옮기-;월곡 105, 移, "옮기다")
ㄹ. 돋베기("돋보기")

(3) ㄱ. 뎅기-(ᄃᆞ니-;두해-초 20:34, 行, "다니다")

---

56) '쌍둥이'는 '골루기(골오기;훈몽-초, 상:17)'와 구분되는데 後者는 "남녀 쌍둥이"만을 가리킨다. 'ㅣ'모음 逆行同化에서 被同化音이 'ㅜ'인 경우는 찾기 어려운데 '니비-("누비다")'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듯하다. 'ㅣ'모음 逆行同化를 입지 않은 '누비-'로 실현되기도 함은 물론이다. 이는 被同化音이 'ㅜ'인 경우에 語頭音節이든 非語頭音節이든 관계없이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이 약화되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중앙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金完鎭, 1963;20).

57) '토끼, 토께(兎)'를,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토테치(*톳+헤치, "토끼 띠")'와 비교해 볼 때 派生接尾辭 '*-게(*-기+*-에)'를 假定할 수 있다. 기원적으로 보면 '토끼'는 '*톳+*-기'로, '토께'는 '*톳+*-게(<*-게)'로 분석이 가능하다. '퉤께'와 '토께'는 'ㅣ'모음 逆行同化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非語頭音節 자음 아래 滑音 'j'의 탈락(2.2.1.1.에서 後述)과 'ㅣ'모음 逆行同化 규칙이 再順位化에 의하여 형태 분화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뗑기-(ᄃᆞᆼ기-;능엄 5:24, 引, "당기다")

ㄴ. 네류-, ᄂᆞ리우-(ᄂᆞ리오-;석보 13:7, 降, "내리게 하다")

데리-, ᄃᆞ리-, ᄃᆞᆯ-(ᄃᆞ리-;석보 9:21, 率, "데리다")

떼리-, ᄄᆞ리-(ᄯᆞ리-;월곡 77, 打, "때리다")58)

ㄷ. 쳉빗(ᄎᆞᆷ빗;훈몽-초, 중:8, "참빗")

(1)-(3)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ㅣ'모음 逆行同化의 예인바 각각 被同化音이 'ㅜ, ㅗ, ㆍ'인 경우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被同化音이 'ㅏ, ㅓ, ㅡ'일 경우에도 '개볍-, 개벱-("가볍다") 배꼇("바깥") 맹긴("망건") 송애기("송아지"), 페기(퍼기;두해-초 15:6, "포기") 세규(石油) 뎀비-("덤비다") 건데기("건더기"), 기냥, 그냥("그냥") 기리-(畵, "그리다") 디리-, 드리-(드리-;석보 6:7, 獻)'에서 보듯 'ㅣ'모음 逆行同化가 일어난다.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는 음운론적 또는 비음운론적 제약 조건이나 同化音, 被同化音의 성격 등에서 중앙어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제주도 방언에서 이 現象은 형태소 내부에서만 일어나는바 '쌔이-, 싸이-("쌓이다") 깨끼-("깎이다") 메기-("먹이다"), 데피-("덮히다") 매키-("막히다"), 매끼-("맡기다") 베끼-("벗기다")' 등에서처럼 被使動의 接尾辭 '-이-, -히-, -기-'와 '손제비("손잡이")' 등에서처럼 名詞派生接尾辭 '-이'를 제외한 接尾辭나 語尾와의 결합에서는 이 現象이 일어나지 않는다. 漢字語는 漢字 各字가 한 형태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깨격(價格)' 등에서처럼 固有語처럼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現象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미(거믜;훈몽-초, 상:11, 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被同化音이 純正의 'ㅣ'가 아닐 경우에

---

58) 이들이 'ㄹ'를 介在子音으로 가지면서도 'ㅣ'모음 逆行同化의 적용을 보이는 것은 被同化音을 포함한 음절의 頭音이 'ㄴ, ㄷ, ㄸ'이기 때문이다. 被同化音을 포함한 음절의 頭音이 'ㄷ'나 'ㄴ'이면 介在子音이 'ㄹ'이더라도 'ㅣ'모음 逆行同化의 적용을 입는다(金完鎭, 1963:20).

는 이 現象이 제약을 받으며 '따시("다시") 보리(麥) 도라지("도라지") 다님, 다림("대님"), ᄀᆞᆷ지-(洗, "감기다") 발기-("발기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介在子音이 'ㅅ, ㄹ, ㅈ, ㄴ' 등인 경우 및 이 자음을 포함한 子音群인 경우에도 이 現象의 적용을 방해한다.[59] (1)의 '귀경("구경") 깍뒤기("깍두기") 쌍뒹이("쌍둥이")', (2ㄱ)의 '궤기(魚) 뒝이-("동이다") 쉥펜("송편") 웨미ᄌᆞ("오미자") 췌피("후추") 쵀끼("조끼") 퉤끼(兎)', (2ㄴ)의 '밤쉥이("밤송이")', (3ㄱ)의 '뎅기-(行) 뗑기-(引)', (3ㄴ)의 '네류-(降) 데리-(率) 떼리-(打)'는 형태소 내부의 'ㅣ'모음 逆行同化의 예이며 (2ㄷ)의 '쒜기-(欺) 웽기-(移)'는 使動의 接尾辭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ㅣ'모음 逆行同化의 예이다. (3ㄱ)의 '뗑기-(引)'는 제주도 방언에서 'ᄃᆞᆼ기-'로도 실현되는데 이는 非語頭音節 'ᆡ'의 변화(2.2.2.3.에서 後述)와 관련을 갖는다. 'ㅣ'모음 逆行同化의 적용을 입는 시기에 이 형태는 이미 'ᆡ>ㅢ>ㅣ'의 변화를 겪어 이 現象의 적용에 어떠한 제약도 가지지 않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한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 조건이 일치하는 모든 형태소가 동시에 그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陳述(金完鎭, 1963:26-27)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ᄃᆞᆼ기-'는 非語頭音節 'ᆡ>ㅢ>ㅣ'의 변화를 가장 먼저 겪은 형태여서 'ㅣ'모음 逆行同化의 적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어에서도 'ㅣ'모음 逆行同化를 겪은 '땡기-'로 실현된다. (2ㄹ)의 '돋베기("돋보기")', (3ㄷ)의 '첑빗("참빗")'은 형태소 내부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한 형태소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 現象의 적용을 입은 것인데 (2ㄹ)은 '돋보기>*돋뵈기>*돋붸기>돋베기'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1)-(3)은 제주도 방언에 'ㅣ'모음 逆行同化가 실현되었음을 보여

---

59) 統合的 음운현상인 'ㅣ'모음 逆行同化의 음운론적 記述과 그 제약에 관해서는 金完鎭(1963:17-20), 李秉根(1971)을,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에 관해서는 拙稿(1988:64-68), 金光雄(1988:151-161)을 참조.

주는데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이 실현된다면 이 現象이 실현되는 데에 필요한, 前舌母音 계열의 單母音을 前提로 하는 모음체계가 이미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統合的인 現象만으로 系列的인 構造를 파악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일테지만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은 앞선 단계의 系列 構造를 반영하는 現象이라 여겨지므로 이로부터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單母音 'ㅟ, ㅚ,[60] ᆡ'를 再構하는 것이 가능하다.[61] "統合的인 現象만으로 音韻構造上의 사실까지 立證하려는 태도는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後者에 관여하는 前者가 출현하면 적어도 後者의 力動은 믿어도 좋으리라 생각"(李秉根, 1970b:378)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ㅟ, ㅚ'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각각 二重母音 'ㅟ[wi], ㅞ'를 가진 형태로 대응될 뿐 아니라 單母音 'ᆡ[ë]' 또한 실현되지 않으므로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ㅟ, ㅚ, ᆡ'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62]

(4) ㄱ. 위허-(위ᄒᆞ-;석보 6:7, "爲하다")

---

60) 小倉進平(1944)의 '번괴("번게") 박쇠기("바가지")'는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ㅚ'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들이 實在한 형태였다면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ㅚ'의 二重母音化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인 듯하다.

61) 拙稿(1988:66-68)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가 'ㅡ>ㅣ, ㅓ>ㅔ, ㅏ>ㅐ, ㅜ>ㅟ, ㅗ>ㅚ, ㆍ>ᆡ'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12모음체계를 再構하였다.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ᆡ	ㅏ	ㆍ

62) 이 글에서 'ㅟ'는 일반적으로 二重母音 '[wi]'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單母音 '[ü]'는 '單母音 ㅟ'로 구별하여 쓰기로 한다.

귀(귀;석보 6:28, 耳) 뛰(뒤;훈민-원, 해례:24, 茅)
쉬-(쉬-;법화 8:128, 休) 쉰(쉰;월석 8:103, 五十)
튀-(뛰-;능엄 8:138, 뛰-;두해-초 25:19, "뛰다")
ㄴ. 사위(사회;석보 6:16, 壻, "사위") 돌철귀("돌쩌귀")
진쉬("진딧물") 사뒤("김매는 노래")
(5) ㄱ. 웨-(외-;석보 9:14, 非, "그르다")
퀘(꾀;법화 6:175, 謀, "꾀") 쉐(쇠;훈몽-초, 중:15, 鐵)
ㄴ. 반퉤("반 되", 되;월석 9:7, 升)
(6) ㄱ. 게철(開鐵, "열쇠", ᄀᆡ독ᄒᆞ-;박번, 상:8, 開櫝)
세이, ᄉᆞ이(ᄉᆞ이;두해-초 15:47, "사이")
엑(ᄋᆡᆨ;신합, 하:35, 厄) 케-(ᄏᆡ-;월석 1:52, 採, "캐다")
ㄴ. 모기(모ᄀᆡ;석보 9:9, 蚊) 가시(가ᄉᆡ;능엄 5:25, 荊)
(7) 기량(改良, ᄀᆡ가;소해 2:48, 改嫁) 히방(解放)

(4ㄱ), (5ㄱ), (6ㄱ)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音節에서 單母音 'ㅟ, ㅚ, ㆎ'가 실현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이며 (4ㄴ), (5ㄴ), (6ㄴ)은 非語頭音節에서 單母音 'ㅟ, ㅚ, ㆎ'가 실현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이다. (4), (5)의 예들을 문헌어와 비교해 보면 문헌어의 下向 二重母音 'ㅟ[uj]'와 'ㅚ[oj]'가 제주도 방언에서는 각각 上向 二重母音 'ㅟ[wi]'와 'ㅞ'로의 대응을 보여주므로 제주도 방언의 單母音 'ㅟ[ü]'와 'ㅚ[Ö]'가 음절 구조나 선행하는 음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계없이 각각 二重母音 'ㅟ[wi]'와 'ㅞ'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2.2.2.에서 後述)이었던 'ㅟ'나 'ㅚ'가 單母音化를 거치지 않고 二重母音 'ㅟ[wi]'나 'ㅞ'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6)은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ㆎ[ë]'가 語頭音節의 경우에는 'ㅔ'로, 非語頭音節의 경우에는 'ㅣ'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 'ㆎ'가 語頭音節에서 직접

'ㅔ'로 單母音化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小倉進平(1944)에는 '긔와("호주머니") 늬(煙, "내") 븨(腹) 븨또롱("배꼽") 싀중이("장딴지") 틔(群, "떼") 틔성몰(台星馬), 씰긔("쓸개") 너늬(汝) 버렁이("벌레") 간믹(笠子) 몰밍이("마름") 돌빙이("달팽이")' 등에서처럼 單母音 'ᆡ'가 실현되는 예가 보고되어 있다. 小倉進平(1944)의 보고나 前述한 'ㅣ'모음 逆行同化를 통하여 추측해 보면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ᆡ'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듯하다(李基文, 1977:190-191, 拙稿, 1988:66-68).[63] 또한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에서도 二重母音 'ᆡ'가 직접 'ㅣ'로 單母音化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6ㄴ)의 '모기(蚊) 가시(荊)'는 單母音 'ᆡ>ㅣ'의 직접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라기보다는 下向 二重母音 'ᆡ'가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를 겪어 'ㅢ'로 변화한 이후 자음 아래 'ㅢ>ㅣ'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개의, 前舌圓脣 單母音의 二重母音化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규칙(4) ㅟ[ü] > ㅟ[wi] / ___ anywhere
(單母音 'ㅟ[ü]'는 二重母音 'ㅟ[wi]'로 변화한다.)
규칙(5) ㅚ[Ö] > ㅞ[we] / ___ anywhere
(單母音 'ㅚ[Ö]'는 二重母音 'ㅞ[we]'로 변화한다.)
규칙(6) ᆡ[ë] > ㅔ[e] / ___ anywhere
(單母音 'ᆡ[ë]'는 單母音 'ㅔ[e]'로 변화한다.)

---

63) 하지만 石宙明(1947:176)에서는 "ᄋᆞ音에 對해서는 나는 小倉博士의 意見과 全同하지만 小倉博士(1931)가 認定하는 'ᄋᆡ'音은 내게는 區別하기에 困難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否定的인 언급을 하고 있다. 前舌圓脣低母音의 불안정성으로 單母音 'ᆡ'가 짧은 기간 동안만 실현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규칙은 제주도 방언의 單母音體系를 12모음체계에서 9모음체계로 정립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 모음체계의 최대 체계인 12모음체계의 불안정성이 前舌圓脣母音 계열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규칙(4)-(6)은 'ㆍ'의 변화 규칙인 규칙(1)-(3)과의 史的 順位가 문제가 된다.[64] 규칙(4)-(6)은 이 규칙의 입력을 제공하는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규칙(11)-(13)이 前提되어야 하는데 이들 중에서 규칙(6)과 규칙(13)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이 규칙들 사이의 史的 順位를 推定해 볼 수 있다. 규칙(13)은 규칙(2)보다는 史的 順位가 뒤지는 것이고(2.2.2.3.에서 後述) 규칙(6)은 규칙(13)이 前提되어야 하므로 규칙(4)-(6)은 최소한 규칙(2)보다는 뒤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7)의 '기량(改良) 히방(解放)'은 규칙(4)-(6)이 제주도 방언에서 音長이 示差的이던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ᆜ>ㅔ'의 변화 이후 'ㅔ>ㅣ'의 高母音化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2.2 二重母音의 변화

이 節에서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二重母音을 再構하고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현대 제주도 방언의 二重母音體系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二重母音體系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共時態만으로 모든 通

64) 규칙(4)-(6) 사이의 史的 順位는 현재로서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음운론적 과정에서 같은 系列의 요소들이 동일한 행위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칙(4)-(6)이 동일한 시기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로써 보면 前舌圓脣 系列의 單母音들이 변화를 겪은 것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推論이 'ㅟ, ㅚ, ᆜ'의 單母音化가 동일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까지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時的 언어사실까지도 추측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테지만 共時的 언어상태는 通時的 언어변화의 결과일 것이므로 筆者는 제주도 방언의 共時的 언어사실로부터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를 추정해 보려 한다. 아울러 共時的이든 通時的이든 單母音體系와 二重母音體系는 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므로 單母音體系와 二重母音體系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二重母音들을 再構할 것이다.

2.2.1 上向 二重母音

현대 제주도 방언은 9개의 單母音과 12개의 上向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다(拙稿, 1988:10-15). 제주도 방언의 二重母音은 'j'계와 'w'계, 두 종류가 있는바 單母音體系와 관련지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ㅣ	ㅡ	ㅜ			ㅠ	ㅟ	
ㅔ	ㅓ	ㅗ	ㅖ	ㅕ	ㅛ	ㅞ	ㅝ
ㅐ	ㅏ	ㆍ	ㅒ	ㅑ	ᆢ	ㅙ	ㅘ
<單母音>			<'j'계 二重母音>			<'w'계 二重母音>	

위 표에서 보듯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지 않는 二重母音은 'ji, jɨ', 'wɨ, wu, wo, wɐ' 등이다. 'ji', 'wu, wo, wɐ' 등은 제주도 방언의 체계적 제약에 의한 빈칸이며 'jɨ', 'wɨ' 등은 우연적인 빈칸이다(拙稿, 1988:13-14). 이들이 현대 국어의 다른 방언에서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jɨ'가 기대되는 위치에서도 제주도 방언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李翊燮(1972:103, 1981:92-94), 李秉根(1973:137)에 지적되어 있는 것

처럼 다른 방언의 경우 長音인 'jə'는 母音 上昇化하여 'jɨ'로 실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共時的으로는 示差的이지 않지만 이전 시기에는 音長이 示差的이었던 것(拙稿, 1988:69-70)으로 보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연너-(軟+허-, 연ᄒᆞ-;구간 6:9, "軟:하다") 율-(열-;월곡 178, 開, "열:다") 영장("永:葬")'에서 보듯 長音이었을 'jə'가 母音 上昇化하여 二重母音 'jɨ'로 실현되는 것을 모른다. 제주도 방언에서 'wi'는 '고우난(麗, "고우니까")'에서처럼 'u'로 실현되므로 나타날 수 없다. 이들 여섯을 제외하곤 다른 二重母音들은 表面에 대체로 실현된다.

2.2.1.1 'j'계 二重母音

제주도 방언의 二重母音의 실현은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음절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바 자음을 頭音으로 가지지 않은 음절에서 二重母音이 가장 잘 실현된다.

(1) ㄱ. 예("예") 예놈("왜놈", 예;용가 7:16.52, 倭)
예순(예슌;노번, 하:11, 六十)[65]
ㄴ. 얘기("이야기")
ㄷ. 여("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물이 빠졌을 때 나타나 보이는 돌")
여물(여믈;박번, 상:21)
감비역(감보기;탕액 1:25, "깜부기") 메역("미역")
ㄹ. 야게기("모가지")
세숟대양(세수#대양, 다야;훈민-원, 해례:26, 盂, "대야")

65) 제주도 방언의 處格 助詞 '-에'는 선행하는 語幹이 'ㅣ'로 끝나는 경우에 '머리에, 머리예("머리에")'에서 보듯 隨意的으로 '-예("-에", 귀예;월곡 2, "귀에")'로도 실현된다. 이는 同器官的 滑音의 삽입 현상이다.

ㅁ. 윤디(인도;동해, 하:17, "인두") 조육(教育)

ㅂ. 요(욯;월곡 117, 褥) 애욕("고름뿌리")

(2) ㄱ. -영("-랑", 느영나영, "너랑나랑")

ㄴ. -여("-여", 헤연, "하여서")[66]

(3) ㄱ. ᄋᆢ답, ᄋᆢ덥(여듧;월석 1:30, 여ᄃᆞᆲ;속삼, 효:19, 八)

ᄋᆢ드레(여ᄃᆞ래;월석 2:35, 八日)

ᄋᆢ든(여ᄃᆞᆫ;삼강, 충:19, 여든;월석 2:49, 八十)

ᄋᆢ라(여러;석보 6:28, 諸) ᄋᆢ름(여름;월석 1:12, 實)

ᄋᆢ섯(여슷;월석 9:58, 여ᄉᆞᆺ;속삼, 효:10, 六)

ㄴ. ᄋᆢ끄-(엮-;석보 13:53, 編, "엮다")

ᄋᆢᆯ-(열-;석보-중 11:2, 結, 열-;월곡 178, 開)

ᄋᆢᆷ-(여믈-;법화 3:12, 結, "여물다")

ㄷ. ᄋᆢᆨ-("약다")

ㄹ. ᄋᆢ망지-("미련하지 않고 똑똑하다")

(1)은 語彙形態素의 경우이며 (2)는 助詞나 語尾의 文法形態素의 경우인데 이들 예에서 보는 대로 제주도 방언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 語彙形態素이든 文法形態素이든 관계없이 'j'계 二重母音 'ㅖ, ㅒ, ㅕ, ㅑ, ㅠ, ㅛ'는 잘 실현된다.[67] 한편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3)에서 보는 대로 語頭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李崇寧, 1957:5-7, 玄平孝, 1962, 李基文, 1972b:125-127, 1977:184-190)되는바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共時的으로 실현되는 특이한 'j'계 二重母音이다. (3ㄱ), (3ㄴ)의 예들은 대체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ㅕ'로 대응하는데 이로 보아 중세국어 이전

---

66)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副詞形語尾 '-여'는 'ᄒᆞ-(爲)'에만 결합되는 副詞形語尾 '-아/어'의 異形態이다.

67) 文法形態素의 경우에는 'ㅕ' 실현예만을 제시했다. 우연하게도 다른 二重母音이 실현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기에 문헌어에서는 'ᆢ'가 'ㅕ'로 合流하였음을 알 수 있다.[68] (3ㄷ), (3ㄹ)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되는 형태이다. 여기에 제시한 예 이외에도 李崇寧(1957)에는 'ᄋᆢᆨᄒᆞ-("야무지다") ᄋᆢ석("남자의 비칭")', 玄平孝(1962)에는 'ᄋᆢ보록ᄉᆞ보록("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기회를 자꾸 엿보는 모양") ᄋᆢ붓ᄋᆢ붓("여짓여짓") ᄋᆢ습("소 나이 여섯 살") ᄋᆢ시-("야수다") ᄋᆢ지-, ᄋᆢᆺ-("얹다") ᄋᆢᆨ동이("약동이") ᄋᆢᆨ삭-("꾀가 있고 약삭빠르다") ᄋᆢᆨᄋᆢᆨᄒᆞ-("사람이 약고 미련하지 않다") ᄋᆢᆸᄈᆞ르-, ᄋᆢᆨᄈᆞ르-("약빠르다") ᄋᆢᆸ빗("시루떡에서 변으로 베어낸 것") ᄋᆢᆸ전("엽전") ᄋᆢᆺ새("피륙 따위의 일곱 치 빠듯한 넓이") ᄋᆢᆺ쉐("엿새") ᄋᆢᆺ아듣-("엿듣다") ᄋᆢᆼ("이렇게") ᄋᆢᇁ가슴("앙가슴의 양쪽 옆")'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원적으로 二重

---

68) 다시 말하면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j' 뒤의 'ㆍ'가 'ㅓ'로 合流했다는 것인데 이는 'ㅓ'의 後舌化로부터 비롯된 후대에 일어난 'ㆍ>ㅓ'의 변화(2.1.1. 참조)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ㆍ'의 출현 제약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특별한 출현 제약을 가지지 않던 'ㆍ'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중세국어 시기에 자음 뒤에서만 실현된다는 출현 제약을 보이게 됨에 따라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존재하던 'ᆢ'가 滑音 'j' 뒤에서 'ㆍ>ㅓ'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ㆍ'가 音節 頭音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출현 제약을, 즉 'ㆍ'가 자음뿐 아니라 滑音 'j'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출현 제약을 가지게 되어 'ᆢ'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중세국어 문헌어는 滑音 'j' 뒤에서 'ㆍ'가 실현될 수 없었으며 제주도 방언은 滑音 'j' 뒤에서 'ㆍ'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ᆢ'의 실현에서 중세국어 문헌어와 제주도 방언의 相異는 일종의 'ㆍ'의 출현 제약의 相違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런데 방언이 通時的 變化의 空間的 投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세국어 문헌어의 'ㆍ'의 출현 제약이 두 단계에 걸친 것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첫단계는 'ㆍ'가 '#(C)[-voc] ___'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출현 제약이고 둘째 단계는 '#[+cons] ___'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출현 제약이다. 前者는 현대 제주도 방언의 경우와 동일하며 後者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종의 출현 제약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를 경험한 셈이다.

母音 'ᆢ'를 가졌던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현재까지 모두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함경북도 육진지역어(郭忠求, 1991: 210-211)에서는 二重母音 'ᆢ'에 대응하는 모음이 'ㅑ'로 反射되어 있는데[69] 이는 語頭音節의 'ㆍ>ㅏ' 변화를 입은 것이므로 이 방언에서 'ㆍ>ㅏ'의 변화가 일어난 때까지 二重母音 'ᆢ'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열(야리:試篇露韓小辭典 42, 十)'은 제주도 방언에서 'ᅇᆢᆯ'로 나타나지 않는바 기원적으로 존재했을 모든 'ᆢ'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j'계 二重母音은 선행하는 자음의 音韻部類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실현된다. 이는 'j'가 [palatal]의 음소여서 口蓋音化 現象과[70]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j'계 二重母音

---

69) 이는 경상북도 월성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崔明玉, 1982:17-18).

70) 제주도 방언은 새로이 중앙어의 영향을 받은 일부 單語를 제외하면 'ㄷ'口蓋音化, 'ㄱ'口蓋音化, 'ㅎ'口蓋音化를 대체로 겪은 형태를 보여준다.

제주도 방언은 語頭音節이든 非語頭音節이든 관계없이 'ㄷ'口蓋音化를 보여주는데 '좋-(둏-;월석 17:17-18, "좋다") ᄌᆞ지(ᄌᆞ디;능엄 5:57, 紫, "자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ㄷ'口蓋音化의 실현 양상이나 제약에서 중앙어의 경우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더디-(더듸-;능엄 4:100, 遲)'에서 보듯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同化主가 기원적으로 二重母音에서 유래한 'ㅣ'일 경우에는 口蓋音化를 겪지 않았다. 형태소 경계에서 'ㄷ'口蓋音化를 보이는 경우는 語末子音이 'ㄷ, ㄸ, ㅌ'인 語幹에 '-이' 또는 '-히'로 시작하는 助詞나 語尾가 결합할 때인데 제주도 방언의 體言語幹에는 이들 자음을 末音으로 가지는 語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用言語幹에는 'ㄸ, ㅌ'를 末音으로 가지는 語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3.4.에서 後述)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ㄷ'口蓋音化는 '무치-(묻-+-히-, 埋)'에서처럼 'ㄷ'를 末音으로 가지는 用言語幹에 '-이' 또는 '-히'로 시작하는 接尾辭가 결합할 때로 한정된다.

제주도 방언은 '질(긿;월석 10:23, 路), 심(힘;법화 7:51, 力) 상(향;속삼, 효:29, 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語頭音節에 한하여 'ㄱ, ㅎ'의 口蓋音化를 겪었다. 물론 '기-(긔-;월석 1:11, 匍) 히-(희-;법화 1:148, 白, "희다")'에서처럼 同化主가 기원적으로 二重母音에서 유래한 'ㅣ'의 경우에는

은 口蓋音化된 'ㅈ, ㅉ, ㅊ, ㅅ, ㅆ' 아래에서는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滑音 'j'가 탈락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다.

(4) ㄱ. 제(祭祀, 졔ᄒᆞ-;훈몽-초, 하:5, 祭)
ㄴ. 적(젹;훈몽-초, 중:10, 炙) 몬저(몬져;석보 9:9, 先, "먼저")71)
-고정("-고자", ᄇᆞ리고져;석보 9:7, "버리고자")
ㄷ. 장(쟝;훈몽-초, 중:10, 醬)
창지(챵ᄌᆞ;노번, 하:38, 腸, "창자")
ㄹ. 죽(쥭;능엄 8:97, 粥)
ㅁ. 족-("작다", 죠고마;석보 9:44, 小) 초(쵸;법화, 서:22, 燭)
(5) ㄱ. 세간(셰간;번소 9:22, 家具)
ㄴ. 섬(셤;훈민-원, 해례:25, 島)

'ㄱ, ㅎ'의 口蓋音化를 겪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반지-("반기다")'를 '반갑-(*반기-+-압-, "반갑다", 반가비;월곡 128)'와 비교해 보면 '반지-'가 非語頭音節에서 'ㄱ'口蓋音化를 겪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지-(신-+-지-, "신기다") ᄀᆞᆷ지-(ᄀᆞᆷ-+-지-, 洗, "감기다") 굶지-(굶-+-지-, "굶기다") 곱지-(곱-+-지-, "숨기다") 빋지-(빗-+-지-, 빗기-;월석 1:27, 梳)' 등에서처럼 'ㄴ, ㅁ(ㄹㅁ), ㅂ, ㅅ' 등의 자음을 末音으로 가지는 語幹에 결합되는 使動의 接尾辭 '-지-'는 '-기-'에서 'ㄱ'口蓋音化를 겪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動名詞形 語尾 '-기'는 제주도 방언에서 '-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형태는 非語頭音節에서 'ㄱ'의 口蓋音化를 겪은 것이 아니라 15세기 문헌어의 語尾 '-디'에서 'ㄷ'口蓋音化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金光雄, 1988:116). 제주도 방언에서 動名詞形 語尾 '-기'를 대신하는 語尾 '-지'는 '가지실프다("가기 싫다") 듣지실프다("듣기 싫다") 먹지실프다("먹기 싫다")' 등에서 보는 대로 用言 '실프-("싫다")' 앞에만 결합되는데 이는 安秉禧(1967:254)에서 지적한 대로 用言 '어렵-(難) 둏-(好)' 앞에서 否定語와 같이 否定의 副詞形語尾 '-디'가 결합되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경우(乞食ᄒᆞ디 어렵고;석보 6:23, 보디 됴ᄒᆞ니라;박번, 상:5)와 평행하다.

71) '모녀'로도 실현된다. 이는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형 '*몬져'의 再構를 가능하게 해준다. 제주도 방언의 '*몬져, 모녀(先)'가 중세국어 문헌어의 雙形語 'ᄆᆞᆫ지-(법화 6:31), ᄆᆞ니-(월석 21:133, 撫, "만지다")'와 평행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보선(보션;두해-초 8:27, "버선")
-에서("-에서", 會中에셔;석十九 5, "會中에서")
불써(불써;석보 6:35, 已, "벌써")

ㄷ. 상퉁이(샹토;소해 2:2, 샹투;훈몽-초, 중:12, 冠, "상투")
조상(조샹;소해 6:40, 祖上)

ㄹ. 수박(슈박;노번, 하:38, 西瓜) 국수(국슈;역해, 상:51, 麵)
예순(예슌;노번, 하:11, 여쉰;능엄 2:6, 六十)

ㅁ. 소시랑, 쉐시렁(쇼시랑;훈몽-초, 중:9, "쇠스랑")

(6) ㄱ. 제(契) 제우(계오;번소 9:2, 계우;번소 10:29, 僅, "겨우")
제ᄌᆞ(뎨ᄌᆞ;박번, 상:36, 弟子)

ㄴ. 저를(겨를;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7, 暇)
절(뎔;훈민-원, 해례;26, 寺)

ㄷ. 자웃자웃("갸웃갸웃") 장게(댱가;석보 6:22, 婚姻, "장가")[72]

ㄹ. 줄(귤;구간 1:40, 橘) 중진(듕신;내훈-초 1:79, 媒, "중매인")

ㅁ. 조ᄋᆞ(教育, 교화;소해 6:15, 教化) 좋-(둏-;석보 6:35, 好)

(7) ㄱ. 세(혀;훈민-원, 해례:21, 舌)[73]
세아리-(혜아리-;법화 3:198, 料, "헤아리다")

ㄴ. 선금(現金) 성(형;속삼, 효:22, 兄)

ㄷ. 상교, 생교("향교")[74]

ㄹ. 수지(슈지;첩신 4:19, 休紙) 숭(흉;소해 6:40, "흉")

ㅁ. 소제(孝子, 효도;훈몽-초, 하:11, 孝道)

(8) ㄱ. 까격(價格) 성교사(宣教師)

ㄴ. 동녕바치("동냥아치", 동냥ᄒᆞ-;역해 상:26)

---

72) '는서월사람댜(는+서월+살-+-암-+-디-+-아, "너는 서울에서 살고 있니?")'에서처럼 제주도 방언의 疑問法語尾 '-댜'는 'ㄷ' 아래에 'j'계 二重母音이 결합된다는 점과 'ㄷ'口蓋音化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물론 '-디야, -다, -자'로도 실현된다.

73) '혀>세'의 변화는 語幹末 '-이'의 첨가와 관련된다.

74) '행교'로 실현되기도 한다. 口蓋音化를 겪기 전에 자음 아래 滑音 'j'탈락을 겪은 것이다.

빈녈(貧血) 숭년("흉년", 년;박번, 상:57, 年) 기냥("그냥")
구늉다리("말을 잘 안하고 속에서만 우물우물하는 사람")
시늉("시늉")

ㄷ. 할량(할냥;동신, 열 7:51, 閑良) 골련, 궐련(卷煙, "궐련")
바령("휴경기에 마소를 가두어 두엄 등을 받아 밭을 기름지게 하는 것")
훌륭어-("훌륭하다")

(9) ㄱ. 계수나무(계수나무, 계슈;신합, 상:8, 桂) 게숙(繼續)
게시-(겨시-;석보 13:12, 계시-;선가, 하:44, 有)
토께(톳기;월석 2:19, 兎, "토끼") 쪠께("조끼")

ㄴ. 빈네(빈혀;두해-초 15:4, 簪, "비녀")
은네(은혜;박번, 상:43, 恩惠)[75]

ㄷ. 홀레(婚禮)

(10) ㄱ. -네("-다", 머검시네, 먹-+-엄시-+-네, "먹고 있다")

ㄴ. -냐("-냐", 감시냐, 가-+-암시-+-냐, "가고 있냐")[76]

(4), (5)는 口蓋音音化된 'ㅈ, ㅊ, ㅅ, ㅆ' 아래에서 'j'계 二重母音의 滑音 'j'가 탈락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77] (6), (7)은 'ㄷ'口蓋音化, 'ㄱ'口蓋音化, 'ㅎ'口蓋音化에 의하여 형성된 口蓋音 아래에서도 'j'계 二重母音의 滑音 'j'가 탈락함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同器官的 滑音 탈락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

75) 'ㄴㅎ>ㄴㄴ'의 변화는 3.1.에서 後述.

76) '느네 아방 지비 감시냐?("너희 아버지 집에 가고 있니?"), 느네 아방 어디 감시니?("너희 아버지 어디 가고 있니?")'의 두 文章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방언의 疑問法語尾 '-냐'는 判定疑問만을 나타내 주는 語尾이며 說明疑問을 나타내 주는 語尾는 '-니'이다.

77) '샤와, 사와("샤워") 가샤, 가사(가-+-아시-+아, "갔니?")' 등에서처럼 제주도 방언에서 隨意的이지만 'ㅅ' 아래에서 'j'계 二重母音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前者는 外來語의 경우이고 後者는 時相의 先語末語尾 '-아시-'에 疑問法語尾 '-아'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규칙(7) j > ø / [palatal] ___ V

(口蓋音 아래에서 滑音 'j'는 탈락한다.)

제주도 방언의 二重母音은 선행하는 음소의 音韻部類에 따른 변화를 보이거나 無條件 변화를 보이므로 그 변화가 음운론적으로 설명된다. 규칙(7)은 '드르쓰-(드리혀-;능엄 3:15, 吸, "들이키다")'를 고려해 볼 때 非語頭音節 '·'의 변화 규칙인 규칙(2)보다는 史的 順位에서 앞선다. '드르쓰-(吸)'는, 문헌어와의 비교로부터 再構가 가능한 '*드르ᄒᆢ-[tirih'jɐ-]'에 'ㅎ'口蓋音化와 규칙(7)이 적용된 '*드르ᄊᆞ-'가 규칙(2)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규칙(2)가 규칙(7)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선 것이라면 이는 규칙(1)이나 규칙(3)이 적용되어 '드르싸-' 또는 '드르써-'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칙(7)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共時的으로도 확인(拙稿, 1988:38- 39)되는바 이로써 보면 규칙(7)은 通時的으로 규칙(2)를 타고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규칙들의 交叉(overlapping)를 인정한 셈이다. 위의 규칙(7)과 관련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8)에서처럼 'j'계 二重母音이 대체로 실현된다. 하지만 'ㅖ'등의 'j'계 二重母音은 (9)에서 보는 대로 滑音 'j'의 탈락을 겪은 형태로 실현된다.[78] (10)은 語尾의 경우인데 'j'계 二重母音이 실현된다. (10ㄱ)은 자음 뒤에서 二重母音 'ㅖ'가 실현되는 예인바 (9ㄴ)의 예와 비교를 해 보면 語彙形態素와 文法形態素가 二重母音의 실현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j'계 二重母音을, 선행하는 자음의 音韻部類와 관련지어 살펴볼 때 다음의 예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

78) (9)의 예들 중에 일부는 '퉤께("토끼") 줴께("조끼") 홀례(婚禮)' 등에서 처럼 滑音 'j'의 탈락을 겪지 않은 형태와 共存한다. 'j'계 二重母音의 실현에서 (8)과 (9)가 보이는 차이는 核母音의 음운론적 성격에서 비롯된 듯하다. (8)의 경우는 核母音이 後舌母音이며 (9)의 경우는 核母音이 前舌母音이다.

(11) ㄱ. ᄌᆢ드렝이(견;월석 2:13, 겨드랑;언두, 하:43, 腋, "겨드랑이")79)

ᄌᆢᆮ-("겯다") ᄌᆢ를(겨를;월석, 어제월인석보 서:17, 暇)

ㄴ. 바농ᄌᆢᆯ레("바늘겨레")80)

(12) ᄋᆢ름(녀름;두해-초 10:9, 夏)

ᄋᆢᆷ퉁(념통;훈몽-초, 상:14, "염통")

ᄋᆢᆸ갈리, ᄋᆢᆸ구레(녑;훈민-원, 해례:22, 녑구레;훈몽-초, 상:13, 脇, "옆구리")

(13) ᄌᆢᆨ-("어떤 물건의 끝에 액체를 묻혀내다", 뎍-;목우 38, 點)

ᄍᆢᆯ르-(뎌르-;법화 2:167, 뎌ᄅᆞ-;법화 2:168, 短, "짧다")

(14) ᄉᆢ답(셰답;역보 44, "빨래")81)

(15) ᄌᆢ낙(져녁;역해, 상:2, 夕) ᄌᆢ믈-(져믈-;두해-초 8:66, 暮)

ᄌᆢ베기, ᄌᆢ바기(슈져비;사해-중, 상 77, "수제비")

ᄌᆢᆺ(졋;능엄 7:17, 乳)

ᄎᆢᆫᄎᆢ니("천천히", 쳔쳔ᄒᆞ-;월곡 120, 慢)

(16) ᄀᆢ렵-, ᄀᆢ렵-(ᄀᆞ랍-;소해 2:3, "가렵다") ᄆᆢ릅-, ᄆᆢ렵-("마렵다")

(11)-(16)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 位置에서만 실현되는 二重母音 'ᆢ'가 語頭音節 頭音을 가지는 경우에도 실현될 수 있었음

---

79) 'ᄌᆢ껭이'로도 실현된다. 문헌어의 '견(腋)'과 제주도 방언의 'ᄌᆢ드렝이, ᄌᆢ껭이'로부터 語基 '*ᄌᆢᆮ'이 再構된다. '*ᄌᆢᆮ'에 派生接尾辭 '*-으렝이'가 결합되어 'ᄌᆢ드렝이'로, 派生接尾辭 '*-겡이'(웬겡이, 웬+*-겡이, "왼손잡이")가 결합되어 'ᄌᆢ껭이'로 나타난 것이다.

80) '바농ᄍᆢᆯ레, 바농잘레'로도 실현된다. '바농잘레'는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81) 'ㅅ' 또는 'ㅎ' 아래에 二重母音 'ᆢ'가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형태로 '사-(立) 싸-(引, "켜다") 쌀물, 싼물("썰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玄平孝(1962)에 'ᄉᆢ-(셔-;석보 19:13, 立, "서다") ᄉᆢᆯ물(혈물;교시조 1206-24, "썰물")'로 나타나는바 이는 'ㅅ'(또는 'ㅎ') 아래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을 보여주는 예이다. (11)-(15)의 예들은 각각 'ㄱ', 'ㄴ', 'ㄷ', 'ㅅ', 'ㅈ, ㅊ' 아래에서 'ᆢ'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인바 선행하는 자음의 성격에 따라 'ᆢ'로 실현되기도 하고 滑音 'j'가 탈락되어 'ㆍ'로 실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는 口蓋音化된 'ㅅ, ㅈ'가 선행할 때인데 이 경우에는 '저껭이(腋) 저르, 저를(暇) 바농쩔레("바늘겨레") 엽갈리(脇) 서답("빨래") 저녁, 저냑(夕) 저물-, 정글-(暮)'에서 보듯 대체로 'ㅓ'형과 共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ㄹ, ㅁ, ㅂ, ㅇ, ㅎ'등의 자음과 激音, 硬音 아래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激音과 硬音 아래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적이며, 'ㄹ, ㅇ'의 경우는 그것이 語頭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玄平孝(1962)에 보이는 '쓰-(혀-;월곡 106, 點火, "켜다") 드르쓰-(드리혀-;능엄 3:15, 吸, "들이키다")' 등은 'ㅎ' 아래에서 二重母音 'ᆢ'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李基文, 1977:188-189). 前者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싸-'로 나타나는데 이는 語頭音節의 'ㆍ'가 語幹末 位置에서 'ㆍ>ㅏ'의 변화(2.1.1.1. 참조)를 겪은 것이다. 後者는 '드르싼(드르쓰-+-안, "들이켜서")'에서처럼 副詞形語尾의 교체에서 '-아'가 선택된다는 점에서 '*드르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脣音 'ㅁ, ㅂ' 아래에서 二重母音 'ᆢ'가 존재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ᄇᆢ들레기("베도라치")'는 玄平孝(1962)에, 脣音 아래의 'ᆢ'가 'ㅔ'로 單母音化된 것을 보여주는 듯한 '베들레기'로도 나타난다. 'ㆎ>ㅔ'의 合流를 보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ᆢ'가 單母音化되면 'ㅔ'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ᄇᆢ들레기'는 'ᆢ'에서 'j'탈락을 겪은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玄平孝(1962)에 이와 유사한 예 'ᄆᆢ낭, 메낭("외양간에 옆기둥과 가운뎃기둥 사이에 가로 지른 나무")'이 보인다. 또한 제주도 방언 형

태소 내부에서의 母音調和를 고려할 때 '베락(벼락;두해-초 18:19, 霹) 벌써(별쎠;석보 6:35, 已, "벌써")'에서 二重母音 'ㅛ'를 再構해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母音調和가 엄격했었다는 것과 '벼락(霹)'의 제1음절이 脣音 아래 'ㅕ>ㅔ'의 변화를, '벌써(已)'의 제2음절이 규칙(7)을 겪었다는 前提에서이다. (16)의 'ᄀ렵-("가렵다") ᄆ룹-("마렵다")'는 非語頭音節에서 'ㅛ'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ᄀ렵-'는 'ㄹ' 아래에서 滑音 'j'가 탈락된 이후 非語頭音節 'ㆍ>ㅓ'의 변화를 겪은 것이며 'ᄆ룹-'는 'ㄹ' 아래에서 滑音 'j'가 탈락된 이후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들이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어기고 있음이 흥미롭다. 玄平孝(1962)에 'ᄀ룹-, ᄀ릅-("가렵다")'와 'ᄆ룹-, ᄆ릅-("마렵다")'가 보인다. 玄平孝(1962)의 '믄ᄌ, 믄저(몬져;석보 9:9, 先, "먼저")'도 非語頭音節의 'ㅛ'를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다.

제주도 방언의 'j'계 二重母音은 형태소 내부에서 音節 頭音이 脣音일 경우 음절수에 관계없이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보여준다. 音節 頭音이 脣音인데 형태소 경계가 개재하는 경우, 즉 '이' 末音用言語幹이 副詞形語尾 '-어'와 결합할 때에는 'ㅣ'계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拙稿, 1988:37-40). 여기서의 單母音化란 繼起的 음성실현인 二重母音이 同時的 單母音으로 실현될 때를 가리킨다(李秉根, 1973:138, 註6).

(17) ㄱ. 베락(벼락;훈몽-초, 상:1, 霹) 페우-(펴-;월곡 191, 展)
멜(멸;훈몽-초, 상:7, 蔵, "멸치")
멩지(명디;훈몽-초, 중:15, 紬, "명주")
ㄴ. 뻬쪼커-(ᄲᅧ족ᄒᆞ-;박해, 상:35, ᄲᅧ족ᄒᆞ-;한청 5:22, "뾰족하다") 페고버섭(표고;훈몽-초, 상:7, "표고버섯")
ㄷ. 솜빽(솞벽;월석 10:45, "손뼉") 남펜(남편;소해 6:74, 夫)

(18) ㄱ. -으멍("-으면서", 나명;악장, 가사, 상:7, 쌍화점, 出, "나면서")
ㄴ. -으민("-으면", 업스면;원각, 서:5, "없으면")
(19) ㄱ. 빌(볠;훈민-원, 해례:26, 星, "별")
ㄴ. 민장(面長)

(17ㄱ), (17ㄴ)은 語頭音節에서, (17ㄷ)은 非語頭音節에서 脣音 아래 'j'계 二重母音이 單母音化한 것이다.[82] 이들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는 두 음소의 同時的 結束에 의한 單母音化이다(李秉根, 1973:139, 拙稿, 1988:35-36). 脣音 아래 'ㅕ>ㅔ'의 변화뿐 아니라 脣音 아래 'ㅛ>ㅚ(>ㅔ)'의 변화도 평행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前提에서이다. (17ㄴ)의 '뻬쪼커-("뾰족하다") 페고버섭("표고버섯")'은 '*뾰쪼커->*뾔쪼커->*뛔쪼커->뻬쪼커-' 등의 변화를 겪은 것인바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에 이어 'ㅚ>ㅞ'의 변화(규칙5)를 겪은 이후 脣音아래 滑音 'w'의 탈락(규칙9, 後述)에 의하여 'ㅔ'로 실현된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8) { ㅕ > ㅔ ; ㅛ > ㅚ } / [labial] ___

(脣音 아래에서 'j'계 二重母音은 單母音化한다.)

제주도 방언화자는 규칙(8)의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를 [+learned]로서 인식한다. 규칙(8)을 隨意的으로 적용시키는 방언화자들의 음운론적 과정을 記述한다면 形態論的 資質인 [learned]에 의해 조건된 것

82) 이 이외의 'j'계 二重母音의 실현이 기대되는 형태에서도 '뽐(봄;훈몽-초, 하:15, 쏨; 박해, 상:35, "뺌") 뽐-("뺌다") 뻬얌(쌈;두해-초 25:14, "빰")'에서처럼 'j'계 二重母音은 실현되지 않는다.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learned]의 형태라 하더라도 언제나 규칙(8)의 적용만을 입는 것은 아니다. 活用語尾의 경우인 (18ㄱ)의 '-으멍("-으면서")'이 규칙(8)과 동일한 構造記述를 가졌으면서도 이와 다른 변화를 보인 것은 이 형태가 가지는 統辭配列上의 위치가 변화의 조건으로 관여하여 규칙(8)의 적용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18ㄴ)의 '-으민("-으면")'은 규칙(8)의 적용까지를 저지하지는 못하였지만 統辭配列上의 위치가 새로운 변화의 조건으로 관여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統辭論的 요소가 음운변화의 조건이 된 셈이다. (18)은 單母音化에서 文法形態素가 語彙形態素와 차이를 보여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음운변화의 결과를 달리하기도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9)에서 보는 대로 규칙(8)은 제주도 방언에 音長이 示差的이던 시기에 일어났다. (19)의 '빌("별:") 민장("면:장")'은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겪은 형태인 '*벨:(星) *멘:장(面長)'이 'ㅔ:>ㅣ:'의 高母音化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방언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ㅔ>ㅣ'의 高母音化는 音長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2.2.1.2 'w'계 二重母音

제주도 방언의 'w'계 二重母音도 'j'계 二重母音과 마찬가지로 음절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선행하는 자음의 音韻部類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j'계 二重母音과는 달리 'w'계 二重母音은 脣音 아래를 제외한, 다른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분명하게 실현된다.

(20) ㄱ. 위(胃) 하위욤(하외욤;구방, 상:79, 하품;번소 8:12, 欠, "하품") 입바위("입술")

ㄴ. 웨(외;두해-초 15:54, 瓜, "오이")
네웨(너외;태평 1:35, 內外)
ㄷ. 왜놈, 예놈(倭人) 왜울르-("소리 높이 지르다")
도왜주-("남을 도와주다")[83]
ㄹ. 원체("원래") 서월("서울")
ㅁ. 와상이("물체가 잘 마른 모양")
자왈("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소왕낭("산유자나무") 제완지("바랭이")

(21) ㄱ. 귀(귀;석보 6:28, 耳) 튀우-("튀기다") 쉬-(법화 8:128, 休)
쥥이(쥐;능엄 8:119, 鼠)
휘우-("휘다", 휘언ᄒᆞ-;법화 2:18, "휘우듬하다")
ㄴ. 궤-(뻬-;월곡 14, 貫) 궨당(권당;소해 1:11, 眷黨, "친척")
눼-("같은 음식을 자꾸 먹어 질리다")
퉨장(된장;물명 3:10, "된장")
쉐(쇠;능엄 7:18, 鐵) 줴송("죄송")
훼장(解腸) 훼추리, 훼꼬리(휘초리;송강-이 22, "회초리")
ㄷ. 쾌("깨", 깨목;구방, 하:27, "깻묵") 홰(홰;소해 2:50, 炬火)
ㄹ. 꿩(쒱;훈몽-초, 상:9, 雉)
ㅁ. 광절다리("술마셔서 취한 사람") 꽝("뼈") 콸락콸락("콸콸")
활(활;훈민-원, 해례:21, 弓) 활씬, 훨씬("훨씬")
황고지, 상고지("무지개")
-광("-과", 닙과;석보 13:47, "잎과")[84]

---

83) '도애주-, 도왜-'로도 실현된다. 그런데 이를 송상조(1991:119-120)에서는 '덜애-("덜어주다") 붉애-("붉도록 하다") 없애-("없애다")' 등을 고려하여 '도오-+-애-+주-'로 분석하였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브ᅀᅡ왜-(두해-초 8:65, 喪敗, "쇠망하다") 조보왜-(두해-초 9:4, "좁다")'에서 보듯이 派生接尾辭 '-으왜-'(또는 '-오왜-')가 나타난다.

84) '느광(느+-광, "너와")'에서처럼 선행하는 語幹이 閉音節이든 開音節이든 관계없이 '-광'이 결합된다. 그런데 李崇寧(1957:35-36)에서는 '게기왕(게기+-왕, "고기와")'에서처럼 開音節 語幹 뒤에서는 '-왕'이 결합되는

-관디("-길래", 엇더콴디;월석 13:32, "어떠하길래")

(22) ㄱ. 걸귀("새끼 낳은 뒤 살찌지 못한 돼지, 말, 소 따위의 짐승")
장팡뒤(장팡#뒤, "장독대") 작쉬("지게 작대기")
자취(자최;월석 1:6, 迹)
ㄴ. 눈뚜꿰, 눈뚜꿩이, 눈뚜께("눈꺼풀", 눉두베;몽산 2, "눈두덩")
통퀘(痛快, 쾌ᄒᆞ-;노번, 상:19, 快)[85] 고뒈-("고되다")
일뤠(닐웨;석보 9:31, "이레") 시발쉐("삼발이")
멘췌기("올챙이")
ㄷ. 대궐(대궐;박번, 상:2, 大闕) 들뤿("다래끼")
ㄹ. 모관(牧官, 관원;박번, 상:2, 官員) 현관(玄關) 콜콱("박")

(23) 메(뫼;소해 4:12, "메") 멋(므엇;소해 5:99, "무엇")
비(뷔;훈몽-초, 중:9, 箒)

(20)-(22)는 제주도 방언에서 실현되는 'w'계 二重母音의 예이다. (20)은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의 예이며 (21), (22)는 각각 語頭音節, 非語頭音節의 경우의 예인바 제주도 방언에서 'w'계 二重母音은 음절 구성에 관계없이 대체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拙稿, 1988:43-50).[86] 하지만 (23)에서처럼 선행하는 자음이 脣音일 경우에는 'w'계 二重母音이 실현되지 못하며 滑

것이라 하고 점차 '-왕'의 사용 위치에 '-광'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85) 노인층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非語頭音節에서 'ㅐ'와 'ㅔ'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非語頭音節에서 'ㅙ'와 'ㅞ' 또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점쾌, 점쫘(점과;신합, 하:40, 占卦)'에서 'ㅙ'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제주도 방언화자들이 이를 'ㅞ'와 구별하는 것 같지 않다.

86) 중앙어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항갑(還甲) 한장어-("환장하다") 네물, 뉘물(賂物) 데-, 뒈-(되-;번소 8:3, 爲) 자우, 좌우(자우;연병 6, 左右, 좌우편;분문 17) 전나, 전놔(電話) 테비, 퉤비(堆肥)' 등에서처럼 語頭音節에서 'w'계 二重母音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音 'w'가 탈락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同器官的 滑音 탈락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9) w > ø / [labial] ___
(脣音 아래에서 滑音 'w'는 탈락한다.)

규칙(9)는 음운변화가 선행하는 음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달리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일종의 규칙의 첨가가 일어난 셈이다. 이처럼 脣音 아래에 'w'계 二重母音이 실현되지 못하고 'w'의 탈락을 보여주는 것은 脣音 아래에서의 圓脣性의 機能 弱化 때문이다. 즉 규칙(9)는 脣音의 圓脣的 機能과 圓脣母音의 圓脣的 機能 사이의 음성적 조건에 의한 異化 現象(李秉根, 1970a:149-150)의 결과인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二重母音의 변화에서 규칙(9)는 규칙(8)과 同化主가 동일하면서도 構造變化를 달리하는 규칙이다. 규칙(8)과 규칙(9)는 동일한 同化主에 의한 변화이지만 史的 順位에서도 동일한 것은 아닌바 後者가 前者의 下位 규칙을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규칙(8)이 규칙(9)보다는 史的 順位에서 앞서는 것이다.

2.2.2 下向 二重母音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ㅔ, ㅐ, ㅟ, ㅚ, ᆡ'등이 下向 二重母音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ㅢ'를 제외하면 下向 二重母音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2.2.2.1 'ㅔ', 'ㅐ'

중세국어 문헌어의 'ㅔ, ㅐ'는 單母音이 아니라 下向 二重母音이었다(李崇寧, 1949, 許雄, 1952).[87] 문헌어에서 二重母音 'ㅔ, ㅐ'의 單母音化는, 下向 二重母音 'ᆡ'가 語頭音節에서 下向 二重母音 'ㅐ'와 마찬가지로 單母音 'ㅐ'로 合流한 사실에서 語頭音節 'ㆍ>ㅏ'의 변화 이후, 즉 'ㆍ'의 非音韻化 이후인 18세기 말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李基文, 1972a:201-202).[88] 하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의, 語頭音節에 'ᆡ'를 가진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는 'ㅔ'를 가진 형태로 대응하는바 語頭音節에서 'ᆡ>ㅐ'의 合流를 보이는 문헌어와 달리 제주도 방언은 語頭音節의 'ᆡ'가 'ᆡ>ㅔ'의 合流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 방언이 語頭音節의 'ㆍ'를 유지한 상태에서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겪었던 데에 기인한 것(李基文, 1972a:122)으로 여겨진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는 單母音 'ㅔ, ㅐ'가 이전 시기에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다.

(24) ㄱ. 연:날, 옌날("옛날", 녜;월곡 105, 昔)
　　ㄴ. 고등에(고동어;물명 2:4, "고등어")
　　ㄷ. 더이-, 데이-, 데-, 디-(데-;내훈-초, 서:4, 더이-;내훈-초, 1:67, 爛)
　　ㄹ. 긍이, 깅이(게;훈몽-초, 상:10, 蟹)

87) 金鍾圭(1989:96-120)에서는 이들을 下向 二重母音으로 보지 않고 'Vi'의 母音 連鎖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이었는지 'Vi'의 母音 連鎖였는지는 알 수 없다.

88) 그러나 金完鎭(1978:134, 註11)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정설이 되어 온 것의 하나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ᄋᆞ'의 소실 이후라는 생각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ᆡ'의 單母音化가 반드시 'ㅔ, ㅐ'의 單母音化와 同時에 일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 ㄱ. 따문, 때문("때문")
ㄴ. 배(바;노번, 하:36, 繩, "밧줄")
패마농(파;훈민-원, 해례:24, 葱) 패(派)
몰방에, 몰벵이("말방아") 양에(샹하;분문 25, "양하")
지레("지라") 질메(기ᄅ마;용가 7:41.58, 鞍, "길마")
치메(치마;월석 10:24, 裳)
ㄷ. 말짜이(말자;신합, 하:16, 季, "말째")
ᄋ라이(여러;석보 6:28, "여럿")

(24), (25)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ㅔ'와 'ㅐ'가 각각 下向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준다. (24ㄱ)의 '연:날(昔)'과 (25ㄱ)의 '따문("때문")'은 'j' 탈락을 경험한 것인데 'ㅔ'와 'ㅐ'가 二重母音이 아니었다면 'j' 탈락을 겪는 것이 불가능하다. (24ㄴ)의 '고등에("고등어")'와 (25ㄴ)의 '배(繩)' 등은 語幹末 '-이' 첨가의 예인데 '-이' 첨가에 의해 형성된 二重母音이 單母音 'ㅔ'와 'ㅐ'로 縮約된 것이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體言語幹末 '-이'의 첨가는 아주 활발했던 듯하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開音節의 體言語幹은 漢字語를 제외하면 語幹末母音이 대체로 'ㅣ, ㅔ, ㅐ, ㅟ[wi], ㅞ'인바 語幹末 '-이' 첨가의 흔적을 보여준다. 漢字語일 경우에도 '신네(臣下) 혹게(學校) 목쉬(木手)' 등에서처럼 그것이 固有語로 인식될 때에 한하여 語幹末 '-이'가 첨가된 형태를 보여준다. 'ᄀ(ᄀᇫ;석보 13:4, 邊), 저르(겨를;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7, 暇) 바르("해산물", 바ᄅᆯ;석보 19:13, 海), ᄀ로(ᄀᄅ;두해-초 16:62, 横), 그르("그루", 그릏;월석 1:45, "그루터기") 나라(나랗;석보 6:4, 國) 드르(드릏;석보 19:43, 野, "들") ᄋ라(여럻;능엄 10:23, 諸, "여러") 우(웋;월곡 61, 上, "위") 자(잫;석보 9:32, 尺) 조(좋;두해-초 7:39, 粟) 코(곻;석보 13:39, 鼻) ᄒ나(ᄒ낳;월곡 89, 一, "하나")' 등은 이에 대한 예외인데 이 중에서 語末 'ㅿ'의 탈락이나 語末 'ㄹ'의 탈

락과 관련된 'ᄀᆞ(邊) 저르(暇) 바르("해산물")'와 形態論的 特殊性을 가진 'ᄀᆞ로(橫)'를 제외하면 모두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ㅎ' 末音 體言語幹이었던 것들이다. 아마도 이는 語幹末 '-이'의 첨가가, 語幹末 'ㅎ'가 탈락된 형태로 변화하는 'ㅎ' 末音 體言語幹의 再構造化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데에서 나타난 결과인 듯하다. 이렇게 보면 語幹末 '-이'의 첨가는 開音節 體言語幹에만 적용된 것이 된다.[89] '국수(국슈;역해, 상:51, 麵) 방구(방귀;훈몽-초, 상:15, "방구") 안주(안쥬;번소 10:31, 肴) 작두(쟉도;월석-중 21:45, 斫刀), 대추(대쵸;두해-초 22:3, 棗) 체수(ᄎᆡ소;박번, 상:4, 菜蔬), 고무("고무") 만두(만두;훈몽-초, 중:10, 饅)' 등은 이에 대한 예외인 듯하다. 하지만 小倉進平(1944)에 '만뒤, 만두'가, 玄平孝(1962)에는 '국쉬, 국수("국수") 방귀, 방기, 똥("방구") 안쥐, 안주("안주") 작뒤, 작도("작두")' 등이 나타난다.[90] 제주도 방언의 '게우(거유;훈몽-초, 상:9, 鵝, "거위")'도 음절 경계와 관련하여 다소 특이한 예이지만 'ㅔ'가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준다. (24ㄷ)의 '더이-, 데이-(爛)'와 (25ㄷ)의 '말짜이("말째") ᄋᆞ라이("여럿")'에서는 縮約에 의한 'ㅔ'

89) 문헌어에서는 '나조ㅎ(석보 13:10, 夕, "저녁") 나죄(월석 18:32) 나죗(두해-중 11:12)'등에서 보는 대로 '-이'의 첨가나 語幹末 'ㅎ'의 탈락과 관련하여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90) '어려운 일 아니우덴 허난("어려운 일 아니우다" 허난,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자이 체기엔 ᄀᆞ람서("그거 자이 체기여" ᄀᆞ람서, "그것이 저 아이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 고쪄 노렌 헙네다("이거 고쪄 노라" 헙네다, "이것을 고쳐 놓으라고 합니다.")'에서 보이는 제주도 방언의 間接引用文은 二重母音의 融合 過程을 보여주는 듯해 흥미롭다. 이들은 모두 間接引用의 語尾 '-엔'이 결합된 것인데 '-다+-엔>-덴, -여+-엔>-옌, -라+-엔>-렌'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中部方言의 '-라고'에 대응하는 間接引用의 語尾 '-엔'은 '-라+-헨(ᄒᆞ-+-언, "해서")'이 融合된 것인데 李智凉(1993:143)에 언급되어 있듯이 引用文의 終結語尾와 引用動詞 '하-' 사이의 관계가 다른 引用動詞들의 경우보다 밀접하기 때문에 融合이 일어난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서 引用動詞에 결합된 語尾가 '-안/언("-아서/-어서")'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문헌어는 중세국어 단계에서 引用構文에 引用添辭 '-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安秉禧, 1967:256).

와 'ㅐ'가 제주도 방언에서 두 음절로 대응되는바 'ㅔ, ㅐ'가 二重母音으로 발음되었을 시기의 흔적을 보여준다. (24ㄹ)은 몇 가지 복잡한 면을 가지지만 'ㅔ'가 二重母音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긍이'는 '게(蟹)'에 派生接尾辭 '-엉이'가 결합된 '겅이'에서[91] 'ㅓ>ㅡ'의 高母音化를 겪은 것이고[92] '깅이'는 '겅이'에 'ㅣ'모음 逆行同化가 일어난 '겡이'에서 'ㅔ>ㅣ'의 高母音化를 겪은 것이다. 'ㅔ'가 二重母音이 아니라면 前者에서 'ㅓ>ㅡ'의 高母音化가 일어날 수 없다.

(24), (25)로부터 다음과 같이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

91) 玄平孝(1962)에 '기:(造水), 겡이(河源, 泰興, 水山), 겅이(老衡)'가 나타난다. 이 형태들은 제시되어 있는 대로 각각 제주도 안에서 쓰이는 지역이 다른데 어형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글에서는 지역에 따른 형태 차이는 언급하지 않는다. '기:'는 'ㅔ>ㅣ'의 高母音化를 겪은 것이고 '겅이'는 '게'에 派生接尾辭 '-엉이'가 결합되어 語基의 末音 'ㅣ'가 탈락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들과의 派生語 構成에서 語基 末音 'ㅣ'의 탈락은 李秉根(1976b) 참조.

제주도 방언의 派生接尾辭 '-앙이/엉이'는 語基로부터 의미적이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接尾辭이다(송상조, 1991:50). 이 接尾辭는 接尾辭 頭音의 탈락과 非語頭音節 'ㅐ'와 'ㅔ'의 동요로 쉽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생이(새+-앙이, 鳥) 막뎅이(막데+-앙이, "막대") 조겡이(조게+-앙이, "조개") 꼬렝이, 꼴렝이(꼬리+-앙이, 꼴리+-앙이, 尾) 이멩이(*임+-엉이, 額, "이마") 지넹이, 주넹이(지네+-엉이, *주네+-엉이, 蜈)'에서 보듯 語基의 末音節 母音의 성격에 따라 '-앙이/엉이'의 교체를 보였던 듯하다. 이 派生接尾辭는 다른 방언에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제주도 방언의 '-앙이/엉이'는 다른 방언에 비하여 연결되는 語基가 독특하다. 'ㅔ, ㅐ' 등의 末音을 가지는 語基에 이 派生接尾辭가 붙기도 하는 것이다.

92) 이는 音長과 관련을 가진다. 충남 牙山지역어에서도 '게'는 '그:이'로 나타난다(郭忠求, 1982:37). 이로부터 李秉根(1990:111)에서는 音長이 작용하는 음운변화의 單位가 音節이 아니라 音節의 核母音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ㅔ'가 二重母音이었음을 前提로 한 것이다.

규칙(10) { ㅔ[əj] > ㅔ[e] / ㅐ[aj] > ㅐ[ɛ] } / ___ anywhere

(下向 二重母音 'ㅔ, ㅐ'는 각각 單母音 'ㅔ[e], ㅐ[ɛ]'로 單母音化한다.)

2.2.2.2 'ㅟ', 'ㅚ'

문헌어에서 'ㅟ, ㅚ'의 單母音化는 18세기 말엽에 이루어진 'ㅔ, ㅐ'의 單母音化보다 늦게 일어난 듯한데 이는 19세기 후기 문헌에서 'ㅜ, ㅗ'의 'ㅣ'모음 逆行同化의 예가 音節 頭音의 음성적 조건에 제약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ㅟ, ㅚ'의 單母音化가 19세기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李秉根, 1970b:378-379)이라는 데에 근거한다. 하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ㅟ, ㅚ'의 單母音化가 'ㅔ, ㅐ'의 單母音化보다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93]

현대 제주도 방언에는 이전 시기에 下向 二重母音 'ㅟ, ㅚ'가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나타난다.

(26) ㄱ. 메쥐, 메주(며주;훈몽-초, 중:11, 麴, "메주")
바뀌-(밧고-;능엄 8:131, 易, "바꾸다")

---

93) 문헌어에서 'ㅟ'와 'ㅚ'의 單母音化도 일률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듯한데 'ㅟ'보다는 'ㅚ'가 單母音化의 과정을 더 일찍 경험하였을 듯하다(李崇寧, 1954b:355, 李秉根, 1970b:382).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 규칙들(또는 下位 규칙들)은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을 前提로 하는데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 現象에서 각 모음들이 보여주는 緊密度의 차이가 이러한 推定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 방언의 'ㅣ'모음 逆行同化가, 被同化音이 'ㅜ'나 'ㅡ'일 경우에는 약화된다는 것(2.1.2. 참조)은 'ㅟ'의 單母音化가 'ㅔ, ㅐ, ㅚ'의 單母音化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엔귀(방핫고;석보 6:31, "방아공이")
술귀, 술구(술고;훈몽-초, 상:6, 杏, "살구")[94]
ㄴ. 머구낭(머구#낭, "머귀나무", 머귀;월석 7:54-1, 梧)
사구-(사괴-;훈몽-초, 하:7, 交, "사귀다")
서구포("서귀포")
빠쿠(바회;훈몽-초, 중:13, 輪, "바퀴") 추직(就職)[95]
ㄷ. 장귀(쟝긔;훈몽-초, 중:9, 將棋)
(27) ㄱ. 누궤, 누게(누고;삼강, 충:7, 誰, "누구")
눼, 네, 노(노;훈몽-초, 중:12, 櫓) 쉐(쇼;훈몽-초, 상:10, 牛)
ㄴ. 가마귀, 가메기, 가냐귀(가마괴;훈몽-초, 상:9, 烏)
당나귀, 당나기(나괴;훈몽-초, 상:10, 驢)
바위(바회;훈몽-초, 상:2, 巖)

(26), (27)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ㅟ, ㅚ'가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준다.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26ㄱ)의 '메쥐(麴)' 등과 (27ㄱ)의 '누궤(誰)' 등은 語幹末 '-이' 첨가가[96] 일어난 뒤 單母音으로의 縮約과 單母音 'ㅟ, ㅚ'의 二重母音化(규칙4, 5)를 겪은 것인데 'ㅟ, ㅚ'가 二重母音이 아니었다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26ㄴ)의 '머구낭(梧)' 등에서 滑音 'j'가 탈락된 것으로 보아 'ㅟ'가 이전 시기에는 二重母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

94) 玄平孝(1962)에는 '술기, 술궤'가 나타난다. '술궤'는 '*술고'에 語幹末 '-이'가 첨가된 것이다.

95) '사우(사회;훈몽-초, 상:16-17, 壻)'도 '사위'로 실현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의 예로 첨가할 수 있다.

96) 語幹末에 첨가되는 '-이'가 二重母音 'ji'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방언은 二重母音 'ㅟ'나 'ㅚ'의 실현에서 脣音이 선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출현 제약을 보여주지 않는데 語幹末에 첨가되는 '-이' 앞에서는 '목시(木手) 베리(벼로;훈몽-초, 상:11, 硯, "벼루") 산디(산도미;역해, 하:9, 旱稻, "발벼")'에서처럼 간혹 語幹末母音의 탈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6ㄷ)의 '장귀(將棋)'는 'ㅡ>ㅜ'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역시 'ㅟ'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脣音 아래 圓脣母音化와는 관계가 없다. 田光鉉(1976)에서는 남원 지역어의 '나부(蝶) 모구(蚊) 거무(蛛) 동우(盆)' 등 語幹末 母音이 'ㅜ'로 끝나는 형태가 중부방언에서는 'ㅣ'로 끝나는 형태로 대응됨을 지적하고서 이러한 방언차는 二重母音의 변화가 방언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제주도 방언에서 'ㅣ'로 끝나는 형태로 대응하는데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거미(거믜;훈몽-초, 상:11, 蛛)' 등에서처럼 자음 아래 'ㅢ'가 거의 'ㅣ'로 변화(2.2.2.4.에서 後述)한 데에 기인한다.97) 제주도 방언은 남원지역어와 달리 이 환경에서의 'ㅡ>ㅜ'를 모르는데 이로써 보면 '장귀(將棋)'는 예외인 셈이다. (27ㄴ)의 '가마귀(烏)' 등은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을 고려해 볼 때 母音調和를 어기고 있으므로 'ㅗ>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ㅚ'나 'ㅟ'가 二重母音이 아니라면 'ㅗ>ㅜ'의 변화(2.4.1.에서 後述)가 일어날 수 없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규칙을 세워

---

97) '골미(골모;동해, 하:17, 역보 41, "골무") 녹디(녹두;유씨 물보 3, "녹두") 베리(벼로;훈몽-초, 상:18, 硯, "벼루") 불미(불무;훈몽-초, 하:7, 冶) 시리(시르;훈몽-초, 중:6, 甑, "시루")'에서처럼 語幹末 '-이'의 첨가로 중앙어의 'ㅜ'형과 대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한 예인 '둠비(두부;유씨 물보 3, 豆腐, "두부") 돔비("동부, 광저기")'는 語幹末 '-이'가 첨가된 '*두비, *도비'에 'ㅁ'삽입이 일어난 것이다. 다른 이유로 '두지(두지;청언-원 66, "뒤주") 멩지(명디;훈몽-초, 중:15, 紬, "명주") ᄌᆞ지(ᄌᆞ디;능엄 5:57, 紫, "자주")'에서처럼 중앙어와 'ㅣ:ㅜ'의 대응을 보이기도 한다. '너미, 너무(너무;월석 7:2) 미신, 무신(므슴;석보 6:6, "무슨") 민지럽-, 문지럽-, 민치럽-, 문치럽-(믯그러워;두해-초 25:41, "미끄럽다")'처럼 제주도 방언에 'ㅜ'형과 'ㅣ'형이 다 나타나 雙形語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따지-, 따주-("따지다")'도 마찬가지인데 '따주-'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져주-(석보-중 11:28, 詰, "따지다")'와 '따지-'와의 混淆로 이루어진 형태인 듯하다.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져주-'와 '따지-' 또는 그와 상응하는 형태의 共存이 前提된다.

볼 수 있다.

규칙(11) ㅟ[uj] > ㅟ[ü] / ___ anywhere
(下向 二重母音 'ㅟ'는 單母音 'ㅟ[ü]'로 單母音化한다.)
규칙(12) ㅚ[oj] > ㅚ[Ö] / ___ anywhere
(下向 二重母音 'ㅚ'는 單母音 'ㅚ[Ö]'로 單母音化한다.)

제주도 방언에는 'ㅟ'가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주는 특이한 예가 존재한다.

(28) ㄱ. 줴-(쥐-;능엄 1:108, 握, "쥐다")
뒈쓰-(드위혀-;능엄 1:16, 두위혀-;법화 2:160, 뒤혀-;동해, 하:1, 反, "뒤집다") 뒈집-, 뒤집-("뒤집다")
ㄴ. 쥉이(쥐;용가 9:40.88, 鼠)[98]
ㄷ. 공쥉이, 공중이("귀뚜라미")
부쉐(부쇠;역해, 하:18, 鎌, "부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ㅟ'가 '[uj]'가 아니라 '[wi]'이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음성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결합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어떤 소리를 넣어주기도 하였는데(金完鎭, 1972:54-55) 제주도 방언의 (28ㄱ)의 '줴-(握) 뒈쓰-(反) 뒈집-("뒤집다")'는 바로 이러한 음운 삽입의 결과로 만들어진 형태로 보인다. 즉 이들은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이루어지기 전 시기에 '[uj]'가 아니라 '[wi]'를 가졌던 형태여서 그러한 음운의 결합을 피하기 위하여 'w'와 'i' 사이에 모음 'ㅓ'가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해 보이는 (28ㄴ)의 '쥉이'는 '[wi]'의 음

98) '쥥이, 중이'로도 나타난다. 이는 派生接尾辭 '-앙이/엉이'에서 '-어/아'가 탈락된 형태인 '-ㅇ이'가 붙은 것이다.

운 결합을 구제하기 위하여 'ㅓ'가 삽입되어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라 '쥐'에 派生接尾辭 '-엉이'(또는 '-엥이')가 결합된 형태인바 派生接尾辭 '-엉이' 앞에서 語幹末母音 'ㅣ'가 탈락된 것이다. 이도 역시 'ㅟ'가 二重母音이었음을 보여준다. (28ㄷ)의 '공쉥이("귀뚜라미") 부쉐(鐮)'는 二重母音 'ㅟ'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공종이>*공죙이>공쉥이', '불#쇠>*부쇠>부쉐'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28ㄷ)의 '공중이'는 非語頭音節 'ㅗ>ㅜ' 변화(2.4.1.에서 後述)의 결과이다.

2.2.2.3 'ㆎ'

문헌어에서 下向 二重母音 'ㆎ'는 그것이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相異한 변화를 겪었는바 語頭音節의 'ㆎ'는 'ㅐ[ɛ]'로, 非語頭音節의 'ㆎ'는 'ㅢ'로 合流하였다. 이는 출현 위치에 따라 相異한 변화를 보여주는 'ㆍ'의 변화와 관련을 가지는데 'ㆎ'가 二重母音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ㆎ'가, 'ㆍ'의 변화와 평행하게 출현 위치에 따른 相異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인데 語頭音節의 'ㆎ'는 'ㅔ[e]'로, 非語頭音節의 'ㆎ'는 'ㅣ(<ㅢ)'로 合流하였다(李崇寧, 1957:3-4, 玄平孝, 1964b:343-345, 李基文, 1977:190). 제주도 방언의 'ㆎ'도 역시 출현 위치에 따라 相異한 변화를 보여주므로 'ㆎ'가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이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29) ㄱ. 겡(깅;훈몽-초, 중:10, 羹)

네(늬;월석 9:7, 煙) 데답(듸답;두해-초 25:45, 對答)

멕(믝;훈몽-초, 상:14, 脈) 멥-(믭-;법화 7:19, 辛)

베(빅;훈민-원, 해례:18, 梨, 훈몽-초, 상:14, 腹, 훈몽-초,

중:12, 船)

생각(ᄉᆡᆼ각;금삼 2:2, 思) 생강(ᄉᆡᆼ앙;구간 6:21, 薑, "생강")

엑(ᄋᆡᆨ;신합, 하:35, 厄) 제(ᄌᆡ;훈몽-초, 하:15, 灰)

첵(ᄎᆡᆨ;훈몽-초, 상:18, 冊) 케-(ᄏᆡ-;월석 1:52, 採)

테(ᄐᆡ;신합, 하:16, 胎) 헤(ᄒᆡ;월석 1:9, 太陽)

ㄴ. 히-(ᄒᆡ-;두해-초 9:5, 白, 희-;두해-초 25:2, "희다")

(30) ㄱ. 모기(모ᄀᆡ;석보 9:9, 蚊) ᄆᆞ디(ᄆᆞᄃᆡ;월석 2:56, 節)[99]

소리(소ᄅᆡ;월석 1:33, 音) ᄉᆞ미(ᄉᆞᄆᆡ;법화 1:31, 袖, "소매")

나비(나ᄇᆡ;능엄 7:83, 蝶) 도비("도배")

가시(가ᄉᆡ;능엄 5:25, 荊)

몬지(몬ᄌᆡ;월석 13:21, 塵, "먼지")[100]

종이(죠ᄒᆡ;훈민-원, 해례:25, 紙)

ㄴ. -관디("-길래", 엇더콴ᄃᆡ;월석 13:32, "어떠하길래")

-는디("-는데", 느젓ᄂᆞᆫᄃᆡ;노해-초, 상:54, "늦었는데")

-은디("-은데", 長遠ᄒᆞᆫᄃᆡ;법화 3:172, "長遠한데")

ㄷ. 중메(듕ᄆᆡ;신합, 하:40, 仲媒)

(31) 테우-(ᄐᆡ오-;월석 7:52, 乘, "태우다")

(29ㄱ), (30ㄱ)에서 보는 대로 중세국어 문헌어의 'ㆎ'를 가진 형태는 제주도 방언에서 'ㅔ' 또는 'ㅣ'를 가진 형태로 대응되는바 제주도 방언에서 'ㆎ'는 선행하는 음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계없이 語頭音節에서는 'ㅔ[e]'로, 非語頭音節에서는 'ㅣ'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9ㄱ)의 예가 보여주는 語頭音節의 'ㆎ>ㅔ' 변화는 二重母音 'ㆎ'가 單母音 'ㅔ'로 직접 單母音化한 것이 아니라 다른 二重母音 'ㅔ, ㅐ, ㅟ, ㅚ' 등의 경우와 평행하게 單母音化를 겪

99) 이들이 'ㄷ'口蓋音化를 겪지 않은 것도 이들이 二重母音 'ㆎ'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동호, 1991:35-41).

100) '구둠바데, 구둠빠데("쓰레받이")' 등에서처럼 '구둠'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어 單母音 'ㆎ'로 변화한 이후 單母音 'ㆎ'가 單母音 'ㅔ'로 合流(규칙6)하는 과정을 거친 것인 듯하다(2.1.2. 참조). (30ㄴ)은 活用語尾의 경우인데 非語頭音節의 二重母音 'ㆎ'의 변화를 보여주는 (30ㄱ)과 마찬가지로 'ㆎ>ㅣ'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下向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규칙을 세워 볼 수 있다.

규칙(13) ㆎ[ɐj] > ㆎ[ɐ̈] / # (C) ___
(語頭音節의 下向 二重母音 'ㆎ'는 'ㆎ[ɐ̈]'로 單母音化한다.)

(30ㄱ)이 보여주는 非語頭音節에서의 'ㆎ>ㅣ' 변화는 非語頭音節의 'ㆍ'의 변화와 관련된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ㆍ'는 'ㅡ'로 변화하였으므로 二重母音이었던 'ㆎ'도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를 입어 'ㆎ>ㅢ'의 변화를 겪은 후에[101] 자음 아래 'ㅢ>ㅣ'의 單母音化를 겪어 결과적으로 'ㆎ>ㅣ'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二重母音 'ㆎ'의 변화에서 제주도 방언과 중앙어가 일치를 보이는 非語頭音節의 경우와는 달리, 語頭音節의 경우는 제주도 방언과 중앙어가 일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즉 중앙어에서는 語頭音節의 'ㆎ'가 'ㅐ[ɛ]'로 변화하였지만 제주도 방언에서는 'ㅔ[e]'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이전 시기의

101) 非語頭音節의 二重母音 'ㆎ'가 'ㅢ'를 거쳐 'ㅣ'로 변화했다는 것은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語頭音節의 'ㆎ'는 'ㅔ[e]'로 변화한 반면 非語頭音節의 'ㆎ'는 'ㅣ'로 변화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二重母音 'ㆎ'의 單母音化가 非語頭音節에서도 이루어졌다면 非語頭音節의 'ㆎ'도 語頭音節에서와 마찬가지로 'ㅔ[e]'로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히, 올리(옳;남명, 상:8, 今年, "올해")'는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非語頭音節 'ㆎ(>ㅢ)>ㅣ'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기보다는 語基 '*옳'이 語幹末 '-이'의 첨가를 겪은 것일 가능성이 짙다.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二重母音 'ㆎ'의 單母音化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李基文, 1977:190-191). '·'의 소멸 이후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겪은 중앙어와 달리 '·'가 존재한 시기에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겪은 제주도 방언이 'ㆎ'의 변화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29ㄴ), (30ㄷ)은 二重母音 'ㆎ'의 변화에 대한 예외로 보이는데 (29ㄴ)의 '히-(白)'는 語頭音節에서의 'ㆎ(>ㅢ)>ㅣ' 변화를 보여주며 (30ㄷ)의 '중메(仲媒)'는 非語頭音節에서의 'ㆎ>ㅔ' 변화를 보여준다. 이들이 예외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29ㄴ)의 '히-'가 '*히-'로부터 직접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 형태의 모음교체형인(2.1.1.1. 참조) '*희-'로부터 변화했기 때문이며 (30ㄷ)의 '중메'는 漢字 하나하나가 단일형태소로 기능하는 漢字語이기 때문이다. 單母音化를 보여주는 語頭音節의 'ㆎ'와 달리 非語頭音節의 'ㆎ'는 單母音化하지 못하고 'ㅣ(<ㅢ)'로의 발달을 보여주므로 규칙(13)은 非語頭音節 '·'의 변화 규칙인 규칙(2)보다는 史的 順位가 뒤진다. 그렇지 않으면 非語頭音節에서도 'ㆎ'의 單母音化가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31)의 '테우-(乘)'는 'ㆍ' 末音 語幹 'ᄐᆞ-(乘)'에 使動의 接尾辭 '-이우-'가 결합된 것인데 'ㆍ' 末音 語幹의 使動形은 'ㆎ'의 單母音化가 '·>ㅏ'의 변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규칙(13)이 語幹末 '·'의 변화 규칙인 규칙(1)보다는 史的 順位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트-(ᄠᅳ-;능엄 2:31, 浮, "뜨다")'와 '티우-(ᄠᅴ우-;월석 18:56, 浮, "띄우다")' 등에서 보듯 제주도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난 語幹에는 使動의 接尾辭로 '-이우-'가 선택되는바 語幹末 '·>ㅏ'의 변화 이후에 'ㆎ'의 單母音化가 일어났다면 'ᄐᆞ-(乘)'의 使動形은 '태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칙(13)은 규칙(2)가 일어난 시기와 규칙(1)이 일어난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32) ㄱ. ᄆᆞᆼ글-, 멩글-(ᄆᆡᆼᄀᆞᆯ-;석보 6:38, 造, "만들다")
ᄆᆞᆽ-(ᄆᆡᆽ-;석보 9:40, 結, "맺다") ᄆᆞᆫ(ᄆᆡᆫ;속삼, 열:5, "맨")[102]
ㄴ. 탕주(ᄐᆡᆼᄌᆞ;훈몽-초, 상:5, 枳, "탱자")
ㄷ. 세얌, 세미(ᄉᆡᆷ;훈민-원, 해례:26, 泉)
ㄹ. 넹수(冷水) 멥-(ᄆᆡᆸ-;법화 7:19, 辛)
(33) 전장, 전젱(戰爭) 희성(犧牲)

(32), (33)은 二重母音 'ㆎ'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 방언이 보여주는 특이한 변화의 예이다. (32ㄱ)의 'ᄆᆞᆼ글-(造) ᄆᆞᆽ-(結) ᄆᆞᆫ("맨")'은 二重母音 'ㆎ'에서 滑音 'j'가 탈락(李基文, 1977:191-192)했음을 보여주는데 위의 예에서 二重母音 'ㆎ'가 모두 閉音節構造 속에 위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32ㄴ)의 '탕주(枳)'는 滑音 'j'의 탈락 이후 語頭音節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玄平孝(1962)에 'ᄐᆞᆼ지, ᄐᆞᆼ쥐, 텡지'로도 나타난다. '퐁낭("팽나무")'도 이와 유사하다. "팽나무의 열매"를 '폭'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폭(<*ᄑᆡᆨ)'을 再構할 수 있다. 아마도 중세국어 시기보다 15세기 그 이전 시기에 '脣音 ___ 牙音'의 환경 아래에서 일어난 'ㆍ>ㅗ'의 圓脣母音化(2.3.에서 後述)를 겪은 듯하다. '*폭'을 중앙어의 '팽나무'와 비교하면 '*ᄑᆡᆨ'의 再構가 가능하다. (32ㄷ)은 滑音 'j'의 탈락을 보여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玄平孝(1962)에 'ㆎ>ㆍ'의 변화를 보여주는 'ᄉᆞᆷ'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ㆎ>ㆍ'의 변화가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2ㄹ)의 '넹수(冷水) 멥-(辛)'는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기원적으로 二重母音 'ㆎ'를 가졌던 형태인 듯한데 滑音 'j'의 탈락을 보여주지 않는다. 二重母音 'ㆎ'의 변화와 관련하여 (32) 각각의

102) 'ᄆᆞᆫ딱, ᄆᆞᆫ짝, 멘딱, 말짱'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皆)"의 의미를 가진다. 형태적으로만 본다면 현대 중앙어의 "순수하게"를 의미하는 冠形詞 '맨'과 관련될 듯하다.

예들이 보여주는 차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ㆎ>ㅔ'의 單母音化 이전에 'ㆎ>ㆍ'의 변화가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듯하다. 즉 (32ㄱ)의 '멩글-(造)', (32ㄷ)의 '세얌, 세미(泉)', (32ㄹ)의 '넹수(冷水) 멥-(辛)'에서의 예외적 변화는 그 원인이 음절 구조상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시기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滑音 'j'탈락에 의한 'ㆎ>ㆍ' 변화를 거부하다가 후대에 일어난 'ㆎ>ㅔ' 변화(규칙13)에 휩쓸리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3)의 '전장(戰爭) 희성(犧牲)'은 語頭音節의 'ㆎ'뿐 아니라 非語頭音節의 'ㆎ'도 滑音 'j'의 탈락을 겪기도 했음을 보여준다.[103] (33)의 '전장'은 滑音 'j'의 탈락 이후 非語頭音節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것이며 '희성'은 滑音 'j'의 탈락 이후 非語頭音節 'ㆍ>ㅓ'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들 또한 'ㆎ>ㆍ'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二重母音 'ㆎ'가 閉音節 構造에서 실현되기 어려워지면서 滑音 'j'탈락의 길을 걷다가 二重母音 'ㆎ'의 單母音化가 이루어지게 되어 'ㆎ>ㆍ'에서 'ㆎ[ɐj](>ㆎ[ë])>ㅔ'로 변화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04]

---

103) 이 예들이 이전 시기에 二重母音 'ㆎ'를 가졌으리라는 것은 문헌어의 예(爭징;東國正韻 1:10, 牲싱;東國正韻 1:11)로부터 추측해 볼 수 있다.

104) 문헌어에서는 語頭音節의 'ㆍ'가 'ㅏ'로 合流하였으므로 下向 二重母音 'ㆎ'는 二重母音 'ㅐ[aj]'로 변화하였고 이어 'ㅐ[ɛ]'로의 單母音化를 겪었다. 현대 중앙어에서 閉音節 構造에서 모음 'ㅔ, ㅟ, ㅚ'를 가진 語幹은 나타나지 않으며 漢字語를 제외하면 'ㅐ'를 가진 語幹도 드물다. 이들은 二重母音 'ㅐ, ㅔ, ㅚ, ㅟ, ㆎ'등이 閉音節 構造에서 잘 실현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앞서 제시했던 '연:날("옛날") 따문("때문") 사구-("사귀다") 서구포("서귀포")' 등의 예를 통해 보면 下向 二重母音 'ㆎ' 이외에도 下向 二重母音 'ㅔ, ㅐ, ㅟ, ㅚ'등도 이들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이전에 滑音 'j'의 탈락을 겪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白斗鉉(1988:179-184)에는 18세기 중엽 이전 영남 방언에 나타난 'ㅔ>ㅓ, ㅐ>ㅏ, ㅟ>ㅜ, ㅚ>ㅗ, ㆎ>ㆍ' 변화의 예를 제시하고서 18세기 後期에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들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2.2.2.4 'ㅢ'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 'ㅢ'는 非語頭音節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만 실현된다.

(34) ㄱ. 아의(아ᄒᆡ;훈몽-초, 상:16, 童, "아이")
예의(례의;주여씨 6, 禮義)
정의(旌義, 제주도 옛고을 이름)
ㄴ. 여의(여ᅀᆞ;법화 2:111, 여ᅀᅳ;노번, 하:18, 狐, "여우")
(35) ㄱ. 이미(意味, 의ᄉᆞ;한청 8:33, 意思)
이복(의복;박번, 상:57, 衣服)
이사(醫師, 의원;훈몽-초, 중:2, 醫員)
이심(의심;번소 8:35, 疑心)[105] 이자(椅子)
ㄴ. -이("-에", 밧긔;두해-초 7:2, "밖에")
ㄷ. 주이(主義)
(36) 기러기, 기레기(그려기;능엄 8:121, 긔려기;훈몽-초, 상:15, 雁)
기-(긔-;월석 1:11, 匍匐)
디(ᄃᆡ;능엄 8:84, 듸;석보-중 11:29, "데")
띠(ᄯᅴ;월석 8:99, 帶) 띠끌(ᄠᆡᆺ글;박해, 중:43, 塵, "티끌")
시-(싀-;두해-초 15:21, 酸)[106]

---

105) 語頭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ㅢ>ㅣ'의 변화를 보이지만 때로 '으리영제("義兄弟") 으저터게("의젓하게")'에서처럼 'ㅡ'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리영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朴用厚(1960)에도 '으원, 이원(醫員)'에서 보는 대로 'ㅡ'형과 'ㅣ'형이 모두 나타나는 예가 보고되어 있다. '은절미(인절미;사해-중, 상:13, "인절미")'는 이 單語가 語頭에 'ㅢ'를 가진 형태로 遡及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106) '시-(酸)'는 回想의 先語末語尾 '-어'와의 결합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서냐, 시어냐(시-+-어-+-냐, 有, "있더냐?") 저냐, 지어냐(지-+-어-+-냐, 負, "지더냐?") 처냐, 치어냐(치-+-어-+-냐, 烝, "찌더냐?")'에서처럼 'ㅅ, ㅈ, ㅊ' 등의 齒擦音을 音節 頭音으로 가지는 '이' 末音 語幹에 語尾 '-어'가 결합되면 語幹 末音 'ㅣ'가

(37) ㄱ. 모기(모긔;석보 9:9, 蚊)
모리(모뢰;박번, 상:35, 모릐;역해, 상:3, "모레")
거미(거믜;훈몽-초, 상:11, 蜘)
나비(나뷔;훈몽-초, 상:11, 蝶)
부비-(부븨-;구방, 상:87, "비비다")
통시(통ᄉᆡ;칠대 13, "변소")
베치(ᄇᆡ최;훈몽-초, 상:7, "배추")
동이(동희;신합, 상:27, 盆) 종이(죠희;훈몽-초, 상:18, 紙)
ㄴ. 무기(므긔;구방, 상:38, 重, "무게")
그저끼(그젓긔;박해, 하:2, 前前日, "그저께")
두티, 두끼(두틔;구방, 상:71, 둗긔;구간 1:72, 厚, "두께")

(38) 동승(동ᄉᆡᆼ;번소 9:22, 同生)[107] 금승("마소의 한 살", 今生)
이승(이ᄉᆡᆼ;박번, 상:31, 今生) 저승(뎌ᄉᆡᆼ;정속-초 10, 後生)
초승ᄃᆞᆯ(초승#ᄃᆞᆯ, 초ᄉᆡᆼ;노번, 하:3, 初生, "초승달")

제주도 방언에서는 (34)의 예에서처럼 非語頭音節에 한하여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 下向 二重母音 'ㆎ'가 실현된다. 그런데 小倉進平(1944)에는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질 경우에 二重母音 'ㆎ'가 실현되는 '감ᄐᆡ("감퉈") ᄂᆡᆯ접, ᄂᆡᆮ접("미끼") ᄂᆡ, ᄂᆡ빨(齒) 불환ᄃᆡ, 불한ᄃᆡ, 불한지("반딧불") ᄀᆡ정("언덕") 전ᄃᆡᆫ다("견디다") ᄀᆡ영("그렇게")' 등의 예가 보고되어 있다. 이 보고가 정확하다면 제주도 방언에서 'ㆎ>ㅣ'의 변화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탈락하는데 '시-(酸)'는 '시어냐(시-+-어-+-냐, "시더냐?")'에서 보는 대로 回想의 先語末語尾 '-어'와의 결합에서도 語幹 末音 'ㅣ'의 탈락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시-(酸)'가 기원적으로 '*ᄉᆡ-'에 遡及하기 때문(拙稿, 1988:38)인 것으로 여겨진다.

107) '동셍, 동싱'으로도 나타난다. '동셍'은 二重母音 'ㆎ'의 單母音化를, '동싱'은 '*동ᄉᆡᆼ'에서 滑音 'j'가 탈락하여 '*동ᄉᆞᆼ'이 된 이후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를 겪은 '동승'에서 齒擦音 아래 'ㅡ>ㅣ'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물론 '*동ᄉᆡᆼ>*동싕>동싱'의 변화를 겪은 것일 수도 있다.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되는 셈이다. (34ㄱ)의 '아의(童)'는 '야의, 야으, 야이("이 아이") 가의, 가으, 가이("그 아이") 자의, 자으, 자이("저 아이")'에서 보는 대로 '아으, 아이'로도 실현되며 '예의(禮義)'는 '예이'로도 실현된다. (34ㄴ)의 '여의(狐)'는 '여ᅀᅳ'에서 'ᅀ'의 탈락 이후 語幹末 '-이'의 첨가를 겪은 것이다. 이는 玄平孝(1962)에 '여희, 여호'로도 나타나는데 '여희'는 '여의'와 '여호'의 混淆形일 듯하다. (35)-(37)은 대체로 문헌어에서 'ㅢ'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인데 (35)는 二重母音 'ㅢ'를 포함한 음절의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이며 (36), (37)은 二重母音 'ㅢ'를 포함한 음절의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는 경우이다. 위에서 보는 대로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 'ㅢ'는 음절 위치나 선행하는 음소의 음운론적 성격과는 관계없이[108] 일반적으로 'ㅢ>ㅣ'의 변화(李崇寧, 1957:2-3)를 겪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14) ㅢ > ㅣ / $\left\{ \begin{matrix} C \\ \# \end{matrix} \right\}$ ___

(下向 二重母音 'ㅢ'는 非語頭音節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 'ㅣ'로 변화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ㅢ'는 대체로 'ㅣ'로 변화하였지만 (34)에서 보는 대로 非語頭音節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 한하여 二重母音 'ㅢ'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109] 물론 (35ㄷ)

---

108) 음절 頭音이 脣音일 경우, 예를 들어 '밉-(뮈-;박해, 중:56, "밉다")'의 경우에는 규칙(14)에 의하여 'ㅢ>ㅣ'의 변화를 겪은 것인지, 아니면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를 겪은 'ㅟ'가 규칙(9)에 의하여 脣音 아래 'w'탈락을 보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筆者는 이들을 圓脣母音化에 이어 규칙(9)의 적용을 입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2.3.에서 後述).

109) 所有格 助詞 '-의'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거의 表面에 나타나지 않으나

의 '주이(主義)'에서처럼 非語頭音節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도 'ㅢ>ㅣ'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 'ㅢ'가 이미 'ㅣ'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7ㄴ)에서 보는 대로 중앙어에서 'ㅢ>ㅔ'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도[110] 제주도 방언에서는 'ㅢ>ㅣ'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8)은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 이후 下向 二重母音 'ㅢ'에서 滑音 'j'의 탈락을 겪은 것이다.[111]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非語頭音節에서 音節 頭音으로 자음을 가지는 경우에도 下向 二重母音 'ㅢ'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ㅢ'의 변화에 있어서 규칙(14)는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가 관여하고 있다. 물론 음운변화에 형태소 내부의 音素配列上의 위치가 조건이 된 것인데 규칙 적용의 재조정이 일어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규칙(14)의 변화가 非語頭音節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음소의 분포 위치가 조건이 되는 음운변화가 無條件 변화로 構造記述을 달리하게 된 셈이다.

表面에 나타날 경우에는 '오시비구게이삼사오("52국의 2345")'에서처럼 대체로 'ㅔ'로 실현되는 듯하다. '지비우이("집의 위에") 노무집, 노미집("남의 집")'에서 보듯 때로 'ㅣ'나 'ㅡ'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15세기의 處格 助詞 '-의'와 유사한 제주도 방언의 處格 助詞 '-의'가 '지비감쩌(집+-이+가-+-암ㅅ-+-저, "집에 간다")' 등에서처럼 'ㅣ'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所有格 助詞 '-의'가 'ㅔ'로 실현되는 것은 중앙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110) '무게(重), 두께(厚)'는 '무겁-, 두껍-'로부터 派生된 名詞인 듯하다. '그저께'가 중앙어에서 왜 'ㅢ>ㅔ'의 변화를 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11) 이와 유사하게 문헌어의 '므여ᄒᆞ-(두해-중 19:31, 믜여ᄒᆞ-;월석-중 21:214, 嗔, "미워하다")'와 '싁스기(능엄 6:15, 싁싀기;석보 13:24, "씩씩하게") 증경이(시해, 물명:1, 즹경이;훈몽-초, 상:9, 鶬, "원앙")'도 'ㅢ>ㅡ'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므여ᄒᆞ-(嗔)'는 후행하는 'j'가 관련되어 선행하는 'j'가 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싁스기("씩씩하게") 증경이(鶬)'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다. 後者가 'ㅣ'모음 逆行同化의 환경과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제주도 방언에서 同化主가 기원적으로 'ㆎ'나 'ㅢ'였던 것은 'ㅣ'모음 逆行同化의 적용에서 벗어나므로 규칙(14)는 'ㅣ'모음 逆行同化보다는 史的 順位가 뒤지는 규칙이다. 그런데 다음 예는 同化主가 'ㆎ'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ㅣ'모음 逆行同化를 겪었다.

(39) 뗑기-(ᄃᆞᆼ기-;능엄 5:24, 引, "당기다")

(39)는 非語頭音節 'ㆍ'의 변화 규칙인 규칙(2)에 이어 규칙(14)가 적용된 형태가 'ㅣ'모음 逆行同化를 겪은 것인바 이는 어떤 음운론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이는 'ㅣ'모음 逆行同化 규칙이 규칙(14)를 타고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圓脣母音化

문헌어는 17세기 말에 형태소 내부에서의 圓脣母音化를 경험하였다(李基文, 1972a:202). 그런데 17세기 문헌어는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만을 보여줄 뿐 이에 상응하는 'ㆍ>ㅗ'의 圓脣母音化는 보여주지 않는바 중앙어에서는 'ㅡ>ㅜ'의 圓脣母音化만을 겪은 듯하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1) ㄱ. 문뜩(믄득;월석 2:51, 忽) 물(믈;훈민-원, 해례:25, 水)
ㄴ. 버물-(버믈-;능엄 1:102, "버물다")

(2) ㄱ. 불(블;훈몽-초, 하:15, 火) 부뜨-(븥-;세훈민 12, 附) 뿔(ᄲᅳᆯ;석보 13:53, 角)
ㄴ. 더불-(더블-;석보 6:2, 與)

(3) ㄱ. 풀(플;능엄 9:100, 膠)

ㄴ. 베풀-(베프-;두해-초 9:27, 施)

부풀-(부플-;내훈-초, 서:5)

ㄷ. 쿨(플;월석 2:72, 草)

(4) ㄱ. 푸-(프-;역보 46, 汲)

ㄴ. 아프-, 아푸-(*앓-+*-ᄇᆞ-, 알ᄑᆞ-;훈몽-초, 중:16, 痛, "아프다")

고프-, 고푸-(*곯-+*-ᄇᆞ-, 골ᄑᆞ-;월석 8:95, 飢, "고프다")

슬프-, 슬푸-(*슳-+*-브-, 슬프-;두해-초 7:3, 哀)

실프-, 실푸-(*슬ᄒᆞ-+*-브-, "싫다", 슬ᄒᆞ-;능엄 8:5, 厭)

ㄷ. 노프-, 노푸-(높-;석보 6:2, 高)

지프-, 지푸-(깊-;용가1:14.9, 深)

(1)-(3)은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音節이든 非語頭音節이든 관계없이 脣音 아래에서 'ㅡ>ㅜ'의 圓脣母音化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112] (3ㄷ)의 '쿨(草)'은 이른바 'ㅂ>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인데 圓脣母音化 이후 'ㅍ>ㅋ'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ㅍ>ㅋ'의 변화가 'ㅡ>ㅜ'의 圓脣母音化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클'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1)-(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圓脣母音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15) ㅡ > ㅜ / [labial] ___ C

(語幹末이 아닐 때, 脣音 아래에서 'ㅡ'는 'ㅜ'로 圓脣母音化한다.)

---

112) 제주도 방언의 '비둠, 비돔(비듬;박번, 상:44, "비듬") 비눔(비름;두해-초 16:66, 莧, "비름") 다굼바리, 다금바리("발발 기는 개") 사곰파리("사금파리")'는 후행하는 脣音의 영향으로 'ㅡ>ㅜ'의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인듯하다.

그런데 규칙(15)는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는 문헌어와 비교해 보았을 때 圓脣母音化를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4ㄱ)의 '푸-(汲)'는 副詞形語尾 '-어'가 統合되었을 때 '펀("퍼서")'에서처럼 語幹末母音이 탈락되므로 基底層位에서는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이 아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單音節用言語幹의 경우에 '보안(보-+-안, "보아서")'에서처럼 副詞形語尾 '-아/어'와의 결합에서 語幹末母音이 滑音化하지 않기 때문(2.4.2.1.에서 後述)이다. (4ㄴ)은 派生接尾辭 '*-ㅂ/브-'가 결합된 派生語의 경우이며 (4ㄷ)은 用言語幹末 '一'삽입(3.4.1.에서 後述)을 겪어 2音節語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진 語幹의 경우이다. (4ㄴ), (4ㄷ)에 제시된 예들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아푸-(痛) 고푸-(飢) 슬푸-(哀) 실푸-(厭) 노푸-(高) 지푸-(深)'와 같이 語幹末 非語頭音節에서의 圓脣母音化를 겪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이들 중에 '슬푸-, 실푸-, 지푸-' 등이 '슬펀(슬프-+-언, "슬퍼서") 실펀(실프-+-언, "싫어서") 지펀(지프-+-언, "깊어서")'에서 보는 대로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基底層位에서 圓脣母音化를 겪은 형태로 再構造化된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基底層位에서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우' 末音 語幹과 마찬가지로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아'를 선택(2.4.2.1.에서 後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규칙(15)는 변화를 입는 음소가 형태소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음운변화의 조건이 된 것이다.

규칙(15)는 제주도 방언의 圓脣母音化 규칙인데 다음 예를 고려하면 제주도 방언의 圓脣母音化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5) 구물-(그믈-;언태 64, 盡) 구뭄(그믐;훈몽-초, 상:1, 晦)

구물(그믈;능엄 8:103, 중:8-9, 網) 두물-(드믈-;금삼 2:3, 稀)
쑤물(스믈;법화 2:58, 二十)

(5)는 [labial]의 連鎖 앞에서 이를 선행하는 'ㅡ'가 'ㅜ'로 圓脣母音化한 것이다(拙稿, 1988:55-57).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단계의 圓脣母音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15)가 규칙(16)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섬은 물론이다.

규칙(16) ㅡ > ㅜ / ___ [labial] [labial]
([labial]의 連鎖 앞에서 'ㅡ'는 'ㅜ'로 圓脣母音化한다.)

규칙(15), (16)의 圓脣母音化는 [labial] 음소와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ㅡ'와 'ㅜ'가 [labial] 資質과 관련을 가지는 [round] 資質에 의하여 체계상으로 대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6) ᄀᆞ물-(ᄀᆞ물-;월석 10:84, 旱, "가물다")
(7) 쑤물(스믈;법화 2:58, 二十)
(8) ㄱ. 밉-(뮙-;박해, 중:56, 憎) 피-(픠-;두해-초 10:7, 開).
ㄴ. 문지럽-, 문치럽-, 민지럽-, 민치럽-, 미끄럽-(믯그럽-;두해-초 25:41, 滑)

(6)의 'ᄀᆞ물-(旱)'는 규칙(15)가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규칙2)보다는 史的 順位에서 뒤짐을, (7)의 '쑤물(二十)'은 규칙(16)이 齒擦音 아래 'ㅡ>ㅣ'의 변화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섬을 보여준다. 後者의 경우에 圓脣母音化 규칙(16)이 齒擦音 아래 'ㅡ>ㅣ'의 변화보다 선행하지 않았다면 (7)은 '시물'(또는 '씨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8ㄱ)의 '밉-(憎)'는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규칙15)를 겪은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겪지 않고 자음 아래 'ㅢ>ㅣ'의 변화(규칙14)를 겪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8ㄴ)의 '문지럽-, 문치럽-(滑)'는 이들이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임을 보여준다.[113] 따라서 규칙(15)가 규칙(14)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전 시기에 'ㅡ'와 母音調和上의 대립을 이루던 'ㆍ'는 圓脣母音化를 겪지 않았을까? 전남, 경남, 함북을 중심으로 경북, 평북, 함남, 황해 등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ㆍ>ㅗ'의 圓脣母音化(李崇寧, 1954a:485-487, 李丞宰, 1977, 郭忠求, 1991:231-238, 白斗鉉, 1992)는 제주도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114]

(9) ㄱ. ᄆᆞ디(ᄆᆞᄃᆡ;월석 2:56, 節, "마디")
ᄆᆞ지(ᄆᆞᆮ;월석 2:5, 伯, "맏이")
ᄆᆞ실(ᄆᆞᅀᆞᆶ;월석 17:45, 里, "마을")
ᄆᆞᆫ직-(ᄆᆞᆫ지-;법화 6:31, 撫, "만지다")
ᄆᆞᆯ(ᄆᆞᆯ;석보 9:15, 馬)
ᄆᆞᆯ르-(ᄆᆞᄅᆞ-;훈몽-초, 하:6, 乾, "마르다")

---

113) '거미(거믜;훈몽-초, 상:11, 蜘) 나비(나비;훈몽-초, 상:11, 蝶)'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圓脣母音化 규칙(15)는 語頭音節의 경우와 非語頭音節의 경우를 구분하여 記述해야 할 듯하다. 語頭音節의 경우에는 (8ㄴ)에서처럼 圓脣母音化를 겪은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非語頭音節의 경우에는 圓脣母音化를 겪은 형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114) 제주도 방언에서도 '고봄제기, 고볼레기("숨바꼭질")'와 '노로셍이("노ᄅᆞᆺ", 노ᄅᆞᆺ;석보 13:22)'에서처럼 'ㆍ>ㅗ'의 圓脣母音化를 겪은 듯이 보이는 예가 나타난다. 前者는 母音調和와 현대 제주도 방언의 用言 '곱-("숨다")'를 고려해 볼 때 '곱-+*-ᄋᆞᆷ재기, 곱-+*-ᄋᆞᆯ래기'의 구조를 가진 것이며 後者는 '*노ᄅᆞᆺ+-엥이'의 구조를 가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ㅗ'에 의한 것이어서 脣音 아래 'ㆍ>ㅗ'의 圓脣母音化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ᄆᆞᆰ-(ᄆᆞᆰ-;석보 9:4, 淸, “맑다”)

ㄴ. ᄇᆞᆯ르-(ᄇᆞᄅᆞ-;석보 6:38, 塗, “바르다”)

ᄇᆞᆰ-(ᄇᆞᆰ-;석보 9:35, 明)

ᄇᆞᆲ-, ᄇᆞᆯ루-(ᄇᆞᆲ-;석보 6:34, 踏, “밟다”)

ᄲᆞᆯ-(ᄲᆞᆯ-;월곡 28, 吸, “빨다”)

ㄷ. ᄑᆞ리(ᄑᆞ리;훈몽-초, 상:11, 蠅, “파리”)

ᄑᆞᆯ(ᄑᆞᆯ;훈몽-초, 상:13, 肱, “팔”)

ᄑᆞᆺ(ᄑᆞᆺㄱ;구방, 하:21, “팥”)

(9)를 앞의 예 (1)-(3)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 방언은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는 겪었지만 ‘ㆍ>ㅗ’의 圓脣母音化는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中部方言이나 제주도 방언은 ‘ㅡ>ㅜ’의 圓脣母音化는 겪었지만 ‘ㆍ>ㅗ’의 圓脣母音化는 겪지 않았는 바 이 방언에서 모음체계상 대립짝이었던 ‘ㅡ’와 ‘ㆍ’가 보여주는 圓脣母音化에 있어서의 相違를 金完鎭(1975a:3)에서는 “圓脣母音化를 겪을 때, 中部方言에서는 이미 ‘ᄋᆞ’가 消失된 다음임에 反하여 南部方言에서는 圓脣母音化가 일어날 때에 ‘ᄋᆞ’가 아직도 健在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여 ‘ㆍ’가 다른 모음으로 合流하는 時期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李基文(1977:194)에서는 제주도 방언이 ‘ㆍ’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ㆍ>ㅗ’의 圓脣母音化를 모른다는 점으로부터 “濟州島 方言에서 圓脣化 規則이 ‘ᄋᆞ’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中略) 서울말에서 ‘ᄋᆞ’의 存在에도 불구하고 圓脣化 規則이 ‘으’에만 적용될 수도 있었을 可能性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圓脣母音化가 ‘ㅡ’에만 적용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圓脣母音化에 있어서 ‘ㅡ’와 ‘ㆍ’가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圓脣母音化가 일어나던 시기에 제주도 방언의 ‘ㅡ’와 ‘ㅜ’는 모음체계상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었지만 ‘ㆍ’와 ‘ㅗ’는 圓脣的 對立을 이루

고 있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115] 圓脣母音化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ㆍ'의 後舌低母音化(2.1.1. 참조)에 기인하는 듯하다. 'ㆍ'의 後舌低母音化는 'ㆍ'와 'ㅗ'가 가지는 모음 체계상의 圓脣的 對立 關係의 상실을 의미해 주기 때문이다.[116]

---

115) 이렇게 보면 'ㅡ'와 'ㆍ'의 圓脣母音化를 모두 보여주는 방언은 모음 체계상 'ㅡ'와 'ㅜ', 'ㆍ'와 'ㅗ'가 圓脣的 對立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李丞宰, 1977).

116) 이제까지 제시한 예들은 圓脣母音化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즉 'ㆍ'나 'ㅡ'가 圓脣母音化를 보이는 환경이 '脣音 ___ 齒音, 舌音, 口蓋音'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문헌어에서 제1단계 圓脣母音化를 보이는 17세기 이전에 適用環境을 달리하는 또다른 圓脣母音化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중세국어 문헌어에 대한 검토는 제1단계 圓脣母音化와 적용환경을 달리하는 圓脣母音化가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일어났으리라는 推定을 가능하게 해준다. 형태소 내부로 한정하면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ㆍ'와 'ㅡ'는 脣音이 선행할 때 이를 후행하는 자음은 언제나 齒音이나 舌音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 '믜-(석보 13:56, 憎, "미워하다") ᄆᆞ야지(훈몽-초, 상:10, 駒, "망아지") ᄆᆡᇂ(두해-초 7:25, 野, "메") ᄇᆡ피(노번, 하:38, "정육의 한 가지") ᄇᆞ얌(훈민-원, 해례:25, 蛇) ᄇᆡ(훈몽-초, 상:14, 腹) ᄑᆡ-(두해-초 10:7, 開) ᄠᆡ-(법화 3:36, "이삭 패다")' 등처럼 調音位置가 齒音이나 舌音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滑音 'j'가 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ᄆᆞ겁-(두해-초 8:27, 重) ᄆᆞᆼᄋᆞ리돌(훈몽-초, 상:2, "몽우리돌") ᄇᆞᆨ(노번, 상:17, 北) ᄑᆞ개(훈몽-초, 중:12, 扉, "파개") ᄆᆞ프레(훈몽-초, 상:6, "물푸레")' 정도가 있다. 이 중에서 'ᄆᆞ프레, ᄑᆞ개'는 단일형태소가 아닌 듯하며 'ᄆᆞᆼᄋᆞ리돌'은 현대국어에서 '모오리돌'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ㅇ'이 삽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외로 보이는 것은 'ᄆᆞ겁-(重)'와 'ᄇᆞᆨ(北)'에 한정된다. 'ᄆᆞ겁-'는 派生接尾辭 '-업-'을 제외한 語基가 單一語基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대국어를 고려해 보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하다. 현대국어의 '묵직하-'를 '높직하-, 큼직하-' 등과 비교해 보면 '*묵'이 形容詞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派生接尾辭 '-업-'이, 선행하는 語基로서 動詞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4 모음의 변화와 母音調和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 이전 시기의 母音調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母音調和는 문헌어와 마찬가지로 엄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17) 그런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는 母音調和가 지켜지지 않은 형태들이 다수 존재하여 共時的으로는 母音調和가 인정될 수 없는바 그것은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에 있어 왔던 여러 음운변화가 관여하여 母音調和의 붕괴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節에서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母音調和를 어기고 있는 형태들이 어떠한 음운변화에 의하여 생성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전 시기의 형태를 再構해 봄으로써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母音調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추측해 볼 것이다. 현대 제주도 방언이 보여주는 母音調和의 양상을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구분하여 記述한다.118)

2.4.1 형태소 내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음운변화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 형태소

117) 문헌어에서의 母音調和는 형태소 내부에서, 또는 한정된 조건 아래 語彙形態素와 文法形態素의 결합에서 ‘ㆍ, ㅏ, ㅗ’ 등의 陽性母音 계열의 모음은 陽性母音 계열의 모음끼리, ‘ㅡ, ㅓ, ㅜ’ 등의 陰性母音 계열의 모음은 陰性母音 계열의 모음끼리 연결되는 모음연결 제약을 의미한다(金完鎭, 1971a:117-130). 여기서 한정된 조건이라 함은 “當該 接尾辭 形態素의 異形態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이 母音으로 시작할 경우”(p.122)에 그 형태소의 “第一音節”(p.129)에 한하여 母音調和가 허락됨을 가리킨다.

118) 複合語 또는 漢字語나 外來語의 경우에는 母音調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節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내부의 母音調和가 유지되고 있다.[119]

(1) ㄱ. ᄂᆞᄆᆞᆯ(ᄂᆞᄆᆞᆶ;능엄 6:99, 蔬, "나물")

ㄴ. ᄀᆞ만(ᄀᆞ마니;석보 6:30, 隱) ᄋᆞ답(여ᄃᆞᆲ;속삼, 효:19, 八)

ㄷ. ᄌᆞ곱-("눈 부셔 간지럽다")

(2) ㄱ. 다ᄆᆞᆯ("밤에 그 위치에 따라 시각을 짐작하게 하는 별자리")

ㄴ. 가ᄃᆞᆯ(脚, 가ᄅᆞᆯ;능엄 9:120, "갈래")

가마치(가ᄆᆞ티;훈몽-초, 상:11, "가물치")

다ᄀᆞᆫ("소 나이 두 살") 하ᄀᆞᆫ("여러가지")

ㄷ. 아ᄒᆞᆸ, 아ᄋᆞᆸ(아ᄒᆞᆸ;석보 6:3, 九)

(3) ㄱ. 오ᄂᆞᆯ(오ᄂᆞᆯ;석보 6:28, 今日)

ㄴ. 고ᄁᆞᆯ(곳갈;월곡 130, 帽)

ㄷ. 보ᄅᆞᆷ(보ᄅᆞᆷ;월곡 31, 望, "보름")

(4) ㄱ. 드르(드릏;석보 19:43, 野, "들")

흥글-(흔들-;노번, 상:4, 흐늘-;두해-초 22:51, 후늘-;월석-중 21:218, 搖)

ㄴ. 그레기, 기러기, 기레기(그려기;능엄 8:121, 雁, "기러기")

그정, 기정("절벽")

ㄷ. 들굼낭(들굽#낭, "드릅나무")

(5) ㄱ. 저슬(겨슬;월석 1:26, 冬, "겨울")

더듬-(더듬-;법화, 서:21, 搜)

ㄴ. 더덕, 던덕(더덕;훈몽-초, 상:7)

머정("어떤 일에 있어 재수가 좋음")

더럽-(더럽-;월석 9:24, 汚)

ㄷ. 거울(거우루;능엄 7:14, 鏡)

너울("葬事 지낼 때 여자가 쓰는 것")

---

119)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의 변화에 대해서는 崔明玉(1982, 1993), 郭忠求(1991:204-209) 참조.

서툴-("서툴다")

(6) ㄱ. 무르레(믈레;동해, 하:17, "물레") 무클, 뭉클("쟁기술")[120]

두드리-(두드리-;능엄 7:18, 鼓)

ㄴ. 구덕("조금 큰 바구니")

굴메(그리메;월석 17:58, 影, "그림자")

ㄷ. 구룸(구룸;월곡 81, 雲) 우물(우믈;훈몽-초, 상:3, 井)

부풀-(부플-;내훈-초, 서:5, 膨脹) 우숩-("우습다")

(1)-(3)은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陽性母音의 調和를, (4)-(6)은 陰性母音의 調和를 보여주는 예이다.[121] 이들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母音調和가 존재했을 可能性을 보여준다.[122]

현대 제주도 방언은 陽性母音의 調和를 어기고 있는 형태가 다

---

120) '뭉클("쟁기술")'은 (5ㄴ)의 '던덕("더덕")'과 함께 鼻音의 삽입(3.2.에서 後述)을 겪은 것이다.

121)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른바 母音調和를 보이는 경우는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 한정되며 '-아'가 연결되는 語幹母音과 '-어'가 연결되는 語幹母音들이 각각 모음체계상에 어떤 自然部類로도 묶일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共時的 관점에서 제주도 방언의 母音調和를 인정하지 않지만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를 살펴보려 하는 이 글에서는 記述의 편의상 共時態를 논의하는 부분에서도 '陽性母音, 陰性母音'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기로 한다.

122) 하지만 이 예들만으로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母音調和가 존재했었다고 할 수는 없다. 母音調和의 존재란 일부 어휘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예들이 共時的 母音調和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共時的 母音調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母音調和에 벗어나 있는 예외들에 대한 共時的 설명이 필요한데 제주도 방언의 경우는 通時的 모음변화에 의하여 母音調和가 지켜지지 않는 예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共時的 관점에서 母音調和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中性母音의 調和는 陽性母音의 調和나 陰性母音의 調和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예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崔明玉, 1993:711, 註4).

수 존재한다.

(7) ㄱ. 까드랍-(가ᄃᆞᆲ-;경신 63, "까다롭다")

아흔(아ᄒᆞᆫ;석보 6:37, 九十)

보드랍-(보ᄃᆞ랍-;석보 13:12, "보드랍다")

ㄴ. 가늠("처신") 사릅("소 나이 세 살")

다금바리("발발 기는 개")

(8) ᄀᆞ물-(ᄀᆞᄆᆞᆯ-;월석 10:84, "가물다")

아물-(암ᄀᆞᆯ-;월석 10:31, 아ᄆᆞᆯ-;두해-중 1:49, "아물다")

가물-(다믈-;언태 34, 噤, 감믈-;분문 17, "다물다")

(9) ㄱ. 아덜(아ᄃᆞᆯ;석보 6:9, 子)

아척, 아칙(아ᄎᆞᆷ;월석 1:45, 朝, "아침")

ㄴ. 보섭(보십;훈몽-초, 중:9, 犁, "보습")

(7)-(9)는 非語頭音節에서 '·'의 변화를 겪은 예들이다.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는, 陽性母音 계열의 모음이 陰性母音 계열의 모음으로 바뀌는 '·>ㅡ' 변화(규칙2)와 '·>ㅓ' 변화(규칙3)를 겪었는바(2.1.1.2. 참조) 이들은 母音調和 계열상의 변화를 보인 것이므로 母音調和의 붕괴를 일으켰다. (7)은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를, (8)은 '·>ㅡ' 변화 이후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규칙15)를, (9)는 非語頭音節 '·>ㅓ'의 변화를[123] 겪은 것이다. 이 형태들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가 '·>

123) '보섭'이 非語頭音節에 '·'를 가졌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지 그것이 母音調和上의 예외라는 점으로부터 非語頭音節 '·>ㅓ'의 변화(2.1.1.2. 참조)를 겪었을 것으로 보고 '*보ᄉᆞᆸ'으로 再構한 것이다. 또한 '대덜포(들보;훈몽-초, 중:4, 樑, "대들보")'도 '보섭'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대ᄃᆞᆯ포'를 再構할 수 있다. 물론 '들보'는 '들-(擧)'와 '보(樑)'의 複合語일 가능성이 짙으므로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살펴보는 이 論文에서 적절한 예는 아니다.

ㅡ'나 '·>ㅓ'의 변화를 겪기 이전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엄격히 유지하였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10) 가죽(가족;신합, 상:26, 皮) 즈주(즈조;석보 6:11, 頻)
자굴("자귀풀", 자괴나모;물명 4:4)
모둡-(모도-;능엄 1:16, 會, "모으다")

(11) ㄱ. 가마귀(가마괴;두해-초 8:39, 烏)
당나귀(나괴;박번, 상:34-35, 나귀;몽산 14, 라귀;석보9:15, "당나귀")[124]
자귀(자괴;역해, 하:17, 錛, "자귀")
장구(댱고;사해-중, 하:34, 樂器)
ㄴ. 간잘귀("개똥참외")

(10)-(11)은 제주도 방언에서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를 겪어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가 지켜지지 않은 형태들이다.

중앙어는 근대국어에 이르러 非語頭音節에서 'ㅗ>ㅜ'의 변화를 겪었다(李基文, 1972a:203, 郭忠求, 1980:90). 중앙어에서 'ㅗ>ㅜ'의 변화는 18세기 後期에 시작되어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 방언은 중앙어와 달리 아직까지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가 완성되지 않은 듯하다. 제주도 방언에서 보여주는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는 '드투-(드토-;석보 6:7, 爭, "다투다") 수두(水道) 트루(ᄣᆞ로;석보 6:7, 殊, "따로") 부무(부모;박번, 상:50, 父母) 벌추(伐草) 파수, 파쉐("바소")' 등에서처럼 開音節語幹의 末音이 'ㅗ'인 경우와 '몽둥이(몽동이;한청 4:37) 사둔(사돈;훈몽-초, 상:17, "사돈") 방울(방올;월석 17:60, 鈴) 누네누니(누네노리;훈몽-초, 상:12, "하루살이")' 등에서처럼 共鳴子音이 후행

124) 문헌어의 경우를 고려하면 非語頭音節 'ㅜ>ㅗ'를 보여주는 듯하다. 따라서 借用語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 하지만 '고롬(고롬;훈몽-초, 상:15, 골홈;훈몽-초, 중:11, 膿, "고름") 노곰(錄音) 노롬(노롬;한청 9:16, "노름") 보롬(보롬;월곡 31, 望, "보름") 소곰(소곰;두해-초 7:34, 鹽, "소금") 오곰테기(오곰;훈몽-초, 상:14, "오금") 오롬(山, "오름") 조꼼(죠고마;석보 9:44, 少, "조금")' 등과 '고고리("이삭", 고고리;훈몽-초, 하:2, "꼭지") 고봄제기("숨바꼭질") 골로로(골오;두해-초 20:28, "골고루") 도동놈(도독#놈, "도둑놈") 복송게(복셩;두해-초 10:14, 桃, "복숭아") 오좀(오좀;능엄 8:99, 尿, "오줌")' 등에서 보는 대로 共鳴子音이 후행하더라도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ㅗ'인 경우에는 'ㅗ>ㅜ'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閉音節 語幹의 末音이 共鳴子音이 아닐 경우에는 '바독(바독;금삼 3:13, 碁) 나록("벼") 베록(벼록;훈몽-초, 상:12, 蚤) ᄌᆞ록(ᄌᆞᄅᆞ;훈몽-초, 중:6, 柄, "자루") 아홉(아홉;석보 6:3, 九)' 등에서처럼 대체로 'ㅗ>ㅜ'의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주췻돌(쥬츄돌;역해, 상:17, 礎, "주춧돌") 밥통("밥통") 고초(고쵸;훈몽-초, 상:6, "고추")' 등에서처럼 單一語가 아니거나 漢字語인 경우에도 'ㅗ>ㅜ'의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를 유지한다. '일분(日本)'에서처럼 漢字語이더라도 固有語化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ㅗ>ㅜ'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위에서 記述한 非語頭音節 'ㅗ>ㅜ' 변화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자국(자곡;월석-중 21:102, 跡) 전북(젼복;물명 2:8, "전복") 게숙(繼續) 공수너-(공순+허-, 공손ᄒᆞ-;소해 1:13, 공슌ᄒᆞ-;소해 5:34, "恭遜하다")'에서처럼 'ㅗ>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비돔, 비둠(비듬;박번, 상:44) 꺼꾸로, 거꿀루(갓ᄀᆞ로;능엄 10:56, 갓고로;월석 9:57, "거꾸로") 동모, 동무(동모;훈몽-초, 중:2, 伴) 단초, 단추(단쵸;역해, 상:66) 말촉, 말축("메뚜기") 갈콩이, 갈쿵이(갈공이;두해-초 14:3, "갈고리") 말톡, 말툭(말ᄯᅩᆨ;역해, 상:17, "말뚝")'에서 보듯이 'ㅗ'형

과 'ㅜ'형이 共存한다. 한편 '구짝("곧장")'은 語頭音節에서 'ㅗ>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도, -두("-도", 크도;월석 1:26, 大, "크지도", 不德두;서해 5:66, "부덕도") -곡, -국("-고", 잇곡:능엄 3:9, "있고", 두구;두해-초 15:28, 置, "두고")'에서처럼 單音節의 助詞나 語尾의 경우에는 대부분 'ㅗ'형과 'ㅜ'형의 共存을 보여주지만 多音節의 助詞나 語尾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정("-고자", ᄇᆞ리고져;석보 9:7, "버리고자")' 등에서처럼 제1음절에서는 'ㅗ>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多音節의 助詞나 語尾의 경우에도 '-도록, -두룩("-도록", 남ᄃᆞ록;석보 9:10, 餘, "남도록", ᄆᆞᆾ도록;두해-초 10:20, 終, "마치도록") -초록, -추룩("-처럼")'에서처럼 제1음절에서의 'ㅗ>ㅜ'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非語頭音節 'ㅗ>ㅜ'의 변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한데 非語頭音節 'ㅗ>ㅜ'의 변화도 역시 母音調和의 계열상 陽性母音을 陰性母音으로 변화시킨 것이므로 母音調和의 붕괴를 일으켰다.

(12) ㄱ. 아바지(아바님;석보 6:1, "아버지")
모사리("모서리") 당간("탕건")
ㄴ. 거마리, 거멀장(거머리;훈몽-초, 상:12, "거머리")
귀마리꽝(귀머리;훈몽-초, 상:15, "복사뼈")

(12)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ㅏ'와 'ㅓ'의 모음교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헌어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ㅏ'와 'ㅓ'의 모음교체형이 비교적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거염지, 게염지(가야미;훈몽-초, 상:12, 蟻, "개미") 버염, 베염(ᄇᆡ얌;훈민-원, 해례:25, 蛇, "뱀") 자리-, 저리-(자리-;사해-중, 하:29, 痲, "저리다") 멀리-(勿, "말리다") 재타리("재떨이")' 등이 'ㅏ'와 'ㅓ'의 모음교

체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말-(말-;월석 10:20, 勿)'가 '멀-'로, '털-(뻘-;월석 7:31, "떨다")'가 '탈-'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타리'와 '멀리-'는 複合語나 派生語에서 'ㅏ'와 'ㅓ'의 모음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재타리'의 경우는 陽性母音의 調和를 지키기 위하여 'ㅓ'와 'ㅏ'의 모음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語彙形態素끼리의 결합인 複合語에서 母音調和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이다. 金完鎭(1971a:127-129)에서 지적된 것처럼 語彙形態素 사이에서는 母音調和가 不可透性을 보이는 것이 중세국어 문헌어의 현실인데 '재타리'는 語彙形態素 사이를 넘어서 母音調和를 遵守하는 경우인바 이는 複合語가 單一語로 인식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이외에도 '바꼇, 바꼇(밧겻ㅌ;어해-남 17, 外, "바깥") 저냑(져녁;역해, 상:2, 夕, "저녁")'은 'ㅏ'와 'ㅓ'의 모음교체와 관련된 듯하다. '바꼇, 바꼇(外)'은 문헌어와 비교해 볼 때 '*밨#*겯'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앙어의 '바깥'은 'ㅓ'가 'ㅏ'로 모음교체를 보이게 된 것이라 하겠다.[125]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複合語가 單一語처럼 인식된 데에서 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저냑(夕)'은 二重母音 'ᆢ'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즉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 'ᆢ'는 이전 시기에는 자음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던 것(2.2.1.1. 참조)으로 보이므로 '저냑(夕)'은 기원적으로 陽性母音의 調和를 보이는 '*ᄌᆢ냑'에 소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어에서는 陽性母音인 'ᆢ'가 陰性母音인 'ㅕ'로 合流함에 따라 새로이 陰性母音의 調和 계열에 편입되면서 조정이 일어나 'ㅏ'가 'ㅓ'로 모음교체를 보이게 된 것이라 하겠다. 玄平孝(1962)의 'ᄌᆢ냑, ᄌᆢ냑, 저낙'이 '*ᄌᆢ냑'의 再構를 지지해 준다. 'ㅏ'와 'ㅓ'의 교체는 (12)에서 보는 대로 母音調和의 조정을 일으켰다. 조정의 방향이 母音

---

125) 물론 이는 '바깥'이 '*밨#*겯'으로부터의 변화형이라는 前提에서이다.

調和를 유지하는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ㅏ'와 'ㅓ'의 모음교체는 陽性母音과 陰性母音 사이의 교체이므로 이러한 교체는 곧 母音調和의 붕괴를 의미해 주는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母音調和의 붕괴는 上向 二重母音 'ᆢ'나 下向 二重母音 'ᆡ'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13) ㄱ. ᄋᆢ답(여듧;세훈민 3, 여돏;속삼, 효:19, 八, "여덟")
　　　ᄋᆢ라(여렇;능엄 10:23, 諸, "여러")
　　ㄴ. 베락(벼락;두해-초 18:19, 霹)
　　　볼써(볼쎠;석보 6:35, 已, "벌써")
(14) 넹바리(닝과리;역해, 상:54, 烟頭子, "냉과리")[126]

(13)은 二重母音 'ᆢ'와 관련을 가지는 형태인바 (13ㄱ)의 'ᄋᆢ답(八) ᄋᆢ라(諸)'는, 二重母音 'ᆢ'가 陽性母音 계열에 속하는 모음이므로 陽性母音의 調和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3ㄴ)의 '베락(霹) 볼써(已)'는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어기고 있는 형태인데 이는 (13ㄴ)의 '베락(霹) 볼써(已)'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있었던 자음 아래 'ᆢ>ㅕ'의 변화(2.2.1.1. 참조)를 겪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ᆢ>ㅕ'의 변화는 母音調和 계열상에 陽性母音이 陰性母音으로 바뀐 것이므로 母音調和의 예외를 만들었다.[127] (13ㄴ)의 '베락'이 脣音 아래 二重母音 'ㅕ'의 單母音化(2.2.1.1. 참조)를, '볼써(已)'가 口蓋音化된 자음 아래 滑音 'j'의 탈락(2.2.1.1. 참조)을 겪은 것임은 물론이다. (14)의 '넹바리'

---

126) 'ㅂ'와 'ㄱ'의 대응이 이루어져 있는데 방향을 고려하면 '넹바리(<*닝바리)'가 기원적일 듯하다. '닝과리'는 'ᄂᆡ(월석 9:7, 煙)'와 관련된 合成語일 가능성도 있다.

127) 이렇게 보면 이 'ᆢ>ㅕ' 변화는 母音調和의 붕괴를 일으킨 최초의 음운변화가 되는 셈이다.

는 母音調和를 고려해 볼 때 기원적으로 語頭音節에 二重母音 'ㆎ'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 二重母音 'ㆎ'는 중앙어의 單母音化 방향과 달리 語頭音節에서는 'ㅔ'로, 非語頭音節에서는 'ㅣ(<ㅢ)'로 合流(2.2.2.3. 참조)했다고 했는데 語頭音節에서의 'ㆎ>ㅔ' 변화가 母音調和의 예외를 만들어 냈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二重母音 'ㆎ'나 'ㅐ'는 陽性母音의 調和를 보이는 것이지만 'ㅔ'는 陰性母音의 調和를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서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모음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內的變化에 의한 派生(宋喆儀, 1990:289-308)에 한정된다. 內的變化에 의한 派生은 色彩形容詞나 反復複合語의 형성에 관여하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도 色彩形容詞나 反復複合語에 한하여 內的 派生에 의한 派生語가 나타난다.

(15) ㄱ. 까망허-("까맣다") 발강허-("발갛다")
새까망허-("새까맣다") 파랑허-("파랗다")
하양허-("하얗다") 노랑허-("노랗다")
ㄴ. 꺼멍허-("꺼멓다") 벌겅허-("벌겋다")
시커멍허-("시꺼멓다") 퍼렁허-("퍼렇다")
헤:영허-("허옇다")[128] 누렁허-("누렇다")
(16) ㄱ. 프르스롱허-("파르스름하다")[129]
노리스름허-("노르스름하다")
ㄴ. 푸리스룽허-("푸르스름하다") 누르스룸허-("누르스름하다")
(17) ㄱ. 소복소복("소복소복") 오뚝고뚝(오뚝#오뚝, "오뚝오뚝")
오목고목(오목#오목, "오목오목")
ㄴ. 수북수북("수북수북") 우뚝구뚝(우뚝#우뚝, "우뚝우뚝")

---

128) 音長이 나타나지만 이는 表現的 기능을 하는 長音이다.
129) 非語頭音節에 나타나는 'ㅡ'는 'ㆍ>ㅡ'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우묵구묵(우묵#우묵, "우묵우묵")

(18) ㄱ. 끄딱끄딱("끄덕끄덕") 끄막끄막("깜박깜박")
드랑드랑("대롱대롱")
슬짝슬짝("슬쩍슬쩍") 흘강흘강("그르렁그르렁")130)
그랑그랑("그렁그렁") 극작극작("긁적긁적")
슬강슬강("슬근슬근")

ㄴ. 꿈짝꿈짝("꼼짝꼼짝") 물랑물랑("물렁물렁")131)
푸삭푸삭("푸석푸석")

ㄷ. 껄랑껄랑("껄렁껄렁") 엄방덤방("엄벙덤벙")
터박터박("터벅터벅") 퍼작퍼작("파닥파닥")

ㄹ. 빌착빌착("질척질척") 질각질각("잘각잘각")132)

(19) ㄱ. ᄆᆞᆼ클ᄆᆞᆼ클("뭉클뭉클") ᄇᆞ슬락ᄇᆞ슬락("바스락바스락")133)

ㄴ. 동글동글("동글동글") 보글보글("보글보글")
보슬보슬("보슬보슬") 쏘근쏘근("쏘근쏘근")134)

ㄷ. 시들시들("시들시들") 진뜩진뜩("진득진득")135)

(20) 좀쑥좀쑥("잠겼다 떴다")136)

(15), (16)에서처럼 色彩形容詞의 경우에는 母音調和의 대립에 의하여 內的 派生이 이루어진다. 內的 派生에 의한 派生語에서는 'ㆍ,

---

130) 이와 대립을 보이는 짝은 각각 'ᄀᆞ딱ᄀᆞ딱, ᄁᆞ막ᄁᆞ막, ᄃᆞ랑ᄃᆞ랑, ᄉᆞᆯ짝ᄉᆞᆯ짝, ᄒᆞᆯ강ᄒᆞᆯ강'이다.

131) 이와 대립되는 것은 'ᄁᆞᆷ짝ᄁᆞᆷ짝, ᄆᆞᆯ랑ᄆᆞᆯ랑'이다. '물랑물랑'이 'ᄆᆞᆯ랑ᄆᆞᆯ랑'과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ㅡ>ㅜ'의 圓脣母音化를 겪은 것이다.

132) 이는 "자갈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인데 이와 대립을 보이는 것은 '잘각잘각'이다.

133) 이와 대립을 보이는 짝은 각각 '뭉클뭉클, 부슬락부슬락'이다.

134) 이와 대립을 보이는 짝은 각각 '둥글둥글, 부글부글, 부슬부슬, 쑤근쑤근'이다.

135) 이와 대립되는 것은 '잔뜩잔뜩'이다.

136) 이와 대립을 보이는 짝은 '짐쑥짐쑥'이다. 중앙어의 '들쑥날쑥'과 의미적으로 비슷하다.

ㅗ, ㅏ'의 陽性母音은 陽性母音끼리, 'ㅡ, ㅜ, ㅓ'의 陰性母音은 陰性母音끼리 나타나 형태소 내부에서의 母音調和가 유지된다.[137) (17)에서처럼 內的 派生에 의한 反復複合語가 형태소 내부에서의 母音調和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8)-(20)에서처럼 母音調和의 대립에 따른 모음의 교체가 基本 語基의 제1음절에만 한정되며 제2음절은 '-아 X'계나 '-으 X'계, '-우 X'계로 통일되어 있어 형태소 내부에서의 母音調和가 유지되지 않는다.[138) (19)는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가, (20)은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가 관련되어 陰性母音 계열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18)은 陽性母音 계열로 통일되어 있어 특이하다. '팔락팔락, 폴락폴락("팔딱팔딱") 문작문작("만지작만지작") 얼룩걸룩(얼룩#얼룩, "얼룩얼룩") 알롱알롱("아롱아롱") 콜롱콜롱("콜록콜록") 문질문질, 민질민질("미끌미끌") 문들문들("민들민들")' 등은 모음교체에 의한 대립짝을 가지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15)-(20)의 예들은 대개 모음대립에 의한 대립짝들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母音調和 계열상의 모음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들은 'ㆍ:ㅡ, ㅏ:ㅓ, ㅗ:ㅜ'의 모음대립에 의한 대립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7모음체계를 바탕으로 한 중세국어 문헌어의 母音調和가 보여주던 대립체계와 일치한다. 內的 派生이 음운변화에 대하여 保守性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宋喆儀, 1990:297)이라 할 수 있다.

2.4.2 형태소 경계

137) 內的變化에 의한 派生에서 'ㅏ'와 'ㅓ', 'ㅗ'와 'ㅜ', 'ㆍ'와 'ㅡ'가 대립을 보인다. '프릿프릿("파릇파릇") 푸릿푸릿("푸릇푸릇")'에서 보듯 선행하는 자음이 脣音일 경우에는 圓脣母音化를 겪어 'ㆍ'와 'ㅜ'의 대립을 보여준다.

138) 제주도 방언의 反復複合語에 관해서는 姜公宅(1986:49-54) 참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전 시기에 형태소 경계의 母音調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副詞形語尾 '-아/어'와 派生接尾辭 '-아/어 X'에서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母音調和를 보여주는 경우로 '-ᄋᆞ/으'계 助詞 및 活用語尾, 助詞 '-ᄂᆞᆫ/는, -ᄅᆞᆯ/를', 意圖法語尾 '-오/우-' 등의 경우를 첨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와 관련된 단일화를 겪어 '-ᄋᆞ/으'계 助詞 및 活用語尾, 助詞 '-ᄂᆞᆫ/는', '-ᄅᆞᆯ/를' 등이 母音調和에 따른 교체를 보여주지 않으며(2.1.1.1. 참조) 意圖法語尾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節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2.4.2.1 副詞形語尾 '-아/어'

모음으로 시작되는 接尾辭들이 모두 母音調和의 지배를 받던 중세국어와는 달리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로 모든 助詞와 '-ᄋᆞ/으'계 活用語尾들이 母音調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 현대국어에서는 副詞形語尾 '-아/어'에 국한하여 母音調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金完鎭, 1971a:117-130, 1985).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주도 방언에서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는 語幹의 音節數와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된다(崔明玉, 1976:63).[139] 여기서의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성격이라 함

139) 물론 副詞形語尾 '-아/어'가 결합하는 語幹이 閉音節이든 開音節이든 관계없이 語幹末音節 모음이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서 無關母音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모음을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이 관련되기도 한다(後述).

국어 下位 方言에서의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는 李翊燮(1972:105-112), 郭忠求(1991:92-105), 배주채(1991), 崔明玉(1992a, b) 참조. 제주도 방언에 관해서는 拙稿(1988:30-32) 참조. 崔明玉(1992a:152-153, 1992b:66, 註10)에서는 기원적으로 副詞形語尾는 '-아'로서 母音調和를 몰랐던 것이라 하였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모디러(모딜-+-어, 석보 6:22, "모질어") 모디로미(모딜-+-옴-+-이, 월석 10:30, "모짊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은 그 語幹이 閉音節인가 開音節인가 하는 것과 語幹末音節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을 가리킨다. 副詞形語尾 '-아/어'가 語幹末音節 모음의 音韻部類에 따라 母音調和의 지배를 받던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게 되면서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 語幹의 音節數와 語幹末音節의 音節構造가 관여하게 되었는데, 前者는 선행하는 語幹에 관련된 음운변화가 語頭音節과 非語頭音節에서 달리 일어나게 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後者는 선행하는 語幹이 開音節 語幹일 때에는 副詞形語尾 '-아/어'가 語幹末音節 모음과 직접 통합되어 음운결합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반하여 선행하는 語幹이 閉音節 語幹일 때에는 副詞形語尾 '-아/어'가 語幹末音節 모음과 직접 統合하지 않음으로 語幹末音節 모음과의 상관성이 약화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語幹의 音節數와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성격이 관련됨은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가 선행하는 語幹과 직접적인 統合관계를 맺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는 일차적으로는 語幹末音節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르지만 後述할 바와 같이 '-아/어' 교체에서 母音調和에 따른 모음들의 自然部類가 모음체계상에서의 自然部類와는 不合致를 보여 母音調和를 지배하는 母音部類들이 모음체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못하므로 현대국어에서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 의한 母音調和 규칙은 共時論的으로는 同化規則이 될 수 없다(李秉根, 1976a:133-138). 그러므로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에 관심을 가지는 이 글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共時的인 교체 양상보다 副詞形語尾 '-아/어'가 母音調和 規則의 지배를 받던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母音調和 규칙이

副詞形語尾 '-아/어'와 또다른 모음어미인 意圖法語尾 '-오/우-'의 선택 조건이 같지 않는데 이로 보아 문헌어에서 이러한 推定이 가능할 듯하다.

재조정되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記述해 나가고자 한다. 이는 通時的 音韻過程들이 관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40]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는 語幹이 閉音節인가 開音節인가 하는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먼저 閉音節 語幹의 경우, 즉 語幹末音節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 節에서는 해당되는 예를 語幹末子音이 純粹子音인 경우, 共鳴子音인 경우, 'ㅎ'인 경우, 子音群인 경우로 나누어 제시한다. 語幹末音節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이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1) ㄱ. 마간(막-+-안, 防, "막아서") 아난(안-+-안, 包, "안아서")
나안(낳-+-안, 産, "낳아서")[141]
갈간(갉-+-안, 搔, "갉아서")
ㄴ. 점자난(점잖-+-안, "점잖아서")
(22) ㄱ. 노간(녹-+-안, 解氷, "녹아서") 조란(졸-+-안, 眠, "졸아서")
조완(좋-+-안, 好, "좋아서")[142]
골만(곪-+-안, 膿, "곪아서")
ㄴ. 페와노안(페와놓-+-안, "펴놓아서")
(23) ㄱ. ᄈᆞ산(ᄈᆞᆺ-+-안, 造粉, "빻아서") ᄈᆞ란(ᄈᆞᆯ-+-안, 洗, "빨아서")
ᄇᆞᆯ간(ᄇᆞᆰ-+-안, 明, "밝아서")
ᄋᆞ란(ᄋᆞᆯ-+-안, 結, "열어서")

140) 李基文(1968:386-388)에서는 母音調和 붕괴의 원인이 음운론적으로는 中立母音이었던 'ㅣ' 그리고 'ㅡ'와 'ㅜ'의 中立母音化에, 形態論的으로는 형태의 單一性 추구에 있다고 했다.
141) 제주도 방언의 用言語幹末 'ㅎ'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共鳴音과 共鳴音 사이에서 表面에 실현되지 않는다.
142) 제주도 방언에서 '오'나 '우' 末音 單音節 用言語幹은 副詞形語尾 '-아/어'와 결합하여도 滑音化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隨意的으로 滑音 'w'를 삽입하기도 한다. 이는 '이' 末音 單音節 用言語幹에서도 평행한데 이로써 보면 同器官的 滑音의 隨意的인 삽입 현상이다.

ㄴ. 애ᄃᆞ란(애ᄃᆞᆯ-+-안, 慨, "애닯아서")

(24) ㄱ. 버던(벋-+-언, "뻗어서") 너먼(넘-+-언, 越, "넘어서")

너언(넣-+-언, 入, "넣어서")

ㄴ. 어리서건(어리석-+-언, 愚, "어리석어서")

일커런(일컫-+-언, 稱, "일컬어서")

가엽선(가엾-+-언, 憫, "가엾어서")

ㄷ. 도머란(도멀-+-안, 覇, "우승해서")

(25) ㄱ. 주건(죽-+-언, 死, "죽어서") 우런(울-+-언, 泣, "울어서")

굴먼(굶-+-언, 飢, "굶어서")

ㄴ. 어두건(어둑-+-언, 暗, "어두워서")

서투런(서툴-+-언, "서툴어서")

수주번(수줍-+-언, "수줍어서")

비우선(비웃-+-언, "비웃어서")

ㄷ. 아무란(아물-+-안, "아물어서")[143]

ᄀᆞ무란(ᄀᆞ물-+-안, 旱, "가물어서")

ㄹ. 머무런(머물-+-언, 滯, "머물어서")

붕무런(붕물-+-언, "부풀어서")

두무런(두물-+-언, 稀, "드물어서")

베푸런(베풀-+-언, 宣, "베풀어서")

(26) ㄱ. 느전(늦-+-언, 晩, "늦어서") 느런(늘-+-언, 增, "늘어서")

늘건(늙-+-언, 老, "늙어서")

ㄴ. 다드만(다듬-+-안, 整, "다듬어서")

ᄌᆞ드란(ᄌᆞ들-+-안, "걱정하여서")

ㄷ. 서드런(서들-+-언, 促, "서둘러서")

홍그런(홍글-+-언, "흔들어서")

비트런(비틀-+-언, "비틀어서")

---

143) '아무런'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까부란, 까부런(까불-+-안, "까불어서")'의 隨意的 교체는 閉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 '-어'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감을 보여주는 듯하다.

ㄹ. 멩그란(멩글-+-안, 造, "만들어서")

(27) ㄱ. 지던(짇-+-언, 燒, "때어서") 시먼(심-+-언, 捕, "잡아서")

ㄴ. 문지간(문직-+-안, 觸, "만져서")

모지란(모질-+-안, "모질어서")

ㄷ. 거치런(거칠-+-언, 慌, "거칠어서")

끄지번(끄집-+-언, "끄집어서")

꾸지전(꾸짖-+-언, 責, "꾸짖어서")

기시런(기실-+-언, "그을어서")

ㄹ. 젭지란(젭질-+-안, "비틀어서")

(28) 세란(셀-+-안, "새어서", 싀-;석보 13:10, 漏)[144]

빼산(뺏-+-안, 奪, "뺏어서")

(21)-(28)은 제주도 방언의 閉音節 用言語幹이 보여주는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의 예이다. (21)은 語幹末音節 모음이 'ㅏ', (22)는 'ㅗ', (23)은 'ㆍ'일 때인데 語幹의 音節數에 관계없이 '-아'가 결합된다. (24)는 語幹末音節 모음이 'ㅓ'일 때인데 (24ㄱ), (24ㄴ)에서 보듯이 '-어'가 결합된다. 하지만 (24ㄷ)에서처럼 非語頭音節 'ㆍ>ㅓ'의 변화를 겪은 語幹에는 '-아'가 결합되기도 한다. '-아/어' 교체에 관한 한 이전 버릇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5ㄱ), (25ㄴ)은 語幹末音節 모음이 'ㅜ'일 때인데 語幹의 音節數에 관계없이 '-어'가 연결된다. (25ㄷ), (25ㄹ)은 非語頭音節 'ㆍ>ㅡ'의 변화가 관련되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바 非語頭音節의 'ㆍ'가 'ㆍ>ㅡ'의 변화(규칙2)를 겪은 후 脣音 아래에서 'ㅡ>ㅜ'의 圓脣母音化(규칙15)를 겪었기 때문에 語幹末音節에 선행하는 음절

144) 'ᄂᆞ슬-, ᄂᆞ실-("날서다") 아이설-(妊, "아이서다") 올-, 오-(來, "오다") 이끌-, 이끄-(導, "이끌다")' 등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派生接尾辭 '*-(ᄋᆞ/으)ㄹ'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派生接尾辭의 존재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도 확인된다(李賢熙, 1987:140).

모음의 성격에 따라 (25ㄷ)과 (25ㄹ)이 '-아/어' 교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語幹末音節이 '脣音+ㅜ'의 구조를 가진 형태에서 'ㅜ'는 陽性母音 'ㆍ'에서 유래한 것과 陰性母音 'ㅡ'에서 유래한 것이 있으며 그리하여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서 'ㅜ'가 無關母音으로145) 나타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母音調和와 관련하여 陽性母音이 陰性母音으로, 또는 陰性母音이 陽性母音으로 바뀌는 母音部類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면 母音調和의 지배를 받던 '-아/어'의 교체는 재조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인데 (25)의 예들이 보여주는 차이도 바로 그러한 재조정의 결과로 여겨진다. 'ㅜ'가 語幹 모음인 單音節 語幹에는 다른 陰性母音의 語幹처럼 '-어'가 결합되지만 多音節 語幹에서는 'ㅜ'가 '-아/어' 교체에서 無關母音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25ㄱ), (25ㄴ)과 달리 (25ㄷ), (25ㄹ)에서는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 관한 한 이전 버릇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146) 이들은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語幹末音節의 母音部類에 따라 副詞形語尾 '-아/어'가 교체되었음을 알려준다.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가 모음체계상의 母音部類에 따른 共時的인 母音同化 現象이 아니므로 (25)의 語幹들은 앞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을 갖는다. (26ㄴ), (26ㄷ)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로 語幹末音節에 실현되는 'ㅡ'에는 이전 시기에 陽性母音 'ㆍ'였던 것과 본래 陰性母音 'ㅡ'였던 것이 있으므로 副

---

145) 無關母音이란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음을 의미한다(拙稿, 1988:31, 註40). 通時論的인 면에서는 모음의 부분적 合流의 결과로 나타난 '部分中立'이란 개념(李基文, 1968:385)과 유사하다. 金完鎭(1967:123)에서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ㅣ'를 母音調和에서 보아 中性母音, 모음체계상의 相關的 對立에서 보아 無關母音이라 하였다.

146) (25ㄱ), (25ㄴ)에서도 'ㅜ'는 역시 無關母音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은 앞에서 記述한 대로 특정한 모음변화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형태소 내부에서 母音調和가 엄격하게 지켜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ㅡ'가 無關母音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자체로는 (26ㄱ)에서처럼 陰性母音처럼 기능하는 것이 당연하다. (25)에서의 'ㅜ'와 마찬가지로 'ㅡ'도 'ㆍ>ㅡ'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陰性母音이었기 때문이다. (26ㄹ)에서 '-아'가 연결된 것은 제주도 방언의 語頭音節 'ㆎ>ㅔ' 변화(규칙6)와 관련된다. (27)은 語幹末音節 모음이 'ㅣ'일 경우인바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성격에 따라 '-아/어'의 교체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 'ㅣ'가 가졌던 中性母音으로서의 성격에 기인한다. 이전 시기에 'ㅣ'는 中性母音이었기 때문에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성격에 따라 '-아/어'의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147] 이로써 보면 제주도 방언은 '-아/어' 교체에서 'ㅣ'의 中性母音化에 따른 재조정의 길을 거부하고 예전 버릇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8)은 閉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ㅔ'일 경우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아'가 결합된다. 이는 이러한 閉音節 構造에서 'ㅔ' 등의 下向 二重母音을 末音節 모음으로 가진 語幹이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즉 본래 'ㅐ+C, ㆎ+C' 등의 下向 二重母音을 포함한 末音節 構造를 가진 用言語幹의 경우에는 母音調和에 따라 '-아'가 결합되었던 것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ㆎ>ㅔ'의 변화를 겪어 閉音節 語幹의 末母音으로 'ㅔ'를 가진 語幹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이 語幹에는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지 않아 이전 버릇을 유지하여 '-아'가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148]

---

147) '모디라(모딜-+-아, 월곡 126, "모질어서")'에서 보듯 이는 대체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디러(모딜-+-어, 석보 6:22)'에서처럼 때로 '-어'가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後述할 活用系列上의 規則化가 開音節 語幹에서 閉音節 語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中立母音의 起源과 성격에 관해서는 金芳漢(1964:61-63), 李基文(1968:384-386) 참조.

148) 제주도 방언에 閉音節 用言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ㅔ'인 형태가 존재함은 현대국어에서 閉音節 用言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ㅔ'인 형태가 나타

요약하면 제주도 방언의 閉音節 語幹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는 語幹末音節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되는바 특히 母音調和의 母音部類를 변화시키는 모음변화가 관계하더라도 '-아/어'의 교체는 이전 버릇을 유지한다. 이는 음운체계가 변화하였지만 母音調和와 관련된 '-아/어' 교체는 여전히 과거의 질서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郭忠求, 1991:99, 註6). 體系와 現象의 분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話者들에게는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를 통하여 모음들의 自然部類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系列上의 規則化(paradigmatic regulation)가 일어나 모음체계와 분리된 現象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는 母音調和의 母音部類를 변화시키는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에 형태소 경계에서의 母音調和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語幹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29) ㄱ. 간(가-+-안, "가서") 잔(자-+-안, "자서")
ㄴ. 만난(만나-+-안, "만나서")

(30) 보안(보-+-안, "보아서")

(31) 찬(ᄎᆞ-+-안, 鹹, "짜서")[149]

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하다. 현대국어에서 語幹末音節 모음이 'ㅔ'인 閉音節 語幹이 존재하지 않음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주채(1991:379)에 따르면 전라남도 고흥지역어에서도 語幹末音節 모음이 'ㅔ'인 閉音節 語幹은 존재하지 않는다.

149) (29)의 예에서처럼 '아' 末音 用言語幹에 副詞形語尾 '-아'가 결합할 때 語幹母音 'ㅏ'가 탈락한 것인지 語尾母音 'ㅏ'가 탈락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31)의 예는 語幹母音 'ㅏ'가 탈락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語幹末母音으로 '·'를 가지는 경우에는 '·>ㅏ'의 변화(규칙1)를 겪어 '·'형과 'ㅏ'형이 雙形語를 이루고 있다(2.1.1.1. 참조)고 했는데 '찬(ᄎᆞ-+-안, 차-+-안, 鹹, "짜서")'에서처럼 '·'형이나 'ㅏ'형이 모두 副詞形語尾 '-아'와의 결합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바 이는 語幹母音이 탈락한 것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崔明玉(1982:117), 拙稿(1988:27)에서는 이 경우

(32) ㄱ. 꾸언(꾸-+-언, 夢, "꾸어서") 주언(주-+-언, "주어서")
ㄴ. 가촨(가추-+-안, "갖추어서") 사관(사구-+-안, "사귀어서")
모돤(모두-+-안, "모아서") 논놘(논누-+-안, "나누어서")[150]
일롼(일루-+-안, 成, "이루어서")
재완(재우-+-안, 使眠, "재워서")
ㄷ. 거돤(거두-+-안, "거두어서") 뿌숸(뿌수-+-안, "부수어서")
시꽌(시꾸-+-안, 夢, "꾸어서")
데완(데우-+-안, "데워서")

(33) ㄱ. 썬(쓰-+-언, "써서") 컨(크-+-언, "커서")
ㄴ. 아판(아프-+-안, "아파서") 고판(고프-+-안, "고파서")
중간(중그-+-안, "잠가서")
ㄷ. 어펀(어프-+-언, "엎어서") 주껀(주끄-+-언, "짖어서")
슬펀(슬프-+-언, "슬퍼서") 실펀(실프-+-언, "싫어서")

(34) ㄱ. 기언(기-+-언, "기어서")
ㄴ. 가넌(가리-+-언, "가려서") 노련(노리-+-언, 黃, "노래서")
홀련(홀리-+-언, "홀려서") 골견(골기-+-언, "갈겨서")
ㄷ. 저련(저리-+-언, "절여서") 베껸(베끼-+-언, 寫, "베껴서")
부변(부비-+-언, "비벼서")
푸련(푸리-+-언, 靑, "파래서")
드뎐(드디-+-언, "디뎌서")
이견(이기-+-언, 勝, "이겨서")

에 語尾 위치가 語幹 위치보다 음운론적 强度가 강하다는 점으로부터 語幹母音이 탈락한 것으로 보았다. 李秉根(1975:85)에 제시된 統辭論的 範疇에 의한 교체 조건이 흥미롭다.

	體言	用言
語幹	强	弱
語尾	弱	强

150) '논호->논누-'에서는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2.4.1. 참조)와 'ㄴㅎ>ㄴㄴ'의 변화(3.1.에서 後述)가 관련된다.

(35) 개연(개-+-언, 晴, "개어서")

(36) ㄱ. 세연(세-+-언, 算, "세어서")

ㄴ. 깨연(깨-+-언, 醒, "깨어서", 쎄-;석보 9:31)

ㄷ. 포게연(포게-+-언, "포개어서", 포가히-;가례, 도:9, 疊)151)

(37) ㄱ. 뛰연(뛰-+-언, "뛰어서")

ㄴ. 발뤼언(발뤼-+-언, 正, "바르게 하여서")152)

(38) 도왜연(도왜-+-언, 助, "도와주어서")

(39) 꿰연(꿰-+-언, 貫, "꿰어서")

(29)는 '아' 末音 語幹, (30)은 '오' 末音 語幹, (31)은 'ᄋᆞ' 末音 語幹의 경우인바 語幹의 音節數와 관계없이 모두 副詞形語尾로 '-아'가 결합된다. (32)는 '우' 末音 語幹의 경우인데 語幹의 音節數에 따라 '-어'가 결합하기도 하고 '-아'가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일어난 非語頭音節 'ㅗ>ㅜ'의 변화와 관련된다. 多音節의 用言語幹末 'ㅗ'는 'ㅜ'로 변화(2.4.1 참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를 바꾸는 변화는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재조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32)에서 보는 대로 중앙어와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재조정이 '-아'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3)은 '으' 末音 語幹의 경우인데 末音節 모음으로 'ㅡ'를 가진 語幹은 (33ㄱ)에서 보는 대로 單音節 語幹에는 다른 陰性母音을 末音으로 가진 語幹처럼 '-어'가 결합하지만 多音節 語幹에서는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 관한 'ㅡ'가 無關母音으로 나타나 (33ㄴ), (33ㄷ)에서처럼 선행하는

151) 제주도 방언에서는 非語頭音節의 'ㅔ'와 'ㅐ'가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 (2.1.1.1. 참조). 그런데 '보테연(보테-+-언, 添, "보태서", 보타-;두해-초 25:1)'은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서 語幹末音이 기원적으로 'ㅐ'이든, 'ㅔ'이든 관계없이 '-어'가 결합됨을 보여준다.

152) 제주도 방언의 '발뤼-'는 '우' 末音 語幹인 '발루-("바르게 하다")'와 雙形을 이루고 있어서 '발롼(발루-+-안)'으로 發話하기도 한다.

음절의 母音部類에 따라 '-아/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閉音節 語幹의 경우에서 언급하였듯이 非語頭音節의 '·>ㅡ' 변화에 기인한다. (34)는 '이' 末音 語幹의 경우인데 語幹의 音節數나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계없이 '-어'가 결합한다. 'ㅣ'가 이미 다른 陰性母音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5)-(39)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ㅐ, ㅔ, ㅟ[wi], ㅙ, ㅞ'를[153] 末音으로 가진 語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前舌母音들이 母音調和 現象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보인 것(李秉根, 1976c:137)이다. (36ㄴ)에서처럼 기원적으로 'ㆎ'에서 유래한 '에' 末音 語幹에도 '-어'가 결합한다.

(21)-(28)은 閉音節 語幹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 양상을, (29)-(39)는 開音節 語幹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 양상을 보여준다. 이 두 유형에 대한 비교는 '-아/어' 교체 양상의 변화에 대하여 示唆해 주는 점이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語幹末音節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母音調和를 보이던 현대국어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가 同化規則으로서의 母音調和가 붕괴되면서 共時的으로는 語幹의 音節數와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어' 교체의 재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 방언에서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를 바꾸어 주는 여러 음운변화에 의하여 母音調和가 붕괴되었지만 '-아/어'의 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母音調和가 붕괴되기 이전의 버릇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제주도 방언이 '-아/어'의 교체에서 다른 방언에 비하여 系列上의 規則化가 덜 일어났음을 의미해

153)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전 시기에 單母音이었던 'ㅟ'나 'ㅚ'는 二重母音 'ㅟ[wi]'나 'ㅞ'로 실현된다(2.1.2. 참조). 따라서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ㅟ'나 單母音 'ㅚ' 末音 用言語幹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준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은 '-아/어' 교체의 재조정 과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音節數에 따라 '-아/어'의 교체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開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 閉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 閉音節 語幹이든 開音節 語幹이든 관계없이 語幹末音節 모음이 'ㅡ'인 경우, 閉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ㅣ'인 경우의 네 경우이다. 첫째 경우, 즉 開音節 語幹의 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에 單音節 語幹에는 '-어'('주-+-언')가 결합되며, 多音節 語幹에는 '-아'('가추-+-안, 거두-+-안')가 결합되는데 이는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와 관련된다. 둘째, 셋째, 넷째 경우에 多音節 語幹에서는 語幹末音節 모음이 無關母音이므로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에 따라 '-아'('아물-+-안', '다듬-+-안, 고프-+-안', '모질-+-안') 또는 '-어'('머물-+-언', '서들-+-언, 주끄-+-언', '거칠-+-언')가 결합되는바 이들은 각각 非語頭音節의 'ㆍ>ㅡ' 변화와 脣音 아래 'ㅡ>ㅜ'의 圓脣母音化, 非語頭音節 'ㆍ>ㅡ' 변화, 'ㅣ'의 中性母音化와 관련된다. 單音節 語幹에는 '-어'('죽-+-언', '늦-+-언, 크-+-언', '빗-+-언')가 결합된다. 제주도 방언에서 語幹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아/어'의 교체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語幹末音節 모음이 'ㅣ'인 경우, 'ㅔ'인 경우, 'ㅜ'인 경우의 세 경우이다. 첫째 경우, 즉 語幹末音節 모음이 'ㅣ'인 경우에 閉音節 語幹에서는 語幹末音節 모음이 無關母音이므로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에 따라 '-아'('모질-+-안') 또는 '-어'('거칠-+-언')가, 開音節 語幹에는 '-어'('가리-+-언')가 결합되는바 開音節 語幹에서 活用系列上의 規則化가 일어난 것이다. 둘째 경우, 즉 語幹末音節 모음이 'ㅔ'인 경우에 閉音節 語幹에는 '-아'('셀-+-안')가, 開音節 語幹에는 '-어'

('세-+-언')가 결합되는데 開音節 語幹에서 活用系列上의 規則化가 일어난 것이다.[154] 셋째 경우, 즉 語幹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에 閉音節 語幹에서는 語幹末音節 모음이 無關母音이므로 선행하는 음절 모음의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에 따라 '-아'('아물-+-안') 또는 '-어'('머물-+-언')가, 開音節 語幹에는 '-아'('거두-+-안')가 결합되는데 이는 開音節 語幹에서 活用系列上의 規則化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까지의 비교를 통해 보면 제주도 방언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는 語幹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 語幹의 音節數, 語幹末音節 構造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語幹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은 이전 시기 母音調和의 존재에, 語幹의 音節數는 非語頭音節에서 일어난 母音調和 계열상의 母音部類를 바꾸어 주는 음운변화에, 語幹末音節의 음운론적 구조는 開音節 語幹에서 일어난 活用系列上의 規則化에 기인한다.[155] 母音調和에 따라 이루어지던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가 非語頭音節에서 일어난 음운변화에 의해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開音節 語幹에서 먼저 이루어진 活用系列上의 規則化로 인하여 이제까지 記述한 현대 제주도 방언의 '-아/어' 교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40) ㄱ. 미완(미우-+-안, 憎, "미워서")
ㄴ. 그리완(그리우-+-안, 慕, "그리워서")
(41) ㄱ. 메완(메우-+-안, 辛, "매워서")
ㄴ. 가베완(가베우-+-안, 輕, "가벼워서")

---

154) 기원적으로 閉音節 語幹에서 語幹末音節 모음이 'ㅔ'인 語幹은 제주도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ㅔ'는 'ㆎ'에서 유래한 것이다.

155) 語幹末音節 모음이 無關母音일 경우에는 선행하는 음절의 음운론적 성격이 副詞形語尾 '-아/어' 교체에 관여함은 물론이다. 副詞形語尾에 있어서 活用系列上의 規則化가 '-아'로 일어나느냐 '-어'로 일어나느냐는 시대마다, 방언마다, 모음의 部類마다 차이를 갖는다.

(42) 쉬완(쉬우-+-안, 易, "쉬워서")
(43) ㄱ. 더완(더우-+-안, 暑, "더워서")
ㄴ. 더러완(더러우-+-안, 汚, "더러워서")
문지러완(문지러우-+-안, "미끄러워서")
부러완(부러우-+-안, 羨, "부러워서")
싱거완(싱거우-+-안, "싱거워서")
어려완(어려우-+-안, 難, "어려워서")
(44) 아까완(아까우-+-안, 惜, "아까워서")
쪼라완(쪼라우-+-안, 澁, "떫어서")
(45) ㄱ. 도완(도우-+-안, 助, "도와서")
ㄴ. 고오완(고오우-+-안, 麗, "고와서")
궤로완(궤로우-+-안, "괴로워서")
ᄆᆞ료완(ᄆᆞ료우-+-안, "마려워서")
부치로완(부치로우-+-안, "부끄러워서")
(46) ㄱ. 구원(구우-+-언, 炙, "구워서")
주원(주우-+-언, 縫, "기워서")
추원(추우-+-언, 寒, "추워서")
ㄴ. 어두완(어두우-+-안, 暗, "어두워서")

(40)-(46)은 이른바 'ㅂ'變則用言의 경우인데 (46ㄱ)의 '굽-(炙) 줍-(縫) 춥-(寒)'를 제외하면 語幹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이나 語幹의 音節數에 관계없이 '-아'가 결합함을 보여준다. (46)에서 보는 대로 'ㅂ'變則用言의 語幹末音節 모음이 'ㅜ'인 경우에는 單音節 語幹에 한하여 '-어'가 결합된다. 이를 (32)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방언의 'ㅂ'變則用言은 副詞形語尾 '-아/어'의 교체에서 '우' 末音 語幹과 평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單音節의 'ㅂ'變則用言 語幹인 (46ㄱ)의 '굽-(炙) 줍-(縫) 춥-(寒)'에 한하여 '-어'가 결합되고 있는 것은 語幹 母音 'ㅜ' 때문인 듯하다. 이

와 관련하여 제주도 방언이 보여주는 특이한 형태가 있다. 제주도 방언의 모든 '우' 末音 多音節 語幹 중에서 자음을 音節 頭音으로 가지는 '우' 末音 語幹들은 '거두지(거두-+-지), 거둡지(거둡-+-지)' 등에서처럼 雙形語幹을, 자음을 音節 頭音으로 가지지 않는 '우' 末音 語幹들은 '싸우지(싸우-+-지), 싸웁지(싸웁-+-지), 쌉지(쌉-+-지)' 등에서처럼 三形語幹을 갖는다(拙稿, 1988:49-50). 하지만 逆으로 'ㅂ'變則用言이 '우'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156)

2.4.2.2 派生接尾辭 '-아/어 X'

현대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派生接尾辭들(주로 '-아/어'계)은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母音調和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바(李秉根, 1976c:135, 宋喆儀, 1977:34-37)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아/어'계 派生接尾辭로는 名詞派生의 '*-악/억', '-아리/어리', '-앙/엉', 形容詞派生의 '-압/업-' 등이 있다. 이들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派生接尾辭로 '꼬락사니(꼴+*-악사니, "꼬락서니") 지럭시(질-+*-억시, "길이")' 등으로부터 派生接尾辭 '*-악사니, *-억시'를 추가할 수 있다. '지럭시'는 '지럭지(질-+*-억지, "길이")'로도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형태로 '지레("키")'와 '지레기'를 들 수 있다. '지럭시, 지럭지'와 '지레기'는 '질-(長)'에서 派生되어 모두 '길이(長)'를 뜻하는데 前者는 '空間的' 의미의 '길이'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派生接尾辭 '*-악사니, *-억시'에 대한 모음대립형으로 '-억서니, -악시'는 나

156) 崔明玉(1982:88-89)에 따르면 경북 월성지역어에서는 前者의 경우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둫-("가두다") 모둫-("모으다") 장궇-("잠그다") 줄궇-("줄이다")' 등에서처럼 語幹末에 'ㅎ'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난다. 월성지역어에서 이러한 형태의 출현에 聲調가 관여함은 물론이다.

타나지 않는다. 한편 '자갈(*작+*-알, "자갈")'과 '작벡(*작#벡, "자갈벽") 작지(*작+*-지, "자갈")'의 비교에서 派生接尾辭 '*-알'이 추출된다. 派生接尾辭 '*-알'은 '모살(*몯+*-알, 沙, "모래")'에서도 확인되지만 派生接尾辭 '*-악사니, *-억시'와 마찬가지로 모음대립형인 '-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아기/어기', '-앙이/엉이' 등이 있으나 이들은 'ㅣ'모음 逆行同化를 겪어 '-아/어' 교체의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제주도 방언은 非語頭音節에서 'ㅐ'와 'ㅔ'의 대립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1.1.1. 참조). '모가지(목+-아지, "모가지") 도가지(독+-아지, "작은 독") 소가지(*속+-아지, "소갈머리") ᄐᆞ가지(ᄐᆞᆨ+-아지, "턱") 베야지(베+-아지, 腹, "배때기") 귀야지(귀+-아지, 耳, "귀때기")' 등에서처럼 派生接尾辭 '-아지'도 그 모음대립형으로 '-어지'를 가지지 않는다. '무덤(묻-+*-엄, "무덤")'에서 보이는 派生接尾辭 '*-엄'도 그 모음대립형인 '-암'을 가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 母音調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派生接尾辭로는 名詞派生의 '*-악/억', '-아리/어리', '-앙/엉', 形容詞派生의 '-압/업-' 등뿐이다.157)

(47) ㄱ. ᄆᆞ작(ᄆᆞᆽ-+*-악, "매듭")
　　ㄴ. 터럭, 꺼럭(털+*-억, "털") 주먹(줌+*-억, "주먹")
(48) ㄱ. ᄐᆞ가리(ᄐᆞᆨ+-아리, "턱")158)
　　ㄴ. 등어리(등+-어리, "등어리")
(49) ㄱ. 고장(*곶+-앙, "꽃")
　　ㄴ. 트멍(틈+-엉, "틈") 그시렁(그실-+-엉, "그으름")159)

---

157)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派生接尾辭에 대해서는 송상조(1991) 참조.
158) '이파리(*잎+-아리, "이파리")'는 派生接尾辭 '-아리'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ㅣ'의 中性母音的 성격에 기인한 것인지 中性母音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50) ㄱ. 조랍-(졸-+-압-, "졸리다")
느잡-, 느찹-, 야찹-(늦-+-압-, "낮다")
ㄴ. 두덥-, 두텁-(*둗-+-업-, "두껍다")
미덥-(믿-+-업-, "미덥다")
ㄷ. 아깝-(아끼-+-압-, "아깝다")
반갑-(*반기-+-압-, "반갑다")
ㄹ. 질겁-(질기-+-업-, "즐겁다")

(47)은 名詞派生의 接尾辭 '*-악/억'이, (48)은 名詞派生의 接尾辭 '-아리/어리'가, (49)는 名詞派生의 接尾辭 '-앙/엉'이 결합된 派生語이며 (50)은 形容詞派生의 接尾辭 '-압/업-'이 결합된 派生語이다. (47)-(50)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형태소 경계에서의 母音調和가 엄격히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즉 語幹의 모음이 陽性母音 'ㆍ, ㅏ, ㅗ'인 경우에는 '-아'계가, 語幹의 모음이 陰性母音 'ㅡ, ㅓ, ㅜ'인 경우에는 '-어'계가 결합하여 母音調和에 따른 '-아/어'의 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160] 이는 母音調和가 엄격히 유지되던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를 보여주는 듯하여 흥미롭다.

---

159) '거평(*겊+-엉, "껍질", 거피;법화 1:220, 皮, "꺼풀")'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 用言 '거피-, 꺼피-("맷돌로 껍질을 벗기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거평(皮)'은 '거피-+-엉'의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60) 語幹의 모음이 'ㅐ, ㅔ, ㅟ, ㅚ' 등인 경우는 예를 찾을 수 없다.

第 3章 자음의 분포와 변화

제주도 방언의 通時的 자음변화에 대해서는 語頭子音群을 제외하면 모음변화에 비하여 音韻史的인 관심을 덜 받아 왔다. 이는 제주도 방언의 자음변화가 다른 방언과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방언의 자음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은 자음변화에 있어서도 다른 방언들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章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자음변화 중에 'ㅸ', 'ㅿ', 語頭子音群, 語幹末子音에 한정하여 記述한다. 이들의 변화에 대한 記述은 제주도 방언이 다른 방언들과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이들의 변화가 다른 방언과 차이를 보인다면 어떠한 조건이 관여하여 차이를 보인 것인지에 관심의 焦點을 두고 記述해 나갈 것이다.

3.1 'ㅸ'의 변화

15세기 문헌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ㅸ'는 초기의 몇몇 문헌들에서만 모습을 보일 뿐 刊經都監本들부터는 문헌어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金完鎭, 1974:108). 그 音價가 '有聲音 [β]'로 推定(李崇寧, 1954c:64, 李基文, 1972b:40)되어 온 'ㅸ'는 문헌어에서는 대체로 'ㅸ>w'의 변화(李基文, 1972b:40-46, 金完鎭, 1972)

를 겪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方言史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의 결핍으로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ㅸ'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節에서는 문헌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ㅸ'가 존재했었으며 문헌어와 마찬가지로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음운변화에서 변화를 입는 음소는 그 변화의 양상 또는 결과를 같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변화의 속도 또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바 이 음소의 자리를 가늠할 때 단순히 앞뒤의 音素配置나 單語 안에서의 音節數만을 헤아리는 것은 충분한 척도가 될 수 없고 음소의 配置는 형태소의 구조를 기준으로 재파악되어야 한다(金完鎭, 1974:119-120). 따라서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의 'ㅸ'의 변화를 살펴보려 하는 이 節에서는 먼저 문헌어나 다른 방언과의 비교 또는 현대 제주도 방언의 隨意的인 교체형을 통하여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를 再構해 보고 이들로부터 'ㅸ'의 음운론적인 분포가 어떠했는지를 記述해 본다. 그리고 제주도 방언에서 'ㅸ'가, 놓인 자리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ㅸ'를 선행하는 또는 후행하는 음소의 성격에 따른 'ㅸ'의 변화를 살펴볼 뿐 아니라 'ㅸ'가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론,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더라도 'ㅸ'가 형태소의 頭音인 경우와 형태소의 末音인 경우를 구분하여 'ㅸ'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161]

(1) ㄱ. 새위(蝦蟹 洒必格以;朝鮮館譯語, 사비;훈민-원, 해례:25, 蝦)
  ㄴ. 서월(셔블;용가 5:40.37, 京)

161) 三國遺事, 鷄林類事, 鄕藥救急方, 朝鮮館譯語의 예는 李基文(1972b)의 것을 再引用한다.

ㄷ. 다리웨, 다리베(多里甫伊 多里甫里;鄕藥救急方, 다리우리;훈몽-초, 중:7, "다리미")

ㄹ. 누웨, 누에(누에;훈민-원, 해례:25, 蠶, 누웨-ᄢᅵ;구방, 하:85)

ㅁ. 더월, 덤벌(덤블;왜어, 하:29, 藪, "덤불")

허위-, 허비-(허위-;월곡 162, "허비다")

(2) ㄱ. 가운디(江心 把刺憂噴得;朝鮮館譯語, 가ᄫᆞᆫᄃᆡ;월석 14:80, 가온ᄃᆡ;훈몽-초, 하:15, 中)

ㄴ. 뒈-(ᄃᆞᄫᅴ-;용가 10:1.98, ᄃᆞ외-;석보 9:15-16, 爲)

씨골(스ᄀᆞᄫᆞᆯ;용가 5:31.35, 스ᄀᆞ올;금삼 3:37, 스골;구간 1:103, 村, "시골")

혼자(ᄒᆞᄫᆞᅀᅡ;용가 5:31.35, ᄒᆞ온ᅀᅡ;내훈-초, 2하:17, 孤)

ㄷ. 누위, 누이(妹 餒必;朝鮮館譯語, 누위;두해-초 23:46, 누의;두해-초 8:28, 妹)

둘(二曰途孛;鷄林類事, 두을;두해-초 17:10, 둟;월석 10:32, 二)

술(酒曰酉禾孛;鷄林類事, 수울;두해-초 8:28, 수을;석보 9:37, 술;월석-중 21:124, 酒)

저울(秤曰雌孛;鷄林類事, 저울;법화 7:120, 秤)

지울-(月斜 得二吉卜格大;朝鮮館譯語, 기울-;두해-초 22:46, 傾)

ㄹ. 부리(부리;월석 18:73, 喙, "부리")

입수리(입시울;훈몽-초, 상:13, 脣)162)

졸-(ᄌᆞ올-;능엄 3:14, 眠)

---

162) '입술기, 입세우리, 입바위' 로도 나타난다. 玄平孝(1962)에는 '입수와리, 입사우레기' 로도 나타나는데 '입술기' 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이에 대한 낮춤말이다. '입술기' 는 派生接尾辭 '-기' (ᄂᆞᆯ게기;ᄂᆞᆯ게+-기, "날개")가 결합한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서 '입술'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입시울>입술' 의 변화가 言語外的 이유를 갖는다(金完鎭, 1973b:56)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혹(ᄒᆞ왁;월석-중 23:78, 호왁;두해-초 6:2, 臼, "확")

홀(ᄒᆞ올;두해-초 24:38, 獨)

가오리("가오리") 어울리-(和, "어울리다")

ㅁ. 따울리-, 다불리-, 다둘리-(逐, "도둑을 급히 몰아서 쫓다")

(1), (2)는 문헌어나 다른 방언과의 비교로부터 중세국어 시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ㅸ'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이 제주도 방언에서 모두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163] (1)은 'ㅸ>w'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2)는 'ᄫᆞ>ㅗ, ᄫᅳ>ㅜ'의 변화를 보여준다. (1ㄱ)의 '새위(蝦)'는 '새우'에 語幹末 '-이'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小倉進平(1944), 玄平孝(1962)에 나타나는 '사위'는 '새위'가 '사위'로부터의 발달형임을 보여준다.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2.4.1. 참조)를 고려하면 이는 '*사외'로의 再構가 가능하다. 문헌어 'ㅸ'의 발달에서 'ᄫᅵ'의 경우에는 'ㅣ'로 나타남이 일반적인데(金完鎭, 1972:55-59, 李基文, 1972b:45) 제주도 방언의 '사위(<*사외)'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도 방언에서 '*ᄫᅵ>ㅣ'의 변화를 보

---

163) 玄平孝(1962)의 '제여기, 제에기("보무라지", 지ᄫᅧᆨ;능엄 5:72, 지역;선집, 하:73)'는 'ㅸ'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바 滑音 'j' 앞에서 'ㅸ'가 아무런 흔적 없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副詞派生 接尾辭 '-이'가 '고이(곱-+-이, 법화 2:140, "고이")'에서처럼 선행하는 'ㅸ'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보아 副詞派生 接尾辭 '-이'는 純正의 'ㅣ'가 아니라 二重母音 'ji'로 이해될 수 있는데 副詞派生 接尾辭 앞에서 'ㅸ'가 아무런 흔적 없이 탈락한 것은 'ㅸ>w' 변화에 의한 'w'가 滑音 'j' 앞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金完鎭, 1972:58-59). 제주도 방언의 '제여기'는 滑音 'j' 앞에서 'w'가 탈락했음을 보여준다. 崔銓承(1986:108)에서는 19세기 後期 전라방언 자료에 나타나는 '오려논(필사, 홍보 318a)'의 '오려'를 '올ᄫᅧ>오려'의 변화를 거친 것이라 하였다. 이도 역시 'ㅸ>w' 변화에 의한 'w'가 滑音 'j' 앞에서 탈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주는 경우는 'ㅸ'를 후행하는 'ㅣ'가 '가차이(*가찹-+-이, "가까이") 궤양, 고양(*곱-+*-양, "고이")' 등에서처럼 副詞派生의 接尾辭이거나 '볼리-(*붋-+-이-, 使踏, "밟히다") 데우-(*덥-+-이우-, "데우다")' 등에서처럼 使動의 接尾辭일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위'는 '*사비'에서 'ㅸ>w'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세국어 시기에 'ㅟ, ㅚ'는 單母音이 아니라 下向 二重母音 '[uj], [oj]'로 실현되었고 'ㅣ' 앞에서 'ㅸ>w'의 변화를 겪은 '[wi]'는 語幹의 母音調和에 따라 'ㅟ' 또는 'ㅚ'로도 실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崔明玉, 1993b:1625) '사비'가 'ㅸ>w'의 변화를 겪은 형태는 母音調和에 따라 '*사외'로도 실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새요(훈몽-초, 상:10)'를 거쳐 현대 중앙어의 '새우'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를 문헌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사이(능엄 7:89)'가 예외적 발달을 보인 형태가 되는 셈이다.164) (1ㄴ)의 '서월(京)'은 '서울'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짙다. 문헌어의 '셔볼'과 제주도 방언의 '서월'을 고려하면 '*셔벌'의 再構가 가능한데 三國遺事의 '徐羅伐, 徐伐'에서 '伐'과의 모음상의 일치가 흥미롭다. (1ㄷ)의 '다리웨("다리미")', (1ㄹ)의 '누웨(蠶)'는 鄕藥救急方, 朝鮮館譯語 등의 문헌이나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보아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ㅸ'의 再構가 가능한 형태들이다. 경상북도 월성지역어(崔明玉, 1982:91-92)의 '달비("다리미") 니비(蠶)'와 함경북도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의 '느베(蠶)'와의 비교는165) 이 형태들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ㅸ'를 가

---

164) 문헌어에서 抑止的 反意의 형태소 '-디ᄫᅵ(석보 13:49)'가 '-디위(법화 6:144) -디외(두해-초 7:10)'로 나타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설명된다. 제1음절의 '디'가 母音調和에서 中立的인 'ㅣ'를 포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디웨(두해-초 22:22)'는 비현실적 音素連鎖 '[wi]'를 기피하기 위한 모음 삽입(2.2.2.2. 참조)의 결과로 여겨진다.

165) 崔明玉(1982)와 郭忠求(1991)의 자료가 한글 轉寫記號에 의하여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한글 轉寫記號로 옮겨 引用한다.

진 것이었으며 이들이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1ㅁ)의 '더월(藪) 허위-("허비다")'는 제주도 방언의 隨意的 교체형 '덤벌(藪) 허비-("허비다")'로부터 'ㅸ'의 再構가 가능한 형태인데 역시 'ㅸ>w'의 변화를 보여준다. '더월(藪)'과 '덤벌'의 비교로부터 '더월'은 '*더벌'로 再構되는데 '덤벌'은 鼻音 'ㅁ'의 삽입 이후 'ㅸ>ㅂ'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166] (1ㄴ)의 '서월(京)'도 '*셔벌'로 再構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로써 보면 중앙어에 나타나는 '*셔벌>셔볼(>서울), *더벌>*더볼(>덤불)'의 변화는 일종의 異化作用으로 해석된다. (2ㄱ)의 '가운디(中)'에서 보이는 'ㅸ>ㅗ'의 변화는 제주도 방언에서 일어난 非語頭音節 'ㅗ>ㅜ'의 변화(2.4.1. 참조)로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이 형태가 형태소 내부의 母音調和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운디(中)'는 'ㅸ>ㅗ'의 변화를 겪은 이후 非語頭音節의 'ㅗ>ㅜ' 변화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ㅸ>w'의 변화가 非語頭音節 '·>ㅡ'의 변화(규칙2)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선 것임을 알려준다. (2ㄴ)의 '웨-(爲) 씨골(村) 혼자(孤)', (2ㄷ)의 '누위(妹) 둘(二) 술(酒) 저울(秤) 지울-(傾)', (2ㄹ)의 '부리(喙) 입수리(脣) 졸-(眠) 혹(臼) 홀(獨) 가오리("가오리") 어울리-(和)'는 鷄林類事, 朝鮮館譯語 등의 문헌에 나타난 형태나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 또는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형태, 즉 경상북도 월성지역어(崔明玉, 1982:91-92)의 '누부(妹) 찌불리-(傾) 입서불, 입수부리(脣) 자불-(眠) 호불(獨) 가부리("가오리") 어부리-(和)' 등과 함경북도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의 '하분자(孤) 느븨(妹) 기불-(傾) 부부리(喙) 자불-(眠) 호바기(臼) 호불(獨)' 등과의 비교를 통해 보아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166) 중앙어의 '덤불'과 '덩굴(가시덩울;칠대 1, "가시덩굴")'이 어원적으로 동일한 형태에서 분화된 것이라면 'ㅂ>ㄱ'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제주도 방언의 형태가 기원적일 가능성이 짙다.

'ㅸ'의 再構가 가능한 형태들인데 이들이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2ㄷ)의 '누위(妹)'는 함경북도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의 '느븨(妹)'와의 비교로부터 '*누뵈'로의 再構가 가능하므로 '누위'는 '뵈>ㅜ'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웬(왼;역보 3, 온;법화 2:62, 오온;목우 10, 오온;두해-초 6:38, 全, "온")'을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의 '오분(全)'과 비교해 보면 이 형태도 이전 시기에 'ㅸ'를 가진 것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聲調와 音長의 대응으로부터, 현대국어의 '모든'을 뜻하는 관형사 '온:'이 '百'을 의미하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온(석보 6:25)'에서 온 것이 아니라 用言 '오올-(월석 8:1, "온전하다")'의 冠形形에서 온 것이라는 金周弼(1993:203-205)의 논의와 관련지어 볼 때 흥미로운 점을 示唆해 준다. 문헌어의 '오올-'를 '*오불-'로 再構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문헌어의 '오올-'는 '*오불-'로부터 'ㅸ>w'의 변화를 입은 '*오올-'가 異化를 겪은 형태인 셈이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뒤지지만 문헌어의 '오올오-(두해-초 20:18, 全) 오온(두해-초 6:38, 全)'이 보인다. 물론 문헌어의 '온(법화 2:62, 全)'이 上聲을 가지고 있음도 주목된다. (2ㅁ)의 '따울리-(逐)'는 제주도 방언의 隨意的 교체형 '다불리-'로부터 'ㅸ'의 再構가 가능한 형태이다. 역시 'ㅸ>w'의 변화를 보여준다.

(3) 유울-(이불-;용가 9:35.84, 枯, "이울다")
유웃(隣舍 以本直;朝鮮館譯語, 이웃;능엄 3:37, 隣)

(4) 돌뤼(돌외;훈몽-초, 중:12, 髢, "다리")

(3)은 'ㅸ>w'의 변화를 보인 예들인데 한 음절로 縮約되어 있으면서 長音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도 長音을 유지하는데 韻律的 資質로서 音長이 示差的이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 長音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들은 '유울-(枯) 유읏(隣)'의 2음절어로 여겨진다. 玄平孝(1962)에 '유을-, 유울-(枯)'가 나타난다. (4)의 '둘뤼(髢)'는 'ㄹ'와 모음 사이에서 'ㅸ'가 존재했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예는 월성지역어(崔明玉, 1982:91-92)에서는 '달비'로,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에서는 '달븨'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둘뵈'로의 再構가 가능한데 이 再構形으로부터 'ㅸ>ㅜ'의 변화를 입은 '*둘위'가 'ㄹØ>ㄹㄹ'의 변화를 겪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둘뤼'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ㄹØ>ㄹㄹ'의 변화는 '놀레(놀애;두해-초 21:9, 歌) 달레-(달애-;월곡 33, 誘, "달래다") 들리-(들이-;석보 13:4, 聞) 멀뤼(멀위;훈몽-초, 상:6, 葡, "머루") 몰레(몰애;석보 13:8, 沙, "모래") 발뤼-, 발루-(正, "바르게 하다", 바르-;월석, 어제월인석보 서:18) 설르-("설겆다", 설엊-;월석-중 23:74) 신달뤼(진돌위;훈몽-초, 상:4, "진달래") 알뤼-(알외-;석보 13:55, "아뢰다") 얼룬(얼운;석보 19:1, "어른") 일루-(일우-;두해-초 22:16, 成, "이루다") 일뤠(닐웨;석보 9:31, "이레") 지둘루-(기둘우-;두해-초 7:35, 기드리-;석보 6:11, 待, "기다리다") 질루-(길우-;능엄 8:30, 養, "기르다")' 등의 예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대체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ㅇ'로 표기되던 형태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ㄹㅇ' 표기에서 후행하는 'ㅇ'는 단순히 해당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함을 알려주는 音價 없는 요소가 아니라 喉音 '[ɦ]'를 표기해 준 것이어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ㄹㅇ' 표기는 음성적으로 '[lɦ]'를 나타내 준 것(李基文, 1972b:15-27)으로 여겨진다. 이 'ㄹㅇ'는 문헌어에서 16세기 後半부터 'ㄹㄹ'(후대에는 'ㄹㄴ')나 'ㄹ'와 混記를 보이기 시작하는바 이는 'ㄹㅇ'가 'ㄹㄹ'나 'ㄹ'로 변화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ㄹㅇ'가 일관되게 'ㄹㄹ'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꼴리(ᄶᅩ리;월석 1;28, 尾, "꼬리") 버렝이(벌에;월곡 70, 蟲, "벌레") 뿌렝이(불휘;법화 2:131, 根, "뿌리") 씨름(실홈;법화 5:13, "씨름", 힐후-;월석 7:5, "다투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어에서 'ㄹㅇ, ㄹㅎ'등으로 표기되던 音素 連鎖와 제주도 방언의 'ㄹㄹ'의 音素 連鎖가 언제나 대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꼴리(尾)'는 문헌어에서 'ㄹㄹ'의 音素 連鎖가 아니었던 것이며 '버렝이(蟲) 뿌렝이(根) 씨름("씨름")'은 제주도 방언에서 'ㄹㄹ'의 音素 連鎖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ㄹØ>ㄹㄹ' 변화의 時期가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ㄹØ>ㄹㄹ'의 변화는 共鳴子音과 모음 사이에서 'ɦ'가 탈락했을 때 선행하는 共鳴子音을 후행하는 음절의 初聲으로 複寫해 주는 음운론적 과정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崔明玉, 1982:87-88). '골롬(골홈;훈몽-초, 중:11, 膿, "고름") 골리(골회;능엄 1:22, 環, "고리") 굴렁(굴헝;두해-초 7:3, "구렁") 끌리-(글히-;월석 7:13, 煎, "끓이다") 불리(불휘;법화 2:131, 根, "뿌리") 실르-("싫다", 슬ᄒᆞ-;능엄 8:5, 厭) 올리(올히;두해-초 7:19, 鴨, "오리") 일름(일훔;훈몽-초, 상:17, 名, "이름") 촐리-(촐히-;병학 1:6, "차리다") 할르-(핧-;능엄 3:9, "핥다"), 논누-(논호-;석보 19:6, 分, "나누다") 빈네(빈혀;두해-초 15:4, 簪, "비녀") 신나, 신네(臣下)' 등에서 나타나는 제주도 방언의 'ㄹㅎ>ㄹㄹ' 변화와 'ㄴㅎ>ㄴㄴ' 변화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준다. 또 'ᄀᆞᆯ리-(ᄀᆞᆯ기-;박번, 상:40, ᄀᆞ리-;내훈-초, 2하:72, "갈기다") 골로로(골오로;어내훈 2:13, "골고루", 골오;두해-초 20:28)' 등은 共鳴子音과 모음 사이에서 'ㄱ'가 탈락했을 경우에도 같은 現象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를 共鳴子音 아래에서 'k>ɦ'의 변화(李基文, 1972b:20-27)를 겪은 것으로 이해하면 'ɦ'의 경우와 평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글뤌(글발;용가 4:24.26, 글월;능엄 1:10, 文) 돌뤼(髢) 볼루-

("踏")'는 'ㄹØ>ㄹㄹ'의 변화와 관련하여 'ㅸ'가 독특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경우이다. 共鳴子音 아래에서 'ㅸ>w' 변화를 겪은 후에 'ㄹØ>ㄹㄹ'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글뤌(文)'은 合成語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複合語 또는 單語 경계에서의 複寫現象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형태소 내부에서의 '둘뤄(髢) 불루-(踏)'로의 변화는 그렇지 않다. 'ㄹØ>ㄹㄹ'의 변화가 자음의 탈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중세국어 문헌어의 'ㅸ'가 'ㅸ>w'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ㅸ>ɦw'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는 金京芽(1991)의 논의가 주목을 끈다. 하지만 李基文(1972b:23)에서 지적한 대로 'ㅸ>w' 변화에 의한 'w'가 영향을 미쳤던 것일 수도 있다. 縮約을 겪었든 'ㄹØ>ㄹㄹ'의 변화를 겪었든 (3)의 '유울-(枯) 유웃(隣)'과 (4)의 '둘뤄(髢)'는 제주도 방언의 'ㅸ'가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1)-(4)의 예로부터 다음과 같이 'ㅸ'의 변화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17) ㅸ > w / $\begin{Bmatrix} V \\ L \end{Bmatrix}$ ___ V

('ㅸ'는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ㄹ'와 모음 사이에서 'w'로 변화한다.)

규칙(17)은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을 때의 'ㅸ'의 변화 규칙이다.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ㅸ'가 형태소 내부 'V___V, ㄹ___V'의 환경에서 존재했으며 이 환경에서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67)]

167) 이는 李基文(1972b:40)에 제시된, 중세국어 문헌어의 'ㅸ'의 출현 환경과 일치한다. 단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滑音 ___ V', 'ㅿ ___ V'의 환경인데 이는 위에 제시한 예들이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도 '滑音 ___ V', 'ㅿ ___ V'의 환경에서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을 때 즉 형태소의 末音이나 頭音 位置에 나타나는 'ㅸ'는, 'w'로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을 때의 'ㅸ'와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ㅸ'가 형태소의 末音 位置에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5) ㄱ. 가베완(가베우-+-안, "가벼워서", 가ᄫᅵ야ᄫᆞᆯ;세훈민 12)
구원(구우-+-언, "구워서", 구ᄫᅥ;월석-중 21:54)
어려완(어려우-+-안, "어려워서", 어려ᄫᅳ며;석보 6:11)
ㄴ. 가벱고(가벱-+-고, "가볍고", 輕, 가ᄫᅵ얍고도;석보 9:35-36)
굽고(굽-+-고, "굽고", 炙, 굽ᄂᆞᆫ;월석 2:9)
어렵고(어렵-+-고, 難, 어렵고;석보 9:28)
(6) ㄱ. 똘루-(穿, 듧-;법화 6:154, "뚫다", ᄃᆞᆯ올;훈몽-초, 하:9)[168]
볼루-(踏, "밟다", ᄇᆞᆯᄫᅡ;석보-중 11:1)
셜루-(哀, "섧다", 셜ᄫᅳᆫ;월곡 139)
ㄴ. 돌루-(從,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따르다")
얄루-(薄, "얇다")
ㄷ. 졸루-(더ᄅᆞ-;법화 2:168, 短, "짧다")
(7) ㄱ. 뜹지(뚧-+-지, "뚫지") 얍게(얇-+-게, "얇게")
쫍다(쫇-+-다, "쫇다")
ㄴ. 뜰번(뜳-+-언, "뚫어서") 얄븐(얇-+-은, "얇은")
쫄븐(쫇-+-은, "짧은")
(8) 더위(*덥-+*-의, 더ᄫᅱ;석보 9:9, 더위;두해-초 8:9, 暑)
추위(*춥-+*-의, 치ᄫᅱ;석보 9:9, 치위;능엄 8:82, 寒)[169]

'ㅸ'가 출현하는 것은 '대범(용가 9:39.87, 大虎) 쇠벼ᄅᆞ(용가 3:13, 淵遷) 메밧-(석보 9:29, 袒), 웃ᄫᅵ(월곡 179, "우습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을 때이다.

168) '똘르-(穿)'로도 실현된다. 이는 '*뚫-'에서 用言語幹末 '一'삽입(3.4.2.에서 後述)을 겪은 것이다.

(9) ㄱ. 악착스럽게(악착스럽-+-게, "악착스럽게")
악착스러완(악착스러우-+-안, "악착스러워서", 원슈스러은; 역보 21)
ㄴ. 웨롭고(웨롭-+-고, 외롭고;석보 6:5, 외롭고;두해-초 22:53, "외롭고")
웨로완(웨로우-+-안, "외로워서", 외ᄅᆞᄫᅵ야;월석 17:21)
ㄷ. 사름답게(사름답-+-게, "사람답게")
사름다완(사름다우-+-안, "사람다워서", ᄉᆞ름다ᄫᆞᆫ;석보 9:8)
ㄹ. 무겁고(무겁-+-고, 므겁고;두해-초 8:27, 重, "무겁고")
무거완(무거우-+-안, "무거워서", 므거ᄫᅳᆫ;석보 6:5)
아깝고(아깝-+-고, "아깝고", 앗갑디;속삼, 충:5, 惜)
아까완(아까우-+-안, "아까워서", 앗가ᄫᆞᆫ;석보 9:11)
(10) ㄱ. 큰집(伯父宅)
ㄴ. 큰짇지서멍, 큰짇지세어멍(伯母)

이른바 'ㅂ'變則用言의 경우인 (5)의 '가볍-(輕) 굽-(炙) 어렵-(難)'는 기원적으로 'ㅸ'를 가졌던 형태들인바 (5ㄱ)은 모음계 語尾가, (5ㄴ)은 자음계 語尾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5ㄱ)은 제주도 방언의 'ㅸ'가 모음 앞에서 'ㅸ>w'의 변화를 보인 것인데 'ㅸ'의 변화에서 중앙어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ㅸ'의 中和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18) ㅸ > ㅂ % $\left\{ \begin{array}{c} C \\ \#\# \end{array} \right\}$

('ㅸ'는 語頭나 자음 뒤에서 또는 語末이나 자음 앞에서 'ㅂ'로 변화한다.)

169) 宋喆儀(1990:33-35)에서는 기원적으로 '덥-(暑) 칩-(寒)'에 名詞派生의 接尾辭 '-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5ㄱ), (5ㄴ)은 규칙(17), 규칙(18)이 각 규칙의 構造記述을 만족시키는 語尾에 따라 각각 적용되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른바 'ㅂ'變則用言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6)의 '뚤루-(穿) 볼루-(踏) 설루-(哀) 둘루-(從) 얄루-(薄) 졸루-(短)'는 문헌어에서 대체로 'ㄹㅸ'를 末音으로 가졌던 형태들인바 'ㄹㅂ'定則用言으로 나타나는 중앙어와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우'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규칙(17)의 적용을 입어 변화한 것인데 語幹末 'ㅡ'의 삽입(3.4.2.에서 後述)이 관련된다. 또한 이들은 (7)의 '뚧-, 뜳-(穿) 얇-(薄) 쫇-(短)'에서 보듯 대체로 'ㄹㅂ'定則用言과 雙形語를 이루고 있다. (6)은 語幹末 'ㅡ'의 삽입규칙인 규칙(28)의 적용을 먼저 입은 후에 규칙(17)을 겪었기 때문이고 (7)은 'ㄹㅂ'定則 계열과의 대립이 확보되지 못하여 체계의 압력으로 變則的인 성격의 것이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다(金完鎭, 1974:118)는 데에 기인하여 규칙(18)의 構造變化를 겪었기 때문이다. (8), (9)는 派生語의 경우인데 'ㅸ'가 語基의 末音이든 派生接尾辭의 末音이든 관계없이 모음 앞에서 'ㅸ>w'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ㅸ'의 변화에 관한 한 형태소의 종류가 음운변화의 결과를 달리하게 하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10)의 '집(家)'은 다른 'ㅂ' 末音 體言語幹과 달리 語幹末 'ㅂ'의 탈락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語幹末에 '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體言語幹(金完鎭, 1974:113)인데 '집'이 語幹末 'ㅸ'의 탈락을 보이는 경우는 (10ㄴ)의 '큰짇지서멍(伯母)'에서 보듯 複合語로 쓰일 때이다. 이는 複合 系列이 음운변화에 관여함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形態論的 範疇에 따라 음운변화가 제약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ㅸ'가 형태소의 頭音 位置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던 듯하다.[170]

(11) ㄱ. 조왓, 조팟("조밭") 보리왓("보리밭")
신피왓("물 괴는 밭") 작지왓, 자갈왓("자갈밭")
ㄴ. 대왓(대받;용가 5:26, 竹田, "대밭") 새왓(茅田)
ㄷ. 울왓("울타리 밭") 촐왓("꼴밭", 폴왇;두해-초 3:46, 火田)
ㄹ. 가름팟, 거리왓(*가름ㅎ#밧, "동네 안에 있는 밭")
진밧("진밭")171)
목장밧("마소를 놓아 먹여 기르기도 하고 경작하기도 하는 밭")
우영팟(*우영ㅎ#밧, "人家 부근에 있는 밭")172)

(12) ㄱ. 술로리, 쏠로리, 쏠보리("쌀보리", 보리;두해-초 23:21, 麥)

---

170) 筆者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ㅂ'와 'w'의 隨意的 교체형으로부터 'ㅸ'를 再構하였는데 특히 중세국어 문헌어의 漢字語인 '불웝(박번, 상:74, 佛法)'을 고려하면 後述할 형태들이 語頭에 'ㅸ'를 가졌던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ㅂ'와 'w'의 隨意的 교체형은, 李基文(1972b:42-44)에서 언급한 대로 合成語에 한하여 14세기 경 중앙어에 있었던 'ㅂ>ㅸ(>w)'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돕고, 도ᄫᅡ(助)'와 '잡고, 자바(執)'에서 각각 '돕-(助)'와 '잡-(執)'를 基底形으로 잡았듯이, '대범(용가 9:39.87, 大虎)'에서 '범(虎)'의 'ㅂ'는 'ㅂ>ㅸ'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쇠붚(월석 17:60, 鐘)'에서 '붚'의 'ㅂ'는 'ㅂ>ㅸ'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合成語에 나타나는 'ㅸ'도 본래 語頭에 'ㅸ'를 가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렇게 보면 後述할 형태들은 기원적으로 語頭에 'ㅸ'를 가졌던 것이 되며 아울러 'ㅸ>ㅂ' 변화 규칙의 적용 환경은 '(1) __C (2) __# (3) C__ (4) #__'의 네 경우가 되는 셈이다.

171) '진왓'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鼻音 뒤에서도 'ㅸ'가 실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화자들이 '밭(田)'을 '왓'으로 再構造化된 것으로 인식한 데에서 이루어진 형태로 여겨진다. 제주도 방언의 '진#왓→진왓' 등에서 나타나는 複寫現象에 대하여는 拙稿(1991: 363-367) 참조.

172) 李基文(1972b:40)에 따르면 15세기 문헌어에서 'ㅸ'의 출현 환경은 '(1) V__V (2) j__V (3) ㄹ__V (4) ㅿ__V'등인바 모두 '共鳴音 __ 母音'의 환경이다. 15세기 문헌어에서 이들과 함께 共鳴音 계열에 속하는 鼻音 뒤에서는 'ㅸ'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우연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제주도 방언의 (11ㄹ)의 예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ㄴ. 껍보리("겉보리") 멕주보리("맥주보리")

(13) ㄱ. 대왁세기("바가지")

둘레왁, 둘레박(드레박;물명 5:10, "두레박")

ㄴ. 두융박, 뒤웅박("뒤웅박") 작박("쪽박")

ㅋ박("박", 박;훈몽-초, 중:9, 瓢, 슈박;노번, 하:38)

(14) ㄱ. 마리왕, 마리방("마루방") 불미왕("대장간")

ㄴ. 방(방;원각, 상2-2:144, 房, 안방;번소 10:13)

ㄷ. 고팡(倉庫, "광")[173)]

(15) ㄱ. 바농질롸치, 바농질라치("바느질하는 사람")

베슬롸치("벼슬아치", 활와치;박번, 상:59, 활바치;동신, 충1:77, 弓匠)

ㄴ. 동녕바치, 동냥바치("동냥아치", 공장바치;훈몽-초, 중:2, 공쟝와치;정속 21, "技術者")

침바치("침 놓는 사람")

(11)은 '밧(田)'이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에 'ㅸ'를 가진 형태였음을 알려준다. (11ㄱ)은 모음으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 (11ㄴ)은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下向 二重母音이었던 모음으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 (11ㄷ)은 'ㄹ'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 (11ㄹ)은 자음으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인바 (11)은 모음이나 'ㄹ'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를 이루는 경우에는 '왓'으로, 자음으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를 이루는 경우에는 '밧'으로 교체됨을 보여준다. 즉 'V___V'와 'ㄹ___V'의 환경에서는 'ㅸ>w'의 변화를 보여주며 'C___'와 '#___'의 환경에서는 'ㅸ>ㅂ'의 변화를 보여주어 (5)의 'ㅂ'變則用言과 평행하게 일종의 語頭 'ㅂ'變則體言처럼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ㅸᆞㅌ(田)'의 변화에서는 음소의 統合

---

173) 이는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에 '고방'으로 나타나지만 제주도 방언의 형태로 보아 '*곻(庫)'와 '방(房)'의 複合語인 것으로 보인다.

的 분포가 음운변화의 한 조건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소의 統合的 분포가 음운변화의 한 조건이 된 것은 (12)-(15)에서도 마찬가지인바 (11)-(15)는 '밧(田) 보리(麥) 박(瓢) 방(房) -바치(匠人)' 등이 이전 시기에 語頭에 'ᄫ'를 가진 형태였음을 알려준다.[174] (5)와 (11)-(15)는 각각, 교체를 보이는 위치가 형태소의 語末 위치인가 語頭 위치인가에서 차이를 가지는데 'ᄀᆞ슬밧("추수를 다 끝낸 후 뒷해 봄까지 갈지 않은 밭") 밀팟 ("밀밭") 모살밧("모래가 많은 밭") 돌팟("돌이 많은 밭")' 등이 'ㄹ'로 끝난 語幹과의 複合語이지만 '밧'으로 單一化된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과 (11), (12)가 '조밧("조밭") 대밧(竹田) 촐밧("꼴밭")', 'ᄊᆞᆯ보리("쌀보리")' 등으로 單一化를 보이는 반면 (5)는 그러한 單一化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서 형태소의 語頭 위치가 語末 위치보다 單一化에 대한 聯想力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5)는 派生接尾辭의 경우인데 'ᄫ'의 변화에 관한 한 다른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도 (11)-(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에서는 각 규칙의 構造記述을 만족시키는 환경에서 규칙(17), 규칙(18)의 적용을 입어

---

174) 제주도 방언은 地名語에서도 '밧(田)'과 '왓'의 교체(송하진, 1987:126-129)를 보여준다. 한편 '밧(田)'과 '박(瓢)'이 語頭에 'ᄫ'를 가졌던 형태였음을 보여주는 예로 '씨왓(荄, "씨앗")'과 '테왁("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 前者는 '*씨ᄫᅡᇀ'으로, 後者는 '*ᄣᅦᄫᅡᆨ(ᄣᅦ#박, ᄣᅦ;금삼 2:38, "뗏목")'으로 再構하는 것이 가능하다. '*ᄣᅦᄫᅡᆨ'에서 나타나는 語頭子音群 'ㅳ'의 激音 'ㅌ'로의 변화는 3.3.에서 後述. '글ᄫᅯᆯ허-("賣買 문서를 작성하다", 글ᄫᅡᆯ;용가 4:24.26, 글월;능엄 1:10, 文)'의 '글ᄫᅯᆯ'도 같은 범주에 드는 것이다. 金完鎭(1974:119)에서 지적한 대로 문헌어에서 語頭 'ᄫ'를 가졌을 것으로 推定되는 '-브터("-부터", 아래브터;월곡 109, "아래부터", 언제우터;박번, 상:13, "언제부터")'는 제주도 방언에서 '-우터'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는 '-부터'가 複合語나 派生語를 형성하지 못하는 屈折接尾辭라는 데에 기인하는 듯하다. 아울러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ᄫ'를 가졌던 모든 형태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ᄫ'를 가졌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종의 語頭 'ㅂ'變則體言처럼 교체를 보여주지만 중앙어에서는 'ㅂ'로 시작하는 형태로부터의 聯想으로 인한 單一化를 겪어 제주도 방언과 같은 교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어나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再構할 수 있는 모든 'ㅸ'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항상 'ㅸ'로 대응하여 'ㅸ>w'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6) ㄱ. 여비-(瘦 耶必大;朝鮮館譯語, 여위-;월곡 62, 瘦)[175]
ㄴ. 버버리(버워리;석보 19:6, 啞)
ㄷ. 우방지(우웡;구간 1:106, 우왕:훈몽-초, 상:8, 蒡, "우엉")

(16ㄱ)의 '여비-(瘦)'와 (16ㄴ)의 '버버리(啞)'는, 월성지역어(崔明玉, 1982:91-92)에서 '애비-(瘦) 버버리(啞)'로, 육진방언(郭忠求, 1991:296-297)에서 '여븨-(瘦) 버버리(啞)'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앙어에서는 기원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ㅸ'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인데 대체로 'ㅸ>w'의 변화를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이들이 'ㅸ>w'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176] (16ㄷ)의 '우방지("우엉")'는 漢字語 '牛蒡子'로부터의 借用일 듯한데 漢字 '蒡'이 初聲으로 'ㅸ'를 가졌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주도 방언의 형태와 문헌어의 형태를

---

175) '지치-'로도 실현되는데 이는 문헌어의 'ᄌᆞ최-(삼강, 효:21, "설사하다")'와 관련을 가질 듯하다.

176) 다른 방언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제주도 방언의 '오비-("날카로운 끝으로 도려내다", 우의-;석보-중 11:21, 우븨-;역보 45, 우뷔-;동해, 하:18)' 또한 玄平孝(1962)의 '오의-'와 비교해 볼 때 기원적으로 'ㅸ'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듯하다. 한편 제주도 방언의 '거들버주-("거들어주다")'는 '거들-'와 비교해 보면 매우 특이하다. 중앙어의 'ㅸ'에 대하여 'ㅂ'로의 대응을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東南方言에서도 '거들-'는 '거듧-'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교해 보면 중앙어에서는 기원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ㅸ'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인데 대체로 'ㅸ>w'의 변화를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제주도 방언에서 '여비-(瘦) 버버리(啞)'와 마찬가지로 'ㅸ>w'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177) 이들은 중앙어에서는 기원적으로 'ㅸ'를 가졌던 형태인 듯하지만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ㅸ'를 가졌던 형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중앙어에서 기원적으로 'ㅸ'를 가졌던 형태가 모두,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ㅸ'를 가졌던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2 'ㅿ'의 변화

15세기 70년대에서 16세기 중엽 사이에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탈락된 'ㅿ'는178)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대체로 'ㅅ'로 대응된다. 제주도 방언이 이전 시기에 'ㅿ'를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ㅅ'로 대응하지 않는 예(後述)의 존재는 제주도 방언이 이전 시기에 'ㅿ'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79) 이 節에서는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도 방언에 어떤 환경에서 'ㅿ'가 존재했었는지를 살펴본다.180)

---

177) '우방지("우엉")'의 語幹末母音 'ㅣ'는 漢字語 '子'가 借用된 時期와 관련되어 있을 듯하다(陳泰夏, 1978).

178) 李基文(1959:38-55)에서는 15세기 70년대에 'ㅣ' 또는 滑音 'j' 앞에서 'ㅿ'가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179) 崔明玉(1982:91)에서는 문헌어의 'ㅿ'가 대부분 'ㅅ'로 대응되는 월성 지역어에서 'ㅅ'로 대응되지 않는 상당한 語辭들이 있으며 그들 예외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방언이 이전 시기에 'ㅿ'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1) ㄱ. 아시(弟曰了兒;鷄林類事, 아ᅀᆞ;훈민-원, 해례:25, "아우")
ᄀᆞ세(剪刀曰割子蓋;鷄林類事, ᄀᆞᅀᅢ;두해-초 10:33, "가위")181)
난시(乃耳;鄕藥救急方, 나ᅀᅵ;훈몽-초, 상:7, 薺, "냉이")182)
ㄴ. ᄀᆞ스락, ᄀᆞ시락(ᄀᆞᅀᆞ라기;두해-초 7:18-19, "까끄라기")
구시(구ᅀᅵ;훈몽-초, 중:10, 櫪, "구유")
기실-(그ᅀᅳ리-;구간 1:3, "그슬리다")
그시렁, 끼시렁, 기시렁, 그스럭(그ᅀᅳ름;훈몽-초, 하:15, "그으름")
모시("모이", 모ᅀᅵ-;훈몽-초, 중:1, 牧, "모이 주다")
새삼스럽-("새삼스럽다", 새삼ᄃᆞᄫᅵ;삼강, 효:5)
어슬먹, 초슬먹(어ᅀᅳ름;두해-초 11:25, 昏, "어스름")

---

180)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ㅿ'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를 가진 모든 형태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모두 'ㅿ'를 가진 형태로 대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81) '*ᄀᆞ새>ᄀᆞ세'는 'ㅐ>ㅔ'의 母音 上昇化(2.1.1.1. 참조)가 일어난 것이다.

182) '난젱이쿨'이라고도 한다. 玄平孝(1962)에는 '나시, 난생이, 난셍이, 난상이, 난지'로 나타난다. '나시'가 기원적인 형태이며 '난시'는 齒音 또는 口蓋音 앞에서 鼻音 'ㄴ'이 삽입된 것이며 '난생이, 난셍이'는 '난시'에 派生接尾辭 '-앙이'(또는 '-앵이/엥이')가 붙은 것이다. '난상이'는 '-앙이' 앞에서 語基가 'ㅣ'탈락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형태이다. 제주도 방언의 派生接尾辭 '-앙이/엉이'와 語基의 'ㅣ'탈락에 관해서는 2.2.2.1. 참조. '난지'는 'ㅿ>ㅈ'의 변화를 보인 것인데 제주도 방언에서 'ㅿ>ㅈ'의 변화는 鼻音 아래에서 일어났다.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ㅿ>ㅈ'의 변화에 대해서는 崔明玉(1982:92-96) 참조.

제주도 방언에는 '건줌, 거줌(거ᅀᅴ;석보 11:10, 庶, "거의") 깐치, 까치(가치;월곡 61, 鵲) 던덕, 더덕(더덕;훈몽-초, 상:7, 蔘) 민치럽-(믯그럽-;두해-초 25:41, 滑, "미끄럽다") 반초(반쵸;훈몽-초, 상:4, 芭, "파초") 언치냑("엊저녁") 푼체(부채;두해-초 25:24, 扇, "부채"), 검피-, 거피-("맷돌로 껍질을 벗기다") 덤벌, 더월("덤불") 둠비("두부"), 뭉클, 무클("쟁기술") 셍끼송까락, 새끼송까락("새끼손가락") 입상귀, 입사기("잎사귀")'에서처럼 모음과 齒槽音, 口蓋音 사이에 'ㄴ'가, 모음과 脣音 사이에 'ㅁ'가, 모음과 軟口蓋音 사이에 'ㅇ[ŋ]'이 삽입되는 鼻音 삽입 現象이 나타난다.

여사보-, 엳보-(여ᅀᅥ보-;두해-초 8:55, 窺, "엿보다")

주시(즈ᅀᅴ;법화 4:19, 즛의;법화 1:189, "찌꺼기")

ㄷ. 구석(구ᅀᅥᆨ;소해 2:10, 角)[183]

(2) ㄱ. 짓(즛;월곡 129, 貌, "짓")

ㄴ. 긋-(劃, "긋다", 그ᅀᅴ;번소 8:16, "긋기")

낫-(낫-;법화 6:155, 愈)

붓-(븟-;훈몽-초, 중:17, 腫, 븟-;두해-초 23:13, 注)

앗-(앗-;월석 10:70, 奪, "빼앗다")

잇-(닛-;석보 9:30, 連)

줏-(ᄌᆞᆺ-;훈몽-초, 하:8, 紡) 젓-(젓-;육조, 상:33, 搖)

좃-, 쫏-(좃-;구방, 하:32, 鑿, "쪼다")

줏-(줏-;두해-초 7:18, 拾, "줍다")

짓-(짓-;훈몽-초, 하:1, 造)

(3) ㄱ. 한숨(한숨;법화 2:226, 嘆)

ㄴ. ᄉᆞᆼ키(프ᅀᅥᆼ귀;석보 6:28, "국도 끓이고 쌈도 싸서 먹는 온갖 나물, 푸성귀")[184]

ㄷ. 손수(손ᅀᅩ;석보 6:5, 손조;박번, 상:63, 手)

(4) ㄱ. -아사/어사("-아야/어야", 비화ᅀᅡ;월곡 35, "배워야", 어우러ᅀᅡ;세훈민 13, "어울려야")

ㄴ. -사("-이야", 오시ᅀᅡ;월곡 121, "옷이야")

(1)은 중세국어 문헌어나 다른 방언과의 비교로부터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을 때 'V__V'의 환경에서 'ㅿ'가 실현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인데 (1)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들은 'ㅅ'를 가진 형태로 대응한다.[185] (2), (3)의 형

183) 경북 월성지역어(崔明玉, 1982:92-95)에 '구직, 구적'으로 나타난다. 'ㅿ>ㅈ'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184) 玄平孝(1962)에 '푸ᄉᆞᆼ키, 푸성거리'가 나타난다.

185) 이들 이외에 玄平孝(1962)의 '어시(어ᅀᅵ;월석 2:13, "어버이")'를 추가

태들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형태소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ㅿ'가 실현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體言이든 用言이든 관계없이 모두 'ㅅ'로 대응하고 있다. (2ㄱ)의 '짓(貌)'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ㅿ'가 형태소의 語末 위치에 나타나는 體言語幹의 경우인데 중앙어나 제주도 방언이 모두 'ㅅ'로의 대응을 보여준다. (2ㄴ)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ㅿ'가 형태소의 語末 위치에 나타나는 用言語幹의 경우인데 중앙어에서는 'ㅅ'계 變則을 보이는 用言이지만 제주도 방언에서는 모두 'ㅅ'계 定則을 보이는 用言인바 'ㅅ'로의 대응을 보여준다. (3)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ㅿ'가 형태소의 語頭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제주도 방언에서 'ㅅ'로의 대응을 보여준다. 따라서 (2), (3)은 제주도 방언에서 형태소의 語末 위치이든 語頭 위치이든 관계없이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ㅅ'로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4)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ㅿ'를 가졌던 文法形態素의 경우인데 (4ㄱ)의 '-아사/어사("-아야/어야")'는 活用語尾이며 (4ㄴ)의 '-사("-이야")'는 强調의 特殊助詞이다. 역시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ㅅ'로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用言語幹과 결합되는 '-아사/어사'의 경우에는 語幹과의 결합 양상이 문헌어의 '-아ᅀᅡ/어ᅀᅡ'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體言語幹과 결합되는 '-사'는 문헌어의 '-ᅀᅡ'와 차이를 보인다. 즉 문헌어의 경우에는 대체로 '-ᅀᅡ'와 體言語幹 사이에 繫辭 '-이-'가 介在되지만 제주도 방언의 경우에는 'ᄒᆞᆨ게사(ᄒᆞᆨ게+-사, "학교야") ᄎᆡᆨ사(ᄎᆡᆨ+-사, "책이야")'에서처럼 繫辭의 介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한편 '마농지, 마농지시("마늘지")'에서 나타나는 '지'와 '지시'의 교체로부터 '*지ᅀᅵ'로의 再構가 가능하다. 이를 문헌어의 '겨ᅀᅳᆳ디히(두해-초 3:50, 冬菹) 쟝앳디히(박번, 상:55, "장아찌")'와 비교해 볼 때 문헌어의 '짛-(석보 19:31, 造)'와 '징-(월곡 98, 造)'가 보여주는 관계와 평행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4)의 예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형태소의 종류나 형태소 내부에서의 출현 위치에 관계없이 제주도 방언이 'ㅅ'로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들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ㅿ'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다음의 예들은 (1)-(4)의 예들이 'ㅿ'를 가졌던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5) ㄱ. ᄀᆞ, ᄀᆞᆺ(ᄀᆞᇫ;석보 13:4, 邊)
ㄴ. ᄀᆞ을, ᄀᆞ슬, ᄀᆞ실(ᄀᆞᅀᆞᆶ;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6, 秋)
ᄀᆞ음, ᄀᆞ슴, ᄀᆞ심(ᄀᆞᅀᆞᆷ;법화 2:89, 料, "감")
ᄆᆞ을, ᄆᆞ실(ᄆᆞᅀᆞᆶ;석보 9:40, 里)
부으레미, 부스레미, 부스럼지(브ᅀᅳ름;금삼 5:31, "부스럼")
오로, 오루, 우루, 오소리, 오수리(오ᅀᆞ리;훈몽-초, 상:10, "오소리")
저울, 저슬, 저실(겨ᅀᅳᆯ;월석 1:26, 冬)
ㄷ. -으우-, -ᄊᆞ-("-습니-")
(6) ㄱ. 마은(四十日麻刃;鷄林類事, 마ᅀᆞᆫ;월석 2:41, "마흔")
처엄, 체얌(처ᅀᅥᆷ;월석 2:59, 初)
여의(여ᅀᆞ;월곡 70, 狐, "여우")
ㄴ. -읍네-("-습니-")186)
(7) ㄱ. 건줌, 거줌(거ᅀᅴ;석보 11:10, 庶, "거의")
ㄴ. 혼자(ᄒᆞ온ᅀᅡ;내훈-초, 2하:17, 孤)
ㄷ. 멩질, 멩일(명일;속삼, 효:27, 名日, 너ᅀᅵᆯ;남명, 상:40, 來日)
셍진날, 셍일("생일날", ᄉᆡᇰ실;박번, 상:66, 生日)
중진, 중신내비, 중메젱이(듕ᅀᅵᆫ;훈몽-초, 중:2, 듕인어미;동

186) 이는 '머금네다(먹-+-읍네다, "먹습니다")'에서 보듯 제주도 방언에서 '-슴네다' 또는 '-슴니다'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읍네다'는 '-음네다'로 실현되지만 '머급서(먹-+-읍서, "잡수세요")'의 '-읍서'를 고려하여 '-읍네다'를 基底形으로 설정한다.

신, 열7:84, 媒)

(8) 두어(두ᅀᅥ;석보 6:6, 二三)

(5)-(7)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ㅿ'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ㅅ'를 가진 형태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이다.[187] (5ㄱ)의 'ᄀᆞ, ᄀᆢᆺ(邊)'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語末 위치에 'ㅿ'를 가졌던 형태이며 (5ㄴ)의 'ᄀᆞ을, ᄀᆞ슬(秋)' 등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 즉 語中 위치에 'ㅿ'를 가졌던 형태이다. (5ㄱ), (5ㄴ)에서 보듯 이들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ㅅ'형과 'Ø'형의 雙形語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ㅅ'형과 'ㅿ'형이 共存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의 語末 또는 語中 위치에서 'ㅿ'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5ㄷ)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相對尊待의 先語末語尾인데 '족쑤꽈(족-+-쑤-+-꽈) 조그우꽈(족-+-으우-+-꽈, 少, "적습니까?")' 등에서 보듯 'ㅅ'형과 'Ø'형의 共存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그런데 이 先語末語尾의 統合 樣相은 다소 복잡하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 先語末語尾는 形容詞 語幹에 직접 결합되는 語尾인데 선행하는 語幹의 末音이 모음이나 'ㄹ'일 경우에는 '크우꽈(크-+-으우-+-꽈, 大, "큽니까?") 아푸우꽈, 아푸꽈(아프-+-으우-+-꽈, 痛, "아픕니까?") 지우꽈(질-+-으우-+-꽈, 長, "깁니까?")' 등에서처럼 '-으우-'로만 나타나지만 자음일 경우에는 '궨찬쑤꽈(궨찮-+-쑤-+-꽈) 궨차느우꽈(궨찮-+-으우-+-꽈, "괜찮습니까?"), 훅쑤꽈(훍-+-쑤-+-꽈) 훌그우꽈(훍-+-으우-+-꽈, "굵습니까?"), 점쑤꽈(젊-+-쑤-+-꽈) 절무우꽈, 절무꽈(젊

---

187) '고사리(고사리;훈몽-초, 상:8, 蕨)'는 玄平孝(1962)의 '고아리마("봄철에 고사리가 나올 때의 장마")'와 비교해 볼 때 'ㅿ'를 가졌던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버을-, 버슬-(蓄, "벌다")'는 이 형태가 이전 시기에 'ㅿ'를 가진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으우-+-꽈, 少, "쫇습니까?"), 쫍쑤꽈(쫇-+-쑤-+-꽈) 쫄부우꽈, 쫄부꽈(쫇-+-으우-+-꽈, 短, "쫣습니까?"), 덥쑤꽈(덥-+-쑤-+-꽈) 더우꽈(더우-+-으우-+-꽈, 暑, "덥습니까?"), 좁쑤꽈(좁-+-쑤-+-꽈) 조부우꽈, 조부꽈(좁-+-으우-+-꽈, 狹, "좁습니까?"), 조쑤꽈(좋-+-쑤-+-꽈) 조우꽈(좋-+-으우-+-꽈, 好, "좋습니까?")' 등에서처럼 '-쑤-'와 '-으우-'가 隨意的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선행하는 語幹이 動詞일 경우에는 語幹과 이 先語末語尾 사이에 時相의 先語末語尾 '-암ㅅ-' 등이 介在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閉音節 語幹의 경우에는 '묻쑤꽈(묻-+-쑤-+-꽈, 問, "묻습니까?") 믿쑤꽈(믿-+-쑤-+-꽈, 信, "믿습니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時相의 先語末語尾가 介在되지 않고 '-쑤-'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기원적으로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異形態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 先語末語尾의 異形態 중에 '-쑤-'가 그 세력을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 듯하다.[188] 이 先語末語尾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의 謙讓의 先語末語尾 '-솝/숩-'과 관련을 가지는 듯한데 '-쑤-'는 'sɐβ>sɐw>so>su'의 변화 이후 硬音化를, '-으우-'는 'zɐβ>zɐw>zo>o>u'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우-'가 '-으우-'로 변화한 것은 活用系列上의 규칙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이 先語末語尾도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에서 'ㅅ'형과 'Ø'형의 共存을 보인 형태가 되는 셈이다. (6ㄱ)의 '마은(四十) 처엄, 체얌(初) 여의(狐)'나 (6ㄴ)의 '-읍네-("-습니-")'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ㅿ'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Ø'로의 대응만을 보여주는 예이다.[189] (7)은 중세국어 문헌어

---

188) 이 先語末語尾의 統合과 관련하여, 이를 후행하는 疑問添辭는 '-쑤-' 뒤에서는 '-과'(또는 '광')과 '-꽈'(또는 '꽝')이 다 나타나지만 '-으우-' 뒤에서는 '-꽈'(또는 '꽝')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特異하다.

189) '마은(四十)'은 '설른("설흔") 일른("일흔") 아은("아흔")' 등으로부터의 類推로, '여의(狐)'는 이를 지칭하는 對象의 不在로 'ㅿ'의 탈락을 보

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鼻音과 모음 사이에서 'ㅿ'가 실현된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인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ㅈ'로의 대응을 보여주는바 東南方言(崔明玉, 1982:92-95)에 나타나는 'ㅿ>ㅈ'의 변화와 일치한다.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ㅿ'가 鼻音 뒤에서 실현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를 'ㅸ'의 경우(3.1. 참조)와 비교해 보면 'ㅸ'는 鼻音 아래에서 실현될 수 없는 반면 'ㅿ'는 鼻音 아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문헌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李基文, 1972b:30-39)으로 보인다. (6), (7)의 예들은 (5)의 예와 함께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V__V, N__V'의 두 환경에서 'ㅿ'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ㅿ'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記述은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떤 한 음소와 統合이 가능한 음소들끼리는 하나의 自然部類로 묶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 방언에서 'ㅿ'와 統合이 가능한 모음과 鼻音은 하나의 自然部類로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ㅿ'와 統合이 가능한 음소들끼리 하나의 自然部類로 묶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ㅿ'가 'L__V'의 환경에서도 실현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는 (8)의 '두어(二三)'에서 확인되는바 '두어'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ㅿ'가 'ㄹ'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ㅿ' 앞에서 'ㄹ'가 탈락한 이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ㅿ'가 탈락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ㅿ'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은 'V__V', 'L__V', 'N__V'의 세 경우가 되며 'ㅿ'와 統合이 가능한 음소들은 '共鳴音'으로 묶이는 셈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ㅿ'의 非音韻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190]

인 듯하다. 後者는 제주도에 '여우'가 없었음으로 보아 이전 시기에 'ㅿ'의 탈락을 보이는 방언으로부터 借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규칙(19) ㅿ > ø / V __ V

('ㅿ'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한다.)

규칙(20) ㅿ > ㅈ / N __ V

('ㅿ'는 鼻音과 모음 사이에서 'ㅈ'로 변화한다.)

규칙(19)와 관련하여 (5ㄴ)의 'ᄀᆞ을(秋) ᄀᆞ음(料) ᄆᆞ을(里) 부으레미("부스럼") 저을(冬)'은 규칙(19)가 齒擦音 아래에서의 'ㅡ>ㅣ'의 변화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ᄀᆞ일(秋) ᄀᆞ임(料) ᄆᆞ일(里) 부이레미("부스럼") 저일(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어휘 체계 안에서의 聯想 작용에 의하여 일반적인 음운변화에서 逸脫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9) 건줌, 거줌(거ᅀᅴ;석보 11:10, 庶, "거의")

(10) 두서너(二三四, 두ᅀᅥ;석보 6:6, 二三)

기원적으로 'ㅿ' 앞에서 鼻音 'ㄴ'가 삽입(3.1. 참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9)의 '건줌(庶)'은 규칙(20)과 構造記述을 함께하므로 이 규칙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ㄴ'삽입을 겪지 않은 형식인 '거줌'은 규칙(20)과 構造記述을 달리함에도 이 규칙의 構造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줌'이 'ㅿ>ㅈ'의 변화를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形態論的 과정을 거친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는 의미차 없이 '건줌'과 '거이(<*거ᅀᅴ)'가 共存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가 前提가 된, 이 두 어휘의 共存이 '건줌'과 '거이' 사이의 聯想 작용을 불러 일으켜 '거줌'이라고 하는 混淆形

---

190) 이 규칙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1)-(4)의 예들이 'ㅿ'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래 'ㅅ'를 가졌던 것이었음이 前提되어야 한다.

을 만들어 내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의 음절 구조상의 固定性 확보와 'ㄴ'의 삽입 현상이 이 混淆形의 生成에 관여한 듯하다.[191] (10)의 '두서너(二三四)'는 'ㅿ'가 'ㄹ' 아래에서 실현되어 (8)에서처럼 'ㄹ'탈락 이후 'ㅿ'의 탈락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ㅿ'의 탈락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는 複合의 과정에서 '둘(二)'과 '서너(三四)'와의 聯想 작용이 관련되어 'ㅿ'의 탈락을 겪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ㅿ'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이한 예들이 나타난다.

(11) ㄱ. 눈쯧설(눈쯧ᅀᆞ;능엄 2:15, 睛)
ㄴ. 베설(비ᄉᆞᆶ;월석-중 21:43)
ㄷ. 부섭(브ᅀᅥᆸ;훈민-원, 해례:25, 브ᅀᅥᆨ;훈몽-초, 중:5, 廚)
(12) ㄱ. 게우리(居兒乎;鄕藥救急方, 것위;구간 1:89, 蚯蚓)
ㄴ. 거수엔벵("회충병")
(13) ㄱ. ᄉᆞ이(ᄉᆞᅀᅵ;월곡 177, 間)
ㄴ. ᄉᆞ시("근처, 근방")
(14) ㄱ. 윳(ᅀᅲᆺ;훈몽-초, 하:10, 蒲)
ㄴ. 슛("윷놀이에서 윷가락 네 개가 모두 젖혀진 때의 이름")[192]
(15) ㄱ. 끌-(그ᅀᅳ-;월석 2:35, ᄭᅳ을-;경신 5, 曳)[193]

---

191) 玄平孝(1962)에는 '거의, 거진, 거자'로도 나타난다. '거의'는 'ㅿ'의 탈락을 겪은 것이고 '거진, 거자'는 'ㅿ>ㅈ'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後者는 鼻音 아래에서만 'ㅿ>ㅈ'의 변화를 보여주는 제주도 방언에서 逸脫된 변화를 보여주므로 借用의 가능성이 짙다.

192) 16세기 문헌어에 나타나는 'ᅀᅲᆺ'은 16세기 당시에 語頭音으로 'ㅿ'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 국어 방언에 '윳'과 '슛'이 있어서 이 兩者를 절충하여 표기한 형태로 여겨진다(李基文, 1971a:170-171, 1972b:32). 이는 '윳'과 '슛'의 起源이 달랐음을 의미해 준다.

193) 이는 '*그ᅀᅳ-'에 派生接尾辭 '*-을'(2.4.2.1. 참조)이 결합된 것이다.

ㄴ. 끗-("바닥에 닿은 채로 잡아 당겨 끌다")

(16) ㄱ. 몰레(몰애;훈몽-초, 상:2, 沙, "굵은 모래")

ㄴ. 모살(沙)

(11)은 문헌어에서 'ㅿ'를 가졌던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의미차를 보여주면서 'ㅅ'를 가진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예이다. (11ㄱ)의 '눈쫏설'은 "눈 속 옆에 붙은 붉은 부분"을, (11ㄴ)의 '베설'은 "창자"를, (11ㄷ)의 '부섭'은 "부엌화로"를 가리킨다. (12)-(14)는 문헌어에서 'ㅿ'를 가졌던 형태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에서 'Ø'로 대응하는 형태와 'ㅅ'로 대응하는 형태가 의미차를 보여주면서 共存하고 있는 경우인바 'Ø'로 대응하는 형태가 'ㅅ'로 대응하는 형태보다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특이하다.[194] (12ㄱ)에서처럼 "회충"은 'Ø'형인 '게우리'로 나타나지만 "회충병"만을 가리킬 때에는 (12ㄴ)에서처럼 'ㅅ'형인 '거수엔벵'으로 나타난다. 'Ø'형인 (13ㄱ)의 'ᄉᆞ이'는 일반적 의미의 "사이"를 가리키지만 'ㅅ'형인 (13ㄴ)의 'ᄉᆞ시'는 "근방"만을 의미한다. 'Ø'형인 (14ㄱ)의 '윳'은 '윷놀이'나 '윷가락' 등 일반적 의미에서의 "윷"을, 'ㅅ'형인 (14ㄴ)의 '숫'은 "윷가락 네 개가 모두 젖혀진 때의 이름"인 '윷'만을 가리킨다. (15) 또한 평행한 모습을 보여주는바 'Ø'형인 (15ㄱ)의 '끌-'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끌다"를 가리키지만 'ㅅ'형인 (15ㄴ)의 '끗-'는 이보다 의미가 한정되어 "바닥에 닿은 채로 잡아 당겨 끌다"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16)은 'ㅅ'로 대응하는 형태가 'Ø'로 대응하는 형태보다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인데 'ㅅ'형이라 할 수 있는 (16ㄴ)의 '모살'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모래"를 가리키지만 'Ø'형이라 할 수 있는 (16ㄱ)의 '몰레'는 "굵은 모래"만을 가리키는 것이다.[195] 특히 (15), (16)의 예들은 'Ø'로 대응하는 형태와

---

194) 'Ø'로 대응하는 형태가 다른 방언으로부터 借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ㅅ'로 대응하는 형태가 形態論的 구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규칙(19)의 적용과 함께 상이한 派生接尾辭가 관련된 形態論的 과정을 겪어 형성된 형태인 것이다.

3.3 語頭子音群의 변화

중세국어 문헌어는 일정한 제약 아래 語頭, 語中, 語末 위치에서 모두 子音群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196) 그런데 方言史를 보여주는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 共時的으로 확인되는 子音群을 제외하고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子音群들이 존재했었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문헌어나 다른 방언과의 비교, 內的 再構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推定되는 子音群의 목록이나 분포, 제약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方言史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의 결핍으로, 이전 시기에 제주도 방언이 語頭子音群을 가졌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語頭子音群의 존재를 표기상으로 반영해 주는 중세국어 문헌어와 제주도 방언과의 비교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語頭子音群이 존재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語頭子音群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시기에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들이 제주도 방언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語頭子音群의 목록이나 분포, 제약 등을 記述해 보고자 한다.

---

195) 두 형태가 동일한 기원을 가졌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196) 語頭子音群에 관한 것은 李基文(1972b:56-63), 朴昌遠(1991) 참조.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子音群을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合用竝書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合用竝書는 'ㅅ'계와 'ㅂ'계 그리고 'ㅄ'계의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의 語頭 合用竝書에 대하여 'ㅂ'계나 'ㅄ'계 合用竝書는 語頭 子音群을 표기한 것으로, 'ㅅ'계 合用竝書는 硬音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李基文, 1955). 중세국어 문헌어의 合用竝書의 音價에 대한 연구는 'ㅂ'계나 'ㅄ'계 合用竝書를 子音群으로 인정한다는 데에서 공통적인 듯하다. 하지만 'ㅅ'계 合用竝書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ㅅ'계를 子音群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관점과 硬音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관점, 대체로 두 계열로 나뉜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는 현대국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대체로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되어 나타나지만 제주도 방언은 다른 방언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문헌어의 'ㅂ'계 合用竝書는 제주도 방언에서 대체로 激音으로 대응되며 'ㅅ'계, 'ㅄ'계 合用竝書는 대체로 硬音으로 대응되어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ㅂ'계 合用竝書와 'ㅅ'계 合用竝書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각기 다른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문헌어의 'ㅂ'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ㅂ'계 語頭子音群은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ㅄ'계 語頭子音群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역시 語頭子音群이었을 듯하다(後述). 한편 문헌어의 'ㅅ'계 合用竝書는 제주도 방언에서 硬音으로 대응되므로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 'ㅅ'계 語頭子音群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들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語頭 'ㅅ'의 흔적을 보여주기도 하는바 이는 문헌어의 'ㅅ'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들이 제주도 방언에서 이런 시기에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형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기원적으로는 語頭에 'ㅅ'를 가지고 있었던 형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後述).

먼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후행하는 자음이 平音이었던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를 겪어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

(1) ᄐᆞ-(ᄩᆞ-;두해-초 10:8, 摘, "따다")
ᄐᆞ나-("다르다", ᄩᆞᆫ;노번, 하:7, 別)[197]
ᄐᆞ루(ᄩᆞ로;석보 6:7, 殊, "따로")
탈(ᄩᅡᆯ기;훈몽-초, 상:6, "딸기")
터러지-(ᄩᅥ러디-;석보 13:45, 落, "떨어지다")
털-(ᄩᅥᆯ-;능엄 7:88, 振, "떨다")
터럽-, 떠럽-, 초랍-, 쪼랍-(ᄩᅥᆲ-;석보 19:20, 澁, "떫다")
테(ᄩᆡ;석보 6:27, 垢, "때")
테, 테역("떼, 뿌리째 떠낸 잔디")
테(ᄩᅦ;청언-원 5, 群, "떼", ᄩᅦ구룸;노번, 하:24, "뭉게구름")
테, 테우, 테위, 터베, 텐마(ᄩᅦ;금삼 2:38, 筏, "뗏목")
튀-(ᄩᅱ-;금육 8, 走, "뛰다")[198]
트-(ᄩᅳ-;월곡 65, 開, ᄩᅳ-;능엄 2:31, 浮) 튼봉ᄉᆞ("눈뜬 봉사")
터올르-(ᄩᅥ오ᄅᆞ-;신합, 하:5, "떠오르다")
티우-(ᄩᅴ우-;월석 18:56, "띄우다")
튼물, 텐물(ᄯᅳ믈;월석-중 21:110, ᄩᅳ믈;역보 31, 泔水, "뜨물")
틈("밥뜸")
틑-(ᄩᅳᆮ-;두해-초 20:51, 摘, "뜯다")
치-(ᄧᅵ-;능엄 1:3, 烝, "찌다") 침떡("시루떡")

(2) ᄎᆞ-(ᄧᆞ-;능엄 9:53, 織, "짜다")
반착(ᄧᅡᆨ;훈민-원, 해례:21, 隻, "반쪽")

---

197) 'ᄐᆞ나-, ᄄᆞ나-'로도 실현된다. 이는 '*ᄩᆞᆫ'과 'ᄒᆞ-'의 複合語인 듯한데 語幹末 'ㆍ>ㅏ'의 변화(2.1.1.1. 참조)와 共鳴音 사이에서 'ㅎ'의 탈락이 관련된 것이다.

198) 이 用言과 관련된 '튈락, 튐제기'는 '뛸락, 뜀제기("뜀박질")'로도 나타나는바 문헌어의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진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서 激音뿐 아니라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되어 나타나기도 함을 보여준다.

차콩("짜개콩", ᄡᅡ개;월석 8:96, "짜개")
체-(ᄢᅢ-;월석 1:29, 裂, "째다")
초-(ᄢᅬ-;월석 2:51, 曝, "쬐다")[199]
치지-(ᄠᅳ-;석보 6:32, 裂, "찢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1)은 'ㅲ', (2)는 'ㅄ' 子音群을 語頭에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인바[200] (1), (2)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ㅂ'계 語頭子音群이 제주도 방언에서 激音으로 대응됨을 보여준다.[201]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語頭子音群의 激音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21) $C_1\ C_2 > C_2^h$ / ## ___
(語頭에서 子音群 $C_1\ C_2$는 C_2^h로 변화한다.)

---

199) 중세국어 문헌어의 'ᄧᅩᆾ-(내훈-초, 2상:27, 逐, "쫓다")'는 제주도 방언에서 '촟-'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세국어 문헌어에 'ᄧᅩᆾ-'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ᄌᆞᆾ-(용가 9:1.78, 隨, "좇다")'가 보인다. 한편 제주도 방언의 'ᄌᆞᆾ-'는 '隨'와 '逐'의 뜻을 모두 갖는다.

200) 위의 예 (1),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ㅂ'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는 제주도 방언에서 激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으로부터 (1), (2)의 예들은 문헌어의 'ㅂ'계 合用竝書가 語頭子音群을 표기해 준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李基文, 1955)로서 제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대응에 대한 예외로 'ᄠᅳᆮ(석보 6:2, 意)'이 나타난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튼나-("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나다")'는 '*튼+나-'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한데 '*튼'이 문헌어의 'ᄠᅳᆮ(意)'에 대하여 激音을 가진 형태로의 대응을 보여주는 예인 듯하다. 의미의 변화를 겪었음이 주목된다. 또한 격음을 가진 형태로의 대응이 기대되는 'ᄠᅳᆯ(능엄 1:53, 庭)'은 제주도 방언에서 이에 대응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ᄠᅳᆯ'이 제주도 가옥구조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터지-(ᄣᅥ디-;월석 2:38, 裂)'의 語頭 'ㅳ' 合用竝書가 子音群을 표기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주도 방언의 예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이 규칙은 형태소 내부에서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위치가 관련된다. 語頭 위치가 아니라면 규칙(21)의 적용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에는 규칙(21)과 관련하여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가 있다.

(3) ᄉᆞᆨ(ᄡᅮᆨ;능엄 3:75, 艾, "쑥")
　　실게(ᄡᅳᆯ게;금삼 2:60, 膽, "쓸게")

(4) ㄱ. ᄉᆞᆯ(ᄡᆞᆯ;석보 6:14, 米)
　　　ᄉᆞᆷ지("쌈지", ᄡᆞᆷ;구간 1:90)
　　　ᄉᆞ-(ᄡᆞ-;두해-초 16:67, 包)
　　　싸리(ᄡᆞ리;사해-중, 하:47, 荊條, "싸리")
　　　쏘-(쏘-;훈민-원, 해례:21, ᄡᅩ-;박번, 상:54, 射)
　　　쒜-(ᄡᅬ-;두해-초 20:3, 曝, "쬐다")
　　　쓰-(ᄡᅳ-;월석 2:55, 用, ᄡᅳ-;능엄 3:9, 苦)
　　　쓸-(ᄡᅳᆯ-;월석 9:35, 掃)
　　　씨(ᄡᅵ;월석 2:12, 種)
　 ㄴ. 술로리, ᄉᆞᆯ로리, ᄉᆞᆯ보리(*ᄡᆞᆯᄫᅩ리, ᄡᆞᆯ보리;물명 3:3, "쌀보리")[202]
　　　ᄉᆞ레기(*ᄡᆞ라기, ᄉᆞ라기;두해-초 3:15, "싸라기")
　　　소살(*ᄡᅩ살, "작살")

(3), (4)는 문헌어에서 語頭에 'ㅄ' 子音群을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인데[203] 제주도 방언에서는 (3)의 'ᄉᆞᆨ(艾) 실게(膽)'에

202) '*ᄡᆞᆯᄫᅩ리>술로리'의 변화는 'ㄹ' 아래에서의 'ᄫ'의 변화(3.1. 참조)와 'ㄹØ>ㄹㄹ'의 변화(3.1. 참조)가 관련된다.

203) '싱그리-, 싱크리-, 찡그리-' 등과 玄平孝(1962)에 보이는 '징그리-, 꿀싱으리-, 꿀성그리-, 꿀징으리-, 꿀성으리-'등은 이 單語가 중세국어 문헌어의 'ᄢᅵᆼ의-(법화 2:18), ᄢᅵᆼ긔-(두해-초 11:17)'와 관련을 갖고 있음을

서처럼 平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하기도 하며 (4ㄱ)의 '쏠(米) 쏨지("쌈지") 쏘-(包) 싸리(荊) 쏘-(射) 쐬-(照) 쓰-(用, 苦) 쓸-(掃) 씨(種)'에서처럼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3)은 규칙(21)의 적용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ㅅ'의 激音이 체계상으로 空白을 이루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음운론적인 이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204] 하지만 (4ㄱ)은 (3)과 달리 문헌어에서 語頭에 'ㅄ' 子音群을 가졌던 것으로 推定되는 형태들이 제주도 방언에서 硬音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인데 이처럼 (4ㄱ)의 예에서 보여주는 硬音으로의 대응은 (4ㄴ)의 '술로리("쌀보리") 스레기("싸라기") 소살("작살")'을 고려해 볼 때 규칙(21)의 적용 이후 관여한 다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4ㄱ)의 예들은 語頭子音群이 직접적으로 硬音으로의 변화를 겪은 형태가 아니라 複合語 系列과의 聯想에서 비롯되어 平音이 硬音으로 바뀌는 일종의 硬音化를 겪은 형태라는 것이다.

규칙(21)과 관련하여 複合語로 化石化됨으로써 複合語 系列의

보여주는 듯하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ㅂ'계 子音群을 가졌던 活用語尾 '-으로써(正音으로뼈;월석, 석보상절 서:6, "正音으로써")'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지 않는다.

204) (3)을 (1), (2)의 'ㅳ, ㅄ' 子音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語頭子音群의 변화 규칙(21)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3)의 경우는 語頭 'ㅂ>ㅎ'의 변화를 겪어 'ㅎㅅ'의 음소 연쇄가 형성되고 'ㅅ'의 激音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平音으로 실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ㅎㅅ'의 음소 연쇄는 '조쑤-(좋-+-쑤-+-다, "좋습니다")'에서처럼 선행하는 'ㅎ'가 'ㄷ'로 閉鎖音化를 겪은 후 선행음의 영향으로 후행하는 'ㅅ'가 硬音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규칙이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하던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도 존재했었다면 'ㅄ' 子音群은 語頭에서 'ㅂ>ㅎ'의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ㅂ'가 후행하는 자음을 激音化하는 변화를 겪었다고 해야 할 듯하다. 즉 'ㅎㅅ'의 音素 連鎖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ㅅ'의 硬音으로 실현되지만 'ㅅ'의 激音은 그에 대당하는 음소가 체계상의 空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平音 'ㅅ'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固着性을 보여주기도 한다.

(5) ㄱ. 부르트-(브르匹-;선가, 하:59, "부릅뜨다")
ㄴ. 좁쏠(조발;두해-초 15:5, 좁발;분문 9, "좁쌀")
촙쏠(추발;구간 6:38, 출발;구간 1:96, 촙발;박해, 상:37, "찹쌀")
씁쓰롱어-("씁쓸하다", ᄡᅳ-;능엄 3:9, 苦)
ㄷ. 쏨씨(손ᄡᅵ;태평 1:9, "솜씨")

(5)의 예들은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형태들이 複合語를 형성하여 현대 중앙어에서 子音群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예들이다. 그런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5ㄴ), (5ㄷ)의 예들은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複合語에서 語頭子音群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5ㄱ)의 예는 중앙어와는 달리 語頭子音群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규칙(21)과 複合語 형성과의 通時的 順位가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즉 (5ㄴ)의 '좁쏠("좁쌀") 촙쏠("찹쌀") 씁쓰롱어-("씁쓸하다")'에서는 규칙(21)이 적용되기 전에 語頭子音群을 가진 형태가 複合語를 형성하여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複合語의 경우에 한하여 語頭子音群의 흔적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5ㄱ)의 '부르트-("부릅뜨다")'에서는 규칙(21)이 적용되어 語頭에 激音을 가진 형태가 複合語를 형성하여 複合語에서조차도 語頭子音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205) (5ㄴ)의 複合 系列이 규칙(21)을 겪지 않은 것은 單語 경계의 차이에 있다. (5ㄴ)의 예들은 複合語를 형성하여 語頭子音群을 포함한 語基가 이미 語頭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5ㄷ)의 '쏨씨("솜씨")'는 '*손>*솜(>쏨)'의 子音同化 이후

205) '몹씰롬("몹쓸놈") 모씰롬("못쓸놈", 몯ᄡᅳᆯ;능엄 1:19, 몯ᄡᅳᆯ;소해 5:36, "못 쓸")'은 규칙(21)과 複合語 형성과의 通時的 順位에서의 차이가 의미차를 동반한 형태 분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홍미롭다.

子音群單純化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ㅂ'계 語頭子音群의 변화를 보여주는 (1)-(5)의 예들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했었음을 前提로 한다.[206)]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후행하는 자음이 硬音인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들은 제주도 방언에서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6) 까-(ᄣᆞ-;원각, 서:9, 剝, "까다")
　　꺼지-(ᄢᅥ디-;능엄 2:95, 沒)
　　꿰-(ᄢᅰ-;월석 1:28, 貫)
　　꿀(ᄢᅮᆯ;월석 1:42, 蜜)
　　끌(ᄢᅳᆯ;구방, 하:32, 鑿)
　　끼-, 찌-(ᄢᅵ-;두해-초 10:26, 挾)
(7) 뜨리-(ᄣᆞ리-;월곡 77, 打, "때리다")
　　때(ᄣᅢ;월석 7:9, 時)
　　찔르-(ᄦᅵᄅᆞ-;내훈-초 1:3, 刺, "찌르다")
(8) 홈치(ᄒᆞᆷᄢᅴ;월곡 39, 同, "함께")

(6)-(8)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들인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ㅅ'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

206) 중세국어 문헌어의 'ㅂ'계 語頭子音群이 제주도 방언에서 激音으로 대응된다는 것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헌어의 'ㅂ'계 語頭子音群에 대하여 제주도 방언이 激音으로 일률적인 대응을 보여주므로 제주도 방언에서 'ㅂ'계 語頭子音群의 존재를 再構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했던 시기는 최소한, 문헌어에서 'ㅂ'계 語頭子音群이 존재하던 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듯하다.

와 마찬가지로 모두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된다. 이는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들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語頭子音群을 가진 형태가 아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지만 (8)의 'ᄒᆞᆷ치(同)'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들도 역시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형태였을 가능성을 示唆해 준다.207) 즉 (8)의 'ᄒᆞᆷ치'에서 보이는 '*ᄒᆞᆫ>ᄒᆞᆷ'의 子音同化는 複合語에서 'ㅂ'계 語頭子音群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예인바 이들이 이전 시기에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진 형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인 (6), (7)의 경우에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진 형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語頭에 나타나는 'ㅂ'계 語頭子音群은 규칙(21)의 적용을 입어야 하므로 (6), (7)에서 제시된 예도 규칙(21)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문헌어에서 'ㅄ'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는 'ㅂ+硬音'의 子音群 構造를 가진 것인바 규칙(21)이 적용되어도 硬音의 激音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들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硬音으로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1)-(8)의 예로부터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은 'ㅂ'계 語頭子音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8)의 예들은 'ㅂ'계 語頭子音群의 'ㅂ'를 후행하는 자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는 'ㅂㄷ', 'ㅂㅈ', 'ㅄ' 語頭子音群과 'ㅂㄸ', 'ㅂㄲ' 語頭子音群만을 가지고 있었는바 'ㅂ'를 후행

207) 李基文(1972b:59-60)에서도 중세국어 문헌어의 合用竝書의 音價를 살펴보면서 'ㅂ'계, 'ㅄ'계 合用竝書는 'ㅂ'계 語頭子音群을, 'ㅅ'계 合用竝書는 '된소리'를 표기한 것이라 하였다.

하는 자음이 ‘ㄱ, ㅂ’거나 ‘ㅃ, ㅆ, ㅉ’인 子音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ㅂ’계 이외의 語頭子音群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이 ‘ㅅ’계 語頭子音群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도 현대 제주도 방언은 그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9) ㄱ. ᄁᆞᆯ-(ᄭᆞᆯ-;석보 6:25, “깔다”)
꺼리-(ᄭᅥ리-;법화 6:123, 忌)
꼬-(ᄭᅩ-;월석 13:62, 索)
꾸미-(ᄭᅮ미-;석보 13:51, 粧, “꾸미다”)
꿀르-(ᄭᅮᇙ-;법화 2:178, “꿇다”)
꿩(ᄭᅯᇰ;두해-초 20:39, 雉)
찌-(ᄭᅵ-;두해-초 16:52, 狹, “끼다”)
ㄴ. -ᄁᆞ장(“-까지”, 이ᄭᆞ자ᄋᆞᆫ;석보 13:37, “이까지는”)
(10) ᄄᆞᆯ(ᄯᆞᆯ;월곡 36, 女, “딸”)
ᄄᆞᆷ(ᄯᆞᆷ;월석 2;13, 汗, “땀”)
땅(ᄯᅡᇰ;석보 6:26, 地)
떡(ᄯᅥᆨ;월석 1:42, 餠)
찌-(ᄯᅴ-;남명, 하:18, 帶, “띠다”)
(11) ㄱ. ᄈᆞᆯ-(ᄲᆞᆯ-;월곡 105, 濯, “빨다”)
빠지-(ᄲᅡ디-;석보 9:37, 溺, “빠지다”)
뽕낭(ᄲᅩᇰ낡;능엄 7:91, 桑, “뽕나무”)
ᄈᆞᆯ(ᄲᅳᆯ;석보 13:53, 角)
ㄴ. -뿐(“-뿐”, 닷ᄀᆞᆯᄲᅮᆫ;석보 13;36, “닭을 뿐”)
(12) ㄱ. 싸우-, ᄊᆞᆸ-(ᄡᅡ호-;석보 9:16, 사호-;능엄 9:19, 爭, “싸우다”)
쓰-(ᄡᅳ-;석九 30, 스-;두해-초 7:15, 書, “쓰다”)
ㄴ. 말씀(말ᄊᆞᆷ;석보 6:46, 語)

(9)-(12)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語頭 ‘ㅅ’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들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모두 硬音을 가진 형태로 대응됨을 보여준다.[208] 'ㅂ'계 合用竝書와 달리 'ㅅ'계 合用竝書는 硬音으로 대응된다는 점에서 제주도 방언이 중앙어와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語頭 'ㅅ'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語頭子音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대 제주도 방언의 '시꾸우-("상대방을 꿈에 보다") 시동("똥, 오줌이 합쳐진 거름")'은 문헌어의 'ㅅ'계 合用竝書로 표기되던 형태가 기원적으로 語頭 'ㅅ'를 가지고 있었던 형태였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들이 'ㅅ'계 語頭子音群을 가졌던 형태인지 아니면 語頭子音群을 형성하기 前段階의 형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語頭音節의 모음이 'ㅣ'인 것과 '꾸-(ᄭᅮ-;월곡 67, 夢) 똥(ᄯᅩᆼ;월석 10:117, 糞)'과의 의미상의 차이가 흥미롭다. 문헌어의 'ㅅ'계 合用竝書와 관련하여 제주도 방언의 '초리(ᄭᅩ리;월석 1:28, 尾, "꼬리") 촐(ᄭᅩᆯ;월석 8:98, 草, "꼴"), 친(ᄭᅳᆭ;소해 2:2, 纓, "끈"), 또시, 따시(ᄯᅩ;석보 6:1, 又, "또")'는 특이하다. 이 중에 '친(纓)'은 중세국어 문헌어의 '긶(두해-초 16:55)'과 관련이 있을 듯하고 '또시(又)'는 '또'와 '다시(다시;석보 6:11, 復)'의 混淆形일 듯하다. '초리(尾) 촐(草)'에서 보이는 'ㅺ'과 'ㅊ'의 대응은 현재로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꿈, 춤(춤;법화 2:108, 唾, "침") 끅("칡의 줄기", 츩;두해-초 15:10, 葛)'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데끼-(더디-;월곡 64, 擲, "던지다") 비끼-(비티-;박해, 중:42, 비치-;한청 4;13, "삐치다")' 등처럼 非語頭音節에서도 이와 평행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

208) 'ㅾ'合用竝書는 중세국어 문헌어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한다. (12)는 'ㅆ'竝書를 표기한 것으로 'ㅅ'계 合用竝書인지 各自竝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ㅅ'계 合用竝書의 경우로 제시하였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合用竝書와 各自竝書의 音價上의 차이는 이 글의 논의와 무관하다.

3.4 語幹末子音의 변화

중세국어 문헌어는 表面層位에서 音節末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등 八終聲 單子音만을 허용했으며 'ㄺ, ㄻ, ㄼ'등 'ㄹ'가 첫 子音일 때에 한하여 子音群을 허용(李基文, 1972a:132-135)했던 것으로 보이는데[209]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이른바 共時的인 音節末 中和 규칙,[210] 子音群單純化 규칙과 관련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體言과 用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규칙이 通時的으로 語幹形式에까지 적용되어 語幹의 再構造化(李秉根, 1975:77-84)를 보이기도 하였다. 제주도 방언은 이러한 語幹의 再構造化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에 관심을 가지는 이 節에서는 共時的 규칙에 의한 語幹末子音의 變動보다 音節末 中和 규칙과 子音群單純化 규칙등 語幹末子音의 通時的 규칙과 관련된 語幹의 再構造化에 관심을 두고 記述해 나가고자 한다.

3.4.1 單子音

국어의 音節末 자음 특히 障碍音들은 單語 경계(또는 複合語 경계) 및 자음 앞에서 未破現象을 보임으로써 共時的으로 同器官的 中和 現象을 일으킨다(李秉根, 1975:80). 그런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 同器官的 中和 現象이 通時的으로 관여하여 語幹

209)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終聲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ㅿ'를 인정하면 終聲으로 아홉 자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李基文, 1972b:77-83). 'ㅀ' 子音群도 'ㄹ'를 첫 子音으로 가지지만 이 子音群은 表面에 나타날 수 없다. 후행하는 자음과의 縮約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210) 筆者는 基底層位에서 音節이란 단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記述의 편의상 音節이란 용어를 사용한다(拙稿, 1991). 여기서의 音節末 中和란 語末 位置나 자음 앞에서 일어나는 中和를 가리킨다.

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이 同器官的 中和 現象의 通時的 관여에 의하여 어떠한 單子音 末音 語幹들이 再構造化를 겪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실현되는 單子音 末音 體言語幹 및 單子音 末音 用言語幹을 제시한다.

(1) ㄱ. 혹(혹;훈몽-초, 중:16, 疣) 베락(벼락;훈몽-초, 상:1, 霹)
물꾸럭(文魚)
ㄴ. 눈(눈;석보 19:10, 眼) 남펜(남편;소해 6:74-75, 夫)
ㄷ. 멜(멸;훈몽-초, 상:7, 蔵, "멸치")
헹결("한결", ᄒᆞᆫᄀᆞᆯᄋᆞ티;두해-초 7:10, "한결같이")[211]
ㄹ. 좀(좀;훈몽-초, 상:12, 蟲)
다림(다님;역해, 상:45, "대님")
ᄆᆞ음(ᄆᆞᅀᆞᆷ;석보 6:29, 心, "마음")
ㅁ. 밥(밥;훈민-원, 해례:25, 飯)
쏘곱(솝;월석 8:11, 속;두해-초 16:49, 裏)
지집(겨집;훈몽-초, 상:16, 女, "계집")
ㅂ. 옷(옷;훈민-원, 해례:18, 衣) 그릇(그릇;월곡 4, 器)
ㅅ. 꽝("뼈") 등(등;훈몽-초, 상:14, 背)
복덕방, 북덕방("짚, 검불이 난잡하게 깔린 방")
우영(위않;두해-초 7:21, 園, "뜰")[212]
ㅇ. 낮(낮;월곡 16, 晝)
ㅈ. 앞(앒;석보 6:33, 前) ᄋᆢᇁ(녑;월석 2:17, 側, "옆")
(2) ㄱ. 석-, 썩-(석-;구방, 하:77, 腐, "썩다")

211) '헹결("한결")'에서 語頭音節의 終聲 'ㅇ'은 子音同化를, 'ㅔ'는 'ㅣ' 모음 逆行同化(2.1.2. 참조)를 겪은 것이다.

212) 현대 제주도 방언의 '우영(園)'은 중세국어 문헌어의 'ㅎ' 末音 體言인 '위않(園)'으로 대응되는데 제주도 방언의 '우영'에서 語末에 나타나는 'ㅇ'은 子音同化의 결과로 여겨지는바 이 형태가 이전 시기에 'ㅎ' 末音 體言語幹이었음을 보여준다.

ᄀ득-(ᄀ둑ᄒ-;두해-초 7:5, 滿, "가득하다") 어리석-(愚)

ㄴ. 안-(안-;월석 2:39, 包) 신-(신-;두해-초 7:21, "신다")[213]

ㄷ. 짇-(딛-;월석-중 23:78, 燃, "때다")[214]

ᄃ-(ᄃ-;월석 10:25, 走, "닫다")[215]

깨덛-(ᄢ돋-;석보 9:21, 覺, "깨닫다")

ㄹ. 괄-(猛) 빨-(ᄲᆞᆯ-;구간 6:59, 吸, "빨다")

머물-(머믈-;석보 6:23, 留) 흥글-(흔들-;노번, 상:4, 搖)

ㅁ. ᄀᆞᆷ-(ᄀᆞᆷ-;석보 9:22-23, 沐, "감다") 심-(捕, "잡다")

더듬-(더듬-;법화, 서:21, 探)

ㅂ. 잡-(잡-;남명, 상:27, 執) 밉-(뮙-;석보 9:17, 憎)[216]

수줍-("수줍다")

ㅅ. 벗-(밧-;월곡 130, 脫, "벗다")

듯-(溫, "따뜻하다", ᄃᆞᆺ-;월곡 125, 愛)

비웃-(비ᅀᅮᆺ-;석보 9:15, "비웃다")

ㅇ. 늦-(늦-;훈몽-초, 상:1, 晩)

꾸짖-(구짖-;월석 17:85, 罵, "꾸짖다")

---

213) 제주도 방언의 'ㄴ' 末音 語幹은 '안고(안-+-고, 包)'에서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語尾가 결합하더라도 후행하는 자음을 硬音化시키지 않는다. 이는 'ᄀᆞᆷ고(ᄀᆞᆷ-+-고, 閉, "감고") ᄉᆞᆷ다(ᄉᆞᆲ-+-다, "삶다")'에서 보듯 'ㅁ' 末音 語幹은 물론 'ㄹㅁ' 末音 語幹에서도 평행하다. 물론 젊은층에서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語尾의 頭音을 硬音化시킨다.

214) 이 動詞와 관련하여 '지들랑'은 '짇-+-을+낭("땔나무")'의 구조를, '부지뎅이("부지깽이")'는 '불+짇-+*-뎅이'의 구조를 가진 것이다. 派生接尾辭 '*-뎅이'는 '임뎅이(*임+*-뎅이, 額, "이마")'에서 확인된다. '임뎅이(額)'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語基 '*임'은 '림비(欒軌動動) 곰븨님븨(청언-원 68, "곰비임비")'와 '이물("배의 앞이 되는 부분")'과의 비교로부터 '*림' 또는 '*님'으로의 再構가 가능하며 이 語基는 기원적으로 '前'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15) 이는 'ᄃ곡(ᄃ-+-곡, "닫고") ᄃ란(ᄃᆞᆯ-+-안, "달아서")'에서 보듯 'ㄷ' 變則用言이다.

216) 이는 '밉곡(밉-+-곡, "밉고") 미완(미우-+-안, "미워서")'에서 보듯 'ㅂ' 變則用言이다.

ㅈ. 좇-(좇-;월곡 11, 隨)

ㅊ. 놓-(놓-;석보 6:1, 放) 닿-(닿-;내훈-초 3:3, "땋다")

찧-(딯-;월석 13:59, 搗, "찧다")

(1), (2)에서 보는 대로 제주도 방언에서는 體言語幹의 경우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ㅍ' 등[217] 9개의 자음을, 用言語幹의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ㅎ' 등 10개의 자음을 末音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외의 자음들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語幹末 位置에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ㄱ. 굿(굳;법화 1:168, 坑)

웨꿋("오이 구덩이") 지실굿("감자 구덩이")

ㄴ. 구뎅이(*굳+-엉이, "구덩이")

(4) ㄱ. 끗(긑;석보 9:2, 末, "끝")

ㄴ. 끄트머리(*끝+*-으머리, "끄트머리")

(5) ㄱ. 꼿(곶;훈민-원, 해례:18, 花, "꽃")

ㄴ. 고장(*곶+-앙, "꽃")

(6) ㄱ. 입, 섭(닢;두해-초 10:2, 葉)

ㄴ. 이파리(*잎+-아리, "이파리")

(3ㄱ)의 '굿("속에 오이, 호박 따위의 씨를 묻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둑하게 흙을 모아 올린 것")', (4ㄱ)의 '끗(末)', (5ㄱ)의 '꼿(花)', (6ㄱ)의 '입(葉)'은 (3ㄴ)의 '구뎅이', (4ㄴ)의 '끄트머리', (5ㄴ)의 '고장', (6ㄴ)의 '이파리'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

217) 제주도 방언에 'ㅊ, ㅋ' 末音 體言語幹이 존재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대 중앙어에 나타나는 'ㅋ' 末音 體言語幹은 '녁(석보 19:22, "녘") 브싑(훈몽-초, 중:5, 브쉽;훈민-원, 해례:25, 廚, "부엌")'에서 보듯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ㅋ' 末音 體言語幹이 아니다.

언에서 體言語幹의 語幹末子音으로 'ㄷ', 'ㅌ', 'ㅈ'와 'ㅍ'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인데 이로부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들이 각각 'ㅅ' 末音 語幹과 'ㅂ'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ㄷ' 末音, 'ㅌ' 末音, 'ㅈ' 末音 및 'ㅍ' 末音 體言語幹이 적지 않게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문헌어에서는 '갇(笠) 몯(釘) 붇(筆)' 등의 'ㄷ' 末音 體言語幹이 18세기 後期에 '갓(笠) 못(釘) 붓(筆)' 등의 'ㅅ' 末音 體言語幹으로 再構造化(金完鎭, 1976:115, 郭忠求, 1980:43-48, 崔銓承, 1986:263-284)되어 현대 중앙어에서 'ㄷ' 末音 體言語幹은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도 'ㄷ' 末音 體言語幹은 나타나지 않는데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ㄷ' 末音 體言語幹이었던 형태들은 '갓(갇;훈민-원, 해례:26, 笠) 뜻(ᄠᅳᆮ;월곡 6, 意) 못(몯;석보 6:25, 釘) 붓(붇;석보 13:52, 筆)'에서 보듯 'ㅅ' 末音 體言語幹으로 再構造化되어 나타난다.[218] 또한 '빗(빋;능엄 4:31, 債, "빚") 젓, ᄌᆞᆺ, 젯(졎;능엄 7:17, 乳) 목젓(목졎;구방, 상:42, 壅), ᄃᆞᆺ(ᄃᆞᆮ;훈몽-초, 중:12, "ᄃᆞᆽ") 덧(덫;역보 44, "덫") 돗(돗ㄱ;금삼 3:24, 帆, "돛") 빗(빛;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 光) 윳("윷"), 것(갗;구방, 상:81, 皮, "겉") 끗(긑;석보 9:2, 末, "끝") 밧(밭;석보 6:19, 田) 솟(솥;두해-초 21:1, 鼎)'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중앙어의 'ㅈ, ㅊ, ㅌ' 末音 體言語幹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ㅅ' 末音 體言語幹으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젓, ᄌᆞᆺ, 젯(졎;능엄 7:17, 乳) 빗(빛;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 光) 끗(긑;석보 9:2, 末, "끝")' 등은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ㅈ,

218) 'ㄷ, ㅌ'가 'ㅅ'로 再構造化되는 방향을 중세국어 문헌어의 자음체계와 관련을 지은 것은 李秉根(1975:82) 참조. 제주도 방언의 '버데가-("벗과 더불어 함께 가다")'는 '벗+ᄒᆞ-+-어+가-("벗해서 가다")'로 분석이 가능한바 '벗(벋;석보 6:19, 友)'이 'ㄷ' 末音 體言語幹인지 'ㅅ' 末音 體言語幹인지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를 '벗+ᄒᆞ-+-어+가->*벗헤가->*벋헤가->버데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면 '순수자음+ㅎ'의 결합에서 激音化를 일으키지 않은, 제주도 방언의 特異한 예가 된다.

ㅊ, ㅌ' 末音 體言語幹이 제주도 방언에서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앙어의 'ㅍ' 末音 體言語幹인 '무릎(무뤂;법화 1:55, 膝) 잎(닢;두해-초 10:2, 葉) 짚(딮;노번, 상:19, 藁) 앞섶'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각각 '무럽(膝) 입, 섭(葉) 집, 찍(藁) 압섭("앞섶")'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ㅍ' 末音 體言語幹이 제주도 방언에서 'ㅂ' 末音 體言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알려준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앞(前) 욮(側)'을 제외하면 'ㅍ' 末音 體言語幹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에서는 'ㄷ, ㅌ, ㅈ' 末音 및 'ㅍ' 末音 體言語幹이 각각 'ㅅ' 末音 및 'ㅂ' 末音 體言語幹으로 再構造化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3ㄴ), (4ㄴ), (5ㄴ), (6ㄴ)의 예들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再構造化를 겪기 이전 시기의 흔적을 派生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語幹末子音의 摩擦音化 규칙과 語幹末子音의 中和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22) ㄷ > ㅅ / ___] N.stem
(體言語幹의 末音 'ㄷ'는 'ㅅ'로 변화한다.)

규칙(23) { ㅈ > ㅅ, ㅌ > ㅅ, ㅍ > ㅂ } / ___] N.stem
(體言語幹의 末音 'ㅈ, ㅌ'는 'ㅅ'로, 'ㅍ'는 'ㅂ'로 변화한다.)

규칙(22), (23)은 體言語幹에만 적용되며 用言語幹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차이는 中和 現象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환경 즉 單語 경계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입는 음소가 體言語幹의 語末 위치에 나타날 때에 규칙(22), (23)의 적용을 입어 그 형태가 再構造化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형태소 내부에서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형태소가 가지는 統辭論的 範疇가

음운변화의 조건이 된 셈이다. 따라서 自立形態素로서의 體言語幹이 用言語幹과 달리 규칙(22), 규칙(23)에 따라 그 형태를 再構造化한다는 通時的 사실은 경계 標識에 의한 음운론적 조건으로 설명될 것인바 순수한 음운변화 규칙은 아닌 것이다(李秉根, 1975:81-82).

동일한 構造記述을 가지는 體言語幹이라 할지라도 규칙(23)의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7) ㄱ. 나지(낮+-이, "낮이")
ㄴ. 나슬(낫+-을, "낮을")
ㄷ. 밤나슬(밤낫+-을, "밤낮을", 밤낮;월곡 33, 晝夜)
(8) 아플(앞+-을, "앞을") ᄋᆢ플(ᄋᆢᇁ+-을, "옆을")
(9) ㄱ. 나지(낮+-이, "낮에", 낮;월곡 16, 晝)
ㄴ. 아피(앞+-이, "앞에", 앒;석보 6:33, 前)
ᄋᆢ피(ᄋᆢᇁ+-이, "옆에", 녑;월석 2:17, 側)

(7ㄱ)의 '나지("낮이")', (7ㄴ)의 '나슬("낮을")'에서처럼 '낮(晝)'은 규칙(23)의 적용을 隨意的으로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8)의 '아플("앞을") ᄋᆢ플("옆을")'에서 보듯 '앞(前) ᄋᆢᇁ(側)'은 규칙(23)의 적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9)에서 보듯 '낮(晝) 앞(前) ᄋᆢᇁ (側)' 등이 가지는 統合的 성격을 고려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들은 處所性의 體言語幹들인바 語幹과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생략을 모르는 處格 助詞 '-이(<*-의, "-에")'와 주로 결합하는 語幹들이다. 그런데 統辭論的 變形을 요구하는 形成素들이 그 變形에 따라 表面化하는 음운론적 과정은 다시 下位 範疇 또는 下位 系列에 따른 相異한 程度(degree)를 보일 수 있다는 假說(李秉根, 1975:87)은 處格 助詞가, 다른 曲用語尾들과 相異한 統辭論的 變形에 의하여 음운론적 과정이

相異한 程度를 보이면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해 준다. 음운변화에 있어서 이러한 동일한 系列(또는 範疇)의 下位 範疇들 사이의 程度의 차이가 음운변화를 規制하여 '낮(晝)'의 경우에서처럼 규칙(23)의 적용을 제한된 환경에서 隨意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거나 '앞(前) 욮(側)'의 경우에서처럼 심지어 이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ㄷ)의 '밤나슬("밤낮을")'은 어휘 구성이 관련되어 규칙(23)의 적용을 必須的으로 보인 것이다.

(10) ㄱ. 우(웋;석보 9:3, 上, "위")
ㄴ. 우카름(*웋+가름, "한 마을에서 윗녘에 위치한 동네")
ㄷ. 우터레(*웋+-더레, "위로")

(10)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ㅎ' 末音 體言語幹이었던 것인데 (10ㄷ)의 '우터레("위로")'에서처럼 '-터레'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도 'ㅎ' 末音 體言語幹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더레(산+-더레, "산으로"), 서월러레(서월+-러레, "서울로") 서러레(西+-러레, "西로"), 뒤터레(뒤+-터레, "뒤로")'는 제주도 방언의 向格 助詞 '-더레("-으로")'가 음운론적으로 특이한 異形態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19) '-더레'는 純粹

219) 제주도 방언에서 向格 助詞 '-더레'는 語頭音節의 모음이 교체되어 '-드레, -데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음운론적인 교체를 바탕으로 推論해 볼 때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與格 助詞 '-ᄃᆞ려'와 관련될 듯하다. 하지만 人性名詞와 결합되는 문헌어의 '-ᄃᆞ려'와, 無情物과 결합되는 제주도 방언의 '-더레'의 統辭論的 差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姜根保(1977:14-16)에서는 '이것드레 담아불라("이것에 담아버려라") 야이드레 ᄀᆞ라불라("이 아이에게 말해버려라")'로부터 無情物에 결합되는 '-드레'와 有情物에 결합되는 '-드레'를 구분하고 前者는 處格을, 後者는 與格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강정희(1984:65-67)에서는 이 '-더레'를 處所性의 명사 '듸/딕'와 관련을 지어 '-더레'의 異形態들을 '-레' 앞에서 모음의 교체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子音 末音 體言語幹 뒤에, '-러레'는 'ㄹ' 末音 體言語幹이나 開音節 體言語幹 뒤에 연결된다. 일종의 'ㄷ'變則을 보이는 助詞인 셈이다.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이전 시기에 'ㅎ' 末音을 가졌던 體言語幹 뒤에는 다른 純粹子音 末音 體言語幹과 마찬가지로 '-더레'가 연결되었는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ㅎ' 末音 體言語幹은 共時的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더레'의 형태론적 異形態로 '-터레'를 설정해야 할 듯하다. '뒤터레(뒤+-터레) 뒤러레(뒤+-러레)' 등에서 보듯 '-터레'가 隨意的으로 '-러레'로 교체되기도 함은 제주도 방언에서 'ㅎ' 末音 體言語幹이 開音節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보여준다.

규칙(23)에서 보인 體言語幹과 동일한 語末子音을 가진 用言語幹 즉 'ㅌ' 末音 用言語幹과 'ㅍ' 末音 用言語幹은 用言語幹末 'ㅡ'탈락 규칙에 類推되어 語幹末에 'ㅡ'를 보탠 형태로 再構造化되었다.

(11) 마트-(맡-;석보 19:17, 臭)
　　지트-(딭-;노번, 하:24, 濃, "질다")
(12) 노프-(높-;석보 6:2, 高) 어프-(엎-;금삼 3:14, 覆)
　　지프-(깊-;용가 1:14.9, 深)

(11)의 '마트-(臭) 지트-(濃)'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ㅌ' 末音을 가졌던 用言語幹이며 (12)의 '노프-(高) 어프-(覆) 지프-(深)'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ㅍ' 末音을 가졌던 用言語幹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아판(아프-+-안, 痛, "아파서")' 등에서 보이는 用言語幹末 'ㅡ'탈락 규칙(拙稿, 1988:17-26)에 類推되어 語幹末에 'ㅡ'를 보태 2音節語로 語幹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ㅌ' 末音 및 'ㅍ' 末音 用言語幹이 존재했

었음을 보여준다.[220] 제주도 방언에서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은 語幹末子音이, 'ㅎ'를 제외한 激音이거나 子音群일 때 일어난다(子音群의 경우는 後述). 그런데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들은 '머그지, 먹지(머그-+-지, 食, "먹지") 시느지, 신찌(시느-+-지, 履, "신지") 트드지, 틑지(트드-+-지, 摘, "뜯지") 거르지, 걷지, 걸지(거르-+-지, 步, "걷지") 시므지, 심찌(시므-+-지, 捕, "잡지") 이브지, 입지(이브-+-지, 着, "입지") 우시지, 웃지(우시-+-지, 笑, "웃지") 느지지, 늦지(느지-+-지, 晩, "늦지")'에서 보듯 用言語幹末 자음이 激音이나 子音群이 아닐 경우에도 隨意的으로 語幹末에 'ㅡ'를 삽입하여 發話하기도 하는데 이로 보아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 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221]

(11), (12)로부터 다음과 같이 用言語幹末 類推變化 규칙을 設定할 수 있다.

규칙(24) $\emptyset > ㅡ / \left\{ \begin{matrix} ㅌ \\ ㅍ \end{matrix} \right\}$ ___ $]_{\text{V.stem}}$

('ㅌ, ㅍ' 末音 用言語幹은 語幹末에 'ㅡ'가 삽입된다.)

---

220) 金洪植(1977:43)에서는 방언학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제주도 방언이 古形을 유지할 것이라는 前提에서 제주도 방언의 형태를 더 기원적인 것으로 보아 중앙어에서 語幹末 'ㅡ'가 탈락한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에서 기원적으로 'ㅌ' 末音 및 'ㅍ' 末音 用言語幹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ㅇ' 末音, 'ㅋ' 末音 用言語幹은 존재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잉으-(이-;월곡 34, 戴, "이다")'는 이전 시기에 'ㅇ' 末音 用言語幹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鼻音 'ㅇ'이 삽입된 것일 가능성이 짙다.

221) 젊은층의 제주도 방언화자들도 'ㅎ' 末音 用言語幹의 경우에는 語幹末 'ㅡ'를 삽입하여 發話하지 않는다. '조치(좋-+-지, "좋지")'가 '조흐지'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다.

규칙(24)는 'ㅌ, ㅍ'의 激音을 末音으로 가진 用言語幹에뿐 아니라 이와 構造記述을 달리하는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진 用言語幹에도 적용되는바(後述) 이 類推的 변화는 屈折 系列의 下位 範疇인 活用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 曲用 系列에는 이 변화가 기피된다. 그러므로 이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通時的으로 작용한 음운론적 과정인 셈이다.

규칙(24)와 관련하여 活用 系列의 下位 系列 또는 下位 範疇들이 統辭論的 變形에 따라 表面化하는 음운론적 과정이 相異한 程度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13) ㄱ. 지트우꽈(지트-+-으우-+-꽈, 濃, "짙습니까?")
　　　노푸우꽈(노프-+-으우-+-꽈, 高, "높습니까?")
　　ㄴ. 짇쑤꽈(짙-+-쑤-+-꽈, "짙습니까?")
　　　놉쑤꽈(높-+-쑤-+-꽈, "높습니까?")

제주도 방언에서 相對尊待 先語末語尾는 선행하는 語幹이 開音節 語幹이면 '-으우-'가, 閉音節 語幹이면 '-쑤-'가 결합되는바 (13ㄱ)에는 '-으우-'가, (13ㄴ)에는 '-쑤-'가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지트-(濃) 노프-(高)' 등은 규칙(24)의 적용을 必須的으로 겪었으면서도 (13)에서처럼 相對尊待 先語末語尾 앞에서는 규칙(24)의 적용을 隨意的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活用語尾 系列의 相對尊待 先語末語尾라는 下位 範疇가 동일한 系列의 다른 活用語尾들과 統辭論的 變形에서 相異한 程度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相異한 程度가 統辭論的 變形에 따라 表面化하는 음운론적 과정에서의 차이를 보이게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派生이라는 形態論的 範疇에서는 규칙(22), (23)이 적용되지 않았다.

(14) ㄱ. 구뎅이(*굳+-엉이, "구덩이", 굳;법화 1:168, 坑)
ㄴ. 끄트머리(*끝+*-으머리, "끄트머리", 긑;석보 9:2, 末)
(15) ㄱ. 고장(*곶+-앙, "꽃", 곶;훈민-원, 해례:18, 花)
ㄴ. 이파리(*잎+-아리, "이파리", 닢;두해-초 10:2, 葉)

(14), (15)에서 보는 대로 派生語는 규칙(22), (23)의 실현을 모르는데 이는 派生과 屈折이라는 系列的 관계가 음운변화의 실현에 각각 달리 조건되었기 때문이다. 派生이 屈折에 비하여 음운변화에서 保守的임을 보여준다.

규칙(22), (23)은 體言語幹에, 규칙(24)는 用言語幹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따라서 이들 규칙들은 統辭論的 範疇化를 요구하는바 음운론적 層位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음운론적 層位에서도 관여하는 규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同一한 계열의 자음을 語幹末에서 회피한다는 점에서 通時的으로 共謀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22)-(24)에서는 변화에 관련된 음소가 차지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가 음운변화의 제1조건으로 관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3.4.2 子音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ㄱㅅ, ㄹㄱ, ㄹㅁ, ㄹㅸ, ㄹㅅ, ㄹㆆ, ㅁㄱ, ㅂㅅ, ㅅㄱ, ㅅㄷ' 등의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진 語幹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用言語幹의 경우에 나타나는 'ㄹㄱ, ㄹㅁ, ㄹㅂ' 子音群 末音 語幹을 제외하고 體言, 用言에 관계없이 子音群 末音 語幹은 나타나지 않는다(拙稿, 1988:18).[222]

---

222) 'ㄹㅂ' 末音 用言語幹은 'ㄹㅸ' 末音 用言語幹에 기원하는데 이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진 語幹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우' 末音 語幹으로의 再構造化(3.1. 참조)를 隨意的으로 겪어 'ㄹㅂ' 末音 語幹과 共存하고 있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語幹末 子音群은 이들 10개 이외에 몇개 더 있다. 문헌어에 존재했던 'ㄴㅈ'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지 않는데 '아지-, 앉-(坐) 여지-("얹다")'로도 실현되는 제주도 방언의 '앚-(앉-;용가 1:11.7, 坐) 엿-(엿-;석보 13:17, 엱-;월곡 76, "얹다")'는 문헌어의 형태보다 기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어의 '앉-(坐) 얹-("얹다")'는 '앚-'와 '*엊-'에 鼻音 'ㄴ'가 삽입(李基文, 1964)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ㅁㄱ' 子音群 末音 語幹으로 특수한 교체를 보이던 형태인 '붊(남명, 하:71, 爐, "불무")'은 제주도 방언에서는 語幹末 '-이'의 첨가가 관여하여 '불미'로 나타난다. '불미'의 경우 제주도 방언에서 語幹末 'ㄱ'의 흔적을 보이는 형태는 찾기 어렵다. 단지 '불망굴("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벌겋게 된 것")'은 '*불뭑+*-올'로의 再構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로부터 語幹末 'ㄱ'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보면 語中의 'ㅇ[ŋ]'은 'ㄱ' 앞에 삽입된 鼻音인 셈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에는 'ㅁㅊ' 末音 語幹이 존재했었는데 제주도 방언의 '옴치라커-(*옴치락+허-, "오므라져 보이다", 옮-;두해-초 16:14, 縮)'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듯하다. 'ㄴㅎ' 子音群 末音 語幹은 중앙어와의 비교로부터 그러한 語幹이 기대되는 형태에서도 '아녀-(아니+허-, "않다") 끈-(긇-;자휼 1, 絶, "끊다")'와 같이 子音群 末音 語幹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주도 방언에 'ㄴㅎ' 子音群 末音 語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 'ㄴㅎ' 末音 語幹으로 '점잖-(不妨) 괜찮-(無妨)'가 나타나기도 하나 이는 아마도 중앙어의 영향일 듯하다.

이 節에서는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어떠한 子音群 末音 語幹이 존재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분포상의 제약이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 子音群 末音 語幹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論文에서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와 제주도 방언의 형태를 비교하는 비교방법에 주로 의존하는데 子音群 末音 語幹의 변화에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를 언제나 기원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子音群 末音 語幹의 변화에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가 기원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逆으로 제주도 방언의 형태가 기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느 것도 기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운변화에서 保守的 경향을 보여주는 派生語 및 複合語를 통하여, 또는 현대 제주도 방언의 共時的인 교체형으로부터의 內的 再構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子音群 末音 語幹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派生語나 複合語 또는 內的 再構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언어사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 節에서는 派生語나 複合語 또는 內的 再構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子音群 末音 語幹에 한하여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졌던 語幹이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서도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졌던 語幹이었을 것으로 假定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子音群 末音 語幹의 변화에 있어서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와 제주도 방언의 형태 중에 어느 것이 기원적인 형태인지를 판단할 때 음운변화의 自然性을 고려함은 물론이다.

먼저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子音群 末音 語幹을 제시한다.

(16) ㄱ. 갉-(ᄀᆞᆰ-;구방, 상:66, 刮, "갉다")
긁-, 흙-(긁-;석보 6:32, "긁다")
긁-(긁-;월석 7:18, 搔) 늙-(늙-;용가 9:33.82, 老)
ᄆᆞᆰ-(ᄆᆞᆰ-;석보 9:4, 淸, "맑다")
ᄇᆞᆰ-(ᄇᆞᆰ-;석보 9:35, 明, "밝다")
ㄴ. 익-(닑-;월석 17:42, 讀, "읽다")

(17) 곪-(곪-;구방, 상:86, 膿) 굶-(굶-;두해-초 25:27, 飢)

닮-("닮다") 숢-(솖-;월석-중 23:80, 烹, "삶다")
졈-(졈-;법화 5:120, 少, "어리다")
(18) ㄱ. 뚧-(듧-;법화 6:154, 穿, "뚫다")
볿-(볿-;석보-중 11:1, 踏, "밟다")
얇-("얇다") 쫇-(뎌ᄅ-;법화 2:168, 短, "짧다")
ㄴ. 넙-(넙-;석보 13:9, 廣, "넓다")

(16)-(18)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 실현되는 子音群 末音 語幹인바 用言語幹에 한하여 (16)은 'ㄹㄱ' 子音群 末音 語幹이, (17)은 'ㄹㅁ' 子音群 末音 語幹이, (18)은 'ㄹㅂ' 子音群 末音 語幹이 실현됨을 보여준다. (16ㄴ)의 '익-(讀)'는 중앙어의 子音群 末音 語幹이 제주도 방언에서 항상 子音群 末音 語幹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18ㄴ)에서 보듯 중앙어에서는 'ㄹㅂ' 末音 用言語幹인 '넓-(廣)'가 제주도 방언에서는 '넙-'로 실현된다. 金完鎭(1973b:57)에서는 문헌어의 '넙-(석보 13:9, 廣)'와 '너르-(능엄 2:7, 寬)'의 共存에서 현대국어의 '넓-'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同義의 두 語形이 言衆의 의식 속에 竝置되어 있을 때 그들 두 語形의 混淆로 제3의 語形이 등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은 아직 '넙-'와 '너르-, 널르-'의 混淆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이들 'ㄹㄱ, ㄹㅁ, ㄹㅂ' 子音群 末音 語幹은 共時的인 子音群單純化 규칙의 적용을 입는바 이들 語幹에 자음계 語尾가 결합되면 '목고(몱-+-고, "맑고") 목지(몱-+-지, "맑지") 몰간(몱-+-안, 淸, "맑아서"), 솜고(숢-+-고, "삶고") 솜지(숢-+-지, "삶지") 솔만(숢-+-안, 烹, "삶아서"), 똡고(뚧-+-고, "뚫고") 똡지(뚧-+-지, "뚫지") 똘반(뚧-+-안, 穿, "뚫어서")' 등에서 보는 대로 선행하는 'ㄹ'가 탈락하며 'ㄹ'를 후행하는 자음이 表面에 실현된다.

語幹末 子音群은 單語 경계 '##' 앞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자음

을 탈락시킨다. 이는 子音群單純化 규칙이 관여한 것인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 子音群單純化 규칙이 通時的으로 관여하여 語幹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19) ㄱ. 돗(돐;내훈-초 1:58, 周年, "돌")
　　ㄴ. 주낫("줄낚시", 낛;훈민-원, 해례:21, 釣, 낙줄;구방, 상:48, 낛줄;두해-초 20:27, "낚싯줄")[223]

(20) ㄱ. 돗(도ᇧ;금삼 3:24, 帆, "돛")
　　숫(수ᇧ;월석-중 23:92, 炭, "숯")
　　ᄑᆞᆺ(ᄑᆞᆺㄱ;구방, 하:21, ᄑᆞᇧ;구방, 하:88, 小豆, "팥")
　　ㄴ. 집지실(집기ᄉᆞᆰ;능엄 2:28, "처마기슭")[224]

(21) ㄱ. 낙베("낚싯배", 낛;훈민-원, 해례:21, 釣)
　　싹(ᄉᆞᆪ;박번, 상:11, "삯")
　　싹(ᄉᆞᆪ;원각, 상1-2:14, ᄉᆞᆨ;원각, 상2-2:118, 芽)
　　석(셗;원각, 서:8, 轡, "고삐")[225]
　　ㄴ. 깝(값;법화 2:187, 價, "값")
　　ㄷ. ᄃᆞᆨ(ᄃᆞᆰ;월석 1:46, 鷄, "닭")[226]

---

223) '주낙(釣)'으로도 실현된다. 이는 규칙(26)이 적용된 것이다. 한편 '낙시("낚시")'는 '*낛+-이'의 구조를 가진 것이다.

224) 이와 관련된 형태로 '지슬물(기ᄉᆞᆰ믈;훈몽-초, 하:8, 溜, "기스락물")'이 나타나는데 朴用厚(1960)에는 '지신물'로도 나타난다. 그런데 '기ᄉᆞᆰ(법화 2:106, 簷)'은 문헌어의 '기스심(박번, 상:68, 기ᄉᆞᆰ섬;신합, 상:23, "댓돌")'을 통해서 볼 때 후행하는 자음이 탈락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ㄱ' 子音群 語幹이 子音群單純化를 겪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225) 중앙어의 'ᄆᆞᆪ(목;석보 6:26)'은 제주도 방언에서 '직시'로 나타난다.

226) 'ᄃᆞᆨ(鷄)'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ㄹㄱ' 末音 語幹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ㄹㄱ' 末音 語幹의 흔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派生語에서도 'ᄃᆞ케치(ᄃᆞᆨ+헤치, "닭띠") ᄃᆞᆨ세기(ᄃᆞᆨ+-세기, "달걀")'에서처럼 子音群單純化를 겪은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河野六郎(1945)에도 이는 'ᄃᆞᆨ("닭") ᄃᆞ근(ᄃᆞᆨ+-은, "닭은") ᄃᆞ기(ᄃᆞᆨ+-이, "닭이")'에서처럼 單子音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된 형태만을 보여준다. 'ㄹㄱ' 末音 語幹으로 玄

칙, 곡(츩;훈몽-초, 상:4, 葛, "칡")[227]
ㄹ. ㅇ덥(여듧;세훈민 3, 八, "여덟")[228]

중세국어 문헌어와 비교해 볼 때 (19)-(21)의 예들은 子音群 末音 語幹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單子音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음을 보여준다. (19)의 예들은 語幹末 子音群에서 앞자음이 탈락하여, (20)은 뒷자음이 탈락하여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單子音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된 것이다. (21)은 제주도 방언의 語幹末 子音群單純化가 [grave] 資質과 관련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인데 (21)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grave]의 자음을 남기고 [-grave]의 자음을 탈락시킨 형태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子音群單純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25) $C > \emptyset$ / ___ C] $_{N.stem}$
(體言語幹末의 두 자음의 連鎖에서 앞자음이 탈락한다.)
규칙(26) $C > \emptyset$ / C ___] $_{N.stem}$
(體言語幹末의 두 자음의 連鎖에서 뒷자음이 탈락한다.)
규칙(27) $C > \emptyset$ % C] $_{N.stem}$
[+grave]
(體言語幹末의 두 자음의 連鎖에서 [-grave] 자음이 탈락한다.)

(19)는 규칙(25)가, (20)은 규칙(26)이, (21)은 규칙(27)이 적용되어 再構造化된 것이다.[229] (19ㄴ)의 '주낫(釣)', (21ㄱ)의 '낙베

平孝(1962)에 '까닥, 까닭(由)'이 나타난다. 小倉進平(1944)의 '돌, 독(石)'과 玄平孝(1962)의 '돌멩이, 동멩이("돌멩이")'는 이 형태가 이전 시기에 'ㄹㄱ' 子音群 末音 體言語幹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27) '칙'은 뿌리를, '곡'은 줄기를 가리킨다.
228) 玄平孝(1962)에는 'ㅇ돏'로 나타나기도 한다.

("낚싯배") 싹("삯") 싹(芽) 석(轡)'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ㄱㅅ' 末音 語幹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인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單子音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子音群單純化에서 (19ㄴ)과 (21ㄱ)의 예가 보여주는 방향의 차이는 규칙(25), (27)의 通時的 適用 順位와 관련된다. 즉 규칙(25)가 규칙(27)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서 있다는 것인데 (19ㄴ)의 예는 규칙(25)의 적용을 받아 먼저 再構造化를 겪었던 것이고 이후에 이 규칙이 규칙(27)로 바뀌면서 (21ㄱ)의 예들이 이의 적용을 받아 再構造化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음운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의 환경을 가지는 모든 형태가 일률적으로 그 변화 규칙의 적용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假說(金完鎭, 1963:26-27)이 前提된다. (20ㄴ)의 '집지실("처마기슭")'과 (21ㄷ)의 '독(鷄) 칙(葛)'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ㄹㄱ' 末音 語幹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인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單子音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20ㄴ)의 예는 규칙(26)이, (21ㄷ)의 예는 규칙(27)이 적용된 것인바 역시 子音群單純化에서 (20ㄴ)과 (21ㄷ)의 예가 보여주는 방향의 차이는 규칙(26)과 규칙(27)의 史的 順位가 관련된다. (20ㄱ)의 '돗(帆) 숫(炭) 풋(小豆)'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ㅅㄱ' 末音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語幹들인데 현대 제주

229) 규칙(26)은 '셕(셗#, 훈몽-초, 중:13, 轡, "고삐") 업거늘(없-+-거늘, 용가 4:7.20, 無, "없거늘") 밧(밗#, 훈몽-초, 상:18, 外, "밖") 갓고(갃-+-고, 석보 6:12, 剪, "깎고")'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자음이 共鳴音이 아닐 때 나타나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共時的인 子音群單純化 규칙과 거의 동일하다.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계 子音群 末音 語幹은 '츩(츩#, 훈몽-초, 상:4,葛, "칡") 옮거늘(옮-+-거늘, 금삼 3:24, 遷, "옮거늘") 볿디(볿-+-디, 월석-중 21:119, 踏, "밟지")'에서처럼 子音群單純化를 겪지 않는다(李基文, 1972a:132-133, 宋喆儀, 1987:331-334). 하지만 '옴도다(옮-+-도다, 두해-초 20:26, 移, "옮도다")' 등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ㄹㅁ' 子音群 末音 語幹이 子音群單純化를 겪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도 방언에서 이들은 규칙(26)의 적용을 입어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다. 이들은 현대 중앙어에서는 'ㅊ' 末音 또는 'ㅌ'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는데 제주도 방언이 중앙어에서처럼 'ㅊ' 末音 또는 'ㅌ' 末音 語幹으로의 再構造化를 겪은 후에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는지 아니면 이전 시기에 규칙(26)의 적용을 받아 직접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語幹이 處格 助詞와 결합하는 양상은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다. 제주도 방언의 處格 助詞 '-에'는 異形態로 '-예, -이, -디' 등을 가지는데 '시네(신+-에, 履, "신에") 귀예(귀+-예, 耳, "귀에") 보미(봄+-이, 春, "봄에")' 등에서 보는 대로 '-예'는 'ㅣ'로 끝나는 語幹 아래에, '-이'는 '그전(其前) 낮(晝) 봄(春) 집(家) 앞(前)' 등의 語幹 아래에 결합된다. '-예'는 同器官的 滑音이 삽입된 것이며 '-이'는 중세국어 문헌어의 特異處格 助詞 '-의'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리고 '-디'는 '받디(밧+-디, "밭에", 밭;석보 6:19)' 등에서처럼 중앙어의 'ㅌ' 末音 語幹에 대응하는 語幹 아래에 결합된다. 그런데 'ᄑᆞ세(ᄑᆞᆺ+-에, "팥에")'는 'ᄑᆞᆮ디'로 실현되지 않는바 제주도 방언의 'ᄑᆞᆺ(小豆)'이 'ㅌ' 末音 語幹인 'ᄑᆞᇀ'으로 再構造化된 이후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230] 요컨대 규칙(24)-(26)은 構造變化를 같이하는

---

230) 중앙어에서의 '도ᇧ>돛(帆), ᄉᆞᇧ>숯(炭), ᄑᆞᆺㄱ>ᄑᆞᆾ(>팥, 小豆)' 등의 변화는 방언 借用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중세국어 時期에는 'ㅅㄱ' 末音 語幹과 'ㅊㄱ' 末音 語幹이 음운론적으로 구별되지 않았지만, 音節末 위치에서 'ㅅ, ㅈ'를 비롯한 모든 자음이 제대로의 音價를 가지고 있었던 時期에는(李基文, 1972a:69) 'ㅅㄱ' 末音 語幹과 'ㅊㄱ' 末音 語幹이 음운론적으로 구별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므로 문헌어의 '도ᇧ, ᄉᆞᇧ, ᄑᆞᆺㄱ' 등은 기원적으로 'ㅊㄱ' 末音을 가진 語幹 즉 '*돛ㄱ, *숯ㄱ, *ᄑᆞᆾㄱ'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語幹들이 通時的으로 子音群單純化 규칙(26)의 적용을 입어 再構造化되면 '돛, 숯, ᄑᆞᆾ'으로, 通時的으로 子音 中和 규칙의 적용을 입

通時的 규칙이지만 同一한 時期의 규칙이 아니라 史的 順位를 달리하는 규칙인바 이들은 體言語幹이라는 統辭論的 範疇의 明示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形態音韻 규칙인 것이다.

(22) ㄱ. ᄑᆞᆺ(ᄑᆞᆺㄱ;구방, 하:21, ᄑᆞᆺ;구방, 하:88, 小豆, "팥")

ㄴ. 돋자리("돗자리", ᄃᆞᇧ;능엄 1:29, 席)

받자리("바깥자리", 바ᇧ;월석 2:53, 外, "밖")

(23) ㄱ. 낭(나ᇚ;석보 6:26, 木, "나무")

ㄴ. 남신(나모신;남명, 하:8, "나막신") 보리남뎅이("보릿대")

(24) 엇-(없-;월곡 137, 無)[231]

(22)는 규칙(26)이 관여한 형태인데 (22ㄴ)의 '돋자리("돗자리") 받자리("바깥자리")'에서 보는 대로 複合의 경우에도 규칙 적용에서

어 再構造化되면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相異한 변화가 공간적으로 투영되면 'ᄃᆞᆺ, ᄉᆞᆺ, ᄑᆞᆺ'을 쓰는 지역과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을 쓰는 지역이 나누어지는데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을 쓰는 지역에 'ᄃᆞᆺ, ᄉᆞᆺ, ᄑᆞᆺ'을 쓰는 지역으로부터 이 語幹들이 借用되면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과 'ᄃᆞᆺ, ᄉᆞᆺ, ᄑᆞᆺ'이 雙形語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을 쓰는 지역으로 여겨지는 중앙어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 語幹들 중에 'ᄑᆞᆺ(小豆)'만이 借用되었고 'ᄃᆞᆺ(帆) ᄉᆞᆺ(炭)'은 후대에 借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세국어 중앙어에 나타나는 'ᄑᆞᆺㄱ(구방, 하:21) ᄑᆞᆺ(구방, 하:88)'과는 달리, 'ᄃᆞᇧ, ᄉᆞᇧ'과 雙形語를 이루고 있어야 할 'ᄃᆞᆺ, ᄉᆞᆺ'의 형태가 중세국어 시기의 중앙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돗티나(增修無寃錄諺解 1.27b) 숫치라(增修無寃錄諺解 1.21a)'에서처럼 18세기에 가서야 이 형태가 나타나기(郭忠求, 1980:55-57) 때문이다. 이후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과 'ᄃᆞᆺ, ᄉᆞᆺ, ᄑᆞᆺ'이 雙形語를 이루고 있었던 중앙어에서는 후대에 'ᄃᆞᇧ, ᄉᆞᇧ, ᄑᆞᆺㄱ'의 형태의 소멸로 현대 중앙어에서는 'ᄃᆞᆺ, ᄉᆞᆺ, ᄑᆞᆺ(>팥)'만이 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ᄑᆞᆺ>팥'의 변화는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ㅅㄱ' 子音群 末音 語幹들을 방언분화형들과 관련지어 이전 시기의 형태를 再構한 것은 李丞宰(1983) 참조.

231) 현대 제주도 방언에 'ㅄ'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으로 '가없-'가 나타난다.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바꼇(밗;월석 2:53, 外, 밧겻ㅌ;어해-남 17, "밖")'과 玄平孝(1962)의 '밖긔("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말")'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ㅅㄱ' 子音群 末音 語幹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23)도 역시 규칙(26)이 적용된 것인데 (23ㄱ)의 '낭(木)'과 (23ㄴ)의 '남신("나막신") 보리남뎅이("보릿대")'의 '남'이 子音同化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子音同化 규칙과 규칙(26)이 史的 順位를 달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子音同化를 보여주는 (23ㄱ)의 '낭(木)'은 제주도 방언에 'ㅁㄱ' 末音 語幹이 존재했었음을 알려준다. 玄平孝(1962)에 '남, 나모, 나무'가 나타난다. 한편 '궁기(굶;월석, 월인석보서:21, 穴, "구멍")'는 語幹末 '-이'의 첨가를 겪은 것인데 이는 '구멍, 고망, 구녁, 고냥'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24)의 '엇-(無)'는 규칙(25)가 적용된 것인데 用言語幹이 이 변화를 겪었음이 특이하다. 이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잇-(잇-;석보 6:13, 有)'에 類推되어 '엇-'로 再構造化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고동호;1993:11).[232]

子音群單純化에 있어서 用言語幹은 규칙(25)-(27)의 적용을 모른다. 用言語幹의 경우에는 用言語幹末 'ㅡ'탈락 규칙에 類推되어서 語幹末에 'ㅡ'를 보탠 형태로 再構造化가 일어났다.

(25) ㄱ. 가끄-, 까끄-(갉-;월곡 120, 剪, "깎다")
거끄-, 꺼끄-(겄-;월곡 62, 切, "꺾다")
저끄-, 겨끄-(겼-;월석 7:25-26, 經, "겪다")
나끄-(낛-;금삼 3:60, 낛-;두해-초 16:14, 釣, "낚다")
다끄-, 따끄-(닭-;석보 9:35, 修, "닦다")
무끄-(묽-;능엄 5:8, 束, "묶다")[233]

---

232)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엇-(無)'를 중세국어 문헌어의 子音群單純化 방향과 관련지은 것은 李秉根(1975:77, 註11) 참조.
233) 玄平孝(1962)에 '뭇-("단체나 동아리를 꾸미다")'가 나타난다. '무끄-

보끄-(ᄇᆞᆩ-;능엄 2:126, 熬, "볶다")
ᄋᆞ끄-(엮-;석보 13:53, 編, "엮다")
ㄴ. 주끄-, 주치-, 지꾸-, 지끼-(*즞-+*-그-, 즞-;법화 2:113, 吠, "짖다")
부끄-, 푸끄-(*붗-+*-그-, 붗-;금삼 5:4, 扇, "부치다")
시끄-(*싳-+*-그-, "시치다")
바끄-(*ᄇᆞᇀ-+*-ᄀᆞ-, ᄇᆞᇀ-;두해-초 8:31, 唾, "뱉다")
서끄-, 서트-(*섵-+*-그-, 섞-;월석 2:49, 雜, "섞다")[234]
허끄-, 허트-(*헡-+*-그-, 흗-;월석 10:81, 散, "흩다")
더끄-(*덮-+*-그-, 둡덮-;능엄 7:54, "두둔하며 덮다")[235]
ㄷ. 시끄-, 시르-, 실르-(*싣-+*-그-, 싣-;석보-중 11:13, 載, "싣다")

(26) ㄱ. ᄀᆞ뜨-(ᄀᆞᇀ-;두해-초 7:39, 同, "같다")
부뜨-(븥-;세훈민 12, 附, "붙다")
ㄴ. -ᄀᆞ찌(-ᄀᆞ티;석보 6:5, 如, "-같이")
-부떠(-브터;석보 13:54, 自, "-부터")
ㄷ. ᄇᆞ뜬지침(ᄇᆞᄐᆞᆫ기춤;동해, 상:19, "밭은기침")

(27) ᄃᆞᆼ그-(ᄃᆞᆷᄀᆞ-;구간 6:27, ᄃᆞᄆᆞ-;구간 6:69, 沈, "담그다")
싱그-, 시므-, 심-(싦-;석보 6:37-38, 시므-;석보 19:33, 植, "심다")
ᄌᆞᆼ그-(ᄌᆞᆷ-;두해-초 7:33, ᄌᆞᄆᆞ-;석보 6:2, 閉, "잠그다")

(25ㄱ), (26ㄱ), (27)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각각 'ㅅㄱ'

(束)'는 派生接尾辭 '*-ᄀᆞ/그-'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234) 문헌어의 '섞-(雜)'와의 비교는 제주도 방언의 派生接尾辭 '*-그-'가 기원적으로 '*-ㄱ-'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音節末 'ㅌ'가 中和되면 'ㄷ'로 나타나므로 문헌어의 '섞-'가 '*섵-+*-ㄱ-'에서 기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235) 제주도 방언의 '더프-(蓋)'와 '더끄-'는 의미차를 갖는데 '더끄-'는 '닫다(閉)'와 '덮다(蓋)'의 두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子音群 末音, 'ㅅㄷ' 子音群 末音, 'ㅁㄱ'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으로 推定되는 형태인데 이들은 語幹末에 'ㅡ'가 삽입되어 2音節語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用言語幹末 類推變化 규칙을 세워볼 수 있다.

규칙(28) ø > ㅡ / C C ___]V.stem
[-voc]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은 선행자음이 純粹子音일 때 語幹末에 'ㅡ'가 삽입된다.)

(25ㄱ), (26ㄱ), (27)의 예들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규칙(28)의 적용을 입어 2音節語로 再構造化되었다. 규칙(28)은 激音 末音 用言語幹의 경우에 적용된 규칙(24)와 평행하다. 이 규칙은 屈折 系列의 下位 範疇인 活用에 한정되는 것으로 曲用의 경우에는 이 규칙이 기피되고 있는바 비음운론적 範疇가 이 규칙의 조건이 된 셈이다. (25ㄱ)은 'ㅅㄱ>ㄲ'의 변화와 語幹末 'ㅡ'탈락에 類推된 語幹末 'ㅡ'의 삽입을 겪어 2音節語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진 것이다.[236] (25ㄴ)은 (25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25ㄱ)과 동일한 변화를

236) 제주도 방언에서 'ㅅㄱ>ㄲ'의 변화와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 중에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ㅅㄱ>ㄲ'의 변화보다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이 먼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제주도 방언의 音素配列 構造를 고려해 볼 때 더 합리적일 듯하다. 왜냐하면 '있-(有) 깎-(剪)' 등에서처럼 語幹末 위치에 硬音을 허용하는 중앙어와 달리,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語幹末 위치에 硬音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이 'ㅅㄱ>ㄲ'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ㅅㄱ>ㄲ'의 변화에 대한 조건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ㅅ'와 'ㄱ' 사이에 음절 경계가 놓인다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벋기-, 벅기-, 버끼-, 베끼-(벗-+-기-, 脫)'에서처럼 'ㅅㄱ>ㄲ'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벋기-, 벅기-, 버끼-, 베끼-(벗-+-기-, 脫)'에서 'ㅅㄱ>ㄲ'의 변화를 隨意的으로 보여준 것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 共時的으로 나타나는 '벗-(脫)'와의 聯想에서 비롯된 것인 듯하다.

겪은 것은 아니다.[237] (25ㄴ)의 '주끄-(吠) 부끄-(扇) 시끄-("시치다") 바끄-(唾) 서끄-(雜) 허끄-(散) 더끄-(蓋)'는 語幹 '*줓-(吠) *붗-(扇) *싳-("시치다") *밭-(唾) *섵-(雜) *헡-(散) *덮-(蓋)'에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派生接尾辭 '*-ᄀ/그-'가 결합된 派生語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의 派生接尾辭 '*-ᄀ/그-'의 결합은 用言語幹 末音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을 갖는 듯하다. 이 派生接尾辭는 '아프-(*앓-+*-ᄇ-, 痛)' 등에서의 派生接尾辭 '*-ᄇ/브-'나 'ᄂ지기(ᄂᆽ-+*-옥+-이, 低)' 등에서의 派生接尾辭 '*-옥/윽'과 음운론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듯하다. (25ㄷ)의 '시끄-(載)'는 예외적으로 'ㄷ'變則動詞인 '싣-(載)'에 派生接尾辭 '*-그-'가 결합된 것이다. (26ㄱ)의 'ᄀᄄ-(同) 부ᄄ-(附)'는 문헌어와 비교해 볼 때 문헌어의 'ㅌ'에 대하여 'ㄸ'로의 대응을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들이 'ㅅㄷ' 子音群 末音을 가진 用言語幹이었던 것으로 推定된다.[238] (26ㄱ)의 'ᄀᄄ-(同) 부ᄄ-(附)'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ㅅㄷ'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이었을 것이라는 推定은 제주도 방언에서 閉音節 語幹의 末音이 硬音 'ㄸ'인 語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假定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처럼 제주도 방언에서 閉音節 語幹의 末音이 硬音 'ㄸ'인 語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假定을 세울 수 있는 것은 語幹末 위치에 硬音을 허용하는 현대국어 중앙어에서도 語幹末 위치에 올 수 있는 硬音이 'ㅆ'와 'ㄲ'에 한정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방언에 대한 記述에서 국어로서의 공통

237) 물론 (25ㄱ)의 예들을 派生接尾辭 '*-ᄀ/그-'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238) 이들을 'ㅅㄷ' 子音群 末音과 관련지은 것은 강정희(1988:10-12) 참조. 이들을 'ㅅㄷ' 子音群 末音 語幹으로 보아 문헌어의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ㅅㄷ>ㅌ'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 하면 중세국어 문헌어에 'ㅅㄷ' 子音群 末音 語幹이 '맛ㄷ-(任)' 하나밖에 없다는 特異性이 제거될 수 있다.

성을 고려하는 셈이다.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ㅅㄷ'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26ㄱ)의 'ᄀᆞ뜨-(同) 부뜨-(附)'는 규칙(28)이 적용된 후 'ㅅㄷ>ㄸ'의 변화를 겪어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 '부뜨-(附)'의 使動形 '부찌-(브티-;세훈민, 정음:12, 附, "붙이다")'와, 이와 유사한 대응을 보여주는 '고찌-(고티-;월곡 29, 改, "고치다") 구찌-(구티-;능엄 8:129, 堅, "굳히다") 바찌-(바티-;월석 2:45, 貢, "바치다")'에서 '부찌-(附)'는 語基 '부뜨-(附)'에 使動의 接尾辭 '-이-'가, '고찌-(改) 구찌-(堅) 바찌-(貢)'는 語基 '곧-(直) 받-(受) 굳-(固)'에 使動의 接尾辭 '-지-'가 결합된 것이다. '고찌-(改) 구찌-(堅) 바찌-(貢)'는 제주도 방언에서 '고치-(改) 구치-(堅) 바치-(貢)'와 雙形語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使動의 接尾辭 결합의 새질서가 형성된 데에 기인한다. 중앙어의 영향일 수도 있다. (26ㄴ)의 '-ᄀᆞ찌("-같이") -부떠("-부터")'는 語基 'ᄀᆞ뜨-(同) 부뜨-(附)'에 接尾辭가 결합된 것이다. (26ㄷ)의 'ᄇᆞ뜬지침("밭은기침")'은 문헌어의 'ᄇᆞᄐᆞᆫ기춤(동해, 상:19, "밭은기침")'으로부터 再構가 가능한 語基 '*ᄇᆞᇀ-(頻)'가 기원적으로 'ㅅㄷ'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 '*ᄇᆞᆺㄷ-'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도 방언의 'ᄇᆞ뜨-("묶은 노끈 따위가 느슨하지 않다" 또는 "숨이 가쁘다")'는 'ㅅㄷ' 子音群 末音 用言語幹 '*ᄇᆞᆺㄷ-'에 用言語幹末 'ㅡ'의 삽입을 겪은 것이다. (27)의 'ᄃᆞᆼ그-(沈) 싱그-(植) ᄌᆞᆼ그-(閉)'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特殊交替를 보이던 語幹들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語基 '*ᄃᆞᆷㄱ-(沈) *ᄉᆞᆷ-(植) *ᄌᆞᆷ-(閉)'가 규칙(28)의 변화를 겪어 'ㅡ'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되었다.[239]

---

239) 'ᄃᆞᆼ그-(沈) 싱그-(植) ᄌᆞᆼ그-(閉)'는 'ᄃᆞᆷ-(沈) 심-(植) *ᄌᆞᆷ-(閉)'에 派生接尾辭 '*-ᄀᆞ/그-'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派生接尾辭 '*-ᄋᆞᆯ/을-'이 결합되어 있는 'ᄒᆞᆼ글-(ᄒᆞᆫ들-;노번, 상:4, ᄒᆞ늘-;두해-초 22:51, 후늘-;월석-중 21:218, 搖) 앙글-, 아믈-(암ᄀᆞᆯ-;월석 10:31, 아ᄆᆞᆯ-;두해-중 1:49, 愈) 정글-, 저믈-(졈글-;두해-초 3:27, 져믈-;두해-초 8:66, 暮)'

규칙(28)과 構造記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두 음소 連鎖의 선행자음이 [+voc]의 자음일 경우에도 규칙(28)을 겪기도 한다.

(28) ㄱ. 끌르-(긇-;능엄 8:101, 沸, "끓다")
실르-(슬ᄒᆞ-;능엄 8:5, 厭)
알르-(앓-;능엄 5:74, 痛) 일르-(잃-;월석 13:18, 失)
할르-(핥-;능엄 3:9, 舐, "핥다")240)
ㄴ. 고프-(*곯-+*-ᄇᆞ-, 골ᄑᆞ-;월석 8:95, 飢)241)
슬프-(*슳-+*-브-, 슬프-;두해-초 7:3, 슳-;법화 1:83, 哀)
실프-(*싫-+*-브-, 슬ᄒᆞ-;능엄 8:5, 厭)
아프-(*앓-+*-ᄇᆞ-, 알ᄑᆞ-;월곡 119, 앓-;능엄 5:74, 痛)
(29) 똘루-(듧-;법화 6:154, 穿, "뚫다", 돌올;훈몽-초, 하:9)
볼루-(볿-;석보-중 11:1, 踏, "밟다")
설루-(셟-;월곡 139, 哀, "섧다")
얄루-("얇다") 쫄루-(뎌ᄅᆞ-;법화 2:168, 短, "짧다")

(28), (29)는 'ㄹØ>ㄹㄹ'의 변화(3.1. 참조)와 관련을 가지는 듯하다. (28)은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ㄹㅎ' 末音 用言語幹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음운론적으로 語彙化(金星奎, 1987:24-23, 宋喆儀, 1990:115-117)된 형태를 포함하는 (28ㄴ)의 '고프-(飢) 아

는 派生接尾辭 '*-ᄀᆞ/그-'의 결합과 관련된 雙形語로 볼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낭그레-, 나무레-(나ᄆᆞ라-;법화 2:213, 責)'와 문헌어의 '범글-(석보 13:38), 버믈-(월석 18:32, "버물다")', '염글-(월석 13:47), 여믈-(법화 3:12, 實)'도 이와 평행하다. 後者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버물-("버물다") 염-(實)'로 나타난다.

240) '할르-("핥다")'는 '할트-'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할트-'가 'ㄹㅌ' 子音群 語幹인 '*핥-'로부터 규칙(28)의 構造變化를 겪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훌트-("훑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41) '골차커-("먹은 것이 양에 차지 못하여 배가 곯다")'에서 'ㄹㅎ' 末音 語幹 '*곯-(飢)'를 확인할 수 있다.

프-(痛) 슬프-(哀) 실프-(厭)'를 (28ㄱ)의 '끌르-(沸) 실르-(厭) 알르-(痛) 일르-(失) 할르-("핥다")'와 비교해 보면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ㄹㅎ' 末音 用言語幹이 존재했었으며 아울러 자음 앞에서 'ㄹ'가 탈락하는 규칙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28ㄱ)의 '끌르-(沸) 실르-(厭) 알르-(痛) 일르-(失) 할르-("핥다")'는 규칙 (28), 共鳴音 사이 'ㅎ'탈락, 'ㄹØ>ㄹㄹ'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曲用 系列의 下位 系列이 相異한 統辭論的 變形에 의하여, 음운변화가 相異한 程度를 보이면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30) 끋디(끗+-디, "끝에", 긑;석보 9:2, 末)
　　 묻디(뭇+-디, "뭍에", 뭍;능엄 2:84, 陸)
　　 받디(밧+-디, "밭에", 밭;석보 6:19, 田)
　　 벧디(벳+-디, "볕에", 볕;월석 2:51, 陽)
　　 솓디(솟+-디, "솥에", 솥;두해-초 21:1, 鼎)
　　 배꼍디(배꼇+-디, "바깥에", 겯;월곡 46, 外)
(31) 마트-(맡-;능엄 8:28, 맛ㅌ-;박해, 하:2, 任, "맡다")

(30)의 '끗(末) 뭇(陸) 밧(田) 벳(陽) 솟(鼎) 배꼇(外)'은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ㅅ' 末音 體言語幹이지만 處格 助詞로 '-에'가 선택되는 다른 'ㅅ' 末音 體言語幹과는 달리 處格 助詞로 '-디'가 선택된다. 제주도 방언의 處格 助詞의 異形態 '-에, -이, -디' 중에 '-디'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ㅌ' 末音을 가졌던 語幹에 대응하는 語幹에만 결합되므로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處格 助詞 '-디'는 일종의 형태론적 異形態인 셈이다. 이 '-디'는, 제주도 방언의 處格 助詞의 다른 異形態들과 비교해 볼 때 異形態 '-이'와 관련을 가진 듯하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特異處格 助詞 '-의'에 대응하는 '-이'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ㅢ>ㅣ'의 二重母音의 변화를 겪은 것(2.2.2.4. 참

조)으로 여겨지므로 '*-의'로 再構된다. 그런데 處格 助詞 '-디'는 'ㄷ'口蓋音化를 겪지 않았는바 기원적으로 '*-듸'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이 '*-듸'는 'ㄷ+*-의'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며 'ㄷ+*-의'의 'ㄷ'는 助詞의 頭音이 아니라 선행하는 語幹의 末音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助詞를 선행하는 語幹은 處格 助詞가 결합할 때의 모습과 處格 助詞 이외의 다른 助詞가 결합할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語幹과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생략을 모르는 處格 助詞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다른 助詞들이 결합하는 경우와는 相異한 統辭論的 變形에 의하여 이와 관련되는 음운론적 과정이 相異한 程度를 보이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處格 助詞가 결합할 때의 語幹의 모습이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0)의 '끗(末) 뭇(陸) 밧(田) 벳(陽) 솟(鼎) 배꼇(外)'은 處格 助詞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볼 때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끗ㄷ(末) *뭇ㄷ(陸) *밧ㄷ(田) *볏ㄷ(陽) *솟ㄷ(鼎) *바꼇ㄷ (外)' 등의 'ㅅㄷ' 末音 體言語幹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음 語幹末子音의 변화 규칙(29)를 겪어 'ㅌ' 末音 體言語幹으로의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규칙(29) ㅅㄷ > ㅌ / ___]$_{stem}$
(語幹末 'ㅅㄷ'는 'ㅌ'로 변화한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ㅅ' 末音 語幹 '끗(긑;석보 9:2, 末, "끝")'은 '끄트머리(*끝+*-으머리, "끄트머리")'를 고려하면 규칙(29)를 겪은 '*끝'에 語幹末子音의 中和 규칙(23)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0)의 '끗(末) 뭇(陸) 밧(田) 벳(陽) 솟(鼎) 배꼇(外)'등이 규칙(29)의 적용을 입은 '*끝(末) *뭍(陸) *밭(田) *벹(陽) *솥

(鼎) '*배꼍(外)'이 語幹末子音의 中和 규칙(23)을 겪어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된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30)은 通時的으로 相異한 統辭論的 變形에 따른 음운변화의 相異한 程度를 보이면서 실현된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共時的으로는 '끗+-디' 등으로 분석되는바 處格 助詞의 형태론적 異形態 '-디'를 인정해야 한다.

(31)의 '마트-(任)'는 문헌어에서 'ㅅㄷ' 末音 體言語幹이었던 형태인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도 'ㅅㄷ' 末音 體言語幹 '*맜-'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31)의 '마트-(任)'는 '*맜-'로부터 규칙(29)의 적용을 입은 '*맡-(任)'가 用言語幹末 類推變化 규칙(24)를 겪은 것이다. 앞서 (26)의 'ᄀᄄᆞ-(ᄀᆞᇀ-;두해-초 7:39, 同, "같다") 부ᄄᆞ-(븥-;세훈민 12, 附, "붙다")'도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ㅅㄷ' 末音 語幹이었다고 했는데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 'ㅅㄷ' 末音 語幹이었던 (26)의 'ᄀᄄᆞ-(同) 부ᄄᆞ-(附)'와 (31)의 '마트-(任)'가 보여주는 차이는 규칙(29)와 규칙(28), 규칙(24)의 史的 順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 조건이 일치하는 모든 형태소가 동시에 그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라는 假說(金完鎭, 1963:26-27)이 前提됨은 물론이다. (31)의 '마트-(任)'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ㅅㄷ' 子音群을 末音으로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用言語幹인데 규칙(29)의 변화를 겪어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ㅅㄷ' 子音群 末音 語幹이 'ㅌ' 末音 語幹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26)의 'ᄀᄄᆞ-(同) 부ᄄᆞ-(附)'는 중세국어 문헌어에서는 'ㅌ' 末音 語幹이었는데 앞서 記述했듯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는 'ㅅㄷ' 子音群 末音 語幹이었다. (26)의 'ᄀᄄᆞ-(同) 부ᄄᆞ-(附)'와 (31)의 '마트-(任)'를 중세국어 문헌어의 형태와 비교해 보면 규칙(29)의 語幹末 'ㅅㄷ>ㅌ'의 변화[242] 그리고 규칙(28)과 규칙(24)의 語幹末 'ㅡ'삽입 현

242) 이 변화는 'ㅅㄷ' 子音群에서 선행하는 'ㅅ'의 音價가 관련될 듯하다.

상의 史的 順位와 관련하여 홍미로운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26)의 'ᄀᆞ뜨-(同)' 등과 (31)의 '마트-(任)'가 보여주는 차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語幹末 'ㅅㄷ>ㅌ'의 변화를 겪기 전에 語幹末 'ㅡ'삽입이 일어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用言語幹의 末音이 子音群인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어난 語幹末 'ㅡ'삽입 규칙을 겪은 (26)의 'ᄀᆞ뜨-(同)' 등과는 달리 (31)의 '마트-(任)'는 語幹末 'ㅡ'삽입을 겪지 않고 있다가 語幹末 'ㅅㄷ>ㅌ'의 변화를 겪은 뒤에 다시 用言語幹의 末音이 激音인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어난 語幹末 'ㅡ'삽입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語幹末 'ㅡ'삽입은 用言語幹 末音으로 子音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어난 규칙(28)과 激音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어난 규칙(24),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前者가 後者보다 史的 順位에서 앞선 것이 된다.[243] (30)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處格 助詞 '-디'가 결합되는 경우인데 '-디'가 중앙어의 'ㅌ' 末音 語幹에 대응하는 語幹 아래에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31)의 예와 평행하게 문헌어의 體言語幹에서도 語幹末 'ㅅㄷ>ㅌ'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0)의 예들은 기원적으로 'ㅅㄷ' 末音 語幹이었는데 문헌어에서는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규칙(29)의 변화를 겪어 'ㅌ' 末音 語幹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현대 제주도 방언에서는 규칙(23)의 적용을

243) 문헌어의 경우에는 語幹末 'ㅅㄷ>ㅌ'의 변화가 중세국어 이전 시기와 근대국어 시기의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즉 'ᄆᆞᇀ-(任)'를 제외한 'ᄀᆞᇀ-(同) 븥-(附)'는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일어난 'ㅅㄷ>ㅌ'의 변화를 겪어 'ㅌ' 末音 用言語幹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ᄆᆞᇀ-'는 이 변화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가 후대에 일어난 'ㅅㄷ>ㅌ'의 변화에 合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헌어에서 'ㄷ' 末音 語幹은 '구티-(능엄 8:129, "굳히다")'에서처럼 使動의 接尾辭로 '-히-'를 선택하는데 'ᄆᆞᇀ-'는 그 使動形이 '맛디-(월석 1:5, "맡기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이한바 이 特異性이 'ㅅㄷ>ㅌ'의 변화에서 벗어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다른 방언으로부터의 借用일 가능성도 있다.

입어 'ㅅ' 末音 語幹으로 再構造化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에서처럼 제주도 방언은 處格 助詞 '-이(<*-의)'가 결합된 형태에서 'ㅅㄷ' 末音 語幹이었을 때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셈이 된다.

규칙(25)-(27)은 體言語幹에, 규칙(28)은 用言語幹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따라서 이들 규칙들은 統辭論的 範疇化를 요구하는바 음운론적 層位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음운론적 層位에서도 관여하는 규칙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子音群을 語幹末에서 회피한다는 점에서 通時的으로 共謀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규칙(25)-(28)에서, 변화에 관련된 음소가 차지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위치가 음운변화의 제1조건으로 관여하고 있다.

第4章 結 論

이 論文은 濟州島 方言의 여러 음운변화를 음소의 분포와 관련을 지어 記述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이때의 음소의 분포란 형태소 구조 속에서의 분포를 의미하는바 선행하는 또는 후행하는 分節音과의 統合的 분포, 음운체계 속에서의 系列的 분포 등의 음운론적 요소뿐 아니라 曲用과 活用 등 文法 範疇, 어간 형태소와 접미사 형태소 등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의 음운론적 구조 속에서 변화를 입는 음소가 차지하는 위치 등의 비음운론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음운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입는 음소는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그 변화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양상 또는 결과를 같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음소가 놓인 자리에 따라 변화의 속도 또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언의 음운변화를 음소의 분포와 관련지어 記述하기 위하여 문헌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방법이나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교체 현상을 통하여 이전 시기의 형태를 再構하는 內的 再構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方言史를 밝힐 수 있게 해주는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방언에서 이 방언의 通時態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음운변화가 규칙적인 것이며 이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前提 아래, 共時的인 자료 속에 化石化되어 있는 변화의 결과를 찾아 이로부터 逆으로 변화 이전 단계의 모습을 파악해 보거나 충분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어 通時態를 어느 정도 짐

작할 수 있는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단계의 모습을 파악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문헌자료를 가지지 않은 방언의 通時態를 再構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 論文에서는 현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음운·형태론적 교체형이나 再構造化된 형태들로부터의 內的 再構를 통하여, 또한 비교적 충분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어 通時態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중앙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도 방언의 通時態를 再構해 보고 그 再構된 형태로부터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共時的으로 나타나는 음운 분포상의 제약으로부터 그 제약을 유발한 음운변화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주도 방언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변화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각 변화들의 성격을 究明해 보기도 하였다.

2章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의 분포와 관련된 음운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주도 방언의 '·'의 변화를 語頭音節에서와 非語頭音節에서로 나누어 記述하면서 각 위치에서의 변화 규칙을 설정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에 관한 한 語頭音節에서의 변화와 非語頭音節에서의 변화가 일치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제주도 방언과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單母音 및 二重母音들을 再構해 보고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제주도 방언에서 單母音 및 二重母音의 체계가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접하고 있는 脣音 또는 圓脣母音에 의한 圓脣母音化를 관찰하여 두 단계의 圓脣母音化 규칙을 설정하였다. 이로부터 어떤 음운변화 규칙의 적용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構造 記述만을 달리하는 음운변화 규칙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내부 및 형태소 경계의 母音調和를 살펴보면서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모음의 변화가 母音調和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도 알아보았다.

3章에서는 제주도 방언에 나타나는 자음의 분포와 관련된 음운변화를 살펴보았다. 중세국어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서 'ㅸ'와 'ㅿ'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태를 再構해 보고 이들 형태에서 'ㅸ'와 'ㅿ'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推定해 보았다. 그리하여 변화를 입는 음소가 가지는 형태소 구조 속에서의 분포 위치에 따라 그 변화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헌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語頭子音群이 존재했었음을 확인해 보았는바 이전 시기의 제주도 방언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語頭子音群이 중앙어와 달리 激音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함으로써 語頭子音群의 激音化 규칙을 설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방언의 語幹末子音의 변화를 單子音과 子音群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비음운론적 層位의 資質이나 範疇 표시에 의한 語幹末子音의 변화 규칙을 설정해 보았다. 이로부터 共時的인 음운현상에서뿐 아니라 通時的 음운변화에서도 음운론적 層位 이외의 다른 層位에서의 제약이 관여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운변화를 비롯한 음운현상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다. 이는 음운변화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다든지, 있더라도 그 제약조건이 일정한 음운론적인 환경에 한정된다든지 함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음운현상을 관찰해 보면 음운현상에 음운론적 層位 이외의 다른 層位에서의 제약이 발견되기도 한다. 음운현상에 統辭論的 또는 形態論的인 것들이 관여한 셈이다(李秉根, 1975:59-60).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음운론적인 제약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어떤 비음운론적인 資質 또는 範疇 표시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깊은 層位 또는 相異한 層位로부터 표면적으로는 복잡한 듯한 음운현상을 더욱 간략히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제주도 방언의 음운변화를 음소의 분포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음운변화는 규칙성과 예외성이라는 兩面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筆者는 예외성에 焦點을 두고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記述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形態論的 資質은 물론 統辭論的 範疇의 표시를 고려하였다. 이들로부터 음운변화에 있어서 음운론적 層位와 비음운론적 層位의 獨自性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운변화에 관여하는 비음운론적 層位에서 屈折 系列과 派生 系列 사이의 相似와 相違를 검토하면서 이 두 系列 사이의 獨自性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屈折 系列의 下位 系列로서 活用 系列과 曲用 系列이 음운변화에 獨自的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방언은 국어 音韻史에 있어서 古形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도 방언의 여러 음운변화를 통하여, 제주도 방언이 다른 방언에 비하여 古形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改新形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방언이 보수적인 특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첨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제주도 방언의 여러 음운변화 중에 어떠한 변화에서 제주도 방언이 보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첨단적인 특징을 보여주는지는 한 음운변화가 일어난, 즉 음운론적인 改新이 일어난 중심 지역이 국어 방언권 테두리 안의 어느 地點이었는지를 示唆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도 방언이 형태상으로는 다른 방언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만 변화에 관여하는 제약 조건 등 변화의 큰 흐름에서는 다른 방언과 그다지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바 似而不同한 방언의 본질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참 고 문 헌

姜公宅(1986),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 構造 研究, 文學碩士學位論文(濟州大).

姜根保(1977),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 - 特히 {-tŭre}를 중심으로, 논문집(제주대) 9.

______(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제주대) 10.

姜榮峯(1983), 濟州島方言의 喉音, 耽羅文化 2.

______(1986),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耽羅文化 5.

______(1991), 濟州島方言의 人體語, 京畿語文學 9.

강정희(1984),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梨花女大, 1988; 한남대 출판부).

______(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13.

______(1993), 제주 방언의 음절말 자음군의 변화, 조선어연구회 발표요지.

高永根(1993),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文學과知性社.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 43.

______(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 y系二重母音과 ə>wə變化를 中心으로 -, 方言 6.

______(1991), 咸鏡北道 六鎭方言의 音韻論, 文學博士學位論文(서울大).

金京芽(1991), 中世國語 喉音에 대한 一考察 - 脣輕音 ㅸ의 변화와 관련하여,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金光雄(1986),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에 대한 硏究, 논문집(제주대) 22.

______(1988), 濟州島 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文學博士學位論文(世宗大).

______(1990), 高母音化現象과 音韻規則 - 濟州島 方言을 中心으로, 心田 金洪植敎授 華甲紀念論叢, 제주문화.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 中世國語母音體系의 再構를 위한 方法論的試圖, 東亞文化 2.

______(1968), 中性母音 '이'에 關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金星奎(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77.

金永泰(1975), 慶尙南道方言硏究 1, 進明文化社.

金完鎭(1957), 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18.

______(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1971; 一潮閣).

______(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 4(1971; 一潮閣).

______(1967), 韓國語形成史 上, 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 5, 言語 文學史(上), 高麗大民族文化硏究所.

______(1971a),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1971; 一潮閣).

______(1971b),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一潮閣.

______(1972),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硏究 8-1(서울大).

______(1973a), 中世國語聲調의 硏究, 韓國文化硏究所(1977; 國

語學叢書 4, 塔出版社).
______(1973b), 國語 語彙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______(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 脣輕音 'ㅸ'의 境遇 –, 震檀學報 38.
______(1975a), 全羅道 方言 音韻論의 研究 方向 設定을 爲하여, 어학 2(全北大).
______(1975b),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______(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韓國研究叢書 31, 韓國研究院.
_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서울大).
______(1980), 鄕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______(1985), 母音調和의 例外에 대한 研究, 韓國文化 6.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金鍾圭(1989), 中世國語 母音의 連結制約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90.
金周弼(1985),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國語研究 68.
______(1993), 金剛經三家解, 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文學과知性社.
김지홍(1992), '-겠-'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 특히 분석 오류의 시정과 분포 확립을 중심으로 하여, 玄容駿博士 華甲紀念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出版部.
金洪植(1977), 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하여 – 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논문집(제주대) 9.
______(1984), 濟州島方言의 中間子音에 대하여, 논문집(제주대) 18.
南廣祐(1974), 圓脣母音化現象에 관한 研究, 國語學 2.

朴麐來(1993), 忠州方言의 音韻에 대한 社會言語學的 硏究, 文學博士學位論文(서울大).

朴用厚(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______(1988a), 濟州方言硏究 - 資料篇, 民族文化硏究所(高麗大).

______(1988b), 濟州方言硏究 - 考察篇, 民族文化硏究所(高麗大).

朴昌遠(1983),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硏究 54.

______(1991), 국어자음군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서울大).

______(1994), 15세기 국어 자음체계의 변화와 통시적 성격(1), 仁荷語文硏究 創刊號(仁荷大 國語國文學科).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金完鎭先生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白斗鉉(1988), 'ᄋᆞ,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圓脣母音化, 國語學 17.

______(1989), 嶺南文獻語의 通時的 音韻 硏究, 文學博士學位論文(慶北大, 1992; 太學社).

______(1992), 圓脣母音化 '·>ㅗ'型의 분포와 通時性, 國語學 22.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新聞社出版部.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宋　敏(1986), 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硏究 - 특히 口蓋音化와 ·音을 中心으로 -, 國語學叢書 8, 塔出版社.

송상조(1989), '밧그-, 붓그-'에 관한 고찰, 國文學報 9(濟州大 國語國文學科).

______(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동아대).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38.

______(1983), 派生語形成과 通時性의 問題, 國語學 12.

______(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______(1990),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文學博士學位論文(서울大, 1992; 太學社).
송하진(1987), 제주도의 고유 지명 보편소에 대하여, 張泰鎭博士回甲紀念 國語國文學論叢, 三英社.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研究, 國語研究 7.
______(1967), 韓國語發達史 中, 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5 -言語 文學史(上), 民族文化研究所.
______(1979), 中世語의 한글 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奎章閣 3.
양정호(1991),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國語研究 105.
吳廣根(1993), 15世紀 正音文獻의 母音異表記에 대한 研究 - 母音體系와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문학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出版部.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國語學叢書 11, 塔出版社.
李基文(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대하여, 震檀學報 17.
______(1959),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文理論集 4(1978; 塔出版社).
______(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______(1964), 動詞語幹 '앉-, 엱-'의 史的 考察, 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新雅社.
______(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乙酉文化社.
______(1971a), 訓蒙字會研究, 韓國文化研究所.
______(1971b), 語源 數題,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一潮閣.
______(1972a),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1978; 塔出版社).
______(1972b),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1977; 國語學

叢書 3, 塔出版社).
______(1977), 濟州島 方言의 'ᄋᆞ'에 관련된 몇 問題,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______(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 東洋學 9.
______(1980), 加波島 方言의 特徵, 延岩 玄平孝博士 回甲紀念 論叢, 螢雪出版社.
______(1983), '아자비'와 '아ᄌᆞ미', 國語學 12.
______(1985), 語源 硏究의 方法, 第一次 KOREA學 國際交流세미나 論文集(1991; 東亞出版社).
______(1986), 借用語 硏究의 方法, 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國語學新硏究, 塔出版社(1991; 東亞出版社).
______(1991), 國語 語彙史 硏究, 東亞出版社.
李秉根(1967), 中部方言의 語幹形態素 小攷, 文理大學報(서울大).
______(1970a),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1979; 塔出版社).
______(1970b),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______(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一潮閣.
______(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_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1979; 塔出版社).
______(1976a), '새갱이'의 通時音韻論, 어학 3(全北大).
______(1976b), 派生語形成과 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1979; 塔出版社).
______(1976c),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1979; 塔出版社).
______(1979a),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______(1979b), 方言研究의 흐름과 反省, 方言 1.

______(1990), 音長의 辭典的 記述, 震檀學報 70.

李相億(1979), 聲調와 音長, 語學研究 15-2(서울大).

______(1986), 모음조화와 이중모음, 若泉金敏洙教授華甲紀念 國語學新研究, 塔出版社.

李崇寧(1949), '애, 에, 외, 위'의 音價變異論, 한글 106(1988; 李崇寧 國語學選集 1, 音韻篇 1, 民音社).

______(1954a), 國語音韻論研究 第一輯 ·音攷, 乙酉文化社 (1988; 李崇寧 國語學選集 1, 音韻篇 1, 民音社).

______(1954b), 15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1(1988; 李崇寧 國語學選集 1, 音韻篇 1, 民音社).

______(1954c), 脣音攷 - 특히 脣輕音 'ㅸ'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大論文集 1(1988; 李崇寧 國語學選集 1, 音韻篇 2, 民音社).

______(195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1978; 塔出版社).

李丞宰(1977), 南部方言의 圓脣母音化와 母音體系 - 求禮地域語의 'ᄋᆞ>오'를 中心으로, 冠嶽語文研究 2.

______(1983), 再構와 方言分化 - 語中 'ㅺ'類 단어를 중심으로, 國語學 12.

______(1992), 融合形의 形態分析과 形態의 化石, 周時經學報 10.

李翊燮(1963),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 研究, 國語研究 10.

______(1972), 江陵 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 震檀學報 34.

______(1981), 嶺東嶺西의 言語分化 - 江原道의 言語地理學, 서울大 出版部.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李智凉(1993), 國語의 融合現象과 融合形式, 文學博士學位論文(서울大).

李賢熙(1987), 중세국어 '둗겁-'의 형태론, 震檀學報 63.

______(1991), 中世國語의 合成語와 音韻論的인 情報, 石靜 李承旭先生 回甲紀念論叢, 元一社.

田光鉉(1967), 十七世紀 國語의 硏究, 國語硏究 19.

______(1971),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 - 綸音諺解를 中心으로, 論文集(全北大) 13.

______(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 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考察 - 二重母音의 史的 變化와 關聯하여, 國語學 4.

______(1977), 全羅北道 益山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어학 4(全北大).

______(1978), 十八世紀 前期國語의 一考察, 어학 5(全北大).

______(1981), 全羅北道 沃溝地域語의 音韻論的 考察, 國文學論集 10(檀國大 國語國文學科).

鄭承喆(1988),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國語硏究 84.

______(1991), 音素連鎖와 非音韻論的 境界 - 濟州島方言을 중심으로, 金完鎭先生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陳泰夏(1978), 固有語化된 漢語 接尾辭 '지(子)'에 대하여, 언어학 3.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______(1978a),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______(1978b), ㅸ, ㅿ와 東南方言, 語學硏究 14-2(서울大).

______(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 出版部.

______(1985a),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論, 人文硏究 7(嶺南大).

______(1985b),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 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語學 14.

______(1987), 平北 義州地域語의 通時音韻論, 語學硏究 23-1(서울大).

______(1990), 方言,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______(1992a),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 副詞形語尾 '-아X'의 母音調和를 중심으로 -, 震檀學報 73.

______(1992b), 19世紀 後期國語의 硏究 - <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 韓國文化 13.

______(1992c), 慶尙南北道間의 方言分化 硏究, 애산학보 13.

______(1993a), 경북 방언의 모음조화 - 어휘 형태소 내부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安秉禧先生回甲紀念論叢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知性社.

______(1993b),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崔林植(1984),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文學碩士學位論文(啓明大).

崔銓承(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韓榮均(1985), 國語 音韻史에 대한 地理言語學的 硏究 - 이른바 g:Ø 대응의 해석을 중심으로, 文學碩士學位論文(서울大).

______(1990a), 母音調和의 崩壞와 '·'의 第1段階 變化, 國語學 20.

______(1990b),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의 제2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______(1991a),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過程에 대한 挿疑, 金完鎭

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______(1991b), 움라우트의 音韻史的 解釋에 대하여 - 硏究史的 檢討를 겸한 問題提起, 周時經學報 8.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7), 韓國方言資料集 3; 忠淸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1987), 韓國方言資料集 5; 全羅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1989), 韓國方言資料集 7; 慶尙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1990), 韓國方言資料集 2; 江原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1990), 韓國方言資料集 4; 忠淸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_(1991), 韓國方言資料集 6; 全羅南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許 雄(1952), '애, 에, 외, 위'의 音價, 國語國文學 1.
______(1958), 國語音韻論, 正音社.
______(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玄容駿(1957), 'ㅎ' 挿腰音에 對하여 - 濟州方言을 中心한 하나의 試考, 제주문화 창간호.
현우종(1987), 제주도 방언의 'ᄋᆞ'음가 고찰, 建國 어문학 11·12.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硏究 第一輯 資料篇, 精硏社(1985; 太學社).
______(1964a),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 韓國言語文學 2 (1985; 二友出版社).
______(1964b), 濟州島 方言 'ㅐ[ɛ]'音에 대하여, 國文學報 2(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85; 二友出版社).
______(1966), 濟州島 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 - 隨意的 變異의 異形態 -, 가람李秉岐博士頌壽紀念論叢(1985; 二友出版社).
______(1971), 濟州島 方言의 音韻, 교육제주 17(1985; 二友出版社).

______(1985), 濟州島方言研究 論攷篇, 二友出版社.

洪宗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對한 考察, 韓國國語教育研究會 論文集 8.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 卷三, 京都大學).

________(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go 12, Tokyo(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 卷三, 京都大學).

________(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東京, 岩波書店(1973; 亞細亞文化社).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鋏'語考, 京城;東都書籍(1979;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平凡社).

Anttila, 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Macmillan Publishing.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 Press.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Chamber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 Press.

Hock, H.H.(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Hooper, J.B.(1975),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Hyman, L.M.(1970), "How Concrete is Phonology", *Language* 46.

______(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enehart and Winston.

Jakobson, R.(1931), "Principle of Historical Phonology", in A.R. Keiler(1972).

Jørgensen, E.F.(1975), *Trends in Phonological Theory*, Copenhagen: Akademisk Forlag.

Keiler, A.R.(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Holt, Renehart and Winston.

Kenstowics, M. & C.W. Kisseberth(1977), *Topics in Phonologica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King, R.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iparsky, P.(1968a), "How Abstract is Phonology", in Kiparsky(1982).

_____(1968b),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Kiparsky(1982).

_____(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Kiparsky(1982).

_____(1972), "Explanation in Phonology", in Kiparsky(1982).

_____(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Publication Holland.

Lehmann W.P. & Y. Malkiel(1968),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Univ. of Texas Press.

Martinet, A.(1952), "Function, Structure and Sound Change", *Word* 8, in Keiler(1972).

Newmeyer, F.J.(1988),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ume 1; Linguistic Theory: Foundations*, Cambridge Univ. Press.

Sapir, E.(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Saussure, F.(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Trans. by

Wade Baski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Schane, S.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hibatani, M.(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

Trubetzkoy, N.S.(1969), *Principle of Phonology*(Trans. by C. Baltax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Trudgill, P.(1986), *Dialects in Contact*, Basil Blackwell.

Wang, W.S-Y(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1.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Mouton.

________(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Zonneveld, W.(1978), *A Formal Theory of Exceptions in Generative Phonology*, Lisse: The Peter de Ridder Press.

【著者 略歷】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1986)

同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1988)

同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1994)

현재 仁荷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초판 1쇄 인쇄 1995년 10월 25일
초판 1쇄 발행 1995년 10월 30일

지은이 / 정 승 철
펴낸이 / 지 현 구
펴낸곳 / 태 학 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7
전화 (02) 299-6211~3
팩스 (02) 299-6213
등록 제2-284호(80.1.25)



1995 ⓒ정승철

ISBN 89-7626-105-4 93710 값 7,000원